

연구보고서 2022-39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변수정
오신휘·조성호·김은정·이혜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오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2-39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903-4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2.39>

발|간|사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의미하는 워라벨은 우리에게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한국인은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등으로 일 이외에 개인 생활이나 가족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과 생활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워라벨은 중요한 삶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뒤에는 성과주의 문화와 장시간 노동문화가 있었고, 따라서 개인 생활과 여가를 즐기거나 가족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보다 일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조사에서는 일과 가족이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족보다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실천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누구든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자 하고, 일과 삶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려 하지만 모두에게 일-생활 균형이 쉬운 것은 아니다. 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는 생애주기에 따라서 일-생활 균형의 실천 정도와 그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하다.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가족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다양해진 라이프스타일만큼 개인의 일-생활 균형을 돕기 위한 노력도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및 욕구를 확인하고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시간 사용과 일-생활 균형에 관계된 여러 조건과 환경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간 사용, 일,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여러 분야를 다차원적으로 파

악하고자 일-생활 균형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생성된 자료가 한국인의 일-생활 균형 정도와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욕구를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적절한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는 변수정 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수행되었고, 본원의 김은정 부연구위원, 오신힬 전문연구원, 이해정 부연구위원, 조성호 부연구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진행의 전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본원의 박종서 연구위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이선형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통계 자료 생성을 위해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자문을 해주신 여러 전문가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를 꼼꼼히 검토하고 조언해 주신 익명의 평가위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조사에 참여해 응답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만족스러운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일-생활 균형 이론적 검토 및 관련 기존 조사	49
제1절 일-생활 균형 정의 및 지표	51
제2절 일-생활 균형 관련 선행연구	54
제3절 일-생활 균형 관련 기존 조사 및 본 조사의 차별성	60
제3장 일하는 시간과 환경	77
제1절 일하는 시간	79
제2절 일하는 환경과 특성	90
제3절 소결	106
제4장 생활시간과 가사·돌봄 상황	109
제1절 생활시간	111
제2절 가사·돌봄 상황	124
제3절 소결	142

제5장 여가와 휴가·휴식	147
제1절 여가	149
제2절 휴가와 휴식	156
제3절 소결	184
제6장 일-생활 균형	187
제1절 일-생활 균형 전반	189
제2절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200
제3절 집단별 일-생활 균형 세부 분석	210
제4절 소결	239
제7장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247
제1절 유연근무제도	251
제2절 임신·출산 및 돌봄 관련 일-생활 균형 제도	269
제3절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욕구	288
제4절 소결	295
제8장 결론	299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301
제2절 시사점	330



참고문헌	343
부 록	349
[부록 1]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조사표	349
[부록 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분석표	402

표 목차

〈표 1-1〉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개요	21
〈표 1-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개요	21
〈표 1-3〉 모집단 세대 및 인구 분포	23
〈표 1-4〉 시도별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	24
〈표 1-5〉 시도별 19~59세 인구 분포	26
〈표 1-6〉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자 분포	28
〈표 1-7〉 시도별 15~59세 인구 중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자 분포	29
〈표 1-8〉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31
〈표 1-9〉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자 분포	32
〈표 1-10〉 표본 규모 산정	34
〈표 1-11〉 층별 표본규모: 비례배분	35
〈표 1-12〉 층별 표본규모: 제곱근비례배분	36
〈표 1-13〉 층별 표본규모: 네이만 배분	37
〈표 1-14〉 최종가중치 분포	41
〈표 1-15〉 층별 최종가중치 적용결과	42
〈표 1-16〉 사전조사 응답 소요 시간	43
〈표 1-17〉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접속자 및 참여자 현황	45
〈표 1-18〉 응답자 일반 특성	47
〈표 2-1〉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61
〈표 2-2〉 2019년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구성	63
〈표 2-3〉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설문지 구성	65
〈표 2-4〉 2021년 근로자 휴가조사 설문지 구성	67
〈표 2-5〉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설문지 구성	69
〈표 2-6〉 2020년 근로환경조사 설문지 구성	71
〈표 2-7〉 기존 일-생활 균형 관련 조사(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조사)	72
〈표 3-1〉 일하는 시간: 일자리 한 개	80
〈표 3-2〉 일하는 시간: 일자리 두 개 이상	82



〈표 3-3〉 희망하는 일하는 시간	86
〈표 3-4〉 휴게시간과 충분성	89
〈표 3-5〉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92
〈표 3-6〉 직속상관의 특성(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94
〈표 3-7〉 일할 때 감정(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취업자	97
〈표 3-8〉 일할 때 감정(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비취업자	99
〈표 3-9〉 일하는 여건 및 조건에 대한 중요 정도(중요한 편이다+매우 중요하다)	100
〈표 3-10〉 일하는 여건 및 조건에 대한 만족 정도(만족하는 편이다+매우 만족한다)	103
〈표 3-11〉 일자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105
〈표 4-1〉 일상생활시간 사용: 평일	112
〈표 4-2〉 일상생활시간 사용: 주말	114
〈표 4-3〉 일상생활시간의 충분 정도(충분한 편+매우 충분)	116
〈표 4-4〉 일상생활 중 시간 증가 희망 활동(1순위)	117
〈표 4-5〉 일상생활 중 시간 감소 희망 활동(1순위)	119
〈표 4-6〉 평소 시간 여유	120
〈표 4-7〉 하루 일과 후 피곤함 정도	121
〈표 4-8〉 피곤함을 느끼는 주된 활동 및 이유	123
〈표 4-9〉 가사 부담 비율	126
〈표 4-10〉 가사 일 빈도	128
〈표 4-11〉 가사 일에 대한 부담 정도	130
〈표 4-12〉 돌봄 대상 유무와 수	131
〈표 4-13〉 돌봄 부담 비율	133
〈표 4-14〉 돌봄 빈도	135
〈표 4-15〉 돌봄에 대한 부담 정도	137
〈표 4-16〉 돌봄 중 가장 어려운 부분(1순위)	139
〈표 4-17〉 돌봄을 대신 맡아 줄 사람 유무와 부탁할 대상	140
〈표 5-1〉 여가시간 활동(1순위): 주중	150

〈표 5-2〉 여가시간 활동(1순위): 주말	152
〈표 5-3〉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154
〈표 5-4〉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1순위)	155
〈표 5-5〉 지난 한해 연차휴가 일수	159
〈표 5-6〉 연차휴가에 대한 만족 정도	163
〈표 5-7〉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1순위)	166
〈표 5-8〉 연차휴가 사용의 용이·자율성(①,③: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②,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169
〈표 5-9〉 미사용 연차휴가 처리 방법	171
〈표 5-10〉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173
〈표 5-11〉 보상휴가제 실시 및 사용 여부	175
〈표 5-12〉 지난 한해 휴가 일수	177
〈표 5-13〉 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 정도	179
〈표 5-14〉 평소 휴식의 정도	182
〈표 5-15〉 휴식에 대한 생각(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183
〈표 6-1〉 일-생활 균형의 중요 정도	190
〈표 6-2〉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	192
〈표 6-3〉 일-생활 균형의 가장 어려운 점(1순위): 취업자	194
〈표 6-4〉 일-생활 균형의 가장 어려운 점(1순위): 비취업자	195
〈표 6-5〉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은 활동	197
〈표 6-6〉 거주지 환경 및 인프라(시설 및 서비스)의 일-생활 균형 유지에 대한 도움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199
〈표 6-7〉 일과 가족/개인 생활의 균형 실천(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201
〈표 6-8〉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생각(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204
〈표 6-9〉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생각(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	207
〈표 6-10〉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일-생활 균형 어려움이 나의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	208



〈표 6-11〉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성별	212
〈표 6-12〉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성별	213
〈표 6-13〉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성별	215
〈표 6-14〉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혼인상태별	217
〈표 6-15〉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혼인상태별	219
〈표 6-16〉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혼인상태별	222
〈표 6-17〉 기혼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자녀 유무별	224
〈표 6-18〉 기혼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자녀 유무별	226
〈표 6-19〉 기혼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자녀 유무별	228
〈표 6-20〉 양육자 조건별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전체	229
〈표 6-21〉 양육자 조건별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일하는 양육자	230
〈표 6-22〉 삶에 대한 만족 정도	231
〈표 6-23〉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성별	233
〈표 6-24〉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성별	233
〈표 6-25〉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혼인상태별	234
〈표 6-26〉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혼인상태	235
〈표 6-27〉 기혼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자녀 유무별	236
〈표 6-28〉 기혼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자녀 유무별	237
〈표 6-29〉 양육자 조건별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전체	238
〈표 6-30〉 양육자 조건별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일하는 양육자	238
〈표 7-1〉 주 52시간 근무제 인지 여부	250
〈표 7-2〉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여부(도입되었음)	252
〈표 7-3〉 유연근무제도의 이용 용이, 이용 경험 및 일-생활 균형에 도움	255
〈표 7-4〉 유연근무제도 이용의 가장 큰 이유	258
〈표 7-5〉 유연근무제도 이용의 어려움(1순위)	260
〈표 7-6〉 유연근무제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262
〈표 7-7〉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264

〈표 7-8〉 근무환경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에 대한 생각	267
〈표 7-9〉 임신·출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이용 용이 및 경험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난임치료 휴가제도	271
〈표 7-10〉 임신·출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이용 용이 및 경험 2: 태아검진시간 보장, 유산·사산휴가, 생리휴가	274
〈표 7-11〉 자녀 돌봄 제도에 대한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일-생활 균형에 도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278
〈표 7-12〉 가족 돌봄 제도에 대한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일-생활 균형에 도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휴직제도	281
〈표 7-13〉 최근 육아·양육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284
〈표 7-14〉 휴직 제도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	286
〈표 7-15〉 직장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 정도(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289
〈표 7-16〉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간 보장에 대한 생각	290
〈표 7-17〉 일하는 1인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필요 정도 (필요한 편+매우 필요함)	292
〈표 7-18〉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1순위)	294
〈표 8-1〉 혼인상태에 따른 취업자의 일-생활 사이 갈등 정도	323
〈부표 1〉 경제활동 여부	402
〈부표 2〉 일자리 개수(취업자)	403
〈부표 3〉 2개 이상의 일자리(직업)를 가지게 된 주된 이유(취업자)	404
〈부표 4〉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취업자/주된 일자리)	405
〈부표 5〉 정규직 여부(상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406
〈부표 6〉 시간제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407
〈부표 7〉 교대제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408
〈부표 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409



〈부표 9〉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주된 일자리)	410
〈부표 10〉 플랫폼 종사자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411
〈부표 11〉 플랫폼 종사자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주된 일자리)	412
〈부표 12〉 자유 활동가(프리랜서)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주된 일자리)	413
〈부표 13〉 근로 분야(취업자/주된 일자리)	414
〈부표 14〉 현재 일자리 직종(취업자/주된 일자리)	416
〈부표 15〉 현재 회사/조직(사업 또는 농업 활동 포함)의 속성(취업자/주된 일자리) ...	417
〈부표 16〉 현재 직장(사업체)의 인력 규모(취업자/주된 일자리)	418
〈부표 17〉 현재 직장(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비율(취업자/주된 일자리)	420
〈부표 18〉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취업자/주된 일자리)	421
〈부표 19〉 고용보험 가입 의사(취업자/주된 일자리/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아님)	422
〈부표 20〉 건강보험 가입 상태(취업자/주된 일자리)	423
〈부표 21〉 국민연금 가입 상태(취업자/주된 일자리)	424
〈부표 22〉 현재 주된 역할 또는 일(상태)(비취업자)	425
〈부표 23〉 최근 3년 이내 수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경험 및 일과 생활 병행의 어려움과 일 종료의 관련성(비취업자)	426
〈부표 24〉 배우자 경제활동 여부	427
〈부표 25〉 배우자 일자리 개수(취업 배우자)	428
〈부표 26〉 배우자가 2개 이상의 일자리(직업)를 가지게 된 주된 이유(취업 배우자)	429
〈부표 27〉 배우자의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취업 배우자/주된 일자리)	430
〈부표 28〉 배우자의 정규직 여부(상용근로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431
〈부표 29〉 배우자의 시간제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432
〈부표 30〉 시간제 근무 배우자의 주당 근로시간 형태(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배우자 /주된 일자리)	433
〈부표 31〉 배우자의 교대제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434
〈부표 32〉 배우자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배우자 /주된 일자리)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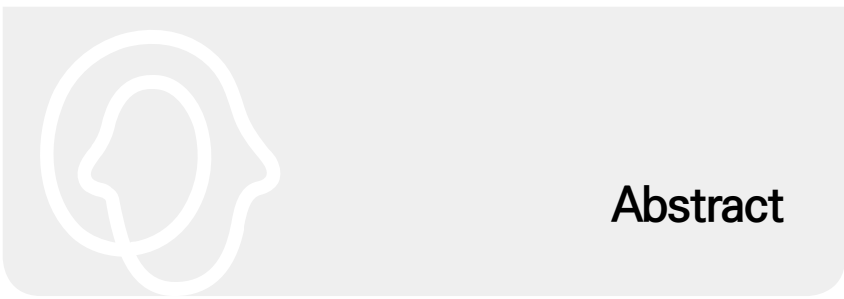
〈부표 33〉 배우자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배우자 /주된 일자리)	436
〈부표 34〉 배우자의 플랫폼 종사자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437
〈부표 35〉 배우자의 플랫폼 종사자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438
〈부표 36〉 배우자의 자유 활동가(프리랜서)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배우자 /주된 일자리)	439
〈부표 37〉 배우자 일자리의 산업(취업 배우자/주된 일자리)	440
〈부표 38〉 배우자 현재 일자리의 직종(취업 배우자/주된 일자리)	441
〈부표 39〉 배우자 현재 회사/조직(사업 또는 농어업 활동 포함)의 속성 (취업 배우자/주된 일자리)	442
〈부표 40〉 배우자의 현재 주된 역할 또는 일(상태)(비취업 배우자)	443
〈부표 41〉 배우자의 최근 3년 이내 수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경험 및 일과 생활 병행의 어려움과 일 종료의 관련성(비취업 배우자)	444
〈부표 42〉 휴(무)일 현황(취업자/주된 일자리)	445
〈부표 43〉 ‘월’ 기준 근로 현황(상용근로자/주된 일자리)	446
〈부표 44〉 ‘월’ 기준 근로 현황(임시근로자/주된 일자리)	447
〈부표 45〉 ‘월’ 기준 근로 현황(일용근로자/주된 일자리)	448
〈부표 46〉 ‘월’ 기준 근로 현황(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주된 일자리)	449
〈부표 47〉 ‘월’ 기준 근로 현황(프리랜서/주된 일자리)	450
〈부표 48〉 노동조합 가입 상황(상용·임시·일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451
〈부표 49〉 향후 근로 의향(비취업자)	452
〈부표 50〉 일을 한다면, 주된 이유(비취업자)	453
〈부표 51〉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1순위)	454
〈부표 52〉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2순위)	456
〈부표 53〉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3순위)	458
〈부표 54〉 가장 많이 돌보는 대상의 연령	460



〈부표 55〉 가장 많이 돌보는 대상의 장애 또는 질병 유무	461
〈부표 56〉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462
〈부표 57〉 현재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463
〈부표 58〉 현재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464
〈부표 59〉 지난 2주일 동안의 경험: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 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465
〈부표 60〉 지난 2주일 동안의 경험: 별일 아닌 것에 대해서도 눈물이 난다	466
〈부표 61〉 지난 2주일 동안의 경험: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	467
〈부표 62〉 지난 2주일 동안의 경험: 과수면 또는 불면증에 시달린다	468
〈부표 63〉 지난 2주일 동안의 경험: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	469
〈부표 64〉 일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취업자/주된 일자리)	470
〈부표 65〉 지난 1년 동안 쉬어야 할 정도로 아픔에도 일한 경험(취업자)	471
〈부표 66〉 지난 1년 동안 쉬어야 할 정도로 아픔에도 일한 주된 이유(취업자)	472
〈부표 67〉 임신·출산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임신부 시간외 근로 금지 등	473

그림 목차

[그림 1-1]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진행 방식	44
[그림 1-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일자별 진행률 추이	45
[그림 8-1] 일하는 시간	302
[그림 8-2] 현재 일하는 시간에 따른 희망 근로시간과 실제 휴게시간	303
[그림 8-3] 직속상관의 특징에 따른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	305
[그림 8-4] 개인소득과 일하는 시간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	306
[그림 8-5] 평일과 주말의 성별 시간 사용	307
[그림 8-6] 가사 분담 비율	309
[그림 8-7] 돌봄 분담 비율	310
[그림 8-8] 성별과 돌봄 대상자에 따른 돌봄 중 어려운 부분	312
[그림 8-9]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생활 균형 만족도	317
[그림 8-10] 취업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생활 균형 어려운 점	318
[그림 8-11] 비취업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생활 균형 어려운 점	318
[그림 8-12] 자녀 수에 따른 일-생활 균형 실천(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319
[그림 8-13] 성별에 따른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322
[그림 8-14] 혼인상태에 따른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324
[그림 8-15] 양육자 조건에 따른 일-생활 균형 만족도	326



Abstract

2022 work-life balance surveys

Project Head: Byoun, So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necessary data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work-life balance in Korean society. Unlike previous surveys, this study was covering various aspects of work-life balance and targeting the individual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we covered as many diverse subjects and groups as possible. In particular, this survey has expanded the meaning of “work” by including the unemployed people, who would not care about the work-life balance research, but could consider and respond to the activities such as study, training, housework, or care, as their “work”. Our surveys were including both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working and non-working, married and single, in a large-scale for targeting 22,000 adults aged 19 to 59 across the country for analyses in detail and by group later. By the surveys, we tried to generate the data for improving the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surveys of work and life, main areas of our investigations are: Economic activities and jobs, working hours and environment, job satisfaction, daily time usage, housework and care, leisure and rest, work-life balance, and practical use and

Co-Researchers: Oh, Shinhwee · Cho, Sung-ho · Kim, Eun-jung · Lee, Hyejung

experience of related policies.

Results of the surveys showed that working hours, break times, vacations and rest should be definitely guarante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use of policies and workers' work-life balance were affected by the atmosphe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workplace. We recognized that the work stress was shifting over to the personal life or the family life. Work-life balance seem relatively difficult to keep for the people in their 30s and 40s, who are likely to work a lot and raise children. It was emphasized that more reliable support is needed for the working caregivers, and that the environment is also important where men and women could receive equal benefits from support. Furthermore, work-life balance for women and the unemployed requires more attention than now. In particular, work-life balance becomes difficult when there are children, as the burden increases for women in the family by spending a lot of time on housework or caring. Discussions on working female caregivers must continue and, at the same time, the non-employed should be included in the work-life balance discussions even if they do not work. Furthermore, following this study, future investigations and studies should be intensively conducted to eliminate blind spots in the policy benefits such as use of parental leave by the self-employed or workers at small businesses.

Keyword : work, life, balanc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장시간 일하는 사회이다. 주어진 시간을 일에 할애하다 보면, 개인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시간은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남성뿐 아니라 여성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족 내 돌봄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모두가 누리는 일-생활 균형으로 논의가 발전·확장되어 진행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의 생활이 다양화되고 라이프 스타일의 다변화로 모든 개인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일-가족 양립 논의의 중심이었던, 자녀가 있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의 일-생활 균형 대부분 연구에서도 집중 대상인 것은 여전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조사는 부족하고, 일-생활 균형 제도 사용 파악을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기존의 조사와 달리 일-생활 균형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대상과 집단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의 의미를 확대하여 비취업자가 주로 하는 학업·훈련이나 가사 및 돌봄 등의 활동을 일로 생각하여 조사에 포함하였다. 즉, 취업자와 비취업자, 맞벌이와 비맞벌이, 기혼과 미혼 등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추후 세부 분석이나 집단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전

국 성인 만 19~59세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적 환경 마련 및 개선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1) 일하는 시간 및 환경

취업자의 실제 일하는 시간은 주당 약 41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하는 일하는 시간은 주당 약 37시간으로 나타나 현실과 희망 사이에 4시간 정도 차이가 있었다. 장시간 일하는 집단일수록 현재 일하는 평균 시간과 희망하는 평균 일하는 시간 사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휴게 시간은 하루 평균 약 65분이었는데, 일하는 시간이 긴 집단에서는 휴게 시간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짧았다.

일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자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속상관의 유연성으로 직장의 분위기를 활용해 알아본 결과, 유연성이 높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근무시간 및 장소 조정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생활시간과 가사 및 돌봄 환경

평일에는 수면시간과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주말이 되면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수면이나 휴식 및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제외한 가사와 돌봄활동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평일보다 주말에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또한, 평일과 주말 사이

가사와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이 가사와 돌봄활동에 주된 시간을 뚜렷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사와 돌봄에 대한 부담 역시 여성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돌봄 역할 수행에서 자녀가 1명일 때 매일 돌봄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주로 돌보는 대상이 자녀일 때는 신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 외 대상은 심리적인 부분이 더 힘든 부분으로 나타나 주된 돌봄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어려운 부분도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3) 여가 및 휴가와 휴식

여가생활 중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구소득에 따라 여가생활 만족 정도가 달랐으며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원하는 여가생활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보였다.

연차휴가는 부여된 만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사용한 휴가는 연평균 약 11일 정도였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실제 사용한 휴가가 약 4일로 매우 짧고 휴가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4) 일-생활 균형

대부분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는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측면에서 일을 많이 하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큰 30대와 40대가 일

-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낮았다. 일-생활 균형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장시간 일하는 문화 때문에 어렵다는 응답은 30대 집단,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남성과 20~30대,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많았다. 여성과 30~40대 집단,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사 및 육아에 따른 자율시간과 체력 부족의 이유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집단과 가사 및 육아 때문에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이 구분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도 30대 집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연령대임을 엿볼 수 있다. 비취업자(학습 및 훈련이나 돌봄 및 가사 등을 일로 봄)의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일의 양이 과반을 차지해, 주로 하는 활동을 일로 보면 취업하지 않아도 일의 양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자의 1/3 이상이 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 사이에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일과 생활 사이에 스트레스가 전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일-생활 사이 충돌을 더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석을 통해 성별, 혼인상태, 자녀 유무 조건, 양육자 조건에 따라 일-생활 균형 실천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생활 균형 정도는 삶에 대한 만족 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만큼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해 다양한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5) 일-생활 균형 제도와 욕구

유연근무제 도입과 이용 용이성, 그리고 실제 사용 경험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제도가 유연근무제도 보다 이용 용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도입 또는 인지, 이용 용이성, 이용 경험에서 특성별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유연근무제는 주로 남성,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종사자,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도입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이 대상이 되는 제도가 다수 있는데,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종사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정부와 공공기관,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인지뿐만 아니라 이용 용이성과 이용 경험에서도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돌봄 관련 제도는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종사자, 보건업 및 보건복지·교육 서비스업, 정부와 공공기관,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인지뿐만 아니라 이용 용이성과 이용 경험도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는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종사자, 정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인지할 가능성이 크고,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일하는 양육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선호하는 방식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조정해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일하는 1인 양육자(한부모)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높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 임금근로자 이외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등 사각지대 없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자면, 우선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시간 동안 일을 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일로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집단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휴가 및 휴식 보장도 중요할 것이다.

일하는 곳의 분위기와 조직문화의 중요성은 반복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사내 눈치로 제도 사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고,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유연성은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유연한 조직문화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일의 영역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 파악 이외에 개인과 가족 등의 일-생활 균형을 위협하는 원인 파악 또한 중요하다. 가족 돌봄에 있어서는 대상이 누구인지, 돌보는 자녀의 조건이 어떠한지 등이 중요해 보인다. 특히 돌보는 대상이 자녀이면 신체적으로 힘들지만, 부모 등의 돌봄은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등, 돌봄 대상에 따른 어려움이 달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생애주기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큰 30대와 40대의 일-생활 균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였다. 일하는 양육자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의 혜택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받는 환경 또한 중요하다.

여성과 비취업자에 대한 일-생활 균형은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일-생활 균형이 어려워지고, 가족 내 여성이 가사나 돌봄에 대해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 부담이 증가한다. 일하는 여성 양육자와 일하지 않아서 일-생활 균형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던 집단에 대해 필

요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과 가족이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획일화된 제도는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제도나 더욱 우선해야 하는 정책 시행 등 지역 맞춤형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정책에서 가장 요구되는 측면은 근무시간 유연성, 그리고 임금근로자 및 영세사업자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등 제도 혜택에 있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자영업자 및 예술인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주요 용어: 일, 생활, 균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는 한순간도 시간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며,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누구는 시간이 많다고 하고 다른 누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는 각자 시간활용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시간활용의 내용을 현대 사회의 개인(성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크게 일, 여가, 돌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경희, 2016). 각기 다른 개인의 삶도 시간 배분의 큰 기준은 결국 일 영역과 생활 영역 사이에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이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일 영역과 생활 영역에 대한 시간 분배를 잘해서 한정된 시간을 잘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사회에 속한 개인일수록 이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희망과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가진 사회로 알려져 있다. 과거보다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근로시간이 긴 편에 속한다. 한국의 2021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국가의 노동시간 평균이 약 1,716시간인 것과 비교해도 더 길어,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와 칠레(1,916시간)에 이어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이다(OECD, Stat Website, 2022. 10. 24. 인출). OECD의 일-생활 균형의 지표로 활용되는 장시간 근로자(주당 50시간 이상 근로)의 비율에서 한국은 OECD 국가의 평균인 10%보다 높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다(OECD Better

Life Index Website, 2022. 6. 17. 인출).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길어서 생활 및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구조에 있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회도 노동시장 변화와 주 52시간 실시, 또는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관심 등이 높아지면서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개개인의 생활에서도 맞벌이 가족의 증가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직장파와 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일과 개인·가족생활에 동등한 무게를 두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2019년 '일·가정 양립 지표'에서도 처음으로 일과 가족생활을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 비율이 일을 우선시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통계청, 2019a)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의 일-생활 균형 논의는 일-가족 양립 혹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최근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의 시작은 저출산 현상의 관점에서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가족) 양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의 대응 차원으로 시작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분야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추진 내용은 '모성보호 강화'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0). 한국은 가족 내 여성의 돌봄자 역할 등 전통적인 성역할 때문에 여성의 일-생활 균형이 쉽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전통적 성역할로 인한 차별 개선,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강조 등 성평등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그동안의 불평등했던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맞벌이 상황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일-생활 균형 실천이 여성에게 더 어려운 일로 남아있다. 일하는 기혼 여성 중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5%로 과반이 어려움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 또한 최근 조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일-생활 균형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박종서 외, 2021) 일-생활 균형에 성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을 하며 돌봄을 하는 등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족 내 가사·돌봄 노동이 여성에서 집중되어 있던 환경에서 돌봄 노동의 가치나 대가에 대한 인정은 충분하지 않았다. 남성은 밖에서 돈을 벌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돌봄자 역할을 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여성의 가족 내 노동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내 가사·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경우는 경제활동 분류상 비경제활동에 속해 무급가사·돌봄 노동자는 일-생활 균형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족 내 돌봄은 노동의 강도나 시간 측면에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업자와 똑같이 일-생활 균형에서도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저출산 현상의 관점에서 일-가정(가족) 양립을 강조하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목표가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되면서 모두의 일과 생활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1). 물론 관련 정책의 대상이 대부분 근로자이기 때문에, 추진 내용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근로자가 대상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관련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나 비경제활동 인구 모두를 포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생활 균형을 개인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근의 일-생활 균형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일자리의 다양성으로 인해 고용 형태, 정해

진 근로시간의 양이나 일하는 시간대, 일하는 장소 등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요인들이 매우 다양해진 상태이다. 일뿐만 아니라 삶 또한 다양하므로 현재 한국 사회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조건 및 집단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포괄적인 내용과 대상을 다루는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은 특정 대상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불평등과 박탈감이나 사각지대의 문제 해소와도 관련되어 있어 더욱 중요하다. 나아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배치 파악만이 아니라 일과 생활 속의 여러 활동에 대한 시간 사용 조절 욕구 등도 함께 파악하여, 일-생활 균형을 이해하는 것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과 생활의 다양화 및 그 균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개인의 일-생활 균형 실태나 욕구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가정 양립실태조사’가 있으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사업체의 제도 활용 현황이나 특성 파악에만 집중하고 있다. 응답자가 사업체의 인사담당자이기 때문에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개인의 실태나 특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이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주요 행동에 따른 시간을 상세히 조사한다. 하지만, 종사하는 일의 특성이나 근로환경 특성, 또는 관련 제도 이용이나 욕구, 일과 가족·개인 생활에 관한 생각 등과 같이 일-생활 균형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은 부족한 자료이다. 그 외 자료들은 일에 대해 집중한 조사, 또는 여가에 대해 집중한 조사이거나, 맞벌이 가족, 아동 양육기, 여성 중심 등 특정 조건에서의 일-생활 균형을 다루고 있어서 일-생활 균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그 규모나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 사회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두의 일-생활 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특수한 상황이 아닌 다양한 세대와 생애주기가 포함된 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자료를 통해 세부 분석이나 집단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여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기초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거나 집중적으로 몰두하는 일이 있는 경우라면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 및 가족 돌봄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은 일-생활 균형에 있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고, 특히 성별 격차 등이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활용을 통해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실태는 물론이고, 가장 어려운 시기·조건으로 대표되는 아동 및 가족 돌봄 상황도 면밀히 파악한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 조사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제한이 있지만, 주로 하는 활동을 ‘일’로 간주해 조사하고 관련 생각 등 조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취업자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조사와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한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실천 및 어려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활용 실태나 욕구 파악 등이 가능한 조사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방향 설정과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조건에 대한 정책적 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최근 한국인의 일-생활 균형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는 것에 일차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집단 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실태를 파악한다. 취업한 경우와 취업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제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각 장의 주제와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기존 조사를 검토하여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지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간략히 검토한 후, 이번 조사에서 중요하게 참고한 기존 조사를 살펴본다.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일-생활 균형 파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한다.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환경을 위주로 하여 취업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일하는 시간은 부업이 있는 경우 주업과 부업의 일하는 시간을 구분해 파악한다. 일하는 환경은 주로 조직 내 분위기나 자율성, 휴게시간과 충분성 등을 알아본다.

제4장은 생활시간과 가사 및 돌봄 상황을 파악한다. 이 장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개개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떠한 활동으로 사용하는지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알아본다. 늘리거나 줄이고 싶은 시간, 평소 시간의 충분성 등도 함께 살펴본다. 가사와 돌봄에 대한 상황은 가사 분담 비율, 가사 일의 부담 정도, 돌봄 역할 여부, 돌봄 분담 비율 및 부담 정도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제5장은 여가와 휴가 및 휴식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모두를 대상으로 어떠한 여가 활동을 하는지, 여가에 대해 만족하는지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휴가는 취업자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와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 만족도, 연차휴가 미사용 이유 등을 파악하며,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획한 휴가 일수와 실제 사용 일수 및 만족도를 알아본다. 휴식에 대해서는 모두를 대상으로 파악하는데, 평소 휴식에 대한 만족 정도나 휴식이 삶과 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본다.

제6장은 이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인 일-생활 균형에 대한 부분이다. 모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에 관한 생각,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정도 등을 살펴본 후, 취업자 집단에 대해 일과 생활 사이 갈등이나 충돌, 일과 생활 사이 스트레스 전이 등 일-생활 균형 실천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세부 집단 분석을 시행한다.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정도에 대해 성별이나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또한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나누어 그 안에서 성별과 혼인상태별 차이를 파악해 본다.

제7장은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인지, 사용 경험, 도움 정도 또는 욕구를 파악한다. 시간이나 장소의 유연성과 관련된 유연근무제도와 일-생활 균형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인 임신 및 출산 그리고 돌봄 상황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사용 경험이 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이유 등도 파악한다. 또한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제도적 욕구를 파악한다. 마지막 제8장은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양적 조사를 주로 하는 연구이다. 양적 연구 방법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그 외에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이 활용된다. 조사의 필요성 논의와 일-생활 균형 정의 및 지표 검토, 기존 연구 검토를 위해 행정통계 자료 이용과 선행연구 검토 등 문헌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의 관련 조사 검토를 위해서도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다.

이 연구는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가 중심인 연구로, 조사의 개요 및 표본설계와 구체적인 조사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개요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시행하였다. 조사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제2022-085호)을 완료하였으며, 조사는 2022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조사에 앞서 2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전조사를 통해 평균 응답 소요 시간 및 응답 시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여 조사의 신뢰도 및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표 1-1〉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표 모집단	2022년도 7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전체 국민
조사 모집단	2022년도 7월 기준 만 19~59세 이하 주민등록 인구
표본 크기	22,000명
추출 틀	2022년 7월 기준 (주)엠브레인 온라인 패널 가입자 리스트
표본배분	제공된 비례배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2년 9월 20일~10월 7일
조사 내용	경제활동 및 일자리, 근로시간·환경 및 만족도, 생활시간 및 가사·돌봄, 여가 및 쉼, 일-생활 균형, 삶의 만족 및 건강과 가족 형성·가치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등
조사 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자료: 저자 작성.

나.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일과 생활에 대한 영역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조사 영역을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과 일자리, 근로시간과 환경 및 만족 정도, 생활시간 및 가사와 돌봄 환경, 여가 및 쉼,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인지·이용 용이성·이용 경험 및 제도적 욕구와 일반사항을 조사하였다. 각 영역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개요

영역	내용
A. 경제활동 및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여부, 일자리 개수 및 정기성, 비취업자의 주된 일 등 • 일자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상 지위, 취업 형태, 일자리 부문, 일자리 규모 등 •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특성

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영역	내용
B. 근로시간·환경 및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희망 근로시간, 근로시간 특성, 휴게시간 및 충분성 등 • 근로환경 특성 및 일에 대한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 직속상관의 특성, 일자리 조건 및 만족도, 일할 때 감정 등
C. 생활시간 및 가사·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별 시간 활용 및 충분성, 줄이거나 늘리고 싶은 시간, 시간에 대한 느낌, 피곤함 등 • 가사 및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상황, 가사일 분담 및 부담 정도, 돌봄 대상, 돌봄 분담 및 빈도와 부담 정도, 돌봄의 어려움 등
D. 여가 및 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시간 활용, 여가생활 만족 및 중요도 •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 일수 및 만족, 휴가 사용 환경, 미사용 휴가 처리 등 •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의 충분성, 휴식의 삶과 일에 미치는 영향 등
E. 일-생활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 균형 중요도 • 일 생활 균형 만족도 및 어려움 • 일-생활 균형 실천 및 양육과 병행에 대한 생각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역환경의 도움 정도 • 배우자의 일-생활 균형과 영향
F. 삶의 만족 및 건강과 가족 형성·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 주관적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우울 •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가족 형성 및 성역할 가치관 등
G.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2시간 근무제도 인지 • 유연근무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도입 여부, 이용 용이 정도,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제도 이용 이유 및 이용의 어려움 등 • 임신·출산 및 육아·가족돌봄 관련 일-생활 균형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인지, 이용 용이 정도, 이용 경험 등 • 일-생활 균형 제도 발전에 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돌봄 보장에 관한 생각, 1인 양육자(한부모) 지원에 관한 생각, 일-생활 균형 제도의 개선점 등
일반사항	성별, 연령, 지역, 혼인, 학력, 소득, 주관적 계층 등

자료: 저자 작성.

다. 표본설계 및 가중치

1) 모집단 분석

2022년 7월 기준 주민등록 세대수는 23,699,750세대이며, 이중 지역별 비중을 파악해 보면 경기도가 2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이 18.9%이며, 수도권이 49.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를 파악한 결과 인구수는 51,574,446명이었으며, 이중 남성은 49.8%, 여성은 5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인구비율이 전체의 26.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이 18.4%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비율은 50.5%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5.8%로 가장 비중이 높고, 50대가 16.8%, 40대가 15.8%의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파악한 결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 모집단 세대 및 인구 분포

(단위: 세대, 명)

지역	세대수	총인구수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전국	23,699,750	51,574,446	25,708,650	25,865,796
서울	4,469,392	9,493,211	4,604,405	4,888,806
부산	1,558,052	3,334,595	1,629,643	1,704,952
대구	1,071,366	2,374,120	1,168,845	1,205,275
인천	1,317,046	2,960,580	1,482,177	1,478,403
광주	650,708	1,434,703	709,305	725,398
대전	671,127	1,448,182	722,366	725,816
울산	485,759	1,114,753	572,615	542,138
세종	158,495	380,889	190,038	190,851
경기	5,904,582	13,589,362	6,840,138	6,749,224
강원	754,257	1,539,178	774,387	764,791

24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지역	세대수	총인구수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충북	770,205	1,597,163	811,286	785,877
충남	1,013,955	2,121,011	1,085,037	1,035,974
전북	854,552	1,776,949	884,164	892,785
전남	908,240	1,825,534	918,956	906,578
경북	1,285,289	2,612,016	1,317,139	1,294,877
경남	1,515,978	3,293,709	1,658,198	1,635,511
제주	310,747	678,491	339,951	338,540

주: 2022년 7월 기준.

자료: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웹사이트]. (2022. 9. 2.).

2)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웹사이트]. (2022. 9. 2.).

전체인구의 연령별·시도별 분포는 <표 1-4>와 같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총인구에서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약간 더 많은데 연령별로 60대 이상에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고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모두 남성의 인구가 여성의 인구보다 많다. 시도별 인구 분포를 보면, 경기도에는 전체인구의 26.4%, 서울에는 18.4%가 분포하여 약 45%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해 있다.

<표 1-4> 시도별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합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국	총인구	51,574,446	3,624,681	4,696,767	6,531,636	6,647,003	8,134,712	8,651,892	13,287,755
	남자	25,708,650	1,857,381	2,422,281	3,423,973	3,439,955	4,131,099	4,375,828	6,058,133
	여자	25,865,796	1,767,300	2,274,486	3,107,663	3,207,048	4,003,613	4,276,064	7,229,622
서울	총인구	9,493,211	561,651	752,130	1,411,442	1,430,515	1,468,788	1,507,446	2,361,239
	남자	4,604,405	288,438	384,784	676,526	714,705	726,767	742,841	1,070,344
	여자	4,888,806	273,213	367,346	734,916	715,810	742,021	764,605	1,290,895
부산	총인구	3,334,595	211,960	265,244	404,464	400,134	499,292	549,731	1,003,770
	남자	1,629,643	108,724	136,440	209,148	205,399	251,966	268,352	449,614
	여자	1,704,952	103,236	128,804	195,316	194,735	247,326	281,379	554,156

구분		합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구	총인구	2,374,120	161,775	217,375	301,782	281,414	368,010	417,484	626,280
	남자	1,168,845	82,889	112,753	160,170	148,438	181,763	204,329	278,503
	여자	1,205,275	78,886	104,622	141,612	132,976	186,247	213,155	347,777
인천	총인구	2,960,580	211,842	270,973	383,741	402,942	482,412	512,005	696,665
	남자	1,482,177	108,582	139,230	200,010	209,106	247,240	255,816	322,193
	여자	1,478,403	103,260	131,743	183,731	193,836	235,172	256,189	374,472
광주	총인구	1,434,703	109,608	150,856	201,819	178,529	235,238	237,542	321,111
	남자	709,305	56,253	78,057	105,236	91,621	116,976	117,925	143,237
	여자	725,398	53,355	72,799	96,583	86,908	118,262	119,617	177,874
대전	총인구	1,448,182	104,279	140,345	206,213	188,095	229,074	239,834	340,342
	남자	722,366	53,509	72,569	108,168	98,777	114,011	119,860	155,472
	여자	725,816	50,770	67,776	98,045	89,318	115,063	119,974	184,870
울산	총인구	1,114,753	87,935	109,438	132,982	141,620	182,689	206,005	254,084
	남자	572,615	45,115	57,476	75,058	75,827	93,563	104,201	121,375
	여자	542,138	42,820	51,962	57,924	65,793	89,126	101,804	132,709
세종	총인구	380,889	46,705	47,700	38,928	61,430	75,615	50,972	59,539
	남자	190,038	23,771	24,020	19,973	29,985	38,003	26,744	27,542
	여자	190,851	22,934	23,680	18,955	31,445	37,612	24,228	31,997
경기 도	총인구	13,589,362	1,064,380	1,325,056	1,766,235	1,883,688	2,293,537	2,294,241	2,962,225
	남자	6,840,138	544,417	679,927	931,789	977,263	1,166,944	1,161,915	1,377,883
	여자	6,749,224	519,963	645,129	834,446	906,425	1,126,593	1,132,326	1,584,342
강원 도	총인구	1,539,178	98,196	132,467	172,308	161,042	218,144	264,126	492,895
	남자	774,387	50,272	68,773	96,881	85,124	111,271	136,460	225,606
	여자	764,791	47,924	63,694	75,427	75,918	106,873	127,666	267,289
충북	총인구	1,597,163	112,434	145,734	191,115	188,410	237,335	269,970	452,165
	남자	811,286	57,463	75,531	106,376	101,620	122,819	139,106	208,371
	여자	785,877	54,971	70,203	84,739	86,790	114,516	130,864	243,794
충남	총인구	2,121,011	156,295	201,180	233,854	254,853	327,444	341,597	605,788
	남자	1,085,037	79,962	104,278	129,685	137,721	174,264	181,387	277,740
	여자	1,035,974	76,333	96,902	104,169	117,132	153,180	160,210	328,048
전북	총인구	1,776,949	114,012	167,990	201,839	178,183	257,027	299,660	558,238
	남자	884,164	58,408	86,912	109,562	92,222	131,740	155,833	249,487
	여자	892,785	55,604	81,078	92,277	85,961	125,287	143,827	308,751
전남	총인구	1,825,534	118,585	161,490	189,261	174,375	250,748	313,120	617,955
	남자	918,956	60,551	83,392	106,029	91,663	133,326	168,856	275,139
	여자	906,578	58,034	78,098	83,232	82,712	117,422	144,264	342,816
경북	총인구	2,612,016	170,381	220,353	266,794	272,561	373,764	452,782	855,381
	남자	1,317,139	87,649	115,723	151,594	146,339	194,321	235,138	386,375
	여자	1,294,877	82,732	104,630	115,200	126,222	179,443	217,644	469,006
경남	총인구	3,293,709	238,327	317,889	349,805	369,202	523,873	578,574	916,039
	남자	1,658,198	122,453	165,664	195,850	193,874	269,003	296,383	414,971
	여자	1,635,511	115,874	152,225	153,955	175,328	254,870	282,191	501,068

26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구분		합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제주	총인구	678,491	56,316	70,547	79,054	80,010	111,722	116,803	164,039
	남자	339,951	28,925	36,752	41,918	40,271	57,122	60,682	74,281
	여자	338,540	27,391	33,795	37,136	39,739	54,600	56,121	89,758

주: 2022년 7월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웹사이트]. (2022. 9. 2.).

전체인구 중 만 19~59세 연령대별로 한정하여 성별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였다. 만 19~59세 인구를 각 연령대로 나누어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각 연령대에서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만 19~59세 남성 인구 중 50대는 28.0%, 40대는 26.4%, 30대는 22.0%, 20대는 21.9%였고, 만 19~59세 여성 인구 중 50대는 28.8%, 40대는 27.0%, 30대는 21.6%, 20대는 21.0%로 연령이 상승할수록 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만 19~59세 연령대 분포를 파악해 보면, 경기도가 27.3%로 가장 높고, 서울이 19.4%의 순으로 수도권이 52.8%로 전체인구 분포보다 수도권 비중이 해당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5〉 시도별 19~59세 인구 분포

(단위: 명)

구분		합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전국	총인구	30,449,387	484,144	6,531,636	6,647,003	8,134,712	8,651,892
	남자	15,622,067	251,212	3,423,973	3,439,955	4,131,099	4,375,828
	여자	14,827,320	232,932	3,107,663	3,207,048	4,003,613	4,276,064
서울	총인구	5,902,550	84,359	1,411,442	1,430,515	1,468,788	1,507,446
	남자	2,902,836	41,997	676,526	714,705	726,767	742,841
	여자	2,999,714	42,362	734,916	715,810	742,021	764,605
부산	총인구	1,881,577	27,956	404,464	400,134	499,292	549,731
	남자	949,304	14,439	209,148	205,399	251,966	268,352
	여자	932,273	13,517	195,316	194,735	247,326	281,379

구분		합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대구	총인구	1,392,286	23,596	301,782	281,414	368,010	417,484
	남자	707,108	12,408	160,170	148,438	181,763	204,329
	여자	685,178	11,188	141,612	132,976	186,247	213,155
인천	총인구	1,808,548	27,448	383,741	402,942	482,412	512,005
	남자	926,341	14,169	200,010	209,106	247,240	255,816
	여자	882,207	13,279	183,731	193,836	235,172	256,189
광주	총인구	869,214	16,086	201,819	178,529	235,238	237,542
	남자	440,136	8,378	105,236	91,621	116,976	117,925
	여자	429,078	7,708	96,583	86,908	118,262	119,617
대전	총인구	878,162	14,946	206,213	188,095	229,074	239,834
	남자	448,504	7,688	108,168	98,777	114,011	119,860
	여자	429,658	7,258	98,045	89,318	115,063	119,974
울산	총인구	673,640	10,344	132,982	141,620	182,689	206,005
	남자	354,274	5,625	75,058	75,827	93,563	104,201
	여자	319,366	4,719	57,924	65,793	89,126	101,804
세종	총인구	230,509	3,564	38,928	61,430	75,615	50,972
	남자	116,492	1,787	19,973	29,985	38,003	26,744
	여자	114,017	1,777	18,955	31,445	37,612	24,228
경기도	총인구	8,371,747	134,046	1,766,235	1,883,688	2,293,537	2,294,241
	남자	4,307,562	69,651	931,789	977,263	1,166,944	1,161,915
	여자	4,064,185	64,395	834,446	906,425	1,126,593	1,132,326
강원도	총인구	829,765	14,145	172,308	161,042	218,144	264,126
	남자	437,118	7,382	96,881	85,124	111,271	136,460
	여자	392,647	6,763	75,427	75,918	106,873	127,666
충북	총인구	901,650	14,820	191,115	188,410	237,335	269,970
	남자	477,700	7,779	106,376	101,620	122,819	139,106
	여자	423,950	7,041	84,739	86,790	114,516	130,864
충남	총인구	1,177,347	19,599	233,854	254,853	327,444	341,597
	남자	633,300	10,243	129,685	137,721	174,264	181,387
	여자	544,047	9,356	104,169	117,132	153,180	160,210
전북	총인구	954,359	17,650	201,839	178,183	257,027	299,660
	남자	498,643	9,286	109,562	92,222	131,740	155,833
	여자	455,716	8,364	92,277	85,961	125,287	143,827
전남	총인구	944,000	16,496	189,261	174,375	250,748	313,120
	남자	508,630	8,756	106,029	91,663	133,326	168,856
	여자	435,370	7,740	83,232	82,712	117,422	144,264
경북	총인구	1,387,750	21,849	266,794	272,561	373,764	452,782
	남자	739,109	11,717	151,594	146,339	194,321	235,138
	여자	648,641	10,132	115,200	126,222	179,443	217,644
경남	총인구	1,851,974	30,520	349,805	369,202	523,873	578,574
	남자	971,518	16,408	195,850	193,874	269,003	296,383
	여자	880,456	14,112	153,955	175,328	254,870	282,191

구분		합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제주	총인구	394,309	6,720	79,054	80,010	111,722	116,803
	남자	203,492	3,499	41,918	40,271	57,122	60,682
	여자	190,817	3,221	37,136	39,739	54,600	56,121

주: 2022년 7월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웹사이트]. (2022. 9. 2.).

다음의 <표 1-6>, <표 1-7>, <표 1-8>, <표 1-9>에서는 2020년 기준 인구총조사 표본 20%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인구, 혼인상태, 교육정도 등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분포를 파악한 내용이다.

<표 1-6>은 2020년 기준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표본 20% 추계자료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15세 이상 인구 43,971,375명 중 25,839,568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58.7%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동(洞)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1%, 읍·면부는 19%로서 대도시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 여성은 43%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자 분포

(단위: 명)

구분	계	동(洞)부		읍·면부	
		남	여	남	여
전국	25,839,568	11,874,428	9,079,883	2,881,374	2,003,883
서울	4,922,176	2,679,464	2,242,712	0	0
부산	1,571,736	841,839	650,752	46,331	32,814
대구	1,126,570	571,593	429,521	75,719	49,737
인천	1,491,696	833,925	615,676	23,975	18,120
광주	706,099	397,329	308,770	0	0
대전	731,678	416,761	314,917	0	0
울산	547,938	272,575	168,652	65,707	41,004
세종	178,265	71,016	56,302	30,589	20,358
경기	6,821,429	3,270,697	2,417,753	686,524	446,455
강원	777,948	253,255	203,863	184,545	136,285
충북	825,214	267,354	203,503	212,355	142,002

구분	계	동(洞)부		읍·면부	
		남	여	남	여
충남	1,097,633	299,236	215,643	349,895	232,859
전북	870,022	343,656	266,521	148,462	111,383
전남	900,132	225,619	159,231	291,937	223,345
경북	1,284,245	386,952	276,490	365,307	255,496
경남	1,633,692	608,031	433,909	342,156	249,596
제주	353,095	135,126	115,668	57,872	44,429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총조사인구(2015년 이후)-표본(20%)부문(2020년)-경제활동(20%표본)-성별/연령별/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 이상)-시도. [웹사이트. (2022. 9. 2.).

〈표 1-7〉은 2020년 기준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표본 20% 추계자료로 15세~59세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파악해 보면 40대가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가 28.8%, 30대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파악해 보면 남성의 40대가 30%, 50대가 29.6%, 30대 25.2%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40대 28.1%, 50대 27.7%, 30대 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자 남성이 14.7%인 반면 여성은 20%로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7〉 시도별 15~59세 인구 중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자 분포

(단위: 명)

구분	성별	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전국	계	21,553,587	148,593	3,661,954	5,253,107	6,293,224	6,196,709
	남자	12,165,660	64,876	1,785,536	3,067,261	3,652,853	3,595,134
	여자	9,387,927	83,717	1,876,418	2,185,846	2,640,371	2,601,575
서울	계	4,202,951	29,091	828,716	1,157,950	1,133,964	1,053,230
	남자	2,230,497	11,801	355,305	624,868	640,104	598,419
	여자	1,972,454	17,290	473,411	533,082	493,860	454,811
부산	계	1,283,850	7,610	216,073	304,456	370,694	385,017
	남자	710,203	3,207	100,635	175,512	213,345	217,504
	여자	573,647	4,403	115,438	128,944	157,349	167,513
대구	계	954,372	5,384	152,400	215,319	283,595	297,674
	남자	538,991	2,339	73,433	128,567	162,758	171,894
	여자	415,381	3,045	78,967	86,752	120,837	125,780

30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구분	성별	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인천	계	1,268,200	9,102	223,230	306,100	365,332	364,436
	남자	718,307	4,110	107,889	181,209	213,931	211,168
	여자	549,893	4,992	115,341	124,891	151,401	153,268
광주	계	611,273	4,298	103,586	140,698	188,696	173,995
	남자	339,926	1,853	48,849	81,172	106,998	101,054
	여자	271,347	2,445	54,737	59,526	81,698	72,941
대전	계	630,019	4,775	119,572	148,412	182,037	175,223
	남자	353,813	1,964	58,497	87,185	104,285	101,882
	여자	276,206	2,811	61,075	61,227	77,752	73,341
울산	계	474,302	2,057	70,941	112,694	141,054	147,556
	남자	290,557	1,042	38,611	71,947	85,702	93,255
	여자	183,745	1,015	32,330	40,747	55,352	54,301
세종	계	158,154	1,085	21,803	47,879	53,959	33,428
	남자	89,676	471	10,309	27,195	31,667	20,034
	여자	68,478	614	11,494	20,684	22,292	13,394
경기	계	5,890,759	43,520	1,003,038	1,464,041	1,753,624	1,626,536
	남자	3,368,258	18,879	495,278	869,212	1,034,249	950,640
	여자	2,522,501	24,641	507,760	594,829	719,375	675,896
강원	계	594,738	4,363	91,908	126,252	175,190	197,025
	남자	337,479	1,945	49,344	74,436	99,355	112,399
	여자	257,259	2,418	42,564	51,816	75,835	84,626
충북	계	668,615	5,445	116,626	152,710	190,584	203,250
	남자	386,728	2,348	64,352	92,739	109,581	117,708
	여자	281,887	3,097	52,274	59,971	81,003	85,542
충남	계	871,196	6,819	140,524	210,016	257,464	256,373
	남자	518,116	3,153	76,485	131,748	154,903	151,827
	여자	353,080	3,666	64,039	78,268	102,561	104,546
전북	계	676,223	4,820	102,961	142,439	206,315	219,688
	남자	382,179	2,233	52,664	82,797	117,719	126,766
	여자	294,044	2,587	50,297	59,642	88,596	92,922
전남	계	667,417	4,515	97,006	139,364	198,955	227,577
	남자	389,742	2,245	53,484	83,186	116,667	134,160
	여자	277,675	2,270	43,522	56,178	82,288	93,417
경북	계	979,617	5,973	139,646	214,492	289,447	330,059
	남자	577,511	2,796	76,918	132,854	170,696	194,247
	여자	402,106	3,177	62,728	81,638	118,751	135,812
경남	계	1,333,867	7,542	188,198	304,069	413,060	420,998
	남자	775,090	3,552	100,675	185,021	241,014	244,828
	여자	558,777	3,990	87,523	119,048	172,046	176,170
제주	계	288,034	2,194	45,726	66,216	89,254	84,644
	남자	158,587	938	22,808	37,613	49,879	47,349
	여자	129,447	1,256	22,918	28,603	39,375	37,295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총조사인구(2015년 이후)-표본(20%)부문(2020년)-경제활동(20%표본)-성별/연령별/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 이상)-시도. [웹사이트]. (2022. 9. 2.).

〈표 1-8〉은 2020년 기준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표본 20% 추계자료 중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58.7%이며, 이를 혼인상태별로 구분해 보면 유배우가 6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혼이 64.6%, 미혼이 5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주가 63.6%, 경기도 61%의 순으로 나타났고, 유배우자 기준으로 보면 세종 72.5%, 제주 71.2%, 충남 67.9%, 충북 6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분	합계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전국	58.76	54.38	64.88	24.42	64.61
서울	59.52	59.85	63.11	22.32	62.69
부산	53.58	51.14	59.29	21.65	57.12
대구	54.11	48.55	60.86	21.39	59.71
인천	59.94	56.79	65.18	24.73	64.07
광주	56.61	48.68	64.54	24.11	62.54
대전	57.20	50.54	64.57	23.23	63.47
울산	57.52	50.79	62.88	24.88	66.20
세종	64.37	50.70	72.49	27.15	71.66
경기	61.01	56.59	66.42	23.22	67.59
강원	58.78	49.99	66.14	32.78	66.53
충북	59.60	52.94	67.16	25.22	67.88
충남	60.42	53.14	67.94	26.85	69.37
전북	55.98	46.61	65.11	25.14	63.68
전남	58.57	50.64	67.07	28.21	67.08
경북	56.40	48.35	64.66	25.02	63.71
경남	58.09	50.26	65.73	25.24	64.16
제주	63.64	55.22	71.23	32.71	70.25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총조사인구(2015년 이후)-표본(20%)부문(2020년)-경제활동(20%표본)-성,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상태인구(15세 이상)-시군구. [웹사이트]. (2022. 9. 2.).

〈표 1-9〉는 2020년 기준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표본 20% 추계자료 중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자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자 25,839,568명 중 초졸(미취학 포함)은 3.3%, 중졸 5.6%, 고졸 33.9%, 대졸 50.2%, 대학원 이상 7.0%로 고졸과 대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졸과 대졸을 중심으로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고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40.5%),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20.8%)이며, 대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56.6%),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39.9%)으로 나타났다.

〈표 1-9〉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자 분포

(단위: 명)

구분	합계	교육정도				
		초졸 (미취학포함)	중졸	고졸	대학졸 이상	대학원 이상
전국	25,839,568	844,953	1,443,301	8,759,212	12,977,743	1,814,359
서울	4,922,176	80,755	199,137	1,302,923	2,785,827	553,534
부산	1,571,736	41,001	99,849	517,481	818,503	94,902
대구	1,126,570	27,269	65,938	353,310	609,595	70,458
인천	1,491,696	32,792	78,714	604,129	708,404	67,657
광주	706,099	14,945	30,251	216,926	396,268	47,709
대전	731,678	16,481	33,712	216,030	380,042	85,413
울산	547,938	10,487	27,064	213,644	273,576	23,167
세종	178,265	4,468	5,875	37,131	100,521	30,270
경기	6,821,429	120,878	311,776	2,392,317	3,516,748	479,710
강원	777,948	57,234	61,526	278,641	339,047	41,500
충북	825,214	42,822	59,727	316,052	363,596	43,017
충남	1,097,633	74,424	81,080	436,370	454,393	51,366
전북	870,022	58,414	63,996	312,561	384,549	50,502
전남	900,132	86,127	83,714	337,979	359,295	33,017
경북	1,284,245	91,077	109,090	485,738	549,037	49,303
경남	1,633,692	71,054	111,106	624,359	753,449	73,724
제주	353,095	14,725	20,746	113,621	184,893	19,110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총조사인구(2015년 이후)-표본(20%)부분(2020년)-경제활동(20%표본)-성, 교육정도 및 경제활동상태인구(15세 이상)-시군구. [웹사이트]. (2022. 9. 2.).

2) 표본설계

본조사의 표본배분에 있어서는 층화변수로는 지역,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을 고려하여 층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본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표본추출의 경우 비례배분과 네이만 배분 가정하에서 전체 표본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bullet \text{ 비례배분 : } n = \frac{\sum_{h=1}^L N_h S_h^2}{ND + \sum_{h=1}^L W_h S_h^2}$$

$$\bullet \text{ 네이만배분 : } n = \frac{(\sum_{h=1}^L N_h S_h)^2}{N^2 D + \sum_{h=1}^L N_h S_h^2}$$

여기서 S_h^2 은 h 층의 모집단 분산이며, $W_h = N_h/N$ 이고, $D = B^2/4$ 이다.

모집단 분석에서 조사대상 연령대인 만 19세 이상 59세 미만 연령대의 비율(P_h)을 변동으로 고려하여 $S_h^2 = P_h Q_h$ 로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표본규모는 조사대상 연령에 대해 통계값의 추정오차를 0.17%로 관리하면 비례배분인 경우 약 23,078명의 표본이 필요하며, 추정오차를 0.174%로 관리하면 22,029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0> 참조). 또한 네이만 배분의 경우 추정오차 0.16%인 경우 21,900명,

0.15%인 경우 24,914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는 비례배분 기준으로 목표 오차를 0.174% 이내로 관리하여 약 22,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하였다.

〈표 1-10〉 표본규모 산정

(단위: %, 명)

B	비례배분	네이만배분
0.12	46,280	38,907
0.13	39,443	33,159
0.14	34,015	28,596
0.15	29,635	24,914
0.16	26,050	21,900
0.17	23,078	19,401
0.174	22,029	18,520
0.175	21,779	18,309
0.18	20,586	17,307

자료: 위탁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에서 제공한 자료(2022. 9.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표본배분 방법

층별 표본배분 방법으로는 모집단의 층별 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과 모집단의 층별 변동을 고려한 배분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N_h}{\sum_{k=1}^H N_k}$
- 제곱근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sqrt{N_h}}{\sum_{k=1}^H \sqrt{N_k}}$
- 네이만 배분법 : $n_h = n \times \frac{N_h S_h}{\sum_{k=1}^H N_k S_k}$

비례배분의 경우 <표 1-11>과 같이 전체적으로 예상 상대 표준 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이하 RSE)가 1.8%~11.0%로 관리가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지역 및 연령별 층별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층별 RSE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1> 층별 표본규모: 비례배분

(단위: 명)

지역	성별	연령대					RSE(%)
		19~29세	30대	40대	50대	계	
서울	남자	519	516	525	537	2,097	2.2
	여자	562	517	536	552	2,167	2.1
부산	남자	162	148	182	194	686	3.8
	여자	151	141	179	203	674	3.9
대구	남자	125	107	131	148	511	4.4
	여자	110	96	135	154	495	4.5
인천	남자	155	151	179	185	670	3.9
	여자	142	140	170	185	637	4.0
광주	남자	82	66	85	85	318	5.6
	여자	75	63	85	86	309	5.7
대전	남자	84	71	82	87	324	5.6
	여자	76	65	83	87	311	5.7
울산	남자	58	55	68	75	256	6.2
	여자	45	48	64	74	231	6.6
세종	남자	16	22	27	19	84	10.9
	여자	15	23	27	18	83	11.0
경기	남자	724	706	843	837	3,110	1.8
	여자	649	655	814	818	2,936	1.8
강원	남자	75	62	80	99	316	5.6
	여자	59	55	77	92	283	5.9
충북	남자	82	73	89	101	345	5.4
	여자	66	63	83	95	307	5.7
충남	남자	101	100	126	131	458	4.7
	여자	82	85	111	116	394	5.0
전북	남자	86	67	95	113	361	5.3
	여자	73	62	91	104	330	5.5
전남	남자	83	66	96	122	367	5.2
	여자	66	60	85	104	315	5.6
경북	남자	118	106	140	170	534	4.3
	여자	91	91	130	157	469	4.6

지역	성별	연령대					RSE(%)
		19~29세	30대	40대	50대	계	
경남	남자	153	140	194	214	701	3.8
	여자	121	127	184	204	636	4.0
제주	남자	33	29	41	44	147	8.2
	여자	29	29	39	41	138	8.5
계		5,068	4,805	5,876	6,251	22,000	0.7

자료: 위탁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에서 제공한 자료(2022. 9.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곱근 비례배분의 경우 <표 1-12>와 같이 전체적으로 RSE가 2.7%~6.2%로 관리가 예상되어 지역 및 연령별 층별 추정값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층별 RSE의 범위가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2> 층별 표본규모: 제곱근비례배분

(단위: 명)

지역	성별	연령대					RSE(%)
		19~29세	30대	40대	50대	계	
서울	남자	323	322	325	329	1,299	2.8
	여자	336	323	329	334	1,322	2.7
부산	남자	180	173	191	198	742	3.7
	여자	174	168	190	202	734	3.7
대구	남자	158	147	163	172	640	4.0
	여자	149	139	165	176	629	4.0
인천	남자	177	174	190	193	734	3.7
	여자	169	168	185	193	715	3.7
광주	남자	129	115	130	131	505	4.4
	여자	123	112	131	132	498	4.5
대전	남자	130	120	129	132	511	4.4
	여자	124	114	129	132	499	4.5
울산	남자	108	105	117	123	453	4.7
	여자	95	98	114	122	429	4.8
세종	남자	56	66	74	62	258	6.2
	여자	55	68	74	59	256	6.2
경기	남자	382	377	412	411	1,582	2.5
	여자	362	363	405	406	1,536	2.6
강원	남자	123	111	127	141	502	4.5
	여자	109	105	125	136	475	4.6

지역	성별	연령대					RSE(%)
		19~29세	30대	40대	50대	계	
충북	남자	129	122	134	142	527	4.4
	여자	116	112	129	138	495	4.5
충남	남자	143	142	159	162	606	4.1
	여자	129	131	149	153	562	4.2
전북	남자	131	116	138	151	536	4.3
	여자	121	112	135	145	513	4.4
전남	남자	129	115	139	157	540	4.3
	여자	115	110	131	145	501	4.5
경북	남자	154	146	168	185	653	3.9
	여자	135	136	162	178	611	4.0
경남	남자	176	168	198	208	750	3.7
	여자	156	160	193	203	712	3.7
제주	남자	81	77	91	94	343	5.4
	여자	77	76	89	90	332	5.5
계		5,254	5,091	5,720	5,935	22,000	0.7

자료: 위탁조사업체(주)엠브레인퍼블릭)에서 제공한 자료(2022. 9.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네이만 배분의 경우 <표 1-13>과 같이 전체적으로 RSE가 1.8%~11%로 관리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지역 및 연령별 층별 추정값은 신뢰할 수 있으나, 층별 RSE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층별 추정의 변동이 작고, RSE 값의 범위가 작은 <표 1-12>의 제공근 비례배분으로 결정하였다.

<표 1-13> 층별 표본규모: 네이만 배분

(단위: 명)

지역	성별	연령대					RSE(%)
		19~29세	30대	40대	50대	계	
서울	남자	516	513	524	540	2,093	2.2
	여자	567	508	533	555	2,163	2.1
부산	남자	158	141	185	201	685	3.8
	여자	145	132	182	215	674	3.9
대구	남자	123	101	132	154	510	4.4
	여자	106	88	138	164	496	4.5
인천	남자	150	146	182	190	668	3.9
	여자	137	134	173	194	638	4.0
광주	남자	83	62	86	87	318	5.6
	여자	75	58	88	89	310	5.7

지역	성별	연령대					RSE(%)
		19~29세	30대	40대	50대	계	
대전	남자	84	68	83	88	323	5.6
	여자	75	60	85	90	310	5.7
울산	남자	56	52	69	79	256	6.2
	여자	41	44	67	79	231	6.6
세종	남자	14	22	30	19	85	10.8
	여자	13	23	29	17	82	11.0
경기	남자	705	682	864	859	3,110	1.8
	여자	621	628	840	846	2,935	1.8
강원	남자	74	56	81	105	316	5.6
	여자	56	50	79	100	285	5.9
충북	남자	81	69	89	105	344	5.4
	여자	63	58	85	101	307	5.7
충남	남자	97	95	130	137	459	4.7
	여자	77	80	115	122	394	5.0
전북	남자	84	60	97	120	361	5.3
	여자	70	56	93	111	330	5.5
전남	남자	80	59	98	132	369	5.2
	여자	62	54	87	113	316	5.6
경북	남자	113	97	142	182	534	4.3
	여자	82	83	134	171	470	4.6
경남	남자	146	129	200	227	702	3.8
	여자	110	117	193	219	639	4.0
제주	남자	31	27	43	46	147	8.2
	여자	27	27	41	45	140	8.4
계		4,922	4,579	5,997	6,502	22,000	0.7

자료: 위탁조사업체(주)엠브레인퍼블릭)에서 제공한 자료(2022. 9.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라. 추정 방법

1) 가중치의 계산

층별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배분인 경우 자체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 분포와 표본분포가 다르므로 각 층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조사는 온라인 패널의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층별 규모와 2022년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중치 조정이 요구되었다.

N : 2022년 7월 기준 19~59세 주민등록 인구수

N_h : h 층의 19~59세 모집단 인구수(지역, 성별, 연령)

n_h : h 층의 표본 수

r_h : h 층의 응답 표본 수

w_h : h 층의 표본추출가중치

w_h^r : h 층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 : h 층의 최종가중치

① h 층의 표본 추출가중치

$$w_h = \frac{N_h}{n_h}$$

②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r = \frac{n_h}{r_h}$$

③ 최종가중치

$$W_{hij} = w_h^B \times w_h^r \times BF_h \quad 1)$$

2) 추정치의 계산

① 평균 추정

$$\widehat{Y} = \sum_h^L \sum_i^{n_h} W_{hi} y_{hi} / W_{..}$$

1) 여기서 BF_h 는 h 층의 벤치마킹 인자로서 2022년 7월 기준층별 인구수와 층별 가중치 합에 대한 비를 나타냄.

여기서 $W_{..} = \sum_{h=1}^L \sum_{i=1}^{n_h} W_{hi}$ 이며,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이며, i 는 표본 응답자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② 표본평균 \widehat{Y} 의 분산 추정치

$$\widehat{V}(\wide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e_{hi} = (W_{hi}(y_{hi} - \widehat{Y}))/W_{..}$, $\bar{e}_{h..} = \sum_{i=1}^{n_h} e_{hi}/n_h$ 이다.

$$SE(\widehat{Y}) = \sqrt{\widehat{V}(\widehat{Y})}$$

③ 상대표준오차

$$\widehat{CV}(\widehat{Y}) = \frac{SE(\widehat{Y})}{\widehat{Y}} \times 100\%$$

마. 가중치 조정 과정

가중치 조정은 2022년 7월 기준 19세 ~59세 주민등록 인구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 가정하여 1단계로 추출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때 층화변수로는 지역(17개 시도)*성별(2)*연령대(4)로 선정하여 층별 추출가중치를 고려하였고, 다음으로 표본배분결과와 완료된 표본 간 층별 무응답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이번 조사의 경우, 최종 표본과 표본 배분결과가 동일하여 별도의 무응답 조정가중치는 조정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사후 층화 조정가중치(지역*성별*연령대)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사후 조정하였고, <표 1-14>로부터 최종가중치의 분포를 보면

층별로 매우 안정적인 가중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계효과: $1 + cv^2$ 참고)

2022년 7월 기준 19~59세 주민등록인구에 따라 조정된 결과는 <표 1-15>와 같다.

<표 1-14> 최종가중치 분포

지역	표본 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댓값	$1 + cv^2$
계	22,000	30,449,387	1,384.1	695.2	376.9	2,832.4	1.25
서울	2,621	5,902,550	2,252	32.8	2,216.1	2,313.3	1.00
부산	1,476	1,881,577	1,274.8	79.6	1,159.1	1,393	1.00
대구	1,269	1,392,286	1,097.2	82.1	956.7	1,211.1	1.01
인천	1,449	1,808,548	1,248.1	65.8	1,153.8	1,327.4	1.00
광주	1,003	869,214	866.6	47.1	776	906.2	1.00
대전	1,010	878,162	869.5	41.1	783.5	908.9	1.00
울산	882	673,640	763.8	65.1	659.4	847.2	1.01
경기	3,118	8,371,747	2,685	136.2	2,483	2,832.4	1.00
강원	977	829,765	849.3	82.1	723	967.8	1.01
충북	1,022	901,650	882.2	67.6	774.9	979.6	1.01
충남	1,168	1,177,347	1,008	81.2	880	1,119.7	1.01
전북	1,049	954,359	909.8	87.9	767.5	1,032	1.01
전남	1,041	944,000	906.8	105.6	751.9	1,075.5	1.01
경북	1,264	1,387,750	1,097.9	120.3	928.1	1271	1.01
경남	1,462	1,851,974	1,266.7	127	1,077.4	1,424.9	1.01
제주	675	394,309	584.2	49.3	522.9	645.6	1.01
세종	514	230,509	448.5	47.9	376.9	513.6	1.01

자료: 위탁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에서 제공한 자료(2022. 9.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1-15〉 층별 최중가중치 적용 결과

구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3,675,185	3,340,595	3,439,955	3,207,048	4,131,099	4,003,613	4,375,828	4,276,064	30,449,387
서울	718,523	777,278	714,705	715,810	726,767	742,021	742,841	764,605	5,902,550
부산	223,587	208,833	205,399	194,735	251,966	247,326	268,352	281,379	1,881,577
대구	172,578	152,800	148,438	132,976	181,763	186,247	204,329	213,155	1,392,286
인천	214,179	197,010	209,106	193,836	247,240	235,172	255,816	256,189	1,808,548
광주	113,614	104,291	91,621	86,908	116,976	118,262	117,925	119,617	869,214
대전	115,856	105,303	98,777	89,318	114,011	115,063	119,860	119,974	878,162
울산	80,683	62,643	75,827	65,793	93,563	89,126	104,201	101,804	673,640
경기	1,001,440	898,841	977,263	906,425	1,166,944	1,126,593	1,161,915	1,132,326	8,371,747
강원	104,263	82,190	85,124	75,918	111,271	106,873	136,460	127,666	829,765
충북	114,155	91,780	101,620	86,790	122,819	114,516	139,106	130,864	901,650
충남	139,928	113,525	137,721	117,132	174,264	153,180	181,387	160,210	1,177,347
전북	118,848	100,641	92,222	85,961	131,740	125,287	155,833	143,827	954,359
전남	114,785	90,972	91,663	82,712	133,326	117,422	168,856	144,264	944,000
경북	163,311	125,332	146,339	126,222	194,321	179,443	235,138	217,644	1,387,750
경남	212,258	168,067	193,874	175,328	269,003	254,870	296,383	282,191	1,851,974
제주	45,417	40,357	40,271	39,739	57,122	54,600	60,682	56,121	394,309
세종	21,760	20,732	29,985	31,445	38,003	37,612	26,744	24,228	230,509

자료: 위탁조사업체(주)엠브레인퍼블릭)에서 제공한 자료(2022. 9.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표준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 가중치의 합이 표본 수가 되기 때문에 빈도분석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총계 추정에 사용하면 편향될 수 있다.

$$w_{hs} = 2200 * w_h / 30,449,387$$

바. 조사 과정

본조사에 앞서 문헌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발된 설문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22년 9월 7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200명(연령대별 각 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조사의 목적이 설문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및 특정 문항에서의 설문 종료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번 조사의 평균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확인되었으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조사 문항 수가 달라서 취업자는 약 30분, 비취업자는 약 18분으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분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6〉 사전조사 응답 소요 시간

구분	연령별				경제활동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일하였음	휴가 및 휴직	비취업
소요 시간	28분	33분	29분	32분	30분	28분	18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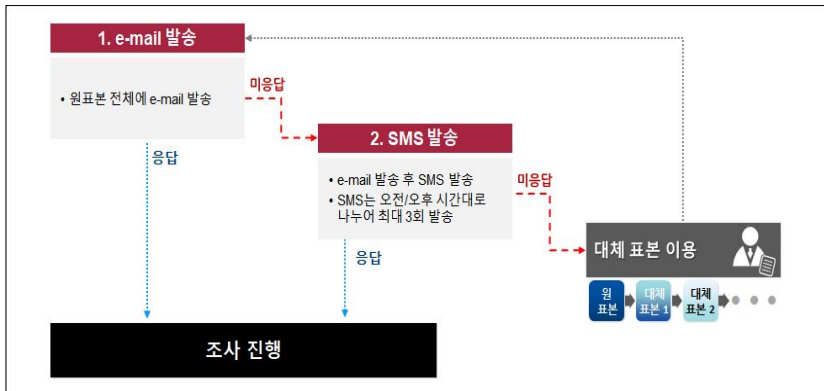
자료: 위탁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에서 제공한 자료(2022. 9. 8.)를 토대로 저자 작성.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조사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해당 항목의 질문이나 응답지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질문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 분량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사전조사 후 불필요 항목은 검토하여 삭제 하였다.

본조사에 있어서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원 표본에 대한 응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목표표본인 22,000명의 2배수까지의

응답자 list set을 설정 지역/성/연령대로 층화하여 표본추출틀을 작성하고 1차 set의 패널들에게 E-mail 및 SMS(카카오톡, 알림톡 포함)를 활용하여 조사 참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E-mail 발송 후 1주일간 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원 표본을 포함한 다음 set의 해당 지역/성/연령대로 추출 틀을 확대하여 원 표본에 대한 응답률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1-1]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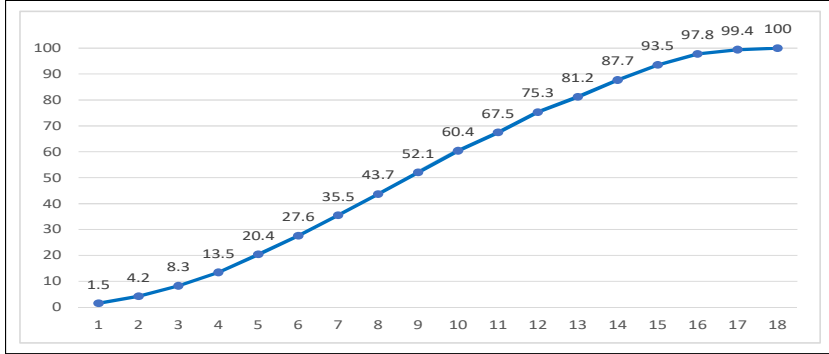


자료: 위탁조사업체(주)엠브레인퍼블릭)에서 제공한 자료(2022. 10. 27.)를 토대로 저자 작성.

실태조사는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2.5주가량 진행됐으며, 대상자에게 E-mail을 보내고 조사 첫 페이지에 조사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를 설명하였으며, 조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시작 후 10일 동안 조사 대상의 약 60%를 완료해 안정적인 실사가 진행되었다.

[그림 1-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일자별 진행률 추이

(단위: %)



자료: 위탁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에서 제공한 자료(2022. 10. 27.)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의 전체 E-mail 발송 건수는 32,936명이며, 이들 중 77.3%인 25,463명이 접속하였다. 접속자 중 86.4%인 22,000명이 조사를 완료했으며, 11.8%(3,014명)는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7〉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접속자 및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발송 (전체)	접속자	조사 완료	쿼터 오버	중도 포기 (접속 후 미진행 포함)
N	32,936	25,463	22,000	449	3,014
비율(%)	-	77.3%	86.4%	1.8%	11.8%

자료: 위탁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에서 제공한 자료(2022. 10. 27.)를 토대로 저자 작성.

사. 조사 응답자 특성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는 최종 22,000명이 응답하였는데, 이 중 남성이 51.3%, 여성이 48.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 분포는 만19~29세가 23.0%, 만30~39세가 21.8%, 만 40~49세가 26.7%, 그리고 만50~59세가 28.4%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52.8%이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47.2%의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를 동(洞)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보면, 동부가 88.4%, 읍·면부는 11.6%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15.3%, 대졸이 74.4%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은 10.3%의 비율을 보였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41.9%,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을 포함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8.1%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41.7%였고, 현재 직접 양육 중인 자녀가 1명인 경우는 21.6%, 2명 이상은 36.7%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6.8%, 300~500만 원 미만은 26.1%, 500~700만 원 미만은 28.2%, 700만 원 이상은 26.1%였고, 무응답 비율이 2.8%로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가 79.6%였고, 하지 않은 경우는 20.4%였다.

취업자인 17,510명을 기준으로 직업 특성을 보면, 상용근로자가 76.5%,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14.1%,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9.4%로 분포했다. 직종별로는 관리자와 전문가가 26.9%, 사무종사자는 39.7%, 판매 및 서비스종사자는 18.8%, 기타가 14.6%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8.7%, 도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점업이 1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22.4%, 그 외 서비스업은 15.0%, 기타가 26.9%로 나타났다.

〈표 1-18〉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명, %)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2,000)
성별		
남성	51.3	(11,287)
여성	48.7	(10,713)
연령		
만19~29세	23.0	(5,069)
만30~39세	21.8	(4,803)
만40~49세	26.7	(5,877)
만50~59세	28.4	(6,251)
거주지		
수도권	52.8	(11,620)
비수도권	47.2	(10,380)
거주지		
동부	88.4	(19,458)
읍면부	11.6	(2,542)
학력		
고졸 이하	15.3	(3,368)
대졸	74.4	(16,376)
대학원졸	10.3	(2,257)
혼인상태		
미혼	41.9	(9,222)
기혼(배우자 있음, 이혼/별거, 사별)	58.1	(12,778)
자녀 수		
자녀 없음	41.7	(7,356)
1명	21.6	(3,817)
2명 이상	36.7	(6,47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6.8	(3,688)
300~500만 원 미만	26.1	(5,751)
500~700만 원 미만	28.2	(6,198)
700만 원 이상	26.1	(5,741)
무응답	2.8	(622)
취업 여부		
비취업	20.4	(4,490)
취업	79.6	(17,510)

48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구분	비율	명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6.5	(13,392)
임시·일용근로자	14.1	(2,471)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9.4	(1,648)
직종		
관리자·전문가	26.9	(4,714)
사무종사자	39.7	(6,948)
판매·서비스종사자	18.8	(3,288)
기타	14.6	(2,561)
산업		
제조업	18.7	(3,275)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17.0	(2,969)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22.4	(3,930)
그 외 서비스업	15.0	(2,622)
기타	26.9	(4,715)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은 현재 배우자 있음(사실혼·동거 포함), 이혼, 별거, 사별을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2장

일-생활 균형 이론적 검토 및 관련 기존 조사

제1절 일-생활 균형 정의 및 지표

제2절 일-생활 균형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일-생활 균형 관련 기존 조사 및 본 조사의 차별성

제 2 장

일-생활 균형 이론적 검토 및 관련 기존 조사

제1절 일-생활 균형 정의 및 지표

1. 일-생활 균형 정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논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이라는 범위가 가족으로 대표되었다. 그래서 일-가족 양립이나 일-가정 양립 등의 가족 문제에 대해 집중한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다가 일 이외의 영역이 가족을 포함한 생활 영역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일-생활 조화, 일과 삶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 등 다양하게 일컬어지고 있다. 균형, 조화, 양립 등의 용어는 여전히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정부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일-생활 균형’으로 통일해 사용한다.

케임브리지 사전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은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나 여가시간 대비 일로 보낸 시간’으로 정의되어 있다(Cambridge Dictionary Website, 2022. 5. 15. 인출). 흔히 이해하기로는 ‘일과 일 이외의 영역 간에 조화를 유지하는 것’(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2005, p.31)을 일-생활 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에 속한 ‘일’, ‘생활’, ‘균형’이라는 각 단어의 개념 및 정의도 다양할 수 있고, 특히 ‘균형’에 대해서는 시간의 양적인 조화인지 심리적으로 느끼는 균형감인지 등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 균형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시간균형(time balance)’, ‘심리적 관여도의 균형(involvement balance)’, ‘만족도의 균형(satisfaction balance)’, ‘에너지의 배분’, ‘통제감(locus of control)’

등이 주요 개념으로 논의되었다(Greenhaus, Collins, & Shaw, 2003; Kirchmeyer, 2000; Tausing & Fenwick, 2001; 김정운 외, 2005에서 재인용). 이 주요 개념들을 보면 균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느낌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균형은 일과 생활 사이에서 갈등이 없이 양쪽에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개인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균형감일 수도 있다(김정운 외, 2005; 박예송, 박지혜, 2013). 이런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에너지 활용 및 통제감 등을 종합해 보면, 일-생활 균형은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 등에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조절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일생활균형재단 웹사이트, 2022. 6. 17. 인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은 삶의 질 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추구한다.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관련된 영역 또한 다양하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관계의 영역,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경제적 측면, 휴식 등 여러 영역이 포함될 것이지만,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삶의 질과 관련해 주요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 가족, 자신, 놀이 및 여가 영역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정운 외, 2005).

2. 한국의 일-생활 균형 수준 및 관련 지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일·가정 양립 지표」에서는 가구, 고용, 근로시간, 보육, 사회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019년 「일·가정 양립 지표」에서는 사회조사의 결과인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 44.2%, 일이 우선: 42.1%)를 활용하여 한국이 일을 더 중시하던 분위기

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통계청, 2019a).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와 관련하여 제도 사용자 수의 증가 결과도 활용하였다(통계청, 2019a).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 지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미혼과 기혼의 성별에 따른 고용률 차이, 경력단절 여성 비율 및 사유,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등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관한 내용(통계청, 2019a)을 증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맞벌이 여부나 자녀 수 및 연령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지표 구성(통계청, 2019a)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육아 및 양육을 함께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서 모든 생애단계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표에서 확대해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살펴보는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일-생활 균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이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24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산출된다. 일 영역은 총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휴가기간, 유연근무제 도입률, 유연근무제 이용률 5개의 세부지표를 담고 있고, 생활 영역은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평일 여가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의 총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영역은 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로 총 7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담당

조직 유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 총 5개 지표를 담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이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100점 중 2020년에 53.4점으로 나타나 2018년(50.1점)과 2019년(50.5점)보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나아진 것을 보여 준다(고용노동부, 2021). 이 지표는 시도별 수준은 물론이고 영역별 각 시·도의 수준을 제시해 지역의 일-생활 균형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2절 일-생활 균형 관련 선행연구

일-생활 균형에는 다층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중 일하는 환경, 개인 생활과 가족생활 환경이 일과 생활 양쪽 측면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항목으로 조사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주요 영향 요인을 살펴본다.

1. 근로 및 일하는 환경과 일-생활 균형

일-가족 양립이나 일-가정 양립, 지금의 일-생활 균형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적 논의의 중심에는 ‘일’이 자리한다. 그리고 그 일은 ‘근로(노동)’를 가리킨다. 물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균형이라는 또 다른 이슈는 있지만, 일-생활 균형에 있어 근로 특성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여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여러 선행연구도 직업 특성, 고용 형태, 근로시간, 조직문화 등 근로 및 일하는 환경과 일-생활 균형의 관계에 주목한다.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근로시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매우 길다. 2021년 기준 연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길다(OECD, Stat Website, 2022. 10. 24. 인출, 미보고된 2개국 제외).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당연히 일 이외의 생활을 영위할 시간의 부족으로 귀결되며, 더 나아가 신체적·정신적 에너지의 부족으로도 이어진다. 신경아(2009)는 EQLS(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을 참고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한 결과, 장시간 근로는 가족생활시간과 개인 여가시간 부족을 초래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절대적 측면에서는 업무량, 상황적 맥락에서는 조직문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장영은, 박정윤, 이승미, 권보라(2011)는 2007년 여성가족패널조사에 참여한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이 길수록 일-가정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한경혜, 장미나(2009)는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일-가족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는 남녀 공통으로 발견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반면, 손영미, 박정열(2014)은 조직문화의 맥락에서 이를 바라봤는데, 과도한 업무량, 업무체계 비효율성, 야근 등의 조직문화는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한다. 특히 직무, 임금, 승진, 경력 등이 관련되어 있어 장시간 근로체제 조직문화가 암묵적 규율로 작용하여 유연근무 등 여러 제도의 사용을 저조하게 만들 수 있다(권혜원, 2016).

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 역시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전서영, 박정윤, 김양희(2008)는 기혼남녀의 일과 가족 갈등의 정도에 있어 직업 유형의 차이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생산직 등의 경우 전문직이나 관리직 등에 비해 일로 인한 가정생활 방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미정, 성미애(2012)는 취업 주부의 일-가족

균형에 대해, 직장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할 경우 그 수준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고용 형태도 관련이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의 여러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수혜층은 주로 정규직에 한정되기 때문에(신경아, 2009)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일-생활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더불어, 직장 규모와 일-생활 균형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제도화한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은 주로 규모가 큰 사업체(대기업)를 중심으로 확산되며(박예송, 박지혜, 2013),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에서도 기업 규모는 가족친화 지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기택, 박수범, 신우리, 김수진, 박민영, 2021). 즉,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가족친화 지수가 높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장영은 외(2011)는 직장 내 모성보호나 복리후생과 관련된 제도의 유무를 강조하며, 육아휴직 등 다양한 휴직·휴가, 보육비·교육비 지원, 탄력근무 등의 다양한 제도는 일-가정 균형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일-생활 균형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즉, 가족친화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진미정, 성미애(2012)는 가족친화제도가 가장 많이 도입된 곳은 대기업이지만, 실제 활용은 공공기관에서 더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일·가족 균형 수준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 유무가 아닌 활용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조희금, 서지원(2009) 연구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일부 발견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과 비공식적 자녀돌봄 지원망 활용에 있어 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 부부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 비율이 높았다. 이는 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부부를 넘어선 비공식적 자녀돌봄 지원망(친지 등)의 필요가 오히려 덜했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생활 균형의 논의가 기혼이나 자녀 양육 중인 경우, 또는 기존의 정책 대상뿐 아니라 모두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됨에 따라 미혼이나 청년이 생각하는 워라벨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청년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알아본 최근의 연구(이선형, 기나휘, 2020), 결과에서 청년들은 단순히 일 영역과 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생활 중 일이 가장 큰 부분이며 일은 앞으로의 자기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때 일은 개인이 가진 대부분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 쏟아부어야 하는 일, 즉 주관적인 워라벨이 확보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소득과 시간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와 환경을 의미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욕구 또한 일-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주거 및 자산 마련이나 일자리 질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이선형, 기나휘, 2020), 기존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고려하던 정책 영역 및 방향과는 또 다른 시민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2. 가족환경과 일-생활 균형

가족환경은 일-생활 균형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내 자녀의 유무는 일-생활 균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김진옥, 2005; 2008,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10).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은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경우가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10). 즉, 일하는 여성 중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일-생활 균형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여성 내의 비교에서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일-생활 균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가족 내의 일, 특히 육아에 대해 여성이 우선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상황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일-생활 불균형을 경험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환경과 일자리 조건이 과거보다 다양해졌기 때문에 같은 맞벌이 부부가족이라 해도 남편과 부인의 일자리 특성 조합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일-생활 균형의 정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권소영, 이재림, 2019). 그래서 맞벌이 부부여도 남편과 부인의 근로시간이 짧거나 일하는 시간이 유연하다면 그렇지 않은 조건의 맞벌이 부부보다 일-생활 균형을 상대적으로 잘 유지할 수도 있다(권소영, 이재림, 2019).

이러한 가족환경을 중심으로 일-생활 균형을 살펴본 연구들(e.g., 김진욱, 2005; 2008)은 일과 가족 사이 균형을 초점으로 다수 이루어졌고, 대상이 기혼 여성인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일과 가족에서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적 변화에 따라 일-생활 균형으로 범위가 확장되었고, 남녀 또는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성차를 다루는 연구들(e.g., 손영미, 박정열, 2014)이 다수 진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이 기혼 여성 내 비교에서 나아가 기혼 남녀 사이의 비교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혼 1인 가구의 일-생활 균형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가족 변화 측면이 연구에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송혜림, 강은주(2021)의 연구는 취업 1인 가구의 일-생활 균형에 관하여 미혼 인구의 생활 측면에서 자기계발이나 여가생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 동시에 일-생활 균형 유지에서는 일에 대한 부담 이외에 경제적 조건과 시간의 충분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발견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연구(e.g., 장명선, 이영호, 2020)도 찾아볼 수 있어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가 일-생활 균형 연구에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도 일-생활 균형 연구의 대상은 처음부터 ‘엄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이후 점차 비교의 관점에서 ‘부모’로 확장되어 갔다(Bertolini & Poggio, 2022).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미혼인 사람도 일하는 근로자로서의 역할과 매우 다양한 가족 관계에서의 역할이 있으며, 그사이에서 갈등과 개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Casper, Marquardt, Roberto, & Buss, 2016). 따라서 일-생활 균형 연구에서 자녀가 없는 미혼 집단을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마주할 수 있다(Bertolini & Poggio, 2022). 자녀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자녀가 없는 미혼을 일-생활 균형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해, 일-생활 균형 연구에서 직업 구분이나 사회계층 구분에 있어 저소득층이나 노동자계급을 집중적으로 하는 연구가 소수인 점도 지적되었다(Tracey, 2015). 그리고 가족 다양성에서 오는 개별 상황의 욕구가 일-생활 균형 연구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Bertolini & Poggio, 2022).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일-가족/가정 이슈를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 중인 기혼 여성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비교관점에서 맞벌이 부부까지 포함하였으나 주요 연구 대상은 기혼과 맞벌이 집단이었다. 그러나 점차 미혼이나 젊은 층의 일-생활 균형에 집중하거나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일-생활 균형 연구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가족이나 가정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생활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 변화 등에 따라 연구 대상이 다양해진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비교 가능한 연구나 조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직업을 가진 집단을 중심으로 하되 비교집단이 될 수 있는 무급가사돌봄노동을 하

는 집단까지 포괄한 조사 및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맞벌이/비맞벌이, 기혼/미혼, 취업/비취업, 다양한 가족 유형 및 일의 형태 등을 포괄하는 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 일-생활 균형 전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일-생활 균형 관련 기존 조사 및 본 조사의 차별성

일-생활 균형과 관련되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를 검토한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생활시간 조사, 국민여가활동 조사, 근로자휴가 조사,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근로환경 조사를 중심으로 각 조사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해외 조사 중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한다.

1.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3(실태조사 실시)에 근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 차별 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일·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적인 표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008년에 첫 시작된 이 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2018년에는 모집단 추정을 위해 기존의 1,000개 사업체에서 전국 17개 시·도 5,000개 사업체로 표본 수를 크게 확대하였다. 관련 법률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2020년 조사의 표본추출은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에 근거하며, ‘농·임·어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모집단에서 제외되었다(전기택, 김종숙, 김난주, 신우리, 이선행, 노우리, 2021).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 바탕으로 사업체 편의에 따라 웹 서베이, 전자우편, 팩스, 전화조사가 병행되었고, 조사 수행은 2021년, 응답 기준 시점은 2020년 한 해 또는 2020년 12월 31일이다(전기택 외, 2021). 설문지는 사업체 일반 현황,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 활용 실태, 육아 등 돌봄 지원 제도 활용 실태, 유연근로 및 일하는 문화, 남녀고용평등기회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체(인사 담당자)가 응답 대상이기 때문에 설문지 내용은 모성보호제도를 비롯한 각종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인지도 및 (집합적)이용 현황에 초점이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 애로사항, 제도 도입 계획 및 사업체에 특화된 질문들도 발견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상세한 파악과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

〈표 2-1〉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사업체 일반현황	- 사업체명 및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노동조합 유무, 기업 유형, 연령대별 남녀근로자 구성 현황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 활용 실태	- 출산 전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난임치료 휴가 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 가능 여부, 2020년 활용 실적, 비활용 사유, 활용 실적 없는 사유 등 - 태아검진시간 보장, 유산·사산 휴가, 생리휴가,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위험 유해 직종 근무 금지,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제공의 활용 가능 여부 등
육아 등 돌봄 지원 제도 활용 실태	-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활용 가능 여부, 2020년 활용 실적, 비활용 사유, 활용 실적 없는 사유, 비정규직 사용 가능 여부, 2020년 비정규직 근로자 육아휴직제도 사용 여부 등 - 육아휴직제도 최대 이용 가능 기간, 2020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수,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기간 산입 여부, 육아휴직 후 복귀형태, 육아휴직제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처리 방법 및 대체 인력 채용 경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인지도, 활용 가능 여부, 2020년 활용 실적, 비활용 사유, 활용 실적 없는 사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지급 방식, 애로사항 등 -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 가능 여부, 2020년 활용 실적, 활용 실적 없는 사유, 최대 이용 가능 기간 등 - 직장보육시설 유무 및 향후 설치 계획, 향후 미설치 사유 등
유연근로 및 일하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일하는 시간 또는 장소 조정 가능성 등 - 유연근로제도 시행 여부, 추가 도입 계획 여부 및 도입 계획 세부 유연근로제도 유형, 미실시 사유, 활용 효과 등 - 일반 근로자 초과근로 정도, 초과근로 감소 필요성 태도, 자유로운 연차 사용 정도, 2020년 연차 소진율, 미소진 이유, 활성화 조치 등 - 근무 혁신 10대 제안(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추진 현황, 활용 정도, 적극적 활용 및 비적극적 활용 사유 등
남녀고용 평등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신규 채용자 현황, 승진자 중 여성 비율, 임원 총 수 및 여성 임원 수,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평균 평균 근속 연수, 성 평등한 인사관리 척도, 필요 정부 정책 등

주: 하단 참고문헌의 내용을 축약 정리함.

자료: 전기택, 김종숙, 김난주, 신우리, 이선행, 노우리. (2021).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1-13.

2. 2019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²⁾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생활시간조사(국가승인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의 24시간 동안의 시간활용 현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양식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는 삶의 질, 일·가정 양립 측정 및 가사 노동 등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각종 복지, 노동, 문화, 교통 분야의 분석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99년에 첫 실시된 이 조사는 5년 주기로 진행되며, 현재 2019년 조사가 최신이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및 2017년 등

2) 이하 내용은 「생활시간조사」 통계정보보고서(통계청, 2019b)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록센서스 결과(가구 부문)를 표본추출틀로 하여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0세 이상 국민을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했다. 총 12,435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7,000명을 조사했고, 유효 수는 12,388가구 내 26,091명이다(통계청, 2020).

조사 내용은 가구 및 개인 관련 항목, 시간일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구와 개인은 면접조사로 시간일지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시간일지는 조사 대상자의 하루 24시간 활용을 파악하며, 응답자가 10분 단위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아래 표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설문지의 조사 항목으로, 총 37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일-생활 균형과 관련해서는 개인 관련 항목의 주업 및 부업시간, 휴무 형태, 시간일지를 통해 파악되는 이동시간 및 장소를 비롯한 시간대별 활동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간대별 활동의 측정은 일-생활 균형을 개념적으로 수치적으로 분석·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비롯한 여가, 가사 분담 등의 만족도를 별도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일-생활 균형과 연결하여 분석과 해석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그렇지만 일-생활 균형의 측정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연근로제를 비롯한 각종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등의 이용 현황이나 근로 상황에 대한 상세한 파악은 어려운 측면도 있다.

〈표 2-2〉 2019년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가구 관련 (12)	- 10세 이상: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돌봄 필요사유 - 10세 미만: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재학여부, 오후돌봄 형태 - 분거가구 여부 및 사유, 거처 종류 및 주거용 연면적, 점유형태, 가구소득
개인 관련 (14)	- 시간 압박 여부 및 향후 줄이고 싶은 시간, 일과 후 피곤함 정도 및 이유, 삶 만족도, 여가 만족도, 가사 분담 만족도, 성역할에 대한 인식 - 교육정도, 경제활동 여부 및 일하지 않는 이유, 산업 및 사업체 형태, 직업, 종사상지위 및 직업 형태, 주업 및 부업시간, 휴무 형태, 개인소득

구분	내용
시간일지 (11)	- 주행동, 주행동 시 ICT 기기 사용, 동시행동, 동시행동 시 ICT 기기 사용 - 장소/이동수단, 함께한 사람, 시간활용 기분상태, 건강상태, 근무(등교)일 여부 - 시간일지 작성일의 방문자, 시간일지 작성자

자료: 통계청. (2019b). 생활시간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7.

3.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³⁾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이 국민의 여가 수요에 미치는 활동 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2006년에 국민여가조사라는 명칭으로 처음에는 2년 주기로 시행되다 2019년부터는 1년 주기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1년 조사는 통계청 ‘2019년 인구총조사’ 조사구 중 일반조사구(보통, 아파트)를 표본 틀로 하였고, 조사 기준 시점의 국내 모든 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집단시설 가구, 군 복무, 장기간 부재 등 제외)을 조사 모집단으로,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목표 모집단으로 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유효 응답자는 10,049명이었다(조사 대상 기간: 2020년 8월 1일 ~ 2021년 7월 31일).

조사 내용은 여가활동 참여 실태, 평일 및 휴가 여가활동, 여가 공간, 다양한 여가활동, 여가활동 제약, 근로시간 단축,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사항으로 구성된다. 일-생활 균형과 관련해서는 일(학업)과 여가 균형의 개념 활용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에

3) 이하 내용은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21a)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이 조사 역시 근로환경이나 정책 이용 등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표 2-3〉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여가활동 참여 실태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 여가활동 유형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 여가활동 유형, 동반자, 빈도, 소요 시간, 비용, 만족도
	여가활동 목적	-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
	여가활동 만족도	-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여가 경력	- 지속적 여가활동 유무, 분야 - 여가활동 지속 기간, 여가 정보 습득 여부
	여가비용	-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 및 만족도 - 희망하는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
평일 및 휴일 (휴가, 연휴) 여가활동	평일 여가활동	- 평일에 참여한 여가활동, 만족도 - 평일에 희망하는 여가활동
	휴일 여가활동	- 휴일에 참여한 여가활동, 만족도 - 휴일에 희망하는 여가활동
	여가시간	- 평일 및 휴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희망 여가시간 - 평일 및 휴일의 여가시간 충분 정도, 활용 정도
	휴가 활용	- 휴가 유무, 휴가기간 및 휴가일수 - 휴가기간 동안의 여가활동
	연휴 활용	- 연휴기간 동안의 여가활동
여가공간	여가공간	-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 향후 이용하고 싶은 여가공간 - 공공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 여가산업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다양한 여가활동	동호회 활동	- 동호회 활동 여부, 유형
	사회성 여가활동	- 자원봉사 활동 경험 - 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 분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
여가 인식 및 만족도	여가 인식	- 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 일(학업)과 여가의 균형, 향후 여가시간 활용 -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여가에 대한 인식
	행복 수준	- 현재 행복 수준
여가활동 제약	건강상태	- 평소 건강상태
	제약요인	- 여가활동 제약요인
근로시간 단축	재직 여부	- 현재 직장 재직 여부
	근로시간 단축 실시 영향	- 근로시간 단축 실시 여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여가만족도 - 근로시간 단축 실시에 따른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 교육정도, 혼인상태, 연령, 동거가구원 수, 동거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 가구주 여부 및 관계, 가구주 및 본인 성별, 가구주 학력, 장애등록 여부(본인/가족)
경제활동 사항	-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5일제 여부, 월평균 소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pp.4-5, pp.151-154.

4. 2021년 근로자휴가조사(문화체육관광부)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휴가조사(국가승인통계)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속 중인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휴가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여가활동조사와 마찬가지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향하며,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구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8조(조사 및 연구)에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8년에 1차 본조사가 사업체 1,800개, 근로자 4,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019년에 사업체 2,000개, 근로자 5,000명으로 확대, 현재까지 매년 1회씩 진행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1년 근로자 휴가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17개 시·도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이다. 통계청의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표본 틀로 하여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조사 대상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체, 농업·임업·

4) 이하 내용은 2021 근로자휴가조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21b)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더라도 상용근로자가 없으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사업체 1,856개의 상용근로자 5,265명이 조사 완료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c).

설문지는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총 2종으로 구분된다. 사업체는 휴가 제도 관련, 사업체 일반현황을, 근로자(상용)는 휴가 특성과 근로자 개인 특성에 관해 조사한다. 특히, 근로자(상용) 조사는 장기휴가나 분할 휴가(오전/오후) 사용, 각종 휴가 관련 제도(보상휴가제, 대체휴가제, 휴가 이월제 등) 경험, 휴가 사용과 관계된 다양한 상황 경험(제약, 업무 수행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4〉 2021년 근로자 휴가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사업체	휴가 제도 관련	- 시행 중인 휴가제도, 보상휴가 및 휴가 이월제 현황, 노동조합 유무, 노동조합의 휴가제도 제안 여부, 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 유급휴일 제공일 수
	사업체 일반현황	- 매출액, 근로자 수, 사업체 형태
근로자(상용)	근로자 휴가 특성	- 입사 연월, 이직 경험, 주 평균 근로시간 - 2020년 부여받은 휴가 일수/사용한 휴가 일수, 2020년 월별 휴가 사용 현황 및 목적별 휴가 사용 현황 - 2021년 부여받은 휴가 일수/사용한 휴가 일수/사용 예정 휴가 일수 - 법정공휴일 포함 휴가, 장기휴가 사용 여부, 연차휴가 분할 사용 현황 및 사용 목적, 시행 중인 휴가제도 및 사용경험, 보상휴가제 사용 일수, 연차휴가 이월제 적용기한, 휴가 사용 환경, 연차 미사용 이유, 연차휴가 때 사용한 총비용 및 목적별 비용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및 수당 지급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휴가 관련 인식, 휴가 만족도, 희망 휴가 일수 및 사용 목적, 원활한 휴가 사용 시 중요 조건
	근로자 개인 특성	- 생년월일, 성별,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 수, 자녀 수/연령, 직업/직급, 근무 형태, 고용형태, 본인 및 가구 월 평균 소득, 노동조합 가입 여부, 노동조합의 휴가제도 장려 노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b). 2021 근로자 휴가조사. p.4.

5.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여성가족부)

국가승인통계인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에 근거하며, 조사 주기는 3년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의 유연근무, 출산·양육 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주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이용 현황을 조사하며, 이를 가족친화지수로 산출한다(여성가족부, 202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2007년부터 가족친화지수 조사가 수행되었고, 2009년에 신규통계 작성이 승인되었다(여성가족부, 2017).

조사 대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이다. 2021년 조사는 설문지 기반의 이메일·팩스 조사로 진행되었고, 유효표본 수는 1,700개 기업·기관으로 공공부문 800개 사(전수조사·표본조사 병행), 민간부문 900개 사(표본조사)이다(여성가족부, 2022.5.22.). 조사는 일반현황, 탄력근무제도(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가족친화인증제 등 총 7개 영역에 대해 진행되었다.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도입과 이용 현황을 통해 영역별로 객관적 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과 민간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고용노동부)처럼 응답자가 기관과 기업이어서 근로자의 상세한 경험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 2-5〉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일반현황	- 기관 및 업종 유형,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재 인증유지 여부, 근로자 특성(고용형태/직급분포/혼인상태/연령분포)
탄력근무제도 (유연근무제도)	- 단시간(시간제)근로제도, 시차출퇴근제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재택근무제도, 스마트워킹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후 복귀율, 육아휴직 후 복직지원 프로그램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자녀양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 관련 지원제도 시행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상담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 문화조성	- 가족친화 경영체계, 가족친화 문화조성 지원제도, 정시퇴근
가족친화제도 운영관련	- 가족친화제도 운영이유, 장애요인, 개선정도

자료: 여성가족부. (2022).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가족친화지수 지속 상승 -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 5. 22.). p.4.

6. 2020년 근로환경조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⁵⁾

근로환경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6년 처음 시행되어 2011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 2020년 현재 6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취업자의 다양한 고용·노동 환경을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조사는 처음 도입할 당시 직업병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간공학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주요 배경이기도 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웹사이트, 2022. 6. 17. 인출). 그러나

5) 이하 내용은 제6차 근로환경조사 설문지 및 자료이용설명서(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최근에 이룰수록 사회심리적 요인과 노동시간, 노동강도, 사회적 취약 계층의 근로환경 등에 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조사 내용의 범위도 확대되었고, 일과 삶의 균형 역시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2020년 근로환경조사의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50,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다. 조사 모집단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 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 목표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취업자(근로자, 사업주와 자영업자 포함)이며, 조사 단위는 가구당 1명(개인)이다. 조사의 기본 방식은 가구 방문을 통한 1:1 면접조사인 TAPI(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이 활용되었지만, COVID-19로 인해 자기기입식 조사와 웹조사가 병행되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웹사이트, 2022. 6. 17. 인출). 이 조사는 첫 실시부터 EU 산하 유로파운드(Eurofound)에서 실시하는 유럽 근로환경 조사를 기초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는데, 2020년 조사 역시 「제7차 유럽근로환경조사」에 근거한다. 설문 항목은 크게 가구 현황, 취업자 특성, 고용 안정 및 노동력 구조, 작업환경, 건강, 기술/능력 계발, 일과 삶의 균형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생활균형은 작업환경 영역의 일부 문항들도 해당하지만,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된 노동시간, 비표준적인 노동시간, 교대근무, 근무시간 유연성, 비노동시간, 일-생활 균형 만족도 등이 조사된다.

〈표 2-6〉 2020년 근로환경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가구 현황		- 가구 구성원 수, 가구 구성원 현황 등
취업자 특성	사회인구학적	- 국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근무시간(주당 근무일 수, 근무시간, 희망 근로시간)
	직업	- 자영업/근로자, 업종, 직종, 고용계약 형태, 사업장 규모
고용안정/노동력 구조		- 고용계약형태, 수입
		- 근무형태(근무 지속 가능성, 반복 갱신, 교대근무), 근무기간
		- 피고용자(근로시간 형태, 임금 지급 업체, 성과에 따라 소득을 얻는지 여부, 일한 장소)
		- 자영업자(주된 직업의 범주, 자영업 선택 이유)
		- 고용계약 시 근로시간 설정 여부
		- 사업장의 수, 부하직원 수
		- 사업장 종사자 중 여성의 비중, 동일 업무 담당자의 성별
작업환경		- 권리(노동조합, 사내 의사소통 등)
		- 작업환경(위험의 노출, 물리적 위험)
		-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 작업 방식에 따른 사용 정도
		- 작업장소, 한 장소에서 근무 여부, 근무장소 선택 가능 여부
		- 출퇴근 시간, 밤/주말/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유무
		- 휴식시간 11시간 미만 유무
		- 돌발업무 복귀 요청 빈도
		- 짧게 반복되는 작업, 작업속도, 작업속도 결정요인
		- 작업 중단 경험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 고객/거래처로부터의 공식적 평가 수령 유무
		- 작업 선택의 가능성
		건강 관련
- 위험요인 노출, 업무 구조		
- 감정노동실태, 근무환경 만족도, 업무 만족도		
기술/능력 개발		- 직업성과 평가 방법
		- 훈련제공 여부, 참여 여부, 평가
		- 교육구조
일과 삶의 균형		- 노동시간, 비표준적인 노동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유연성, 근무시간 변경 발생빈도 및 통보 시기
		- 개인 자유시간의 근무시간 할애 빈도
		- 비노동시간(가사, 육아 등)
		-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

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제6차 근로환경조사 설문지 및 자료이용설명서. p.3.

〈표 2-7〉 기존 일-생활 균형 관련 조사(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조사)

조사 명	시기	대상(규모)	방법	내용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주기: 1년 *2008년 시작 *2011년부터 정례화	-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총 5,097개 표본사업체 인사담당자(20년) * 2011년 1,000개소, 2018년 이후 5,000개소 대상	- (2020)웹서베이, 전자우편, 팩스, 전화조사 병행	- 사업체 일반현황: 소재지, 업종, 유형, 성별/연령 구성 등 -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활용 실태 -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 실태 - 유연근로 및 일하는 문화 - 남녀고용 평등기회 등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주기: 1년 *2000년 시작	- 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민간부문의 전 산업 중 약 33,000개 표본사업체	- 타계식, 자계식 (Fax, E-mail) 조사 병행	- 사업체 조사표: 소재지, 사업체/경영 형태, 근로자 수, 상여금 및 성과급 등 - 개인 조사표: 고용형태, 성별, 연령, 경력년수, 근무형태, 직종,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등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주기: 5년 *1999년 시작 *최근: 2019년	- 전국 12,435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2020년) * 유효 수: 12,388가구 내 26,091명	- 면접조사 (가구/개인 항목) - 자기기입식조사 (시간일지)	- 가: 성별, 혼인상태, 가구소득 등 - 개인: 시간외박 여부, 일과 후 피곤함 정도, 여가/가사분담 만족도, 성취할 직업, 주업/부업 시간, 경제활동 여부 등 - 시간: 주된 행동, 동시행동, 행위장소, 함께한 사람, 시간일지, 시간활동 구분상태 등
근로자 휴가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주기: 1년 *2018년 시작	- 17개 시·도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856개에서 총사하는 상용근로자 5,265명(2021년)	- 면접조사	- 사업체: 휴가제도 관련, 사업체 일반현황 등 - 근로자(상용): 주 평균 근로시간, 부여 휴가 일수 및 사용일수, 휴가제도 및 사용 경험, 휴가 관련 인식, 만족도, 원활한 휴가 사용 시 중요 조건, 성별, 학력, 혼인상태, 자녀 수/연령, 직임/직급, 근무형태, 가구소득 등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주기: 1년 *2006년 시작	-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10,031명(2021년)	- 면접조사	- 여가활동 참여 실태: 유형, 빈도, 시간, 비용, 만족도, 목적 등 - 평일 및 휴일 여가활동: 희망, 참여, 충분성, 희망 여가시간 등 - 여가공간, 동호회 등 다양한 여가활동, 여가인식 및 만족도 등

자료: 저자 각장.

7. 해외 조사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해외의 다양한 조사가 있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를 조사하며, 한국에서도 적용해서 사용하는 조사인 유럽 근로환경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와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유럽 국가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고, 다양한 환경 특성 분석 및 위험에 노출되는 집단을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1991년부터 유럽 근로환경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발전에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최근에 실시된 유럽 근로환경 조사에서는 고용 상태, 조직 특성, 교육 및 훈련, 일하는 시간, 신체적·심리적 위험요인, 건강 및 안전, 일-생활 균형, 수입 및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일과 건강 등과 같은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질문을 다루고 있다(Eurofound, 2017a). 유럽 근로환경 조사는 매년 진행될 때마다 질문지를 수정한다. 2021년에는 대면조사에서 전화조사로 조사 방법이 변경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와 정책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추가로 조사하였다(Eurofound Website, 2022. 7. 11. 인출). 2021년 유럽 근로환경 조사 특별 버전에서는 근로자의 경험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주제들을 포함하였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신규 취업자, 생애주기에 따른 취업자, 일하는 장소·ICT 사용·계약상 일하는 시간 등 일과 관련된 특징, 신체적 및 사회적 환경·업무 조직 특성·근로시간 조정·일자리 전망 등 일자리 질과 관련된 주제, 일하는 조직의 유형, 일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요인, 사회환경, 하이브리드워크(hybrid work), 일-가족 갈등, 시간 사용과 일-생활 균형, 성차별 경험,

건강과 안전 및 위험, 예측 가능 수입과 생계유지, 일자리에서의 웰빙, 업무 몰입과 소진(번아웃)과 관련된 주제 등(Eurofound Website, 2022. 7. 11. 인출).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는 2003년부터 EU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주관적 웰빙, 낙관주의, 건강, 생활수준, 박탈의 측면, 일-생활 균형, 건강관리, 돌봄, 공공 서비스, 사회적 불안, 사회적 배제, 사회적 긴장, 신뢰, 공동체 참여, 평생학습 및 훈련에의 참여 등을 통해 삶의 질을 조사한다(Eurofound, 2017b).

8. 본 조사의 차별성

기존 연구 및 조사를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그동안의 조사는 일-생활 균형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가 이 연구의 조사와 가장 유사한 연구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제도 활용 파악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여서 개인의 일-생활 균형 실천을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생활 균형 조사가 있으나 지역 조사로는 한국 사회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는 다른 주제 조사에서 개인의 일-생활 균형 파악을 위한 항목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 어렵고 다각도접근에 한계가 있어서 일-생활 균형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조사나 연구의 대부분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맞벌이 가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일-생활 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비취업자를 포함하여 일-생활 균형을 파악하

는 시도가 거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를 확대하여 비취업자가 주로 하는 학업·훈련이나 가사 및 돌봄 등의 활동을 일로 생각하고 비취업자를 조사에 포함하였다.

장시간 근로문화나 피로사회 등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일-생활 균형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일-생활 균형에 대해 종합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취업자 중심이나 맞벌이 가구, 또는 양육 및 육아기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된 실태 파악이 아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집단별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생성하고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일하는 시간과 환경

제1절 일하는 시간

제2절 일하는 환경과 특성

제3절 소결

제3장 일하는 시간과 환경

제3장에서는 일-생활 균형에서 중요한 한 축인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근로환경 및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제1절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개수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일자리가 하나인 응답자의 계약상 일하는 시간과 실제 일하는 시간,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이면 주업과 부업의 일하는 시간 및 실제 일하는 총 시간으로 알아보았다.

일자리가 한 개인 경우, 계약상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39.80시간이며, 실제 일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40.81시간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이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상 일하는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길고,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길다. 기혼, 비맞벌이, 자녀가 있는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 상용근로자,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종사자, 제조업 및 기타, 민간 등의 조직, 조직 규모가 30인 이상인 경우, 정규직원 경우가 계약상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긴 집단이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계약상 일하는 시간과 특성별 차이에서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즉, 위에 열거한 집단이 모두 상대적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도 긴 집단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직 영역에서 계약상은 민간 등의 조직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과 비교해 길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표 3-1〉 일하는 시간: 일자리 한 개

(단위: 시간, 명)

구분		계약상 일하는 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N	평균	t/F	N	평균	t/F
전체		(11,830)	39.80		(15,884)	40.81	
개인·가족 특성	성별						
	남성	(6,421)	41.27	18.96***	(8,762)	42.96	24.59***
	여성	(5,409)	38.05		(7,121)	38.16	
	연령						
	만19~29세	(2,293)	37.61	65.28***	(3,237)	38.23	72.59***
	만30~39세	(2,771)	41.01		(3,729)	42.32	
	만40~49세	(3,374)	40.45		(4,447)	41.59	
	만50~59세	(3,391)	39.64		(4,471)	40.64	
	거주지						
	수도권	(6,389)	39.76	-0.50	(8,512)	40.91	1.13
	비수도권	(5,440)	39.84		(7,371)	40.69	
	혼인상태						
	미혼	(4,602)	39.08	-6.59***	(6,381)	39.77	-8.55***
	기혼	(7,227)	40.25		(9,502)	41.51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51)	39.83	-7.85***	(6,937)	40.81	-12.15***
	비맞벌이	(1,551)	41.81		(1,997)	44.12	
자녀 수							
자녀 없음	(3,625)	39.15	14.87***	(4,971)	39.96	22.05***	
1명	(2,200)	40.40		(2,892)	41.73		
2명 이상	(3,677)	40.07		(4,772)	41.1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660)	38.02	31.24***	(2,402)	37.97	60.50***	
300~500만 원 미만	(2,976)	39.96		(4,051)	41.12		
500~700만 원 미만	(3,437)	39.80		(4,600)	40.99		
700만 원 이상	(3,533)	40.65		(4,501)	42.07		
무응답	(225)	37.18		(330)	37.78		
일자리 특성	중사상지위						
	상용근로자	(9,833)	41.46		(12,447)	43.19	
	임시·일용근로자	(1,329)	29.13	1323.68***	(2,052)	28.81	1492.50***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668)	36.55		(1,385)	37.17	
	직종						
	관리자·전문가	(3,071)	40.73	125.29***	(4,150)	42.20	135.49***
	사무종사자	(5,282)	40.76		(6,527)	42.08	
판매·서비스종사자	(1,965)	36.42	(2,897)		37.32		
기타	(1,512)	38.92	(2,310)		39.10		

구분	계약상 일하는 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N	평균	t/F	N	평균	t/F
산업						
제조업	(2,371)	42.37		(3,066)	43.89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1,785)	37.97		(2,615)	38.96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2,730)	37.91	106.08***	(3,517)	38.51	108.14***
그 외 서비스업	(1,684)	39.23		(2,314)	40.02	
기타	(3,260)	40.79		(4,371)	42.01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9,282)	40.02		(12,666)	40.77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2,548)	38.98	5.61***	(3,218)	40.96	-0.84
조직 규모						
5인 미만	(1,725)	36.26		(2,952)	36.30	
5~30인 미만	(3,578)	38.76		(4,755)	39.47	
30~100인 미만	(2,568)	40.68	127.65***	(3,212)	42.32	207.53***
100~300인 미만	(1,496)	41.51		(1,925)	43.33	
300인 이상	(2,463)	41.82		(3,040)	44.08	
정규직 여부						
정규직	(8,937)	41.71		(11,244)	43.68	
비정규직	(895)	38.98	9.14***	(1,203)	38.60	12.67***

주: 1) * p<0.05, ** p<0.01, *** p<0.001

2) 계약상 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

3) 일하는 시간에 대한 월 단위 응답은 주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

4)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이면 주업에 대해 계약상 근로시간과 실제 일하는 시간, 부업의 실제 일하는 시간, 그리고 모든 일자리의 시간을 더한 실제 일하는 총시간으로 알아보았다. 주업의 주당 평균 계약 근로시간은 36.43시간이며, 주업에 대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33.79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실제 일하는 시간 짧은 현상을 보인다.

두 개 이상인 일자리 중 주업에 해당하는 직업의 계약상 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길고, 30대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긴 경향이 있다. 상용근로자, 사무종사자, 제조

업, 정규직인 경우가 상대집단보다 계약상 근로시간이 긴 집단으로 나타났다. 주업에서 실제 일하는 시간은 계약상 일하는 시간과 특성별 차이에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 앞서 열거한 집단이 모두 상대적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도 긴 집단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혼의 경우가 비혼 집단보다 실제 일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에 대해서는 남성, 50대,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 집단, 상용근로자, 판매·서비스종사자 및 기타, 도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점업과 그 외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일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업을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부업을 가진 이유에 따라서 보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업을 가진 집단이 주당 10.65시간으로 나타나 다른 이유를 가진 집단보다 긴 특징을 보인다.

일자리가 2개 이상인 취업자의 실제 일하는 총시간은 주당 평균 40.69시간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남성, 기혼, 비맞벌이, 자녀가 있는 경우, 30대와 50대, 상용근로자, 제조업 및 기타, 그리고 부업을 가진 이유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함인 경우가 상대 집단보다 실제 일하는 시간이 긴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3-2〉 일하는 시간: 일자리 두 개 이상

(단위: 시간, 명)

구분	주업				부업				총 실제 일하는 시간		
	계약상 일하는 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N	평균	t/F
	N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041)	36.43		33.78		9.37		(1,627)	40.69		
개인	성별										
	남성	(520)	38.48		35.51	4.85***	10.26	4.66***	(874)	43.28	
여성	(521)	34.38	5.23***	31.77	4.85***	8.35	4.66***	(753)	37.68	5.26***	
가족 특성	연령										
	만19~29세	(277)	34.91		31.84		8.99		(419)	38.89	
	만30~39세	(235)	37.72		36.40		9.27		(374)	41.96	
	만40~49세	(255)	36.81	2.18	33.52	5.80**	8.39	6.50***	(416)	39.11	3.70*
	만50~59세	(274)	36.50		33.63		10.84		(417)	42.93	

구분	주업						부업		총 실제 일하는 시간		
	계약상 일하는 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N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N	평균	t/F	
거주지	수도권	(588)	36.46		33.37	-1.20	9.38		(923)	40.01	
	비수도권	(453)	36.39	0.09	34.31		9.36	0.05	(704)	41.58	-1.45
혼인상태	미혼	(456)	35.81		32.33	-3.35***	9.01		(726)	38.59	
	기혼	(585)	36.91	-1.37	34.94		9.67	-1.59	(901)	42.38	-3.5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6)	35.92		34.26	-1.54	9.19		(675)	41.06	
	비맞벌이	(76)	39.94	-2.53*	36.58		11.02	-1.90	(119)	46.46	-2.59*
자녀 수	자녀 없음	(365)	36.09		33.04		8.84		(584)	39.11	
	1명	(168)	37.06	0.33	34.54	2.18	9.70	1.01	(257)	41.71	3.30*
	2명 이상	(287)	36.45		34.98		9.27		(414)	42.3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49)	34.10		29.93		9.95		(255)	38.42	
	300~500만 원 미만	(257)	35.52		33.87		9.41		(407)	40.92	
	500~700만 원 미만	(298)	36.75	3.80*	34.22	6.99***	9.22	0.46	(449)	40.40	1.76
	700만 원 이상	(313)	38.05		35.37		9.29		(470)	42.21	
	무응답	(24)	35.57		33.74		8.35		(47)	38.53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93)	40.05		39.66		9.91		(944)	45.25	
	임시·일용근로자	(238)	27.54	107.52***	24.11	207.94***	8.34	5.25***	(419)	32.63	57.96***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10)	32.81		28.04		9.09		(263)	37.16	
	직종										
	관리자·전문가	(341)	35.25		33.11		9.01		(563)	40.20	
	사무종사자	(334)	38.83		37.40		8.60		(421)	42.03	
	판매·서비스종사자	(229)	34.98	5.99***	31.26	11.73***	9.93	4.00***	(392)	39.18	1.54
	기타	(137)	35.94		33.12		10.63		(250)	41.88	
	산업										
	제조업	(138)	40.83		38.54		8.53		(208)	43.54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20)	36.19		34.28		9.63		(353)	41.24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296)	32.99	12.43***	30.98	12.60***	8.46	3.85**	(414)	37.76	4.76**	
그 외 서비스업	(184)	35.85		31.19		9.47		(307)	39.04		
기타	(203)	39.22		36.06		10.64		(344)	43.40		
정규직 여부	정규직	(606)	40.91		40.69		9.78		(809)	45.43	
	비정규직	(87)	34.07	4.18***	33.53	4.99***	10.66	-1.07	(136)	44.14	0.69

구분	주업				부업				총 실제 일하는 시간		
	계약상 일하는 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N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N	평균	t/F	
부업 이유											
생활비 충당	(427)	36.55		34.20		10.65		(698)	43.05		
추가 수입	(433)	37.57	6.88**	35.49	16.76***	8.58	14.68***	(622)	40.84	15.15***	
하고 싶은 일이나 경험 등	(180)	33.39		29.34		8.09		(307)	35.01		

주: 1) * p<0.05, ** p<0.01, *** p<0.001

2) 계약상 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

3) 일하는 시간에 대한 월 단위 응답은 주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

4) 주업과 부업의 실제 일하는 시간의 사례 수는 총 실제 일하는 시간의 사례 수와 같음.

5)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6) 부업 이유에서 '생활비 충당'은 '주업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추가 수입'은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추가 수입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나 경험 등'은 '즐거워 일/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이직 및 창업 등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기타'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총 일하는 시간은 결국 일자리가 한 개인 집단과 두 개 이상인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인 집단에서 주업의 계약 근로시간이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짧아 일자리가 한 개인 집단과는 다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의 계약상 일하는 시간 자체가 짧고 실제 일하는 시간은 계약보다 더 짧았지만, 일자리 개수가 증가해도 일하는 총시간량은 유사하다. 이는 일자리를 두 개 이상 가진 경우는 부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도 부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볼 수 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고자 하는지 알아보았다. 평균 36.70시간으로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34.28시간으로 남성의 36.68시간보다 희망하는 근무시간이 짧았고, 20대는 34.97시간으로 30대 이상이 36시간 이상인 점과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좀 더 짧은 근무시간을 희망했고, 일시·일용근로자의 경우 32.36시간으로 다른 종사상지위 집단과 비교해 짧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보다 기혼, 맞벌이보다는 비맞벌이 집단이 희망하는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근무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직종 중에서는 판매·서비스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근무를 원하고, 제조업 분야는 39.07시간으로 비교적 긴 시간을 일하기 희망하는데 반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분야에 일하는 경우는 34.86시간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 희망하는 근무시간이 짧았다. 현재 주당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30시간 미만 집단은 25.82시간, 30~40시간 집단은 36.01시간, 41~52시간 집단은 40.06시간,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집단은 44.17시간을 희망 근무시간으로 응답했다. 현재 일하는 시간이 40시간 이하인 집단까지는 희망하는 시간도 현재 근무시간 범주로 나눈 해당 구간 내에 존재하지만,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집단은 희망하는 근무시간이 현재 자신이 일하는 시간이 포함된 범주를 벗어나게 짧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희망하는 근무시간은 현재 자신이 일하는 시간에 따른 차이를 가장 크게 찾아볼 수 있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집단도 주 4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일하는 집단에서의 현실과 희망의 간극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희망하는 일하는 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평균	t/F
전체		(17,510)	36.70	
개인·가족 특성	성별			
	남성	(9,636)	38.68	23.65***
	여성	(7,874)	34.28	
	연령			
	만19~29세	(3,656)	34.97	41.69***
	만30~39세	(4,103)	36.32	
	만40~49세	(4,863)	37.11	
	만50~59세	(4,888)	37.91	
	거주지			
	수도권	(9,435)	36.35	-4.04***
	비수도권	(8,075)	37.12	
	혼인상태			
	미혼	(7,107)	35.46	-10.79***
	기혼	(10,403)	37.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7,612)	36.88	-10.05***
비맞벌이	(2,117)	39.73		
자녀 수				
자녀 없음	(5,555)	35.52	53.69***	
1명	(3,149)	37.58		
2명 이상	(5,186)	37.8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657)	34.88	25.11***	
300~500만 원 미만	(4,457)	37.08		
500~700만 원 미만	(5,049)	36.63		
700만 원 이상	(4,971)	37.38		
무응답	(377)	37.04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3,392)	37.63	195.38***
	임시·일용근로자	(2,471)	32.36	
	자영업자	(1,487)	36.02	
	무급가족종사자	(161)	32.57	
	직종			
	관리자·전문가	(4,714)	37.09	13.17***
	사무종사자	(6,948)	36.59	
판매·서비스종사자	(3,288)	35.70		
기타	(2,561)	37.60		

구분		평균	t/F
산업			
제조업	(3,275)	39.07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969)	36.18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3,930)	34.86	54.28***
그 외 서비스업	(2,622)	36.33	
기타	(4,715)	37.12	
정규직 여부			
정규직	(12,053)	37.84	
비정규직	(1,339)	35.72	5.51***
주당 일하는 시간			
30시간 미만	(1,885)	25.82	
30~40시간	(7,607)	36.01	
41~52시간	(4,986)	40.06	930.18***
52시간 초과	(1,325)	44.17	

주: 1) * p<0.05, ** p<0.01, *** p<0.001

2) 월 단위 응답은 주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

3)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하는 시간에 이어서 일하는 동안 갖는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루를 기준으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알아보았는데, 평균 64.45분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61.21분으로 남성의 67.11분보다 짧은 휴게시간 보였다. 임시·일용근로자는 61.26분, 판매·서비스종사자는 60.52분으로 상대 집단보다 짧은 휴게시간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분야가 59.03분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 짧았고, 조직 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는 약 67분으로 다른 조직 규모의 집단보다 길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은 휴게시간이 61.89분으로 민간 및 기타 조직보다 짧았고, 비정규직의 경우가 정규직보다 짧은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총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주 5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휴게시간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집단은

41~52시간 일하는 집단보다 오히려 휴게시간이 짧은 특징을 보인다.

휴게시간과 함께 그 시간의 충분 정도를 살펴보았다.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은 42.8%, 부족한 편에 대한 응답은 40.1%,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은 12.3%,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다 쪽⁶⁾의 응답이 52.5%로 충분하다 쪽의 응답보다 약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 짧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여성이 부족하다는 쪽에 응답한 비율이 56.7%로 남성의 49.0%보다 높다. 남성은 오히려 충분하다 쪽의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는 휴게시간은 종사상지위 집단 중 가장 짧지만, 휴게시간이 충분하다는 쪽에 응답한 비율이 53.4%로 상용근로자의 44.3%보다 높았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휴게시간이 전체 평균과 유사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쪽의 응답이 65.1%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 업무의 환경 및 특성에 따라 실질적인 휴게시간과 충분성을 느끼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별로는 평균 휴게시간이 가장 짧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분야가 휴게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직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에 대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60.9%로 다른 조직 규모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가 5인 미만인 집단은 휴게시간이 다른 조직 규모에 비해 짧았는데도 휴게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는 업무의 특성, 또는 5인 미만 규모에는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가 속해 있는 등 일하는 시간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당 일하는 시간이 총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평균 휴게시간은 짧지만, 그 시간에 대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64.2%로 높은 것은 앞서 조직 규모에서 생각

6) '충분한 편'과 '매우 충분함'을 합한 수치임.

해 본 가능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집단은 불충분에 대한 비율이 66.9%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휴게시간이 일하는 시간의 길이와 비례해 증가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에 따라 느끼는 충분 정도는 휴게시간의 증가에 따라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휴게시간과 충분성

(단위: 분, 명, %)

구분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충분 정도							
		평균	t/F	매우 부족	부족한 편	부족	충분한 편	매우 충분	충분
전체 (17,510)	64.45			12.3	40.1	52.5	42.8	4.8	47.5
성별									
남성 (9,636)	67.11	24.24***	10.7	38.3	49.0	45.8	5.2	51.0	
여성 (7,874)	61.21		14.3	42.4	56.7	39.0	4.3	43.3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3,392)	65.04	56.05***	13.3	42.4	55.7	41.1	3.1	44.3	
임시·일용근로자 (2,471)	61.26		10.3	36.3	46.6	45.4	8.1	53.4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648)	64.49		7.7	27.2	34.9	52.0	13.2	65.1	
직종									
관리자·전문가 (4,714)	65.57	86.62***	11.3	36.9	48.2	46.5	5.3	51.8	
사무종사자 (6,948)	64.83		12.2	44.3	56.5	40.5	3.0	43.5	
판매·서비스종사자 (3,288)	60.52		13.2	36.5	49.7	43.4	6.9	50.3	
기타 (2,561)	66.42		13.3	39.5	52.8	41.4	5.9	47.2	
산업									
제조업 (3,275)	68.87	233.12***	11.0	41.9	52.9	44.6	2.6	47.1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969)	62.02		12.4	38.0	50.4	43.3	6.3	49.6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3,930)	59.03		15.7	40.3	56.0	39.7	4.3	44.0	
그 외 서비스업 (2,622)	65.56		10.1	37.6	47.7	45.2	7.1	52.3	
기타 (4,715)	66.82		11.6	41.6	53.2	42.4	4.4	46.8	
조직 규모									
5인 미만 (3,445)	62.64	51.28***	9.8	29.3	39.1	50.8	10.1	60.9	
5~30인 미만 (5,290)	63.05		13.5	40.8	54.3	41.5	4.3	45.7	
30~100인 미만 (3,478)	64.61		11.8	45.0	56.7	40.1	3.2	43.3	
100~300인 미만 (2,072)	66.91		13.1	45.4	58.5	38.4	3.1	41.5	
300인 이상 (3,224)	66.93		13.2	42.1	55.3	42.0	2.7	44.7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14,028)	65.09	10.76***	12.0	39.3	51.3	43.6	5.1	48.7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3,482)	61.89		13.5	43.5	57.0	39.3	3.7	43.0	

구분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충분 정도						
	평균	t/F	부족		충분		매우 충분	총분	
			매우 부족	부족한 편	충분한 편	매우 충분			
정규직 여부									
정규직 (12,053)	65.43	8.18***	13.3	43.0	56.2	40.8	3.0	43.8	
비정규직 (1,339)	61.49		13.3	37.7	51.0	44.3	4.7	49.0	
주당 총 일하는 시간									
30시간 미만 (1,885)	57.70	143.26***	9.0	27.3	36.3	50.9	12.8	63.7	
30~40시간 (7,607)	64.69		9.3	40.2	49.6	46.6	3.9	50.4	
41~52시간 (4,986)	66.49		15.2	44.7	59.9	37.4	2.7	40.1	
52시간 초과 (1,325)	66.21		23.8	43.0	66.9	29.2	3.9	33.1	
휴게시간									
60분 미만 (2,092)	34.55	87562.97***	22.4	43.9	66.3	31.0	2.6	33.7	
60분 (10,103)	60.00		13.4	44.4	57.8	38.7	3.5	42.2	
61분 이상 (5,315)	84.68		6.3	30.6	36.8	55.2	8.0	63.2	

주: 1) * p<0.05, ** p<0.01, *** p<0.001
 2) 월 단위 응답은 주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일하는 환경과 특성

이번 절에서는 일하는 환경과 특성,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만족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총 6개의 세부 질문을 이용하였다. 업무환경이 자유로운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였고 이에 동의하는 비율(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을 제시하였다. 다만, ‘내가 맡을 일은 내가 매우 열심히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는 업무환경의 자율성으로 보았을 때 긍정과 부정의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 이 의견에 대한 긍정의 응답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① 근무 중(일하는 중간에)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63.1%, ‘② 내가 맡은 일(나의 일)을 완료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75.5%, '③ 나는 개인 일이나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일하는 중) 한두 시간을 낼 수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57.3%로 나타났다. 이어서 '④ 나의 현재 근무(일하는)시간은 직장(하는 일) 이외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병행하기에 적당하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70.3%, '⑤ 내가 맡은 일(나의 일)은 내가 매우 열심히 일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는 71.7%가 동의하였으며, '⑥ 내가 맡은 일(나의 일)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나 내가 정한 장소(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에 대해서는 39.7%만이 동의하였다. 전반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일을 완료하기 위한 시간, 일-생활 병행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율성이 있는 듯하지만, 일하는 시간 동안의 개인 일이나 정해진 장소에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② 내가 맡은 일(나의 일)을 완료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와 '④ 나의 현재 근무(일하는)시간은 직장(하는 일) 이외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병행하기에 적당하다'이다. 이는 여성이 이러한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율성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⑤ 내가 맡은 일(나의 일)은 내가 매우 열심히 일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에 대해서도 남성이 그렇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연령대로 보면, 전반적으로 40대 이상이 좀 더 자율성을 느끼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는 집단이 다른 분야보다 전반적으로 자율성이 낮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 등, 교대제인 경우도 상대 집단보다 자율성이 낮은 업무 환경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일하는 직속상관이 있다면 일하는 환경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뒤에 이어지는 <표 3-6>의 직속상관의 특성을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직속상관의 특성은 반드시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일하는 곳의 경영 전반에 대한 분위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속상관의 특성은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4개의 항목의 합은 최저 4점에서 최고 16점을 이루기 때문에, 8점 이하는 ‘소통·유연성 낮음’, 9점 이상은 ‘소통·유연성 높음’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에 대한 변수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은 다른 변수보다 직속상관의 유연성과 소통 가능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하는 곳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직속상관의 특성이 일하는 곳의 자율성에 대한 평가에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단위: %, 명)

구분	① 원할 때 휴식	② 일 완료에 충분한 시간	③ 근무 중 한두 시간 내기	④ 적당한 근무 시간	⑤ 열심히 해아만 일 완료 가능	⑥ 재택 근무 가능	전체	
전체	63.1	75.5	57.3	70.3	71.7	39.7	(17,510) 100.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69.4	74.7	61.7	68.2	73.6	42.5	(9,636) 100.0
	여성	55.3	76.5	51.9	72.9	69.2	36.3	(7,874) 100.0
	연령							
	만19~29세	58.0	76.3	53.5	70.4	66.2	41.0	(3,656) 100.0
	만30~39세	62.7	72.5	56.3	68.4	71.8	40.8	(4,103) 100.0
	만40~49세	65.4	74.2	60.5	70.8	73.9	40.7	(4,863) 100.0
	만50~59세	64.8	78.7	57.7	71.4	73.4	36.8	(4,888)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56.5	81.4	51.1	80.4	66.0	36.9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55.6	75.5	50.9	66.9	67.6	35.8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62.7	73.5	57.1	68.0	74.2	38.5	(3,954) 100.0	
400만 원 이상	72.9	74.3	65.5	70.7	76.1	44.9	(5,593) 100.0	
무응답	64.2	77.5	61.9	73.7	70.2	45.7	(427)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원할 때 휴식	일 완료에 충분한 시간	근무 중 한두 시간 내기	적당한 근무 시간	열심히 해야만 일 완료 가능	재택 근무 가능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2.9	73.9	56.6	68.8	71.7	38.5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53.9	78.9	48.0	73.0	66.6	35.8	(2,471) 100.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77.9	83.2	76.8	78.7	78.5	55.8	(1,648)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69.0	74.4	64.1	72.3	78.2	46.1	(4,714) 100.0
	사무종사자	67.8	75.3	60.6	71.9	68.5	45.2	(6,948)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53.1	78.7	49.8	69.8	71.0	30.4	(3,288) 100.0
	기타	52.0	74.1	45.5	63.1	69.0	25.1	(2,561) 100.0
	산업							
	제조업	67.0	72.6	57.7	65.4	71.7	36.5	(3,275)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60.1	78.6	55.6	69.4	69.5	37.4	(2,969)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49.2	74.5	48.2	73.4	73.4	31.9	(3,930) 100.0
	그 외 서비스업	70.6	78.0	63.1	72.6	72.6	46.7	(2,622) 100.0
	기타	69.5	75.1	62.4	70.5	71.0	46.0	(4,715)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71.5	82.4	67.7	76.5	72.8	46.4	(3,445) 100.0
	5~30인 미만	59.1	76.4	55.1	69.2	70.2	37.3	(5,290) 100.0
	30~100인 미만	58.4	73.5	53.8	68.8	71.9	36.0	(3,478) 100.0
	100~300인 미만	62.3	72.3	51.9	66.8	70.7	38.4	(2,072) 100.0
	300인 이상	66.1	71.0	56.9	69.6	73.2	41.4	(3,224)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64.7	76.1	57.9	69.3	72.0	41.1	(14,02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56.6	73.1	54.7	74.4	70.2	34.3	(3,482)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63.6	73.5	57.6	68.3	72.2	39.5	(12,053) 100.0
	비정규직	57.3	78.0	47.9	73.4	68.0	29.0	(1,3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54.4	76.7	49.1	75.8	67.1	39.3	(2,902) 100.0	
전일제 근무	63.1	74.3	56.6	68.0	71.8	37.8	(12,961)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45.3	72.8	40.0	63.1	65.5	27.0	(1,955) 100.0	
교대제 아님	63.8	75.0	57.4	70.4	71.7	39.6	(13,907) 100.0	
직속상관의 특성								
소통·유연성 낮음	25.3	40.1	19.3	31.8	62.3	18.3	(1,272) 100.0	
소통·유연성 높음	64.8	77.7	58.5	72.8	71.7	39.9	(14,751) 100.0	

- 주: 1) ① 근무 중(일하는 중간에)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② 내가 맡은 일(나의 일)을 완료하기에 시간
이 충분하다 ③ 나는 개인 일이나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일하는 중) 한두 시간을 낼 수 있다
④ 나의 현재 근무(일하는)시간은 직장(하는 일) 이외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병행하기에 적당하다
⑤ 내가 맡을 일(나의 일)은 내가 매우 열심히 일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⑥ 내가 맡을 일(나의 일)은 필요
한 경우 재택근무나 내가 정한 장소(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2) 직속상관의 특성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16,023명의 응답임.
3) 직속상관의 특성 카테고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된 4개의 항목의 합(4
점~16점)을 이용하여 8점 이하는 '소통·유연성 낮음', 9점 이상은 '소통·유연성 높음'으로 구성함.
4)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앞의 분석에서 직속상관의 특성이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직속상관의 특성에 대해 항목별 분석을 제시한다. 직속상관의 특성은 자영업자는 제외하고 질문하였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의 태도가 유연하고 소통이 가능한가의 방향으로 질문하였다. ‘① 상관은 나에게 인격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대한다’에 대해서는 77.4%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다. ‘② 나는 상관이 퇴근하지 않았더라도 편하게 내가 먼저 퇴근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79.1%가 동의하였고, ‘③ 나는 상관에게 휴가나 조퇴 사용이 필요할 때 편하게 말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75.9%로 나타났다. ‘④ 상관은 내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 시간 또는 휴가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바꾸도록 해준다’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은 81.0%로 직속상관이 비교적 유연하고 소통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직속상관의 소통가능성 및 유연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감소하여, 20대의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직속상관의 소통가능성 및 유연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다. 관리자 및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경우는 그 외의 직종 집단보다 직속상관의 소통가능성 및 유연성이 높아 보인다. 민간 및 기타 조직보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 직속상관의 소통가능성 및 유연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3-6〉 직속상관의 특성(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단위: %, 명)

구분		① 인격적 언어 사용	② 퇴근 자율성	③ 휴가조퇴 이야기 용이	④ 근무시간 ·휴가계획 변경 용이	전체
전체		77.4	79.1	75.9	81.0	(16,023) 100.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77.8	78.0	78.0	81.8	(8,784) 100.0
	여성	76.8	80.4	73.4	80.1	(7,240) 100.0
	연령					
만19~29세	75.5	76.0	74.3	79.4	(3,515) 100.0	
만30~39세	76.2	79.1	76.3	80.3	(3,878) 100.0	

구분		① 인격적 언어 사용	② 퇴근 자율성 자율성	③ 휴가조퇴 이야기 용이	④ 근무시간 ·휴가계획 변경 용이	전체
일자리 특성	만40~49세	77.4	79.6	74.8	81.1	(4,428) 100.0
	만50~59세	80.0	81.1	77.9	83.0	(4,202)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76.2	77.5	71.3	79.8	(2,170) 100.0
	200~300만 원 미만	74.2	77.1	72.6	79.2	(4,936) 100.0
	300~400만 원 미만	77.4	78.1	75.3	79.1	(3,663) 100.0
	400만 원 이상	81.3	82.5	81.4	84.9	(5,019) 100.0
	무응답	72.1	77.2	77.3	79.6	(236) 100.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78.1	79.8	76.4	81.5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73.9	75.4	73.1	78.5	(2,471) 100.0
	무급가족종사자	73.6	75.7	72.8	79.1	(161)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79.4	81.2	78.9	82.8	(4,128) 100.0
	사무종사자	79.7	81.6	77.6	83.0	(6,819)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74.5	75.9	70.0	77.4	(2,691) 100.0
	기타	70.5	71.8	72.3	76.5	(2,385) 100.0
	산업					
	제조업	76.4	78.3	77.5	80.1	(3,179)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73.9	76.7	74.0	81.7	(2,461)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79.0	80.6	72.2	77.8	(3,652) 100.0
	그 외 서비스업	77.3	80.2	76.0	82.5	(2,333) 100.0
	기타	78.7	79.1	78.7	83.3	(4,399)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75.3	75.5	71.9	80.0	(2,178) 100.0
	5~30인 미만	76.9	79.4	74.1	81.2	(5,140) 100.0
	30~100인 미만	77.4	80.2	75.7	80.1	(3,435) 100.0
100~300인 미만	76.5	78.8	77.8	80.4	(2,050) 100.0	
300인 이상	80.1	80.0	80.4	83.0	(3,220)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76.5	78.3	75.0	80.9	(12,54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80.5	81.9	79.1	81.5	(3,476)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78.1	79.6	76.5	81.7	(12,053) 100.0	
비정규직	77.8	81.5	76.0	80.1	(1,339) 100.0	

주: 1) ① 상관은 나에게 인격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대한다 ② 나는 상관이 퇴근하지 않았더라도 편하게 내가 먼저 퇴근할 수 있다 ③ 나는 상관에게 휴가나 조퇴 사용이 필요할 때 편하게 말할 수 있다 ④ 상관은 내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시간 또는 휴가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바꾸도록 해준다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할 때 느끼는 감정을 보면, '일할 때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낀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54.4%였고, '업무를 할 때 열정적이다'에 대해서는 65.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것에 그렇다는 응답은 76.2%이며, '일 때문에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63.3%로 나타났다.

'일할 때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낀다'에 대해 30대 이하의 집단은 절반 이하가 그렇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동의 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이 의견에 대해 67.0%가 그렇다는 쪽의 응답을 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에너지를 갖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및 전문가는 긍정 비율이 62.1%로 높지만, 사무종사자는 48.9%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비율을 보인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이 견해에 대해 49.6%가 동의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할 때 열정적이다'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30대 이하, 사무종사자,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50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관리자 및 전문가의 경우 반대로 업무 시 열정적이라는 편의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50대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은 80% 이상이 '업무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다'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집단이 시간도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일 때문에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30대 이하의 40대 이상 집단보다 높았다.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집단인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일로 인해 진이 빠진다고 느끼는 비율이 57.9%로 다른 종사상지위 집단보다 낮다. 조직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도 57.7%로 나타났는데 이는 5인 미만인 규모에 자영업자 등이 다수 속해 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표 3-7〉 일할 때 감정(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취업자

(단위: %, 명)

구분		일할 때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낀다	업무를 할 때 열정적 이다	업무를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	일 때문에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전체	
전체		54.4	65.9	76.2	63.3	(17,510)	100.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55.2	66.2	76.6	61.2	(9,636)	100.0
	여성	53.4	65.6	75.7	66.0	(7,874)	100.0
	연령						
	만19~29세	49.9	60.7	69.3	68.9	(3,656)	100.0
만30~39세	47.3	58.0	72.1	68.4	(4,103)	100.0	
만40~49세	55.6	67.5	78.9	63.5	(4,863)	100.0	
만50~59세	62.5	75.0	82.0	54.8	(4,888)	100.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1.9	63.7	76.1	64.3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59.7	70.2	73.1	61.7	(2,471)	100.0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67.0	77.5	81.5	57.9	(1,648)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62.1	73.5	81.6	61.0	(4,714)	100.0
	사무종사자	48.9	59.5	75.5	63.3	(6,948)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57.7	69.3	71.9	65.7	(3,288)	100.0
	기타	51.1	65.1	73.6	64.6	(2,561)	100.0
	산업						
	제조업	49.6	61.3	75.4	62.5	(3,275)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56.0	68.4	74.0	64.2	(2,969)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58.8	70.3	78.0	65.6	(3,930)	100.0
	그 외 서비스업	56.5	66.8	76.1	61.2	(2,622)	100.0
	기타	52.0	63.5	76.5	62.7	(4,715)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61.5	71.3	77.0	57.7	(3,445)	100.0
	5~30인 미만	53.3	66.1	75.7	64.0	(5,290)	100.0
	30~100인 미만	52.8	64.4	75.6	65.9	(3,478)	100.0
	100~300인 미만	49.7	62.8	74.8	66.3	(2,072)	100.0
	300인 이상	53.3	63.5	77.5	63.6	(3,224)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53.9	65.8	75.9	63.3	(14,02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56.6	66.6	77.3	63.5	(3,482)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51.6	63.2	75.9	64.3	(12,053)	100.0
	비정규직	54.5	68.3	78.1	64.4	(1,3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61.2	69.8	73.0	61.2	(2,902)	100.0	
전일제 근무	51.3	63.6	76.2	64.5	(12,961)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52.0	61.8	67.7	64.9	(1,955)	100.0	
교대제 아님	53.3	65.1	76.7	63.8	(13,90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할 때 느끼는 감정을 비취업자를 대상으로도 알아보았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이나 훈련 또는 가사 및 돌봄 등 자신이 주로 하는 활동을 일로 보고 응답한 결과이다.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충전함을 느낀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67.2%였고,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열정적이다’에 대해서는 73.2%가 그렇다는 쪽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은 79.6%이며, ‘내가 맡은 일을 때문에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58.1%로 나타났다. 취업자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에너지나 열정을 더 느끼고 진이 빠지는 느낌은 덜 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이 여성보다 일할 때 에너지나 열정이 많은 반면, 여성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더 받고 진이 빠지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 때문에 진이 빠지는 느낌은 48.2%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의 일 때문에 진이 빠진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응답 대상자인 비취업자가 하는 주된 일에 따라 보면, 가사 및 돌봄을 하는 경우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82.9%로 많다. 학업이나 교육 등이 주된 일인 경우는 일 때문에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에 62.4%가 동의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앞으로 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일을 할 때 에너지나 열정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도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일할 때 감정(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비취업자

(단위: %, 명)

구분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총만함을 느낀다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열정적이다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	내가 맡은 일을 때문에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전체
전체	67.2	73.2	79.6	58.1	(4,490) 100.0
성별					
남성	67.9	73.9	76.1	54.2	(1,651) 100.0
여성	66.8	72.8	81.5	60.4	(2,838) 100.0
연령					
만19~29세	67.8	74.6	75.9	63.6	(1,413) 100.0
만30~39세	62.7	69.8	78.8	65.5	(700) 100.0
만40~49세	64.4	69.7	81.6	58.6	(1,014) 100.0
만50~59세	71.1	76.1	82.2	48.2	(1,363) 100.0
주된 일					
가사 및 돌봄	67.7	71.8	82.9	56.9	(1,872) 100.0
학업 및 교육 수강	67.3	74.3	76.3	62.4	(1,551) 100.0
기타	66.4	74.0	78.5	53.9	(1,066) 100.0
일할 의향					
있음	69.2	75.1	80.9	58.0	(3,975) 100.0
없음	51.7	58.4	69.3	58.5	(515)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어서 일자리의 여건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자리의 다양한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 현재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의 순으로 알아보았다. 중요도와 만족도를 알아본 일자리의 여건 및 조건은 ① 수입(하는 일에 대해 적절한 임금), ② 근로시간(너무 길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시간), ③ 일, 가족, 개인생활 균형, ④ 고용 안정성 보장, ⑤ 경직되지 않은 자율적인 업무환경, ⑥ 안전한 근로환경, ⑦ 사회보장(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 ⑧ 복지 및 복리후생의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조건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모든 조건에 대해 중요하다는 쪽의 응답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

수입이 중요하다는 쪽에 응답한 비율이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조건은 일·가족·개인생활의 균형(93.9%)이었다. 수입은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앞서 만족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과 현실의 격차를 엿볼 수 있다. 일·가족·개인 생활의 균형 조건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표 3-9〉 일하는 여건 및 조건에 대한 중요 정도(중요한 편이다+매우 중요하다)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수입	근로 시간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자율적 업무 환경	안전한 근로 환경	사회 보장	복지·복지 후생		
전체	94.4	93.3	93.9	92.8	90.1	93.4	90.9	91.5	(17,510) 100.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93.0	91.2	92.1	91.2	88.2	91.6	89.6	90.2	(9,636) 100.0
	여성	96.2	95.9	96.2	94.8	92.5	95.7	92.5	93.1	(7,874) 100.0
	연령									
	만19~29세	93.5	91.3	91.9	90.5	86.5	91.6	88.1	91.4	(3,656) 100.0
	만30~39세	94.0	92.8	93.9	92.5	89.2	92.2	90.6	90.3	(4,103) 100.0
	만40~49세	94.7	94.1	95.1	93.4	91.0	94.3	91.4	91.5	(4,863) 100.0
	만50~59세	95.2	94.3	94.4	94.2	92.8	94.8	92.6	92.5	(4,888) 100.0
	학력									
	고졸 이하	93.3	90.8	92.6	92.6	88.4	91.9	89.0	90.1	(2,367) 100.0
	대졸	94.5	93.6	93.9	92.7	90.3	93.5	91.0	91.7	(13,138) 100.0
	대학원졸	95.1	94.3	95.8	94.1	90.8	94.5	92.1	91.5	(2,006)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93.4	93.6	94.4	90.7	90.5	93.7	85.7	90.0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94.4	93.6	94.1	93.4	90.4	93.6	92.1	92.1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94.4	92.7	93.4	93.0	89.1	93.3	91.2	91.1	(3,954) 100.0	
400만 원 이상	95.1	93.5	94.2	93.4	90.6	93.4	92.0	92.1	(5,593) 100.0	
무응답	91.4	89.6	91.4	88.2	88.4	90.6	87.6	87.6	(427) 100.0	
일자리 특성	중사상지위									
	상용근로자	94.8	93.9	94.4	94.2	90.5	93.9	93.1	92.7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93.8	91.7	92.1	88.6	88.7	91.8	84.8	88.3	(2,471) 100.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92.8	91.0	93.1	87.6	89.2	91.5	81.9	86.2	(1,648)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93.7	92.0	93.5	91.8	89.4	92.4	89.5	90.8	(4,714) 100.0
	사무종사자	95.5	95.2	95.1	94.7	91.6	94.5	93.9	93.0	(6,948)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94.4	92.7	93.7	91.9	90.0	93.8	88.4	90.1	(3,288) 100.0
기타	93.0	91.1	92.0	90.9	87.5	91.6	88.5	90.4	(2,561) 100.0	

구분	① 수입	② 근로 시간	③ 일생활 균형	④ 고용 안정성	⑤ 자율적 업무 환경	⑥ 안전한 근로 환경	⑦ 사회 보장	⑧ 복지 복리 후생	전체
산업									
제조업	94.3	92.4	93.1	93.2	89.5	93.1	92.3	92.0	(3,275)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94.1	92.2	93.0	91.5	88.9	92.9	87.7	90.1	(2,969)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95.5	95.4	95.8	94.3	91.7	94.9	91.8	92.5	(3,930) 100.0
그 외 서비스업	94.3	92.6	94.3	92.4	91.1	93.0	90.6	90.6	(2,622) 100.0
기타	94.0	93.1	93.5	92.4	89.6	92.9	91.3	91.6	(4,715)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93.5	92.3	93.8	90.3	89.7	92.8	85.2	88.6	(3,445) 100.0
5~30인 미만	95.1	93.7	94.2	93.6	90.9	93.9	92.0	92.2	(5,290) 100.0
30~100인 미만	94.2	93.8	93.7	93.9	90.2	93.7	92.8	92.0	(3,478) 100.0
100~300인 미만	94.5	92.9	94.0	92.6	89.9	93.5	91.7	92.1	(2,072) 100.0
300인 이상	94.5	93.4	93.9	93.2	89.4	92.9	92.5	92.5	(3,224)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94.5	93.1	93.7	92.6	90.0	93.1	90.4	91.1	(14,02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94.1	94.0	94.8	93.8	90.8	94.6	92.9	92.9	(3,482)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94.6	93.7	94.3	94.3	90.4	93.8	93.4	92.8	(12,053) 100.0
비정규직	95.7	95.0	95.7	93.5	91.5	95.3	90.6	91.8	(1,3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91.0	89.3	89.9	88.0	87.2	90.5	83.1	86.7	(2,902) 100.0
전일제 근무	95.4	94.5	95.0	94.6	90.9	94.3	93.8	93.2	(12,961)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90.9	89.0	90.1	89.6	85.7	90.8	88.0	89.3	(1,955) 100.0
교대제 아님	95.1	94.1	94.6	93.9	90.9	94.0	92.4	92.4	(13,907) 100.0

주: 1) ① 수입(하는 일에 대해 적절한 임금) ② 근로시간(너무 길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시간) ③ 일, 가족, 개인생활 균형 ④ 고용 안정성 보장 ⑤ 경직되지 않은 자율적인 업무환경 ⑥ 안전한 근로환경 ⑦ 사회보장(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 ⑧ 복지 및 복리후생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렇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근로 여건 및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알아보았다. 앞서 살펴본 중요도에서와 마찬가지로의 항목인 일하는 여건 및 조건으로 수입, 근로시간,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자율적인 업무 환경, 안전한 근로환경, 사회보장, 복지 및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과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각각 74.8%와 78.4%로 높은 수준이었다. 너무 길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근로시간, 일·가족·개인생활, 고용 안정성 보장, 경직되지 않은 자율적인 업무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에 해당하는 비율이 65% 이상의 수준이었다. 수입과 복지 및 복리후생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8가지 조건 중 만족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조건인 수입을 살펴보면, 월평균 개인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53.3%이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만족한다는 쪽의 응답 비율이 52.1%로 과반이었다. 시간제 근무 집단의 경우는 53.2% 만족한다는 쪽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족한다는 쪽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월평균 개인소득 200~300만 원 미만인 집단(33.6%)과 비정규직(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또 다른 조건인 복지 및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20대와 대학원 졸업인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과 조직 규모가 300인 이상,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에 만족하는 쪽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들 집단은 과반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개인생활의 균형에 대해서는 대학원을 졸업한 집단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 그리고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73%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3-10〉 일하는 여건 및 조건에 대한 만족 정도(만족하는 편이다+매우 만족한다)

(단위: %, 명)

구분		① 수입	② 근로 시간	③ 일생활 균형	④ 고용 안정성	⑤ 자율적 업무 환경	⑥ 안전한 근로 환경	⑦ 사회 보장	⑧ 복지· 복지 후생	전체
전체		43.7	66.7	67.6	66.0	68.1	74.8	78.4	45.5	(17,510) 100.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45.5	67.0	66.3	67.2	67.2	73.1	79.0	47.3	(9,636) 100.0
	여성	41.5	66.2	69.3	64.6	69.3	77.0	77.7	43.3	(7,874) 100.0
	연령									
	만19~29세	49.0	63.8	68.1	71.3	68.5	77.0	78.9	52.8	(3,656) 100.0
	만30~39세	42.2	63.2	64.8	68.8	65.1	74.0	81.3	43.8	(4,103) 100.0
	만40~49세	42.1	67.6	67.6	63.9	68.3	74.2	79.2	43.6	(4,863) 100.0
	만50~59세	42.4	70.8	69.7	62.0	70.2	74.6	74.9	43.4	(4,888) 100.0
	학력									
	고졸 이하	43.5	62.2	62.1	59.4	66.8	66.1	73.9	44.5	(2,367) 100.0
	대졸	43.2	66.7	67.8	66.9	68.0	75.4	78.8	45.0	(13,138) 100.0
	대학원졸	46.8	71.9	72.9	68.2	70.8	81.7	81.3	50.0	(2,006)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47.7	68.4	72.9	54.9	74.1	75.7	61.7	46.6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33.6	63.0	64.7	63.0	65.9	72.0	80.0	40.1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40.7	64.0	65.0	67.9	66.0	72.6	80.2	43.3	(3,954) 100.0	
400만 원 이상	53.3	71.5	70.2	72.4	69.2	78.7	83.3	51.1	(5,593) 100.0	
무응답	44.3	61.9	64.2	64.6	67.5	74.5	71.0	52.4	(427) 100.0	
일자리 특성	총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2.1	66.9	67.4	72.0	66.3	75.4	85.8	45.7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52.1	66.0	69.5	45.2	71.5	71.4	58.0	44.0	(2,471) 100.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44.1	65.6	66.6	48.9	78.0	75.5	49.3	46.7	(1,648)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47.6	69.0	69.6	67.7	71.9	78.1	78.7	48.2	(4,714) 100.0
	사무종사자	41.1	68.4	69.5	70.9	66.8	80.4	86.5	45.4	(6,948)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43.5	63.4	65.9	60.1	69.6	70.8	68.2	44.8	(3,288) 100.0
	기타	43.7	62.0	61.1	57.4	62.9	59.0	69.0	41.8	(2,561) 100.0
	산업									
	제조업	44.3	66.0	65.2	67.9	63.7	69.7	85.0	43.0	(3,275)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43.5	64.5	64.5	63.4	68.8	71.6	71.6	45.8	(2,969)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업	41.0	67.3	71.2	66.3	69.2	78.1	77.0	44.4	(3,930) 100.0
	그 외 서비스업	44.3	68.2	68.4	61.8	73.6	77.3	76.3	44.1	(2,622) 100.0
	기타	45.2	67.1	67.9	68.6	66.8	76.4	80.5	48.7	(4,715)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44.9	67.7	68.8	55.1	77.2	77.4	60.7	45.2	(3,445) 100.0
5~30인 미만	42.3	65.1	66.5	64.1	69.8	73.3	80.2	41.6	(5,290) 100.0	
30~100인 미만	41.5	67.5	68.2	68.3	66.5	73.4	83.4	42.6	(3,478) 100.0	
100~300인 미만	42.3	63.9	66.1	70.8	62.1	73.2	83.5	44.3	(2,072) 100.0	
300인 이상	47.8	68.9	68.6	75.6	61.4	77.1	85.9	56.2	(3,224) 100.0	

구분	① 수입	② 근로 시간	③ 일생활 균형	④ 고용 안정성	⑤ 자율적 업무 환경	⑥ 안전한 근로 환경	⑦ 사회 보장	⑧ 복지· 복지 후생	전체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44.1	65.8	66.3	64.2	69.0	74.0	77.4	43.5	(14,02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42.0	70.1	72.9	73.7	64.8	78.2	82.5	53.6	(3,482)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42.5	66.8	67.2	75.0	66.1	75.9	87.1	46.3	(12,053) 100.0
비정규직	38.2	67.8	69.2	45.1	67.9	70.3	73.6	39.7	(1,3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53.2	65.8	71.1	55.7	72.0	72.9	61.8	47.3	(2,902) 100.0
전일제 근무	41.5	67.0	67.0	70.5	66.0	75.2	85.9	45.0	(12,961)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47.5	58.8	60.3	67.1	60.4	61.7	75.9	47.8	(1,955) 100.0
교대제 아님	43.1	67.9	68.8	67.9	68.0	76.6	82.2	45.0	(13,907) 100.0

주: 1) ① 수입(하는 일에 대해 적절한 임금) ② 근로시간(너무 길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시간) ③ 일, 가족, 개인생활 균형 ④ 고용 안정성 보장 ⑤ 경직되지 않은 자율적인 업무환경 ⑥ 안전한 근로환경 ⑦ 사회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 ⑧ 복지 및 복리후생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자신이 가진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만족 정도는 7점 척도이며, 1점 매우 불만족부터 7점 매우 만족까지 분포한다. 4점 보통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불만족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4.6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중 50대 집단, 대학원 졸업한 경우,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소득이 400만 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관리자 및 전문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300인 이상인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 주당 일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3-11〉 일자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t/F
전체		(17,510)	4.68	
개인·가족 특성	성별			
	남성	(9,636)	4.69	1.80
	여성	(7,874)	4.66	
	연령			
	만19~29세	(3,656)	4.65	15.82***
	만30~39세	(4,103)	4.59	
	만40~49세	(4,863)	4.67	
	만50~59세	(4,888)	4.77	
	학력			
	고졸 이하	(2,367)	4.54	64.74***
	대졸	(13,138)	4.66	
	대학원졸	(2,006)	4.95	
	혼인상태			
	미혼	(7,107)	4.56	-10.17***
	기혼	(10,403)	4.76	
	맞벌이 여부			
맞벌이	(7,612)	4.77	-0.61	
비맞벌이	(2,117)	4.78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555)	4.61	7.92***	
자녀 있음	(8,335)	4.78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357)	4.66	152.08***	
200~300만 원 미만	(5,178)	4.43		
300~400만 원 미만	(3,954)	4.64		
400만 원 이상	(5,593)	4.93		
무응답	(427)	4.7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3,392)	4.67	10.29***
	임시·일용근로자	(2,471)	4.64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648)	4.80	
	직종			
	관리자·전문가	(4,714)	4.85	68.59***
	사무종사자	(6,948)	4.67	
	판매·서비스종사자	(3,288)	4.64	
	기타	(2,561)	4.42	
	산업			
	제조업	(3,275)	4.53	29.39***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969)	4.57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3,930)	4.80	
그 외 서비스업	(2,622)	4.68		
기타	(4,715)	4.73		

구분		평균	t/F
조직 규모			
5인 미만	(3,445)	4.72	
5~30인 미만	(5,290)	4.60	
30~100인 미만	(3,478)	4.63	29.75***
100~300인 미만	(2,072)	4.57	
300인 이상	(3,224)	4.87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14,028)	4.62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3,482)	4.92	-13.08***
정규직 여부			
정규직	(12,053)	4.68	
비정규직	(1,339)	4.60	2.24*
주당 일하는 시간			
30시간 미만	(1,885)	4.83	
30~40시간	(7,607)	4.78	
41~52시간	(4,986)	4.55	108.24***
52시간 초과	(1,325)	4.21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취업자의 일과 관련된 측면 중 일하는 시간과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취업자의 일하는 시간을 살펴보았는데, 일자리가 한 개인 경우와 두 개 이상인 집단을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일자리가 한 개인 경우에 계약상 일하는 시간은 39.80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은 40.81시간이었다.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주업의 계약상 일하는 시간은 36.43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은 33.78시간이고, 부업에서 일하는 시간은 9.37시간으로 일자리를 두 개 이상 가진 경우의 실제 일하는 총시간은 40.69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은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계약상 일하는 시간이 일자리가 한 개인 집단보다 짧다는 것이다. 이에 더

해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계약상 일하는 시간보다 실제 일하는 시간이 짧게 나타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한 개인 경우와 두 개 이상인 집단의 실제 일하는 총시간은 결국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업을 가진 경우는 주업의 계약상 일하는 시간 자체가 짧은 것과 그보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더 짧은 것으로 보아, 주된 일 이외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뿐 아니라 수입과 생계의 측면에서도 부업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의 선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희망하는 일하는 시간은 평균 36.70시간으로 현재 실제로 일하는 시간 평균(약 41시간)보다 4시간 정도 더 짧게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시간을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장시간 일하는 집단일수록 현재 일하는 평균 시간과 희망하는 평균 일하는 시간 사이 차이가 더 큰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긴 시간 일하는 집단인 주당 52시간 초과 근무 집단도 희망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45시간 이하로 나타나 주당 근무시간이 긴 집단은 물론이고 평균 일하는 시간이 긴 특징을 보이는 남성, 제조업, 비맞벌이 집단 등에 속한 경우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하는 시간 관리 측면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당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휴게시간에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일하는 동안의 휴게시간 또한 보장되는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하는 환경은 직장 일 또는 하는 일 이외의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병행하기에 적당하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으면서도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근무시간이나 일하는 중간에 한두 시간을 내는 것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 경우는 57% 정도에 머물렀다. 또한 재택근무나 정한 장소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 40%가 동의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조정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수준

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이 자율성은 더 낮은 경향이 있어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생활에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할 때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는, 일할 때 에너지도 있고 열정적이기도 한 편이지만 일 때문에 진이 빠지기도 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일로 인해 소진이 되는 경우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용근로자는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느끼거나 열정적인 것보다 일로 인해 진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나, 자영업자는 에너지가 충분하고 열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진이 빠지는 느낌보다 많아 종사상지위에서 두 집단은 상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만족하는 수준이지만, 일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적절한 근로시간 유지가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될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생활시간과 가사·돌봄 상황

제1절 생활시간

제2절 가사·돌봄 상황

제3절 소결

제4장 생활시간과 가사·돌봄 상황

제4장은 생활시간과 가사 및 돌봄 상황을 파악한다. 생활시간은 수면, 근로, 출퇴근 및 이동, 식사 및 개인관리, 가사, 돌봄 등 일상생활의 모든 시간을 분류한 것이다. 개인들이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에 따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사와 돌봄 상황은 일-생활 균형에 중요한 조건으로 가사 일과 돌봄 담당 비율 및 부담 정도 등을 알아본다.

제1절 생활시간

평일 일상생활의 시간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수면 6시간 37.47분, 근로 6시간 2.58분, 출퇴근 및 이동 1시간 4.95분, 식사 및 개인관리 1시간 36.09분, 가사 1시간 22.97분, 돌봄 50.77분,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1시간 5.41분, 여가 및 문화 2시간 7.21분, 교제 및 사회활동 37.05분, 휴식 및 기타 2시간 35.5분으로 분포하였다.

생활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면시간을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비수도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 자녀 수가 적을수록, 비취업, 월평균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수면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을 볼 수 있다.

근로시간은 남성, 연령이 30~40대, 수도권,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 자녀가 1명인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휴식 및 기타시간은 남성, 30~40대 이외의 연령 집단, 비수도권, 학력

이 낮을수록, 미혼, 자녀가 적을수록, 비취업, 월평균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사시간은 전체 평균이 1시간 22.97분이었는데, 남성은 58.46분, 여성은 1시간 48.79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85배 더 많은 시간을 가사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역시 성별 차이가 있었는데, 평균은 50.77분이었으며 남성은 33.88분, 여성은 1시간 18.58분으로 돌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 가사와 돌봄에 대한 시간에 있어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돌봄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 30대와 40대, 기혼, 자녀가 있는 집단, 비취업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1명인 경우는 평일 돌봄시간이 1시간 40.1분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1시간 26.48분보다 길게 나타났다는데, 자녀가 1명인 집단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낮을 가능성이 커서 돌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일상생활시간 사용: 평일

(단위: 분, 명)

구분	수면	근로	출퇴근 및 이동	식사 및 개인 관리	가사	돌봄	교육, 학습 및 자기 계발	여가 및 문화	교제 및 사회 활동	휴식 및 기타	전체
전체	397.47	362.58	64.95	96.09	82.97	50.77	65.41	127.21	37.05	155.50	(22,000) 100.0
성별											
남성	395.01	404.50	69.65	91.68	58.46	33.88	68.11	123.69	37.09	157.95	(11,287) 100.0
여성	400.07	318.40	60.01	100.73	108.79	68.58	62.56	130.91	37.00	152.95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403.30	319.23	67.39	103.52	54.95	13.52	121.61	152.95	36.78	166.76	(5,069) 100.0
만30~39세	399.58	393.36	67.03	93.52	77.87	66.99	50.71	121.70	26.78	142.45	(4,803) 100.0
만40~49세	394.67	379.98	63.38	92.75	95.91	78.24	44.04	113.50	33.50	144.03	(5,877) 100.0
만50~59세	393.77	357.70	62.86	95.18	97.44	42.70	51.22	123.45	48.49	167.20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394.22	371.00	74.03	98.70	81.39	49.06	63.97	124.18	35.09	148.36	(11,620) 100.0
비수도권	401.12	353.14	54.79	93.16	84.73	52.70	67.01	130.60	39.24	163.50	(10,380) 100.0
학력											
고졸 이하	399.46	310.32	58.34	94.67	101.29	48.39	52.20	151.08	41.95	182.30	(3,368) 100.0
대졸	397.96	365.85	65.27	96.32	80.72	50.79	68.31	125.68	35.82	153.27	(16,376) 100.0
대학원졸	391.01	416.81	72.49	96.52	71.94	54.20	64.00	102.70	38.60	131.72	(2,257) 100.0

구분	수면	근로	출퇴근 및 이동	식사 및 개인 관리	가사	돌봄	교육, 학습 및 자기 계발	여가 및 문화	교제 및 사회 활동	휴식 및 기타	전체
혼인상태											
미혼	399.74	348.39	67.55	99.97	60.35	12.26	92.96	150.65	36.52	171.61	(9,222) 100.0
기혼	395.84	372.82	63.08	93.29	99.30	78.57	45.52	110.29	37.42	143.88	(12,778)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403.11	341.96	70.03	100.30	65.93	17.15	88.62	149.88	35.51	167.50	(7,356) 100.0
1명	395.02	377.46	64.07	91.30	97.18	100.10	43.08	102.00	34.68	135.12	(3,817) 100.0
2명 이상	393.21	366.12	61.59	92.72	105.31	86.48	44.71	106.89	39.97	143.01	(6,478) 100.0
취업 여부											
비취업	418.85	0.00	43.91	114.46	133.09	84.42	138.85	198.21	62.84	245.37	(4,490) 100.0
취업	391.99	455.54	70.35	91.38	70.12	42.15	46.57	109.00	30.43	132.46	(17,510)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409.65	164.20	52.02	107.19	107.87	59.97	122.96	171.91	45.70	198.53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397.25	406.57	65.15	92.19	79.05	42.36	49.91	123.72	33.52	150.27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393.82	427.69	70.11	92.08	76.32	50.31	45.92	112.58	33.62	137.56	(4,382) 100.0
400만 원 이상	390.07	441.43	72.28	93.06	70.49	51.37	45.01	103.82	34.96	137.51	(6,164) 100.0
무응답	398.07	350.49	60.26	99.59	84.42	50.49	75.11	124.37	44.63	152.56	(50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말 일상생활시간을 살펴보면, 수면 7시간 55.99분, 근로 1시간 12.52분, 출퇴근 및 이동 19.41분, 식사 및 개인관리 1시간 44.45분, 가사 2시간 3.74분, 돌봄 1시간 21.42분,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1시간 1.88분, 여가 및 문화 3시간 29.48분, 교제 및 사회활동 1시간 7.37분, 휴식 및 기타 3시간 43.74분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을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휴식 및 기타시간은 남성, 50대,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비취업인 경우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여가 및 문화 시간은 남성, 20대, 수도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비취업, 월평균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비교해 주말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이나 휴식, 가사 및 돌봄,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가사시간은 평일 1시간 22.97분에서 주말 2시간 3.74분으로 증가하고, 돌봄시간은 평일 50.77분에서 주말에는 1시간 21.42분으로 증가했다. 남성의 가사시간은 평일 58.46분에서 주말 1시간 40.69분으로 42.23분 늘어나고, 여성의 가사시간은 평일 1시간 48.79분에서 주말 2시간 28.01분으로 39.22분 증가한다. 돌봄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의 돌봄시간은 평일 33.88분에서 주말 1시간 8.01분으로 34.13분 증가하고, 여성의 돌봄시간은 평일 1시간 8.58분에서 주말 1시간 35.55분으로 26.97분 증가한다. 평일보다 주말에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다만, 평일과 주말 사이 가사와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증가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2〉 일상생활시간 사용: 주말

(단위: 분, 명)

구분	수면	근로	출퇴근 및 이동	식사 및 개인 관리	가사	돌봄	교육, 학습 및 자기 개발	여가 및 문화	교제 및 사회 활동	휴식 및 기타	전체
전체	475.99	72.52	19.41	104.45	123.74	81.42	61.88	209.48	67.37	223.74	(22,000) 100.0
성별											
남성	472.74	86.01	21.25	100.83	100.69	68.01	68.69	216.36	67.09	238.33	(11,287) 100.0
여성	479.41	58.30	17.48	108.27	148.01	95.55	54.71	202.23	67.68	208.36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495.01	74.36	22.26	106.01	84.96	17.76	99.07	238.72	76.10	225.75	(5,069) 100.0
만30~39세	482.29	71.30	18.04	102.44	121.88	114.88	54.59	207.70	55.74	211.13	(4,803) 100.0
만40~49세	471.53	69.23	17.14	104.08	141.62	132.78	45.12	192.42	57.92	208.17	(5,877) 100.0
만50~59세	459.90	75.05	20.31	105.09	139.79	59.05	53.09	203.18	78.13	246.42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476.79	66.95	20.18	107.04	124.36	80.15	62.60	210.98	68.14	222.79	(11,620) 100.0
비수도권	475.08	78.75	18.55	101.56	123.04	82.84	61.08	207.80	66.51	224.79	(10,380) 100.0
학력											
고졸 이하	475.19	82.30	22.21	99.23	133.75	63.08	42.07	224.59	63.39	234.21	(3,368) 100.0
대졸	477.07	71.18	19.02	105.22	121.61	82.84	64.68	208.44	66.50	223.46	(16,376) 100.0
대학원졸	469.35	67.64	18.09	106.69	124.22	98.50	71.16	194.53	79.68	210.15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488.71	74.10	21.63	104.35	94.26	16.49	82.81	243.06	75.90	238.69	(9,222) 100.0
기혼	466.81	71.37	17.81	104.53	145.01	128.29	46.78	185.25	61.22	212.95	(12,778) 100.0

구분	수면	근로	출퇴근 및 이동	식사 및 개인 관리	가사	돌봄	교육, 학습 및 자기 계발	여가 및 문화	교제 및 사회 활동	휴식 및 기타	전체
자녀 수											
자녀 없음	488.12	73.63	21.97	106.91	99.90	23.19	79.62	239.32	69.73	237.60	(7,356) 100.0
1명	461.18	66.26	16.79	103.46	142.72	175.83	44.56	174.53	57.60	197.06	(3,817) 100.0
2명 이상	463.17	70.50	17.48	103.96	151.63	135.34	44.84	176.84	64.11	212.14	(6,478) 100.0
취업 여부											
비취업	467.56	0.00	22.70	108.61	128.47	92.94	98.44	212.80	77.92	230.56	(4,490) 100.0
취업	478.15	91.11	18.57	103.39	122.52	78.47	52.51	208.63	64.67	221.99	(17,510)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471.58	44.36	20.57	108.70	125.05	71.89	90.35	219.38	66.11	222.00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483.23	84.85	19.72	101.24	124.10	66.47	52.74	214.37	68.97	224.32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481.72	84.40	18.98	103.14	125.03	86.04	51.51	204.03	69.74	215.41	(4,382) 100.0
400만 원 이상	468.90	72.70	18.01	104.82	121.88	101.17	53.57	202.53	64.42	231.99	(6,164) 100.0
무응답	474.47	112.04	24.98	104.87	117.55	69.16	68.38	184.80	77.44	206.31	(50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앞서 분석한 일상생활의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충분 정도를 ‘충분한 편’과 ‘매우 충분’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수면 52.1%, 근로 63.4%, 출퇴근 및 이동 71.1%, 식사 및 개인관리 74.9%, 가사 61.8%, 돌봄 30.3%,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28.8%, 여가 및 문화 57.4%, 교제 및 사회활동 30.5%, 휴식 및 기타 57.2%로 분포하였다.

시간이 제일 충분하지 않은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시간을 세부 특성 별로 살펴보면, 여성, 30~40대, 수도권, 학력이 낮을수록,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은 경우에 충분하다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돌봄시간은 남성, 20대, 수도권, 대졸, 취업, 월평균 개인소득이 낮은 경우 충분하다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교제 및 사회활동 시간은 여성, 30~40대, 수도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 소득이 낮을수록 충분하다는 비율이 낮은 패턴을 볼 수 있다.

〈표 4-3〉 일상생활시간의 충분 정도(충분한 편+매우 충분)

(단위: %, 명)

구분	수면	근로	출퇴근 및 이동	식사 및 개인 관리	가사	돌봄	교육, 학습 및 자기 계발	여가 및 문화	교제 및 사회 활동	휴식 및 기타	전체
전체	52.1	63.4	71.1	74.9	61.8	30.3	28.8	57.4	30.5	57.2	(22,000) 100.0
성별											
남성	53.5	68.6	72.5	76.2	61.6	25.7	32.4	59.2	32.0	60.2	(11,287) 100.0
여성	50.7	57.8	69.7	73.5	62.1	35.1	25.1	55.5	29.0	53.9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56.9	56.9	72.4	79.5	61.0	15.4	39.5	66.8	31.6	62.7	(5,069) 100.0
만30~39세	47.3	68.8	69.4	70.5	57.9	26.1	24.2	53.2	22.4	49.3	(4,803) 100.0
만40~49세	49.2	65.5	71.2	72.5	60.9	38.9	22.9	51.5	27.0	52.3	(5,877) 100.0
만50~59세	54.6	62.5	71.4	76.7	66.4	37.5	29.3	58.6	39.3	63.2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49.6	64.8	69.0	73.1	59.5	29.0	27.0	55.9	29.6	54.8	(11,620) 100.0
비수도권	54.9	61.8	73.6	76.9	64.4	31.7	30.9	59.1	31.6	59.9	(10,380) 100.0
학력											
고졸 이하	52.7	52.6	66.1	72.8	63.9	31.9	25.3	59.5	28.8	59.4	(3,368) 100.0
대졸	52.3	64.0	71.8	75.5	61.4	29.5	29.2	57.3	30.0	57.1	(16,376) 100.0
대학원졸	50.0	74.9	73.5	73.9	61.9	33.9	31.2	54.9	37.1	54.5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54.0	61.2	71.5	76.3	60.3	14.0	33.8	64.4	30.0	61.1	(9,222) 100.0
기혼	50.8	64.9	70.9	73.9	62.9	42.1	25.2	52.4	30.9	54.3	(12,778)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54.8	60.3	68.7	76.5	59.0	18.4	32.7	64.1	28.2	60.8	(7,356) 100.0
1명	49.3	65.0	68.8	70.9	62.4	45.6	23.6	47.0	27.6	50.5	(3,817) 100.0
2명 이상	50.5	64.6	73.0	75.4	62.7	47.3	25.4	52.0	33.9	54.6	(6,478) 100.0
취업 여부											
비취업	62.0	0.0	50.6	81.4	73.1	38.0	36.9	68.6	31.7	68.9	(4,490) 100.0
취업	49.6	79.6	76.4	73.2	58.9	28.3	26.8	54.5	30.2	54.2	(17,510)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61.4	28.1	60.5	80.2	68.9	33.3	37.1	68.4	31.1	68.0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47.8	71.0	75.1	71.9	58.5	25.4	24.6	54.1	27.9	51.3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47.5	75.0	74.8	72.1	59.8	27.4	26.0	52.2	29.6	51.7	(4,382) 100.0
400만 원 이상	51.1	77.7	73.9	75.6	60.5	34.3	27.2	54.9	32.9	57.3	(6,164) 100.0
무응답	58.9	60.0	69.4	70.9	62.2	32.7	38.7	58.6	34.8	60.5	(508)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앞서 살펴본 일상생활시간 중 시간을 증가시키고 싶은 활동을 살펴보면, 수면 35.6%, 근로 4.0%, 출퇴근 및 이동 1.6%, 식사 및 개인관리 5.4%, 가사 1.0%, 돌봄 1.7%,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14.7%, 여가 및 문화

23.1%, 교제 및 사회활동 3.1%, 휴식 및 기타 9.8%로 분포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수면시간을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20대, 수도권, 고졸 이하,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취업한 경우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다음으로 높은 여가 및 문화 시간은 남성, 50대, 비수도권,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 자녀 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학습 및 자기계발 시간은 여성, 50대, 수도권,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 자녀 수가 많을수록, 비취업의 경우 높은 비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일상생활 중 시간 증가 희망 활동(1순위)

(단위: %, 명)

구분	수면	근로	출퇴근 및 이동	식사 및 개인 관리	가사	돌봄	교육, 학습 및 자기계발	여가 및 문화	교제 및 사회활동	휴식	기타	전체
전체	35.6	4.0	1.6	5.4	1.0	1.7	14.7	23.1	3.1	9.5	0.3	(22,000) 100.0
성별												
남성	37.1	4.3	2.1	5.2	1.1	1.9	12.8	23.2	3.4	8.7	0.2	(11,287) 100.0
여성	34.0	3.8	1.0	5.6	0.9	1.5	16.7	23.0	2.8	10.3	0.3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45.5	4.5	2.3	5.0	0.9	0.6	13.6	15.4	2.9	9.1	0.1	(5,069) 100.0
만30~39세	39.5	3.0	1.7	5.4	1.1	3.0	11.5	20.7	2.1	11.7	0.3	(4,803) 100.0
만40~49세	32.3	4.0	1.2	5.6	1.2	2.7	15.5	24.6	3.1	9.6	0.3	(5,877) 100.0
만50~59세	27.7	4.6	1.1	5.5	0.8	0.7	17.3	29.9	4.0	8.0	0.4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36.6	3.7	1.6	5.5	0.9	1.7	15.3	22.1	2.9	9.5	0.3	(11,620) 100.0
비수도권	34.5	4.4	1.5	5.3	1.1	1.7	14.1	24.3	3.2	9.5	0.3	(10,380) 100.0
학력												
고졸 이하	39.5	4.9	1.6	6.3	1.1	0.9	9.6	22.6	3.0	10.1	0.2	(3,368) 100.0
대졸	35.4	4.0	1.6	5.2	0.9	1.8	15.1	23.3	3.0	9.5	0.3	(16,376) 100.0
대학원졸	31.4	3.2	1.0	5.4	1.4	2.4	19.8	22.5	3.8	8.8	0.3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42.0	4.5	1.9	5.4	0.9	0.5	13.3	18.6	3.2	9.5	0.3	(9,222) 100.0
기혼	31.0	3.7	1.3	5.4	1.1	2.6	15.7	26.4	3.0	9.5	0.3	(12,778)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39.1	4.3	1.9	5.5	0.8	0.6	14.3	20.1	2.9	10.2	0.3	(7,356) 100.0
1명	31.5	3.7	1.3	5.4	0.9	4.2	15.0	24.9	3.0	10.0	0.2	(3,817) 100.0
2명 이상	30.0	3.7	1.2	5.0	1.1	2.3	16.3	28.2	3.2	8.9	0.3	(6,478) 100.0
취업 여부												
비취업	32.9	4.3	0.8	4.8	0.6	0.5	20.6	23.2	4.2	7.6	0.5	(4,490) 100.0
취업	36.3	4.0	1.8	5.6	1.1	2.0	13.2	23.1	2.8	10.0	0.2	(17,510) 100.0

구분	수면	근로	출퇴근 및 이동	식사 및 개인관리	가사	돌봄	교육, 학습 및 자기 계발	여가 및 문화	교제 및 사회 활동	휴식	기타	전체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33.8	7.6	1.1	5.0	0.8	0.6	18.4	20.3	3.5	8.5	0.4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39.0	3.4	1.7	5.5	0.8	1.5	12.2	22.0	2.9	10.7	0.2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38.0	2.8	2.0	5.3	1.1	2.2	12.6	23.3	2.8	9.7	0.2	(4,382) 100.0
400만 원 이상	31.9	2.6	1.4	5.6	1.3	2.5	15.3	27.0	3.1	9.0	0.2	(6,164) 100.0
무응답	38.8	4.3	3.2	7.2	0.5	0.8	16.4	16.5	2.7	9.6	0.0	(508)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에는 '없음', '개인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여행'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번에는 반대로 일상생활시간 중 시간을 줄이고 싶은 활동을 살펴보면, 수면 5.7%, 근로 35.0%, 출퇴근 및 이동 28.1%, 식사 및 개인관리 3.7%, 가사 13.0%, 돌봄 4.4%,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1.9%, 여가 및 문화 1.9%, 교제 및 사회활동 1.9%, 휴식 및 기타 4.4%로 분포하였다.

먼저 시간을 줄이고 싶은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인 근로에 대해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0~40대, 수도권, 대졸, 기혼, 자녀 수가 없는 경우, 비취업,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출퇴근 및 이동 시간은 남성, 20대, 수도권, 대학원 졸업한 경우, 미혼, 자녀 없는 경우, 취업한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줄이고 싶어 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가사시간은 여성, 40대 이상, 고졸 이하인 경우,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비취업인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더욱 줄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일상생활 중 시간 감소 희망 활동(1순위)

(단위: %, 명)

구분	수면	근로	출퇴 근 및 이동	식사 및 개인 관리	가사	돌봄	교육, 학습 및 자기 계발	여가 및 문화	교제 및 사회 활동	휴식	기타	전체
전체	5.7	35.0	28.1	3.7	13.0	4.4	1.9	1.9	1.9	3.8	0.6	(22,000) 100.0
성별												
남성	5.7	39.2	31.2	3.3	6.6	3.2	2.3	2.2	2.0	3.8	0.4	(11,287) 100.0
여성	5.7	30.5	24.9	4.2	19.7	5.6	1.4	1.7	1.8	3.9	0.8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5.9	34.4	33.6	4.1	5.9	2.9	4.0	3.1	2.1	3.5	0.5	(5,069) 100.0
만30~39세	4.5	42.4	29.8	2.5	8.2	5.6	1.6	1.5	1.5	1.8	0.5	(4,803) 100.0
만40~49세	5.3	35.0	26.0	3.4	16.4	5.2	1.0	1.6	1.5	3.9	0.5	(5,877) 100.0
만50~59세	6.7	29.6	24.5	4.6	19.1	3.8	1.3	1.6	2.4	5.6	0.9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4.9	33.8	32.7	3.2	12.3	4.0	1.8	1.9	1.6	3.3	0.5	(11,620) 100.0
비수도권	6.5	36.3	23.0	4.2	13.7	4.8	2.0	2.1	2.3	4.4	0.8	(10,380) 100.0
학력												
고졸 이하	5.5	34.4	21.6	4.9	16.0	4.6	2.2	2.4	2.2	5.4	0.8	(3,368) 100.0
대졸	5.7	35.1	28.9	3.6	12.7	4.3	1.9	1.8	1.8	3.6	0.6	(16,376) 100.0
대학원졸	5.7	34.9	32.5	2.5	10.6	4.6	1.2	1.9	2.1	3.3	0.6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5.6	36.9	32.4	3.7	6.9	2.6	3.0	2.7	1.9	3.8	0.5	(9,222) 100.0
기혼	5.8	33.5	25.0	3.7	17.4	5.6	1.1	1.4	1.9	3.8	0.7	(12,778)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5.8	35.8	33.1	3.7	7.4	2.6	2.7	2.7	1.8	3.7	0.7	(7,356) 100.0
1명	5.2	33.8	25.2	3.6	16.5	7.3	1.1	1.3	1.9	3.5	0.7	(3,817) 100.0
2명 이상	5.9	31.0	23.8	3.9	20.4	6.1	1.1	1.2	2.1	4.1	0.5	(6,478) 100.0
취업 여부												
비취업	9.4	15.0	18.9	6.4	22.4	8.0	4.0	3.7	2.2	8.9	0.9	(4,490) 100.0
취업	4.7	40.1	30.5	3.0	10.6	3.4	1.4	1.5	1.8	2.5	0.5	(17,510)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8.4	17.3	23.8	5.6	19.8	6.7	3.8	3.5	2.5	7.6	0.9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4.4	41.9	27.9	3.2	12.1	3.0	1.3	1.6	1.5	2.5	0.6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4.4	41.9	29.1	3.2	9.9	4.0	1.2	1.7	1.8	2.2	0.5	(4,382) 100.0
400만 원 이상	5.6	38.3	31.4	2.9	10.5	3.7	1.2	1.3	1.8	2.9	0.5	(6,164) 100.0
무응답	4.4	34.9	26.9	4.3	10.1	6.6	4.2	0.8	2.3	5.1	0.3	(508)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에는 '없음', '의미없이 보내는 시간'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평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⁷⁾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42.4%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여성, 50대, 비수도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 자녀가 없거나 2명 이상인 경우, 비취업,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평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평소 시간 여유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족	부족한 편	부족	충분한 편	매우 충분	충분	전체
전체	9.0	48.6	57.6	39.8	2.6	42.4	(22,000) 100.0
성별($x^2=26.46^{***}$)							
남성	8.8	50.3	59.1	38.5	2.5	40.9	(11,287) 100.0
여성	9.2	46.9	56.0	41.2	2.8	44.0	(10,713) 100.0
연령($x^2=461.72^{***}$)							
만19~29세	9.9	46.4	56.3	39.7	4.1	43.7	(5,069) 100.0
만30~39세	12.8	52.3	65.1	32.8	2.1	34.9	(4,803) 100.0
만40~49세	8.6	52.5	61.1	37.1	1.8	38.9	(5,877) 100.0
만50~59세	5.6	44.0	49.6	47.8	2.6	50.4	(6,251) 100.0
거주지($x^2=80.43^{***}$)							
수도권	9.8	50.5	60.3	37.3	2.4	39.7	(11,620) 100.0
비수도권	8.0	46.5	54.5	42.6	2.8	45.5	(10,380) 100.0
학력($x^2=71.52^{***}$)							
고졸 이하	9.4	43.4	52.7	43.3	4.0	47.3	(3,368) 100.0
대졸	8.8	49.4	58.2	39.5	2.3	41.8	(16,376) 100.0
대학원졸	9.6	50.9	60.5	36.7	2.7	39.5	(2,257) 100.0
혼인상태($x^2=80.45^{***}$)							
미혼	9.9	47.6	57.5	38.9	3.6	42.5	(9,222) 100.0
기혼	8.3	49.4	57.6	40.5	1.9	42.4	(12,778) 100.0
자녀 수($x^2=87.80^{***}$)							
자녀 없음	9.2	47.4	56.6	39.8	3.6	43.4	(7,356) 100.0
1명	9.0	51.1	60.1	38.1	1.8	39.9	(3,817) 100.0
2명 이상	7.8	49.1	56.9	41.5	1.6	43.1	(6,478) 100.0
취업 여부($x^2=730.09^{***}$)							
비취업	7.8	36.0	43.8	49.2	7.0	56.2	(4,490) 100.0
취업	9.3	51.9	61.1	37.4	1.5	38.9	(17,510) 100.0

7) '충분한 편'과 '매우 충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임.

구분	부족		부족	충분		충분	전체
	매우 부족	부족한 편		충분한 편	매우 충분		
월평균 개인소득($\chi^2=653.39^{***}$)							
200만 원 미만	8.1	37.7	45.8	48.0	6.2	54.2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10.0	51.6	61.7	37.0	1.3	38.3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10.1	53.4	63.4	35.1	1.5	36.6	(4,382) 100.0
400만 원 이상	7.7	51.6	59.3	39.1	1.6	40.7	(6,164) 100.0
무응답	10.8	47.9	58.7	38.4	2.9	41.3	(508)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개인소득의 χ^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하루 일과 후 피곤한 정도를 살펴보면, 피곤하다는 비율⁸⁾이 79.8%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는 여성, 30대, 수도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취업한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4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4-7〉 하루 일과 후 피곤함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피곤하지 않음		피곤하지 않음	피곤함		전체
	전혀 피곤하지 않음	피곤하지 않은 편		피곤한 편	매우 피곤함	
전체	1.6	18.6	20.2	64.5	15.3	79.8 (22,000) 100.0
성별($\chi^2=205.95^{***}$)						
남성	1.9	20.8	22.8	64.8	12.4	77.2 (11,287) 100.0
여성	1.2	16.3	17.5	64.1	18.4	82.5 (10,713) 100.0
연령($\chi^2=513.13^{***}$)						
만19~29세	2.1	17.3	19.3	64.1	16.5	80.7 (5,069) 100.0
만30~39세	1.5	13.5	15.1	63.3	21.7	84.9 (4,803) 100.0
만40~49세	1.2	16.9	18.1	66.6	15.3	81.9 (5,877) 100.0
만50~59세	1.6	25.2	26.8	63.7	9.5	73.2 (6,251) 100.0

8) '피곤한 편'과 '매우 피곤함'을 합한 수치임.

구분	전혀 피곤 하지 않음		피곤 하지 않음	피곤함		전체
	피곤 하지 않음	피곤 함		피곤한 편	매우 피곤함	
거주지($\chi^2=32.16^{***}$)						
수도권	1.5	17.6	19.1	64.6	16.3	80.9 (11,620) 100.0
비수도권	1.7	19.8	21.5	64.3	14.2	78.5 (10,380) 100.0
학력($\chi^2=24.10^{**}$)						
고졸 이하	2.1	20.6	22.7	61.4	15.9	77.3 (3,368) 100.0
대졸	1.5	18.3	19.8	65.1	15.1	80.2 (16,376) 100.0
대학원졸	1.3	18.2	19.5	64.1	16.4	80.5 (2,257) 100.0
혼인상태($\chi^2=27.50^{***}$)						
미혼	1.9	17.9	19.8	63.8	16.5	80.2 (9,222) 100.0
기혼	1.4	19.1	20.5	65.0	14.5	79.5 (12,778) 100.0
자녀 수($\chi^2=26.15^{***}$)						
자녀 없음	1.9	18.6	20.5	63.5	15.9	79.5 (7,356) 100.0
1명	1.3	18.6	19.9	64.8	15.3	80.1 (3,817) 100.0
2명 이상	1.2	18.5	19.7	66.2	14.0	80.3 (6,478) 100.0
취업 여부($\chi^2=213.67^{***}$)						
비취업	2.9	24.5	27.4	60.3	12.3	72.6 (4,490) 100.0
취업	1.3	17.1	18.4	65.6	16.1	81.6 (17,510) 100.0
월평균 개인소득($\chi^2=212.41^{***}$)						
200만 원 미만	2.4	22.5	24.8	61.3	13.9	75.2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1.1	15.7	16.7	65.0	18.3	83.3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1.3	15.9	17.2	66.0	16.9	82.8 (4,382) 100.0
400만 원 이상	1.5	20.0	21.5	65.8	12.7	78.5 (6,164) 100.0
무응답	3.5	20.0	23.5	61.9	14.6	76.5 (508)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개인소득의 χ^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앞서 피곤함을 느끼는 이들에 대해 어떤 활동에 피곤함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일(직장) 49.2%, 출퇴근 및 이동 14.5%, 건강상태, 12.2%,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 8.4%, 가사 6.4%,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5.7%, 교제 및 사회활동 2.0%, 기타 1.5%로 나타났다.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활동인 일에 대해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

성, 30대, 비수도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 자녀가 적을수록, 대체로 월 평균 개인소득이 높은 경우, 유의하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집단에서는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일이라는 응답이 60.5%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출퇴근 및 이동 활동은 남성, 20대, 수도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 자녀 수가 적을수록 유의하게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의 경우, 여성, 50대, 비수도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 취업,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피곤함을 느끼는 주된 활동 및 이유

(단위: %, 명)

구분	(직장 일)	출퇴근 및 이동	가사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	교육, 학습 및 자기 계발	교제 및 사회 활동	건강 상태	기타	전체
전체	49.2	14.5	6.4	8.4	5.7	2.0	12.2	1.5	(17,557) 100.0
성별($x^2=1037.91^{***}$)									
남성	56.5	16.7	2.3	4.8	6.1	2.3	10.0	1.3	(8,718) 100.0
여성	42.1	12.4	10.3	12.0	5.3	1.7	14.4	1.7	(8,839) 100.0
연령($x^2=2279.25^{***}$)									
만19~29세	45.9	19.8	1.7	1.6	16.5	2.2	10.7	1.5	(4,089) 100.0
만30~39세	53.6	15.8	4.7	11.7	2.9	1.0	8.9	1.4	(4,078) 100.0
만40~49세	48.8	11.6	9.3	14.3	1.8	1.4	11.3	1.5	(4,814) 100.0
만50~59세	48.8	11.9	8.9	5.5	2.5	3.3	17.5	1.6	(4,576) 100.0
거주지($x^2=246.82^{***}$)									
수도권	48.4	18.2	6.1	7.8	5.4	1.6	10.9	1.5	(9,405) 100.0
비수도권	50.2	10.3	6.6	9.1	6.0	2.4	13.8	1.5	(8,152) 100.0
학력($x^2=214.80^{***}$)									
고졸 이하	46.0	12.7	7.6	7.3	3.2	2.3	19.0	1.9	(2,603) 100.0
대졸	49.5	14.7	6.1	8.6	6.4	1.8	11.4	1.4	(13,137) 100.0
대학원졸	52.1	16.3	6.2	8.3	4.3	2.8	8.3	1.7	(1,816) 100.0
혼인상태($x^2=1938.03^{***}$)									
미혼	51.7	18.0	1.7	1.0	10.6	2.0	13.2	1.8	(7,399) 100.0
기혼	47.4	12.0	9.7	13.8	2.1	2.0	11.5	1.3	(10,158) 100.0
자녀 수($x^2=1735.86^{***}$)									
자녀 없음	49.6	19.4	2.9	1.5	10.0	1.8	13.2	1.8	(5,845) 100.0
1명	46.3	11.5	8.8	17.7	2.1	2.1	10.0	1.7	(3,058) 100.0
2명 이상	45.6	10.2	11.9	16.0	1.7	1.9	11.4	1.2	(5,200) 100.0
취업 여부($x^2=4937.85^{***}$)									
비취업	0.0	14.0	13.1	17.6	18.5	4.8	28.6	3.3	(3,260) 100.0
취업	60.5	14.7	4.8	6.3	2.8	1.4	8.5	1.1	(14,297) 100.0

구분	(직장) 일 및 이동	출퇴근 및 이동	가사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	교육, 학습 및 자기 계발	교제 및 사회 활동	건강 상태	기타	전체
월평균 개인소득($x^2=2638.89^{***}$)									
200만 원 미만	20.4	12.5	9.7	12.2	16.5	3.2	22.8	2.7	(3,867) 100.0
200~300만 원 미만	57.1	15.3	5.6	6.0	3.3	1.3	10.2	1.2	(4,831) 100.0
300~400만 원 미만	58.6	15.3	5.1	7.7	2.1	1.6	8.5	1.3	(3,629) 100.0
400만 원 이상	57.3	15.1	5.5	8.4	2.1	2.0	8.6	1.1	(4,841) 100.0
무응답	50.9	12.1	5.7	7.1	6.4	3.6	13.3	0.9	(389)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개인소득의 x^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4) '기타'에는 '미래에 대한 고민', '정신적 스트레스', '복합적인 이유', '잠자기 전 휴대폰 사용' 등이 있었음.

제2절 가사·돌봄 상황

1. 가사 환경

가사 일을 '본인, 배우자,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 그 외 사람'이 얼마나 분담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본인 55.96%, 배우자 22.78%,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 19.17%, 그 외 사람 2.10%로 조사되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는 본인은 44.39%, 배우자는 34.19%,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 19.05% 분담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여성 응답자는 본인 68.14%, 배우자 10.76%,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 19.29% 분담한다고 응답하였다.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는 비율은 여성과 남성 응답자의 큰 차이가 없으나 본인과 배우자의 분담 비율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배우자보다 본인의 분담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으나, 남성 응답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와의 분담률 차이가 약 10% 포인트로 나타났고 여성 응답자의 경우 그 차이는 약 57% 포인트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인의 가사 분담률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집단은 본인의 가사 분담률이 73.17%로 특히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비취업인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 미혼인 경우는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이 가사 일을 부담하는 비율이 각각 41.80%, 39.47%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해당 연령의 조사 대상자가 가구 내 미혼 자녀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9〉 기사 분담 비율

구분	본인		배우자 (파트너/아인)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		그 외		전체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단위: %·명)	
전체	55.96		22.78		19.17		2.10		(22,000)	100.0
성별										
남성	44.39	-53.68***	34.19	61.89***	19.05	-0.54	2.36	3.91***	(11,287)	100.0
여성	68.14		10.76		19.29		1.82		(10,713)	100.0
연령										
민19~29세	51.45		2.71		41.80		4.04		(5,069)	100.0
민30~39세	57.06		20.70	1284.79***	20.30	1498.88***	1.94	83.02***	(4,803)	100.0
민40~49세	57.76		30.37		10.31		1.56		(5,877)	100.0
민50~59세	57.06		33.51		8.28		1.15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55.92	-0.16	22.42	-1.81	19.56	1.96*	2.09	-0.11	(11,620)	100.0
비수도권	56.00		23.18		18.72		2.11		(10,380)	100.0
혼인상태										
미혼	56.89	3.25***	0.00	-140.67***	39.47	83.36***	3.64	16.95***	(9,222)	100.0
기혼	55.28		39.22		4.51		0.99		(12,778)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35.94		11.23		50.27		2.56		(7,356)	100.0
1명	53.35	729.12***	41.27	2277.37***	4.42	6655.19***	0.97	81.50***	(3,817)	100.0
2명 이상	53.37		40.28		5.40		0.94		(6,478)	100.0

구 분	본인		배우자 (파트너/애인)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		그 외		전체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취업 여부	64.03	17.46 ^{***}	10.17	-40.96 ^{***}	23.37	9.43 ^{***}	2.43	2.26*	100.0
비취업	53.89		26.01		18.09		2.01		(4,490)
취업									(17,510)
월평균 가구소득	73.17		7.39		16.15		3.29		100.0
300만 원 미만	59.22		21.38		17.61		1.79		(5,751)
300~500만 원 미만	50.38	539.39 ^{***}	27.01	502.06 ^{***}	20.85	26.62 ^{***}	1.76	22.56 ^{***}	(6,198)
500~700만 원 미만	46.76		30.64		20.83		1.77		(5,741)
700만 원 이상	64.18		12.28		19.30		4.24		(622)
무응답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가사 일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5%는 매일 가사 일을 하며 28.8%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일주일에 1~2회 정도 가사 일을 하는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매일 가사 일을 하는 비율은 24.0%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49.6%가 매일 가사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기혼인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비취업인 경우 매일 가사 일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는 가구소득이 감소할수록 가사 일을 매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0〉 가사 일 빈도

(단위: %, 명)

구분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5회 정도	매일	전체	평균 (5점)	t/F
전체	3.3	9.0	28.8	22.4	36.5	(22,000) 100.0	3.80	
성별								
남성	5.0	12.3	35.9	22.8	24.0	(11,287) 100.0	3.49	-43.92***
여성	1.6	5.5	21.3	22.0	49.6	(10,713) 100.0	4.13	
연령								
만19~29세	5.2	12.8	40.3	23.8	17.9	(5,069) 100.0	3.36	419.52***
만30~39세	3.1	9.6	31.0	24.1	32.3	(4,803) 100.0	3.73	
만40~49세	2.3	7.2	23.1	22.6	44.8	(5,877) 100.0	4.00	
만50~59세	2.8	7.1	23.1	19.8	47.0	(6,251) 100.0	4.01	
거주지								
수도권	3.2	9.0	29.7	22.6	35.5	(11,620) 100.0	3.78	-2.43*
비수도권	3.4	9.0	27.8	22.2	37.7	(10,380) 100.0	3.82	
혼인상태								
미혼	5.3	12.9	38.8	22.2	20.8	(9,222) 100.0	3.40	-45.95***
기혼	1.9	6.2	21.6	22.6	47.8	(12,778) 100.0	4.08	
자녀 수								
자녀 없음	5.8	13.4	35.1	23.6	22.2	(7,356) 100.0	3.43	881.37***
1명	1.7	6.0	20.7	22.5	49.1	(3,817) 100.0	4.11	
2명 이상	2.0	6.1	20.0	20.0	51.9	(6,478) 100.0	4.14	

구분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5회 정도	매일	전체	평균 (5점)	t/F
취업 여부								
비취업	3.1	5.8	19.4	18.8	52.9	(4,490) 100.0	4.13	22.28***
취업	3.4	9.8	31.2	23.3	32.3	(17,510) 100.0	3.7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4.2	8.3	31.1	22.3	34.1	(3,688) 100.0	3.74	6.99***
300~500만 원 미만	3.1	9.2	29.4	22.5	35.8	(5,751) 100.0	3.79	
500~700만 원 미만	3.0	9.6	27.4	22.3	37.8	(6,198) 100.0	3.82	
700만 원 이상	2.9	8.6	28.1	22.7	37.7	(5,741) 100.0	3.84	
무응답	7.2	8.4	29.3	21.2	33.9	(622) 100.0	3.66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은 '한 달에 1회 미만' 1점~ '매일' 5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4)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가사 일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3%가 부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가사 일이 부담된다는 쪽⁹⁾에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22.3%인 반면 여성은 49.9%였다. 40대 연령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 가사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가사 일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해당 연령의 경우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이 가사 일을 분담하는 비율(41.80%)이 높은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혼 집단, 자녀가 많을수록, 취업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사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9) '부담되는 편'과 '매우 부담됨'을 합한 수치임.

〈표 4-11〉 가사 일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음	부담됨		전체	
	부담 되지 않은 편	부담 되는 편		매우 부담 됨	부담됨		
전체	18.3	45.9	64.3	30.3	5.4	35.7	(22,000) 100.0
성별($x^2=2047.42^{***}$)							
남성	25.4	52.2	77.7	19.8	2.5	22.3	(11,287) 100.0
여성	10.8	39.3	50.1	41.4	8.5	49.9	(10,713) 100.0
연령($x^2=557.99^{***}$)							
만19~29세	26.2	49.3	75.4	21.6	3.0	24.6	(5,069) 100.0
만30~39세	17.4	46.2	63.6	31.2	5.3	36.4	(4,803) 100.0
만40~49세	13.7	43.1	56.8	36.0	7.3	43.2	(5,877) 100.0
만50~59세	17.0	45.7	62.8	31.5	5.7	37.2	(6,251) 100.0
거주지($x^2=5.53$)							
수도권	17.9	45.6	63.6	30.9	5.5	36.4	(11,620) 100.0
비수도권	18.7	46.3	65.0	29.7	5.3	35.0	(10,380) 100.0
혼인상태($x^2=633.87^{***}$)							
미혼	24.1	48.5	72.7	23.6	3.7	27.3	(9,222) 100.0
기혼	14.1	44.1	58.2	35.2	6.6	41.8	(12,778) 100.0
자녀 수($x^2=1066.48^{***}$)							
자녀 없음	27.0	50.5	77.4	19.6	2.9	22.6	(7,356) 100.0
1명	13.1	43.9	57.1	36.3	6.6	42.9	(3,817) 100.0
2명 이상	13.3	41.8	55.2	37.0	7.8	44.8	(6,478) 100.0
취업 여부($x^2=23.74^{***}$)							
비취업	18.0	44.2	62.2	31.1	6.7	37.8	(4,490) 100.0
취업	18.4	46.4	64.8	30.1	5.1	35.2	(17,510) 100.0
월평균 가구소득($x^2=37.06^{***}$)							
300만 원 미만	16.2	44.7	60.9	32.5	6.6	39.1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18.5	45.9	64.4	30.3	5.3	35.6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18.2	46.2	64.5	30.5	5.1	35.5	(6,198) 100.0
700만 원 이상	19.4	46.6	66.0	29.1	5.0	34.0	(5,741) 100.0
무응답	20.1	45.2	65.2	27.9	6.8	34.8	(622)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돌봄 상황

조사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0.8%가 ‘돌봄 대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응답 비율은 각각 48.3%, 53.4%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돌봄은 노인이나 아동 등 밀접하게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활동이나 시간 관리 등을 돕고 보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40대의 경우 ‘돌봄 대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5%로 타 연령에 비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한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돌봄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돌봄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해당 자녀가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연령일 것으로 이해된다.

〈표 4-12〉 돌봄 대상 유무와 수

(단위: %, 명)

구분		돌봄 대상 유무		돌봄 대상 수	
		없음	있음	평균	t/F
전체	(22,000)	49.2	50.8	1.56	
성별					
남성	(11,287)	51.7	48.3	1.54	-3.74***
여성	(10,713)	46.6	53.4	1.59	
연령					
만19~29세	(5,069)	79.6	20.4	1.34	100.50***
만30~39세	(4,803)	53.5	46.5	1.47	
만40~49세	(5,877)	28.5	71.5	1.70	
만50~59세	(6,251)	40.9	59.1	1.53	
거주지					
수도권	(11,620)	50.8	49.2	1.56	-1.31
비수도권	(10,380)	47.5	52.5	1.57	
혼인상태					
미혼	(9,222)	78.0	22.0	1.34	-17.92***
기혼	(12,778)	28.5	71.5	1.61	
자녀 수					
자녀 없음	(7,356)	73.5	26.5	1.36	1084.83***
1명	(3,817)	18.8	81.2	1.22	
2명 이상	(6,478)	21.0	79.0	1.89	

구분		돌봄 대상 유무		돌봄 대상 수	
		없음	있음	평균	t/F
취업 여부					
비취업	(4,490)	51.9	48.1	1.61	2.78**
취업	(17,510)	48.6	51.4	1.5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688)	64.7	35.3	1.40	30.55***
300~500만 원 미만	(5,751)	49.7	50.3	1.56	
500~700만 원 미만	(6,198)	43.6	56.4	1.58	
700만 원 이상	(5,741)	43.7	56.3	1.62	
무응답	(622)	60.6	39.4	1.44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 함께 살지 않는 다른 구성원, 그 외 사람’이 돌봄 일을 얼마나 분담하는지 알아보았다. 본인이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51.68%이며, 가족이 아닌 그 외 사람이 돌보는 경우는 5.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본인이 38.68%, 배우자가 40.01%를 분담한다고 응답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돌봄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본인이 64.06%, 배우자가 12.16%로 돌봄 분담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40대, 비수도권, 미혼인 경우 본인의 돌봄 분담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미혼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돌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경우의 본인 돌봄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 인구가 다수 포함되어 배우자의 돌봄 비율이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의 돌봄 분담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돌봄 분담 비율

구분	본인		배우자 (파트너/애인)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		함께 살지 않는 다른 가족		그 외		전체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51.68		25.75		7.08		10.12		5.37		(11,165)	100.0
성별												
남성	38.68	-45.24** *	40.01	55.20***	6.67	-2.26*	9.12	-4.68***	5.51	0.92	(5,448)	100.0
여성	64.06	*	12.16		7.46		11.08		5.24		(5,717)	100.0
연령												
민19~29세	50.76		5.17		22.32		15.26		6.49		(1,035)	100.0
민30~39세	50.60		28.28		6.27	282.24** *	9.08	69.70***	5.78	9.52***	(2,232)	100.0
민40~49세	52.76		31.17		4.75	*	6.95		4.37		(4,202)	100.0
민50~59세	51.36		23.83		5.94		12.92		5.95		(3,696)	100.0
거주지												
수도권	50.95		26.09		7.09		10.74		5.13	-1.66	(5,718)	100.0
비수도권	52.43		25.40		7.07		9.47		5.63		(5,448)	100.0
혼인상태												
미혼	54.74		0.00		21.85		17.52		5.88		(2,033)	100.0
기혼	50.99		31.48		3.79	26.94***	8.48	14.23***	5.26	1.61	(9,132)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52.51		7.10		23.40		12.43		4.57		(1,950)	100.0
1명	49.54		35.01		3.17	950.11***	6.68	58.36***	5.59	2.88	(3,100)	100.0
2명 이상	51.34		31.64		4.61		7.42		4.99		(5,119)	100.0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파트너/애인)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		함께 살지 않는 다른 가족		그 외		전체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취업 여부	63.65	19.08***	13.06	-28.74***	8.41	3.48**	8.95	-2.84**	5.93	1.73	(2,161)	100.0
비취업	48.80		28.80		6.76		10.40		5.24		(9,00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58.95		11.63		8.10		14.67		6.66		(1,301)	100.0
300만 원 미만	52.78		26.57		6.48		9.25		4.93		(2,894)	100.0
300-500만 원 미만	51.63	38.81***	27.75	121.69***	6.79	2.78*	9.02	23.04***	4.81	5.95***	(3,494)	100.0
500-700만 원 미만	47.84		29.17		7.31		9.88		5.80		(3,231)	100.0
700만 원 이상	51.26		17.53		9.81		15.26		6.14		(245)	100.0
무응답												

주: 1) * p<0.05, ** p<0.01, *** p<0.001

2) '그 외'는 함께 살지 않는 다른 가족이나 그 외의 사람, 시설, 기관을 의미함.

3)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돌봄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4%가 매일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한 달에 일주일 미만' 돌봄을 하는 비율이 22.1%,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은 36.0%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52.3%가 '매일' 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30대와 40대의 경우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이 각각 56.7%, 55.2%로 나타나 20대의 '매일' 돌봄 비율이 23.3%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혼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비취업인 경우가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은 49.0%로 미혼 23.4%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경우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은 56.9%로 자녀가 2명인 경우의 48.9%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경우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은 38.40%로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표 4-14〉 돌봄 빈도

(단위: %, 명)

구분	한 달에 일주일 미만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한 달에 2주일 정도	일주일 2-3일 정도	일주일 4-5일 정도	매일	전체	평균 (6점)	t/F
전체	21.6	7.0	3.8	15.0	8.2	44.4	(11,165) 100.0	4.14	
성별									
남성	22.1	8.6	5.0	18.6	9.7	36.0	(5,448) 100.0	3.93	-10.78 ^{***}
여성	21.2	5.4	2.7	11.6	6.8	52.3	(5,717) 100.0	4.34	
연령									
만19~29세	28.3	15.1	8.2	18.0	7.1	23.3	(1,035) 100.0	3.31	307.49 ^{***}
만30~39세	13.8	5.4	4.4	11.9	7.7	56.7	(2,232) 100.0	4.64	
만40~49세	15.2	5.1	2.5	13.5	8.5	55.2	(4,202) 100.0	4.61	
만50~59세	31.7	7.8	3.7	17.8	8.5	30.5	(3,696) 100.0	3.55	
거주지									
수도권	21.9	6.8	3.6	14.9	8.2	44.5	(5,718) 100.0	4.14	0.03
비수도권	21.3	7.2	4.0	15.1	8.2	44.2	(5,448) 100.0	4.14	
혼인상태									
미혼	29.8	12.7	7.6	18.7	7.8	23.4	(2,033) 100.0	3.32	-20.65 ^{***}
기혼	19.8	5.7	3.0	14.2	8.3	49.0	(9,132) 100.0	4.33	

구분	한 달에 일주일 미만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한 달에 2주일 정도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주일에 4~5일 정도	매일	전체	평균 (6점)	t/F
자녀 수									
자녀 없음	28.9	11.1	5.4	16.7	7.9	30.1	(1,950) 100.0	3.54	205.15***
1명	14.4	4.9	2.3	12.7	8.8	56.9	(3,100) 100.0	4.67	
2명 이상	19.7	5.2	2.9	14.9	8.4	48.9	(5,119) 100.0	4.34	
취업 여부									
비취업	19.6	5.1	2.5	13.3	6.4	53.0	(2,161) 100.0	4.41	6.73***
취업	22.1	7.4	4.1	15.4	8.7	42.3	(9,005) 100.0	4.0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4.6	8.5	5.8	15.3	7.5	38.4	(1,301) 100.0	3.88	9.14***
300~500만 원 미만	19.9	7.7	3.9	16.4	7.9	44.3	(2,894) 100.0	4.18	
500~700만 원 미만	21.3	6.2	3.6	13.9	8.9	46.0	(3,494) 100.0	4.21	
700만 원 이상	22.3	6.4	3.0	14.5	8.1	45.8	(3,231) 100.0	4.17	
무응답	21.1	10.0	6.4	19.1	8.3	35.1	(245) 100.0	3.89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은 '한 달에 일주일 미만' 1점~ '매일' 6점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4)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돌봄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35.5%가 부담¹⁰⁾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돌봄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2%인 반면 여성은 41.5%로 나타나 부담을 느끼는 것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30대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돌봄을 부담스러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비취업인 경우 돌봄을 부담스러워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특이하게도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명인 경우보다 돌봄에 대해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월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경우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돌봄을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돌봄 대상이 자녀나 부모인 경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배우자, 형제, 자매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를 돌보는 경우 부담이 된다는 쪽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10) '부담되는 편'과 '매우 부담됨'을 합한 수치임.

〈표 4-15〉 돌봄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부담 되지 않음			부담됨			전체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은 편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는 편	매우 부담 됨	부담됨	
전체	22.8	41.7	64.5	30.0	5.5	35.5	(11,165) 100.0
성별($x^2=206.64^{***}$)							
남성	26.4	44.3	70.8	25.4	3.9	29.2	(5,448) 100.0
여성	19.3	39.2	58.5	34.4	7.1	41.5	(5,717) 100.0
연령($x^2=236.02^{***}$)							
만19~29세	40.0	33.8	73.7	21.7	4.6	26.3	(1,035) 100.0
만30~39세	20.0	39.4	59.4	33.3	7.3	40.6	(2,232) 100.0
만40~49세	19.7	44.8	64.6	30.3	5.1	35.4	(4,202) 100.0
만50~59세	23.1	41.8	65.0	29.9	5.1	35.0	(3,696) 100.0
거주지($x^2=1.01$)							
수도권	22.7	41.6	64.3	30.3	5.3	35.7	(5,718) 100.0
비수도권	22.9	41.8	64.7	29.6	5.7	35.3	(5,448) 100.0
혼인상태($x^2=133.01^{***}$)							
미혼	32.4	36.9	69.3	25.2	5.5	30.7	(2,033) 100.0
기혼	20.7	42.8	63.4	31.0	5.5	36.6	(9,132) 100.0
자녀 수($x^2=207.32^{***}$)							
자녀 없음	32.9	37.8	70.7	24.3	5.1	29.3	(1,950) 100.0
1명	17.3	41.7	59.0	35.5	5.5	41.0	(3,100) 100.0
2명 이상	20.6	44.2	64.8	29.5	5.7	35.2	(5,119) 100.0
취업 여부($x^2=31.50^{***}$)							
비취업	19.9	40.2	60.1	32.7	7.2	39.9	(2,161) 100.0
취업	23.5	42.1	65.6	29.3	5.1	34.4	(9,005) 100.0
월평균 가구소득($x^2=50.42^{***}$)							
300만 원 미만	22.5	36.3	58.7	33.1	8.1	41.3	(1,301) 100.0
300~500만 원 미만	21.5	42.4	63.9	30.4	5.7	36.1	(2,894) 100.0
500~700만 원 미만	24.0	43.5	67.5	27.5	5.1	32.5	(3,494) 100.0
700만 원 이상	22.5	41.7	64.2	31.0	4.8	35.8	(3,231) 100.0
무응답	27.0	37.0	64.0	31.0	5.0	36.0	(245) 100.0
돌봄 대상($x^2=187.96^{***}$)							
자녀(손자녀, 조카 포함)	19.9	44.6	64.5	30.1	5.4	35.5	(6,189) 100.0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23.5	38.8	62.3	32.0	5.6	37.7	(3,925) 100.0
배우자, 형제, 자매	37.0	37.6	74.7	19.9	5.4	25.3	(834) 100.0
기타	37.4	27.8	65.3	27.5	7.2	34.7	(217)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가구소득의 x^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4) 돌봄 대상이 한 명 이상인 경우는 가장 많이 돌보는 대상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돌봄 중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심리적으로 힘든 것’,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각각 33.5%, 30.1%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39.5%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30대는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40.4%로 가장 높은 반면, 다른 연령집단은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24.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다. 기혼과 미혼 모두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기혼인 경우 미혼보다 ‘신체적으로 힘든 것’,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와 2명 이상이면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것’에 응답한 비율은 19.6%로 나타났다. 남성, 50대,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300만 원 미만 집안은 ‘경제적으로 힘든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돌봄 대상에 따라서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반면,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 형제나 자매를 돌보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돌봄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표 4-16〉 돌봄 중 가장 어려운 부분(1순위)

(단위: %, 명)

구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기타	전체
	힘든 것	힘든 것	힘든 것	힘든 것			
전체	30.1	33.5	20.2	16.0	0.3	(3,962)	100.0
성별($x^2=111.49^{***}$)							
남성	32.0	24.5	25.4	18.0	0.2	(1,592)	100.0
여성	28.8	39.5	16.7	14.6	0.4	(2,370)	100.0
연령($x^2=95.67^{***}$)							
만19~29세	34.8	33.0	22.3	9.8	0.0	(272)	100.0
만30~39세	40.4	28.6	16.2	14.5	0.3	(906)	100.0
만40~49세	28.6	33.9	18.9	18.2	0.4	(1,489)	100.0
만50~59세	23.5	36.4	24.0	15.7	0.4	(1,295)	100.0
학력($x^2=67.24^{***}$)							
고졸 이하	25.7	32.8	30.3	10.6	0.6	(613)	100.0
대졸	31.1	33.9	18.6	16.1	0.3	(2,870)	100.0
대학원졸	29.5	31.9	16.5	21.7	0.4	(480)	100.0
거주지($x^2=2.90$)							
수도권	31.1	33.1	19.4	16.1	0.3	(2,039)	100.0
비수도권	29.0	33.8	21.0	15.9	0.3	(1,923)	100.0
혼인상태($x^2=18.15^{**}$)							
미혼	27.4	34.0	25.4	13.2	0.0	(624)	100.0
기혼	30.6	33.4	19.2	16.5	0.4	(3,338)	100.0
자녀 수($x^2=54.36^{***}$)							
자녀 없음	23.0	37.2	26.8	13.0	0.0	(572)	100.0
1명	33.4	30.6	16.8	18.6	0.6	(1,270)	100.0
2명 이상	30.1	35.4	18.5	15.6	0.3	(1,800)	100.0
취업 여부($x^2=54.34^{***}$)							
비취업	28.7	42.2	18.5	10.0	0.6	(861)	100.0
취업	30.4	31.0	20.7	17.6	0.3	(3,101)	100.0
월평균 개인소득($x^2=63.22^{***}$)							
200만 원 미만	27.7	39.5	19.6	12.6	0.6	(856)	100.0
200~300만 원 미만	28.2	33.0	24.1	14.7	0.0	(941)	100.0
300~400만 원 미만	32.2	32.8	20.3	14.4	0.4	(860)	100.0
400만 원 이상	30.6	30.3	17.6	21.2	0.3	(1,216)	100.0
무응답	45.8	29.7	19.5	5.0	0.0	(90)	100.0
돌봄 대상($x^2=140.15^{***}$)							
자녀(손자녀, 조카 포함)	35.4	30.7	15.8	17.6	0.6	(2,198)	100.0
부모 및 조부모	22.4	37.4	25.7	14.5	0.0	(1,478)	100.0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배우자, 형제, 자매	25.4	39.5	25.6	9.5	0.0	(211)	100.0
기타	36.8	21.6	26.4	15.2	0.0	(75)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개인소득의 x^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4) 돌봄 대상이 한 명 이상인 경우는 가장 많이 돌보는 대상을 의미함.

5) '기타'에는 '돌봄 상황에 대한 대처(병원 등)', '식사', '학습지도'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돌봄 공백 시 대신 맡아줄 사람 유무와 부탁할 대상을 조사한 결과, 돌봄 공백 시 대신 맡아 줄 사람이 있는 비율은 66.0%였으며, 돌봄을 부탁할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50.7%, 배우자 42.3%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돌봄 공백 시 맡아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돌봄을 부탁할 대상이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돌봄 공백 시 대신 맡아 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돌봄 대상이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돌봄 공백 시 대신 맡아 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약 68%인 반면 배우자,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45.7%로 낮게 나타났다.

〈표 4-17〉 돌봄을 대신 맡아 줄 사람 유무와 부탁할 대상

(단위: %, 명)

구분	돌봄 공백 시 대신 맡아 줄 사람 유무			돌봄을 부탁할 대상				전체
	N	없음	있음	N	배우자	가족이나 친척	그 외	
전체	(11,165)	34.0	66.0	(7,365)	42.3	50.7	7.0	100.0
성별($\chi^2=45.98^{***}$)								
남성	(5,448)	30.9	69.1	(3,763)	48.6	44.3	7.1	100.0
여성	(5,717)	37.0	63.0	(3,601)	35.8	57.4	6.8	100.0
연령($\chi^2=6.63$)								
만19~29세	(1,035)	31.1	68.9	(713)	2.7	79.7	17.5	100.0
만30~39세	(2,232)	35.6	64.4	(1,438)	36.8	57.2	5.9	100.0
만40~49세	(4,202)	34.3	65.7	(2,762)	53.4	42.2	4.4	100.0
만50~59세	(3,696)	33.7	66.3	(2,452)	44.6	47.9	7.5	100.0
학력($\chi^2=49.80^{***}$)								
고졸 이하	(1,653)	41.2	58.8	(972)	33.3	58.3	8.4	100.0
대졸	(8,194)	33.3	66.7	(5,469)	42.5	50.5	7.0	100.0
대학원졸	(1,318)	29.9	70.1	(924)	51.1	43.7	5.2	100.0
거주지($\chi^2=2.30$)								
수도권	(5,718)	33.4	66.6	(3,809)	41.2	52.0	6.8	100.0
비수도권	(5,448)	34.7	65.3	(3,555)	43.5	49.3	7.2	100.0
혼인상태($\chi^2=2.26$)								
미혼	(2,033)	35.5	64.5	(1,312)	0.0	84.5	15.5	100.0
기혼	(9,132)	33.7	66.3	(6,053)	51.5	43.3	5.1	100.0

구분	돌봄 공백 시 대신 맡아 줄 사람 유무			돌봄을 부탁할 대상				전체
	N	없음	있음	N	배우자	가족이나 친척	그 외	
자녀 수($\chi^2=19.43^{***}$)								
자녀 없음	(1,950)	37.0	63.0	(1,228)	3.9	85.0	11.2	100.0
1명	(3,100)	33.7	66.3	(2,056)	53.6	42.3	4.2	100.0
2명 이상	(5,119)	31.6	68.4	(3,504)	55.4	39.6	5.0	100.0
취업 여부($\chi^2=98.55^{***}$)								
비취업	(2,161)	43.1	56.9	(1,229)	36.4	57.0	6.7	100.0
취업	(9,005)	31.9	68.1	(6,136)	43.5	49.4	7.0	100.0
월평균 개인소득($\chi^2=102.02^{***}$)								
200만 원 미만	(2,192)	40.7	59.3	(1,299)	33.9	57.9	8.2	100.0
200~300만 원 미만	(2,542)	36.7	63.3	(1,610)	31.7	60.2	8.1	100.0
300~400만 원 미만	(2,320)	33.1	66.9	(1,551)	40.5	52.6	6.9	100.0
400만 원 이상	(3,871)	28.7	71.3	(2,760)	54.2	40.2	5.6	100.0
무응답	(241)	39.8	60.2	(145)	29.9	58.0	12.0	100.0
돌봄 대상($\chi^2=165.15^{***}$)								
자녀(손자녀, 조카 포함)	(6,189)	32.4	67.6	(4,184)	64.7	32.1	3.1	100.0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의(조)부모 포함)	(3,925)	32.4	67.6	(2,654)	14.8	75.8	9.4	100.0
배우자, 형제, 자매	(834)	54.3	45.7	(381)	1.7	85.2	13.1	100.0
기타	(217)	32.9	67.1	(146)	7.3	33.6	59.1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그 외'는 지인이나 무료 또는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기관 도우미 등을 의미함.

4) 월평균 개인소득의 χ^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5) 돌봄 대상이 한 명 이상인 경우는 가장 많이 돌보는 대상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생활시간의 사용과 시간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 및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면 외에 생활시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하는 시간은 일하지 않는 주말 시간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일 생활시간 중 긴 시간은 수면시간, 근로시간, 휴식 및 기타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남성, 30~40대,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반면, 휴식 및 기타시간은 근로시간과는 반대로 30~40대 이외, 학력 및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도 휴식 및 기타시간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으나,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증가 경향이 있었다. 여가 및 문화시간과 휴식 및 기타시간은 학력이 낮거나 자녀가 없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말의 경우는 평일보다 수면시간, 여가 및 문화시간, 휴식 및 기타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가사, 돌봄시간도 증가하였다. 반면, 근로, 출퇴근 및 이동 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시간의 충분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돌봄, 교제 및 사회활동 시간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및 교제 및 사회활동 시간은 공통적으로 여성과 30~40대, 수도권, 학력이 낮을수록 충분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생활시간 중 시간을 증가시키고 싶은 활동은 수면, 여가 및 문화,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시간, 줄이고 싶은 활동은 근로, 출퇴근 및 이동, 가사 활동 등의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시간적인 여유에 대해서는 절반이 안 되는 비율이 충분하다고 응답했고, 하루 일과 후 피곤한 정도는 약 80%가 피곤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피곤하다는 이들은 대체로 일(직장)과 출퇴근 및 이동으로 인해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에 이어 가사와 돌봄 환경을 알아보았다. 가사 및 분담 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응답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배우자 보다 본인의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보다 여성이 본인과 배우자의 분담 비율 차이가 크게 응답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가사 및 돌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는 미혼이나 남성 1인 가구의 포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본인의 가사 분담률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경우 본인의 가사 분담률이 특히 높게 조사되었다.

가사 분담 비율, 가사 일 빈도, 가사 일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이 모든 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기혼인 경우, 비취업인 경우 매일 가사 일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40대가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해 가사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비취업인 경우 가사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이 가사 일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자녀 연령에 따른 가사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돌봄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약 44%가 매일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과반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는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와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연령은 가사 일의 부담 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이기도 하다.

돌봄을 분담하는 사람은 보통 본인, 배우자, 친인척 등이었으며, 가족이 아닌 그 외 사람이 돌보는 경우는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의 사회화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돌봄의 책임을 가족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가족 이외의 사람이 돌보는 비율이 가장 높고,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은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서 낮았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돌봄지원 서비스 이용에 기인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돌봄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약 36%가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 일에 대한 부담 정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남성 응답자의 경우 돌봄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29.2%)이 가사 일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2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사 일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명인 경우보다 돌봄에 대해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빈도에서도 자녀가 1명인 경우의 빈도가 자녀가 2명인 경우보다 높고 매일 돌봄을 한다는 응답도 높은 등의 결과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월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경우 가족 이외의 사람이 돌보는 비율이 높고,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돌봄을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돌봄대상이 자녀나 부모인 경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배우자, 형제, 자매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돌봄에 따른 어려움은 주로 ‘심리적으로 힘든 것’, ‘신체적으로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경제적으로 힘든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돌봄 대상에 따라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달랐는데,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반면,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공백 시 대신 맡아 줄 사람이 있는 비율은 65% 이상이었고,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한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돌봄 공백 시 맡아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돌봄 대상이 배우자,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대신 돌봄을 맡아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과반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돌봄도 전반적으로 기혼, 유자녀, 여성이 돌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자녀 연령에 따른 돌봄 빈도 및 부담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30대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을 고려하면 돌봄 대상이 영유아 자녀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50대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부모부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일 가능성이 있다.

가사 일과 돌봄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가 대부분 가족인 것으로 나타나 돌봄의 사회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가사 및 돌봄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부담이 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거나 돌봄 대상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제공, 그리고 돌봄에 대한 가족 책임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여가와 휴가·휴식

제1절 여가

제2절 휴가와 휴식

제3절 소결

제5장 여가와 휴가·휴식

제5장에서는 여가와 쉼에 대해 알아본다. 여가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어 모두를 대상으로 여가시간 활용과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한다. 여가에 이어서 쉼에 대해 알아보는데, 일하는 경우는 부여되는 휴가나 스스로 정한 휴가 등이 쉼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휴식도 쉼에 해당한다. 휴가에 대해서는 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일수와 사용 일수, 만족 정도, 휴가 사용 환경 등에 대해 파악한다. 일은 하지만 부여된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획한 휴가 일수와 사용한 휴가 일수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휴가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휴식과 관련해서는 모두를 대상으로 휴식의 충분성과 휴식의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1절 여가

가장 먼저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주중과 주말의 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해 주중과 주말을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주중의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유선방송,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이 9.0%,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등이 6.7%, 수면 및 휴식이 6.7%, 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취미, 자기계발 활동은 6.0%, 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관람, 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문화 예술 관련 활동이 2.4% 등으로 나

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동영상 콘텐츠 시청 비율이 높고,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비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등에 대한 활동 비율은 낮아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동영상 콘텐츠 시청 비율은 낮아지고 취미 및 자기계발 활동과 문화예술 관련 활동은 높아지는 것도 볼 수 있다.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등의 비율은 낮아지고,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 비율은 높아진다. 미혼인 경우는 기혼에 비해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등의 활동이 많고,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과 수면 및 휴식 활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여가시간 활동(1순위): 주중

(단위: %, 명)

구분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 예술 관련 활동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	취미, 자기 계발 활동	여행 및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교제 및 사교 활동	봉사 및 종교 활동	수면, 휴식	전체
전체	65.4	2.4	9.0	6.0	1.8	6.7	1.3	0.7	6.7	(22,000) 100.0
성별										
남성	63.9	2.8	9.4	5.7	2.2	9.1	1.1	0.5	5.3	(11,287) 100.0
여성	66.9	2.0	8.6	6.2	1.4	4.1	1.4	0.9	8.3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66.8	2.6	5.2	5.6	1.4	10.9	2.1	0.4	5.1	(5,069) 100.0
만30~39세	68.0	2.4	6.5	5.9	1.8	7.5	0.8	0.3	6.7	(4,803) 100.0
만40~49세	65.2	2.0	8.8	7.0	2.0	5.4	1.2	0.7	7.7	(5,877) 100.0
만50~59세	62.3	2.6	14.3	5.4	2.0	3.7	1.1	1.4	7.2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65.6	2.4	8.7	6.1	1.8	6.6	1.3	0.6	6.8	(11,620) 100.0
비수도권	65.1	2.4	9.4	5.8	1.8	6.7	1.3	0.9	6.6	(10,380) 100.0

구분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 예술 관련 활동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	취미, 자기계발 활동	여행 및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교제 및 사교 활동	봉사 및 종교 활동	수면, 휴식	전체
학력										
고졸 이하	67.6	1.5	8.9	3.9	2.0	7.3	1.0	0.8	6.9	(3,368) 100.0
대졸	65.3	2.5	8.8	6.0	1.8	6.7	1.4	0.6	6.8	(16,376) 100.0
대학원졸	62.4	3.2	10.6	8.7	2.0	5.2	0.9	1.1	5.9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68.0	2.6	5.6	5.5	1.4	8.8	1.7	0.4	5.9	(9,222) 100.0
기혼	63.4	2.3	11.5	6.3	2.1	5.1	1.0	0.9	7.3	(12,778)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67.2	2.5	6.2	5.5	1.6	9.2	1.4	0.5	5.9	(7,356) 100.0
1명	63.7	2.2	10.4	7.0	2.0	5.6	1.0	0.7	7.3	(3,817) 100.0
2명 이상	62.2	2.2	13.3	6.0	2.1	4.3	1.1	1.1	7.7	(6,478) 100.0
취업 여부										
비취업	64.4	2.1	9.4	5.9	1.0	9.0	1.2	1.0	6.1	(4,490) 100.0
취업	65.6	2.5	9.0	6.0	2.0	6.1	1.3	0.6	6.9	(17,51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6.6	2.4	6.5	5.9	1.5	7.8	1.2	0.9	7.1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65.3	2.4	7.8	6.0	1.8	7.5	1.5	0.8	6.8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65.5	2.3	9.8	5.6	1.6	6.6	1.1	0.7	6.7	(6,198) 100.0
700만 원 이상	64.4	2.4	11.4	6.4	2.2	5.1	1.2	0.5	6.4	(5,741) 100.0
무응답	66.3	3.5	5.9	5.9	2.5	6.7	1.5	0.6	7.1	(62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중에 이어 주말 여가시간 활동을 살펴보면, 여전히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이 12.2%, 수면 및 휴식은 10.1%, 여행 및 관광이 6.1%,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등은 5.9%, 취미 및 자기계발 활동은 5.7% 등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콘텐츠 시청은 주중보다 줄어들고,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이나 여행 및 관광은 주중보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중과 비교하여 주말에는 교제 및 사교활동(4.0%)과 문화예술 관련 활동(3.9%), 그리고 봉사 및 종교활동(2.7%)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주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낮게 나타났던 활동인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이 주말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여성은 이 활동을 주말에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주말 여가시간 활동에서 20대는 교제 및 사교활동(8.3%)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연령이 상승할수록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활동에 대한 비율은 감소하고,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과 여행 및 관광 등의 활동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5-2〉 여가시간 활동(1순위): 주말

(단위: %, 명)

구분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 예술 관련 활동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	취미, 자기 계발 활동	여행 및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교제 및 사교 활동	봉사 및 종교 활동	수면, 휴식	기타	전체
전체	49.3	3.9	12.2	5.7	6.1	5.9	4.0	2.7	10.1	0.1	(22,000) 100.0
성별											
남성	48.5	3.8	13.5	6.2	5.8	8.4	3.5	2.1	8.1	0.1	(11,287) 100.0
여성	50.2	4.1	10.9	5.1	6.3	3.2	4.5	3.4	12.2	0.1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49.1	4.8	6.7	6.0	3.7	10.8	8.3	1.7	8.8	0.1	(5,069) 100.0
만30~39세	48.6	4.4	9.3	6.5	7.7	6.8	4.6	1.3	10.7	0.1	(4,803) 100.0
만40~49세	49.9	3.6	12.6	5.5	7.4	4.5	1.9	2.8	11.6	0.1	(5,877) 100.0
만50~59세	49.6	3.2	18.6	4.9	5.4	2.5	1.9	4.6	9.2	0.1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48.7	4.5	12.0	6.1	5.8	5.6	4.3	2.6	10.3	0.0	(11,620) 100.0
비수도권	50.0	3.3	12.5	5.2	6.4	6.2	3.6	2.9	9.8	0.2	(10,380) 100.0
학력											
고졸 이하	54.0	2.8	10.7	3.9	4.8	7.7	2.6	3.0	10.4	0.1	(3,368) 100.0
대졸	49.1	4.0	12.1	5.8	6.2	5.8	4.3	2.5	10.1	0.1	(16,376) 100.0
대학원졸	43.6	5.4	15.6	7.1	6.9	3.9	3.7	4.1	9.7	0.0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50.2	4.6	8.0	6.2	3.8	8.5	7.1	1.9	9.6	0.1	(9,222) 100.0
기혼	48.7	3.5	15.3	5.3	7.7	4.0	1.7	3.3	10.4	0.1	(12,778) 100.0

구분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 예술 관련 활동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	취미, 자기 개발 활동	여행 및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교제 및 사교 활동	봉사 및 종교 활동	수면, 휴식	기타	전체
자녀 수											
자녀 없음	49.9	4.6	8.8	5.8	5.1	8.6	5.7	1.9	9.7	0.1	(7,356) 100.0
1명	47.8	3.7	14.6	5.3	8.7	4.3	1.8	3.1	10.7	0.1	(3,817) 100.0
2명 이상	48.3	2.9	16.9	5.0	7.3	3.2	1.7	3.9	10.7	0.1	(6,478) 100.0
취업 여부											
비취업	53.0	3.2	10.8	4.2	4.9	8.3	3.0	3.7	8.8	0.1	(4,490) 100.0
취업	48.4	4.1	12.6	6.0	6.4	5.3	4.2	2.5	10.4	0.1	(17,51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2.0	4.0	7.5	6.0	4.1	7.9	4.3	3.6	10.5	0.1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50.4	3.8	10.8	5.9	5.1	6.9	4.1	2.9	9.8	0.2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49.3	3.5	13.6	5.6	6.6	5.4	3.7	2.5	9.8	0.1	(6,198) 100.0
700만 원 이상	46.0	4.5	15.3	5.3	8.0	3.9	4.0	2.3	10.5	0.0	(5,741) 100.0
무응답	54.8	3.2	10.6	5.3	3.0	8.0	3.8	1.9	9.4	0.0	(622)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에는 '여가시간 없음', '음주', '집안일'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총 7점으로 조사되었고,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7점으로 보통 4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낮을수록 불만족을 의미한다. 여가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4.4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여가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 수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만족 정도가 높았으며, 스포츠 활동이나 여행 관련 여가활동에 차이를 보인 변수인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 정도도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5-3〉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t/F
전체 (22,000)	4.44	
성별		
남성 (11,287)	4.54	11.43***
여성 (10,713)	4.34	
연령		
만19~29세 (5,069)	4.79	175.97***
만30~39세 (4,803)	4.37	
만40~49세 (5,877)	4.27	
만50~59세 (6,251)	4.39	
거주지		
수도권 (11,620)	4.42	-2.25*
비수도권 (10,380)	4.46	
학력		
고졸 이하 (3,368)	4.36	8.76***
대졸 (16,376)	4.46	
대학원졸 (2,257)	4.47	
혼인상태		
미혼 (9,222)	4.60	15.62***
기혼 (12,778)	4.33	
자녀 수		
자녀 없음 (7,356)	4.62	146.32***
1명 (3,817)	4.26	
2명 이상 (6,478)	4.31	
취업 여부		
비취업 (4,490)	4.43	-0.51
취업 (17,510)	4.4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688)	4.36	17.39***
300~500만 원 미만 (5,751)	4.40	
500~700만 원 미만 (6,198)	4.44	
700만 원 이상 (5,741)	4.53	
무응답 (622)	4.48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앞서 여가생활 만족 정도에서 매우 만족(7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1점에서 6점까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27.5%였다. 그 외에 '즐기고 싶은 여가나 취미가 딱히 없음'은 11.3%,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음'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고졸 이하, 취업하지 않은 경우, 월 3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인 집단에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약 45% 수준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30대, 대학원 졸업인 경우, 자녀 1명인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여가 즐길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여가 정보 및 프로 그램 부족	여가 시설 부족	여가 함께 즐길 사람 없음	즐기고 싶은 여가나 취미가 딱히 없음	여가에 집중 하기 어려운 상황	기타	전체
전체	27.5	38.6	4.5	4.8	7.3	11.3	4.9	1.0	(20,989) 100.0
성별									
남성	27.8	39.2	5.0	5.7	8.2	9.9	3.6	0.6	(10,675) 100.0
여성	27.2	38.0	4.0	3.9	6.4	12.8	6.3	1.4	(10,314) 100.0
연령									
만19~29세	28.1	36.9	4.4	7.6	8.6	11.6	1.9	1.0	(4,638) 100.0
만30~39세	34.3	32.5	4.0	5.1	6.6	11.1	5.4	1.0	(4,581) 100.0
만40~49세	27.7	38.3	4.5	3.9	6.5	11.1	7.2	0.8	(5,698) 100.0
만50~59세	21.6	44.8	5.1	3.4	7.8	11.5	4.7	1.1	(6,073) 100.0
거주지									
수도권	29.2	37.5	4.5	4.2	7.4	11.3	5.0	0.9	(11,146) 100.0
비수도권	25.6	39.8	4.5	5.6	7.3	11.3	4.9	1.1	(9,843) 100.0
학력									
고졸 이하	22.6	45.0	4.1	4.4	8.0	10.8	4.2	0.9	(3,168) 100.0
대졸	27.9	38.2	4.5	4.9	7.2	11.4	5.0	1.0	(15,639) 100.0
대학원졸	31.8	32.2	5.5	5.1	7.1	11.9	5.6	1.0	(2,182) 100.0

구분	여가 즐길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여가 정보 및 프로 그램 부족	여가 시설 부족	여가 함께 즐길 사람 없음	즐기고 싶은 여가나 취미가 딱히 없음	여가에 집중 하기 어려운 상황	기타	전체
혼인상태									
미혼	25.6	38.6	4.3	6.1	9.7	12.6	2.0	1.0	(8,612) 100.0
기혼	28.8	38.6	4.7	4.0	5.7	10.4	7.0	0.9	(12,378)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27.9	37.4	4.2	5.6	7.9	13.7	2.2	1.1	(6,878) 100.0
1명	32.0	35.2	4.4	4.5	5.2	9.1	8.8	0.9	(3,697) 100.0
2명 이상	27.4	40.0	5.0	3.1	5.4	10.6	7.8	0.8	(6,306) 100.0
취업 여부									
비취업	19.1	42.2	3.6	5.0	8.4	12.9	7.5	1.4	(4,221) 100.0
취업	29.6	37.7	4.8	4.8	7.1	10.9	4.3	0.9	(16,76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1.3	47.5	3.6	5.0	8.7	10.0	2.9	0.9	(3,491) 100.0
300-500만 원 미만	25.8	41.9	3.9	4.7	6.9	10.9	5.4	0.6	(5,474) 100.0
500-700만 원 미만	27.8	38.0	4.9	4.9	7.0	11.1	5.2	1.1	(5,941) 100.0
700만 원 이상	33.0	30.1	5.3	4.5	7.0	13.1	5.7	1.2	(5,512) 100.0
무응답	24.2	39.5	4.9	7.1	10.0	10.0	3.1	1.1	(571)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여가생활 만족 정도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 중 7점에 대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질문.
 3) '기타'에는 '대체로 만족함', '피곤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휴가와 휴식

제2절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휴가와 일반적인 휴식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해 휴가에 대해 살펴본 후,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휴식의 충분성과 휴식의 영향에 대해 파악한다.

1. 휴가

휴가에 대해 임금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계획한 휴가와 실제 휴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임금근로자의 휴가

임금근로자의 휴가는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은 지난 한 해(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 동안을 기준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동안 이동 없이 현재의 직장을 다녔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임금근로자가 부여받은 휴가 일수 평균은 17.03일로 나타났다. 그중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평균 11.63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약 5일 이상 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하루 정도 짧은 휴가 일수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용 휴가 일수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입사 후 연차휴가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기간 등의 영향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여받은 휴가 일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20대가 약간 짧기는 했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이다. 미혼인 경우보다는 기혼인 경우가,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부여받은 휴가 일수와 사용한 휴가 일수 모두 더 길다. 맞벌이보다는 비맞벌이의 경우가 부여받은 휴가 일수는 더 많지만 사용한 휴가 일수는 차이가 거의 없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여받은 휴가 일수와 사용한 휴가 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가 12.29일로 길게 나타났다.

상용근로자가 임시·일용근로자보다 부여받은 휴가 일수와 실제 사용 휴가 일수 모두 더 길다. 직종별로는 판매·서비스종사자 및 기타 종사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부여 받은 휴가 일수가 짧다. 그러나 실제 사용 일수

에 있어서는 기타 직종 종사자가 10.31일이고 다른 경우는 모두 11일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가 부여 휴가 일수가 15.74일로 가장 짧고 제조업이 17.74일로 가장 길다. 그러나 실제 사용 휴가 일수는 제조업이 11.21일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가장 짧은 휴가 사용 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에서 일하는 경우 부여받은 휴가 일수와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직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부여받은 휴가 일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300인 이상인 경우가 평균 12.25일로 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었고, 30~100인 미만인 집단이 11.13일, 5인 미만인 경우가 10.83일로 짧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18.33일)보다 민간 영역(16.60일)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부여받은 휴가 일수는 짧으나, 오히려 사용한 휴가 일수는 민간 영역(11.83일)에서 일하는 집단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11.02일)보다 더 긴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단에서도 정규직이 부여받은 휴가 일수는 더 많지만, 사용한 휴가 일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시간제보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부여받은 휴가 일수와 실제 사용 휴가 일수 모두 길었다. 교대제 여부에 있어서는 교대제가 아닌 경우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가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보다 길게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보다는 아닌 경우가, 플랫폼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보다는 아닌 경우가 부여받은 휴가 일수는 더 길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지난 한 해 연차휴가 일수

구분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가 있는 경우				연차 휴가 미부여자				전체 임금근로자			
	부여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N	평균 t/F	N	평균 t/F	N	평균 t/F	N	평균 t/F	N	평균 t/F	N	평균 t/F
전체	(9,132)	17.03	(9,132)	11.63	(468)	3.13	(9,600)	11.22				
성별												
남성	(5,455)	17.55	(5,455)	11.58	(201)	3.49	(5,656)	11.29				1.40
여성	(3,678)	16.27	(3,678)	11.71	(267)	2.87	(3,944)	11.11				
연령												
만19~29세	(1,164)	15.05	(1,164)	11.25	(71)	4.36	(1,235)	10.85				
만30~39세	(2,459)	16.23	(2,459)	11.75	(69)	3.32	(2,529)	11.52				5.01**
만40~49세	(2,836)	17.58	(2,836)	11.74	(139)	2.92	(2,975)	11.33				
만50~59세	(2,673)	18.04	(2,673)	11.56	(188)	2.75	(2,861)	10.98				
혼인상태												
미혼	(3,028)	15.71	(3,028)	11.26	(192)	3.80	(3,220)	10.81				-4.56***
기혼	(6,105)	17.69	(6,105)	11.82	(275)	2.67	(6,380)	11.42				
개인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94)	17.45	(4,394)	11.75	(210)	2.10	(4,604)	11.31				-2.74**
비맞벌이	(1,422)	18.62	(1,422)	11.99	(34)	5.34	(1,456)	11.83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505)	16.01	(2,505)	11.47	(152)	4.43	(2,657)	11.07				2.00*
자녀 있음	(4,992)	17.89	(4,992)	11.78	(229)	2.33	(5,221)	11.36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929)	15.15	(929)	10.97	(103)	2.32	(1,032)	10.10				
300~500만 원 미만	(2,283)	16.29	(2,283)	11.06	(135)	3.58	(2,418)	10.64				
500~700만 원 미만	(2,756)	16.97	(2,756)	11.61	(128)	3.41	(2,884)	11.24				34.93***
700만 원 이상	(3,026)	18.26	(3,026)	12.28	(91)	3.31	(3,117)	12.02				
무응답	(138)	16.04	(138)	11.80	(10)	0.38	(149)	11.00				

(단위: 일, 명)

구분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가 있는 경우				연차 휴가 미부여자				전체 임금근로자			
	부여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N	평균 t/F	N	평균 t/F	N	평균 t/F	N	평균 t/F	N	평균 t/F	N	평균 t/F
종사지위												
상용근로자	(8,733)	17.20	39.00***	(8,733)	11.72	39.17***	-	-	(8,733)	11.72	644.68***	
임시·일용근로자	(399)	13.38		(399)	9.78		(468)	3.13	(867)	6.20		
직종												
관리자·전문가	(2,582)	17.17		(2,582)	11.45		(115)	2.84	(2,697)	11.08		
사무종사자	(4,413)	17.33	22.96***	(4,413)	12.00	22.50***	(64)	4.04	(4,477)	11.89	49.35***	
판매·서비스종사자	(1,137)	16.06		(1,137)	11.77		(159)	2.99	(1,296)	10.69		
기타	(1,000)	16.45		(1,000)	10.31		(130)	3.12	(1,129)	9.49		
산업												
제조업	(2,130)	17.74		(2,130)	11.21		(26)	2.99	(2,156)	11.11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1,081)	15.74		(1,081)	11.61		(83)	3.31	(1,164)	1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2,005)	16.76	38.05***	(2,005)	11.50	7.65***	(146)	2.90	(2,152)	10.92	3.59***	
그 외 서비스업	(1,214)	16.38		(1,214)	12.38		(108)	2.15	(1,322)	11.55		
기타	(2,702)	17.48		(2,702)	11.73		(104)	4.37	(2,807)	11.46		
일자리 특성												
조직 규모												
5인 미만	(677)	13.65		(677)	10.83		(150)	2.05	(826)	9.24		
5~30인 미만	(2,440)	15.63		(2,440)	11.47		(171)	3.72	(2,611)	10.96		
30~100인 미만	(2,122)	16.97	229.16***	(2,122)	11.13	14.93***	(67)	2.59	(2,189)	10.86	39.63***	
100~300인 미만	(1,381)	17.68		(1,381)	11.96		(58)	4.32	(1,419)	11.75		
300인 이상	(2,513)	18.99		(2,513)	12.25		(41)	4.41	(2,554)	12.13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6,869)	16.60		(6,869)	11.83	5.46***	(374)	3.27	(7,242)	11.39	4.75***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2,264)	18.33	-13.76***	(2,264)	11.02		(94)	2.59	(2,357)	10.68		
정규직 여부												
정규직	(7,980)	17.33	9.32***	(7,980)	11.70	-0.70	-	-	(7,980)	11.70	-0.70	
비정규직	(753)	15.78		(753)	11.86		-	-	(753)	11.86		

구분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가 있는 경우				연차 휴가 미부여자		전체 임금근로자	
	부여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실제 사용 휴가 일수	
	N	평균	t/F	N	평균	t/F	N	평균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949)	14.93	-11.99***	(949)	11.07	-2.82**	(1,280)	8.88
전일제 근무	(8,183)	17.27		(8,183)	11.70		(8,320)	11.58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1,105)	16.91	-0.80	(1,105)	10.70	-5.26***	(1,178)	10.29
교대제 아님	(8,027)	17.05		(8,027)	11.76		(8,422)	11.3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	(526)	14.93	-9.55***	(526)	11.57	-0.23	(735)	9.0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	(8,606)	17.16		(8,606)	11.63		(8,865)	11.39
플랫폼 종사자 여부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	(114)	13.89	-5.62***	(114)	11.37	-0.47	(174)	8.63
플랫폼 종사자 아님	(9,018)	17.07		(9,018)	11.63		(9,425)	11.26

주: 1) * p<0.05, ** p<0.01, *** p<0.001

2) 부여받은 휴가 일수는 있는 경우만 응답함.

3)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았다. 휴가 일수 만족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총 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4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하지 않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 정도는 4.56점이고,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 정도는 평균 4.31점으로 나타나, 모두 보통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지만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 정도가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보다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50대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기혼, 자녀 있는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모두에 대해 만족 수준이 높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비맞벌이의 경우가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에는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에는 만족하지만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은 유사하다. 이는 실제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가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많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에서 차이가 없었던 앞의 휴가 일수 결과에 따라 만족 정도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300인 이상 규모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 비정규직의 경우가 주어진 휴가 일수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은 30대, 사무종사자, 100~300인 미만 규모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정규직의 경우,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교대제가 아닌 경우, 미혼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5-6〉 연차휴가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 만족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만족		
		N	평균	t/F	N	평균	t/F
전체		(9,132)	4.56		(9,132)	4.31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5,455)	4.65	6.43***	(5,455)	4.34	2.08*
	여성	(3,678)	4.43		(3,678)	4.26	
	연령						
	만19~29세	(1,164)	4.32	48.69***	(1,164)	4.24	20.81***
	만30~39세	(2,459)	4.36		(2,459)	4.17	
	만40~49세	(2,836)	4.58		(2,836)	4.26	
	만50~59세	(2,673)	4.82		(2,673)	4.52	
	혼인상태						
	미혼	(3,028)	4.39	-7.37***	(3,028)	4.19	-4.64***
	기혼	(6,105)	4.64		(6,105)	4.37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94)	4.62	-2.16*	(4,394)	4.37	-0.12
	비맞벌이	(1,422)	4.72		(1,422)	4.38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505)	4.41	6.92***	(2,505)	4.24	3.46**
	자녀 있음	(4,992)	4.68		(4,992)	4.3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929)	4.27	24.08***	(929)	4.12	6.44***	
300~500만 원 미만	(2,283)	4.45		(2,283)	4.26		
500~700만 원 미만	(2,756)	4.59		(2,756)	4.34		
700만 원 이상	(3,026)	4.70		(3,026)	4.37		
무응답	(138)	4.45		(138)	4.41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8,733)	4.57	5.56*	(8,733)	4.31	0.29
	임시·일용근로자	(399)	4.38		(399)	4.35	
	직종						
	관리자·전문가	(2,582)	4.65	4.15**	(2,582)	4.32	3.91**
	사무종사자	(4,413)	4.52		(4,413)	4.26	
	판매·서비스종사자	(1,137)	4.53		(1,137)	4.39	
	기타	(1,000)	4.55		(1,000)	4.42	
	산업						
	제조업	(2,130)	4.57	3.05*	(2,130)	4.22	2.37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1,081)	4.46		(1,081)	4.4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2,005)	4.55		(2,005)	4.33	
그 외 서비스업	(1,214)	4.48	(1,214)		4.33		
기타	(2,702)	4.63	(2,702)		4.32		

구분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 만족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만족		
	N	평균	t/F	N	평균	t/F
조직 규모						
5인 미만	(677)	4.49		(677)	4.31	
5~30인 미만	(2,440)	4.47		(2,440)	4.27	
30~100인 미만	(2,122)	4.55	6.33***	(2,122)	4.29	2.98*
100~300인 미만	(1,381)	4.54		(1,381)	4.24	
300인 이상	(2,513)	4.68		(2,513)	4.4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6,869)	4.52	-4.42***	(6,869)	4.29	-1.5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2,264)	4.68		(2,264)	4.36	
정규직 여부						
정규직	(7,980)	4.55	-4.21***	(7,980)	4.27	-7.20***
비정규직	(753)	4.80		(753)	4.73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949)	4.60	0.89	(949)	4.51	4.31***
전일제 근무	(8,183)	4.55		(8,183)	4.29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1,105)	4.55	-0.18	(1,105)	4.47	3.31**
교대제 아님	(8,027)	4.56		(8,027)	4.29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지난 1년간 나에게 주어진/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만족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여받은 휴가 일수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짧은 경우를 대상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를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난 응답은 '⑥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서'로 20.1%의 비율을 보였다. '④ 대체인력이 부족해서'는 18.3%, '③ 업무량 과다로'는 17.6%, '⑦ 특별한 휴가계획이 없어서'는 14.6%, '①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가 11.4%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⑨ 작업 및 협업 일정을 맞추다 보니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놓쳐서'가 6.6%, '② 조직에서 연차 사용을 규제하는 분위기 때문에'는 5.1%, '⑤ 휴가경비가 부담스러워서'는 3.3%, '⑧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편해서'가 1.8%, '

⑩ 기타' 이유가 1.3%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상위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근로자가 선택한 이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하는 조직의 환경에 의한 이유로 구분될 수 있어 특성별 분석은 이 두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주어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인 '⑥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서'를 집단별로 보면, 연령이 상승할수록 이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이유를 상대 집단보다 비교적 많이 선택한 집단은 상용근로자, 판매·서비스종사자 및 기타, 제조업 및 그 외 서비스업, 조직 규모가 클수록,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 비정규직, 전일제 근무, 교대제 근무, 기혼, 비맞벌이, 자녀 있는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7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이유인 '④ 대체인력이 부족해서'는 일하는 조직의 환경 때문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이 이유를 특히 많이 선택한 집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매·서비스종사자의 경우는 29.1%, 도·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25.9%, 조직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는 28.2%, 조직 규모가 5~30인 미만인 경우는 24.3%,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3.0%가 이 이유를 선택했다. 이들 집단은 이 이유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도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주어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3.3%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교대제 근무 집단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의 1순위는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유가 미혼인 경우는 19.8%, 자녀가 없는 경우는 18.7%, 조직 규모가 30~100인 미만인 집단은 18.9%, 민간 및 기타 조직에서는 19.6%, 시간제 근무의 경우는 18.2%로 앞서 논의한

집단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들 집단 또한 대체인력 부족이 선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의 1순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7〉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상사 눈치	② 조직 분위 기	③ 업무 과다	④ 대체 인력 부족	⑤ 휴가 경비 부담	⑥ 연차 수당 대체	⑦ 휴가 계획 없어 서	⑧ 일하 는게 편해 서	⑨ 사용 시기 놓쳐 서	⑩ 기타	전체
전체		11.4	5.1	17.6	18.3	3.3	20.1	14.6	1.8	6.6	1.3	(5,455) 100.0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10.7	4.8	18.6	17.7	3.6	20.2	14.7	1.8	6.5	1.2	(3,489) 100.0
	여성	12.5	5.7	15.7	19.3	2.8	19.9	14.3	1.7	6.6	1.4	(1,966) 100.0
	연령											
	만19~29세	15.9	7.5	17.5	16.6	4.6	14.1	16.0	2.3	4.2	1.2	(624) 100.0
	만30~39세	10.9	6.8	20.9	19.2	3.5	16.4	14.0	1.4	5.5	1.4	(1,388) 100.0
	만40~49세	12.9	4.2	18.9	18.8	2.8	19.9	12.2	1.6	7.4	1.3	(1,757) 100.0
	만50~59세	8.5	3.8	13.5	17.7	3.2	25.6	17.0	2.1	7.3	1.2	(1,686) 100.0
	혼인상태											
	미혼	12.4	5.6	18.0	19.8	3.4	15.9	14.9	2.0	6.7	1.2	(1,686) 100.0
	기혼	10.9	4.9	17.4	17.7	3.2	22.0	14.4	1.7	6.5	1.3	(3,769)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7	5.4	17.1	18.4	3.2	21.3	14.2	1.8	6.3	1.5	(2,643) 100.0
	비맞벌이	10.9	3.9	17.9	14.9	3.3	24.1	15.6	1.5	6.8	0.9	(964)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2.0	6.7	18.3	18.7	2.4	18.2	15.7	1.6	5.2	1.1	(1,402) 100.0
	자녀 있음	10.8	4.4	16.9	17.7	3.6	22.2	14.1	1.9	7.0	1.3	(3,13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4.9	5.1	12.6	23.0	5.0	19.1	13.3	0.8	5.2	1.0	(474) 100.0
	300~500만 원 미만	12.4	5.6	18.8	20.0	3.6	18.5	12.0	1.9	6.5	0.8	(1,365) 100.0
500~700만 원 미만	11.9	5.4	17.5	17.7	3.6	21.4	14.4	1.4	5.4	1.4	(1,628) 100.0	
700만 원 이상	9.5	4.6	18.0	16.3	2.4	20.5	16.6	2.3	8.1	1.7	(1,920) 100.0	
무응답	9.9	2.4	16.1	26.0	3.7	16.4	23.6	1.1	0.8	0.0	(68) 100.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1.1	5.1	17.6	18.4	3.2	20.3	14.6	1.8	6.6	1.3	(5,255) 100.0
	임시·일용근로자	18.2	4.7	17.1	15.7	7.1	14.8	14.2	2.6	4.8	0.9	(200)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11.4	5.3	19.7	17.5	4.3	14.8	15.8	2.5	7.2	1.5	(1,572) 100.0
	사무종사자	12.3	5.1	19.5	15.9	2.5	20.1	14.5	1.5	7.1	1.4	(2,699)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9.0	5.9	10.5	29.1	3.7	24.5	11.8	0.4	4.5	0.6	(561) 100.0
기타	9.7	3.9	10.2	21.4	3.9	29.2	14.2	2.3	4.4	0.8	(623) 100.0	

구분	① 상사 눈치	② 조직 분위 기	③ 업무 과다	④ 대체 인력 부족	⑤ 휴가 경비 부담	⑥ 연차 수당 대체	⑦ 휴가 계획 없어 서	⑧ 일하 는게 편해 서	⑨ 사용 시기 놓쳐 서	⑩ 기타	전체	
산업												
제조업	11.2	5.3	17.3	18.9	3.0	21.3	13.2	2.2	6.5	1.1	(1,465)	100.0
도소매·운수·숙박· 음식점업	11.2	3.9	13.4	25.9	5.5	19.4	13.0	1.5	5.4	0.8	(559)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업	11.2	6.4	16.8	19.8	3.7	17.1	15.2	1.9	6.0	1.9	(1,082)	100.0
그 외 서비스업	11.0	5.2	18.8	15.1	2.9	22.0	14.1	2.6	5.8	2.6	(585)	100.0
기타	11.8	4.4	19.2	15.6	2.8	20.5	16.0	1.2	7.6	0.8	(1,764)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15.2	3.9	13.5	28.2	3.7	12.5	14.1	0.8	7.1	0.9	(262)	100.0
5~30인 미만	11.2	5.5	15.4	24.3	4.1	17.0	13.8	1.7	5.8	1.2	(1,260)	100.0
30~100인 미만	11.8	6.3	17.1	18.9	2.3	17.4	15.6	2.1	6.8	1.7	(1,314)	100.0
100~300인 미만	13.9	5.9	17.2	16.6	3.5	22.0	11.7	1.1	6.9	1.1	(906)	100.0
300인 이상	9.3	3.7	20.3	12.8	3.3	24.6	16.0	2.1	6.7	1.2	(1,713)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11.9	5.1	17.7	19.6	3.2	19.3	14.1	1.7	6.3	1.0	(3,820)	100.0
장부·공공기관 및 협력	10.2	5.1	17.1	15.3	3.6	21.8	15.6	1.9	7.1	2.1	(1,635)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11.3	5.2	18.1	18.3	3.0	19.6	14.6	1.8	6.7	1.4	(4,954)	100.0
비정규직	7.8	4.3	9.6	20.1	5.4	31.5	13.7	1.8	5.3	0.4	(301)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16.0	6.1	15.8	18.2	5.8	17.5	15.5	1.9	2.5	0.7	(425)	100.0
전일제 근무	11.0	5.0	17.7	18.3	3.1	20.3	14.5	1.8	6.9	1.3	(5,030)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9.6	6.0	10.2	23.3	4.4	27.1	14.0	1.5	3.0	0.9	(696)	100.0
교대제 아님	11.7	5.0	18.6	17.6	3.1	19.1	14.7	1.8	7.1	1.4	(4,759)	100.0

주: 1) ①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② 조직에서 연차 사용을 규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③ 업무량 과다로 ④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⑤ 휴가경비가 부담스러워서 ⑥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서 ⑦ 특별한 휴가계획이 없어서 ⑧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편해서 ⑨ 작업 및 협업 일정을 맞추다 보니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놓쳐서 ⑩ 기타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에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사유', '대체휴가 사용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① '연차휴가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에서는 동료들끼리 연차휴가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를 권한다', ③ '업무대행자 지정, 업무 분담 등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다', ④ '연

차휴가 때 일을 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이다. 연차휴가 사용이 용이한 비율을 제시하기 위해 ①과 ③ 항목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제시하였고, ②와 ④ 항목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더한 비율을 표에 제시하였다.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77.8%로 다른 항목보다 긍정의 비율이 높아 휴가 사용 시기 선택의 자율성은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50대, 상용근로자, 사무종사자, 제조업 및 기타, 300인 이상 규모의 조직, 민간 및 기타, 정규직, 전일제 근무, 교대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 집단보다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규모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는 이 항목에 대해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이 80.9%로 가장 높은 집단인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이 항목에 동의한 비율이 66.3%로 나타나 연차 시기 선택의 자율성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끼리 연차휴가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과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더한 비율로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21.7%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80% 가까운 응답자가 휴가 시 동료들과 휴가 일정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용이성이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으로 이해된다. 20대, 임시 및 일용근로자, 관리자 및 전문가, 그 외 서비스업, 규모가 30~300인 미만 규모에 속하는 조직,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의 경우, 교대제가 아닌 경우에 동료와 휴가 사용이 겹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해도 되는 집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대행자 지정, 업무 분담 등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56.5%로 과반 수준이었다. 남성, 20대와 50대,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직종 종사자, 그 외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조직 규모,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교대제 근무인 경우가 상대 집단보다 업무대행자 지정이나 분담 등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때 일을 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도 자율성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더한 비율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59.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약 40%는 휴가 때 일을 한 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20대와 50대,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직종 종사자, 제조업, 30인 이상,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교대제 근무인 경우가 상대 집단보다 휴가 때 일을 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아 휴가 시 업무 방해를 덜 받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5-8〉 연차휴가 사용의 용이·자율성(①,③: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②,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명)

구분		① 휴가 시기 선택의 자율성	② 동료의 휴가 일정으로 부터의 자율성	③ 업무대행자 분담 관련 부담에서 자유로움	④ 휴가 시 업무로부터 자유로움	전체
전체		77.8	21.7	56.5	59.2	(14,857) 100.0
성별	남성	79.3	22.6	59.7	57.6	(8,335) 100.0
	여성	75.9	20.6	52.4	61.2	(6,522) 100.0
개인 특성	연령					
	만19~29세	74.7	25.6	59.5	62.5	(3,265) 100.0
	만30~39세	78.1	21.7	54.6	57.7	(3,717) 100.0
	만40~49세	78.1	20.2	53.2	56.5	(4,104) 100.0
	만50~59세	80.0	20.2	59.3	60.7	(3,771) 100.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79.4	20.6	55.4	57.5	(13,091) 100.0
	임시·일용근로자	66.3	30.6	64.4	71.6	(1,766) 100.0

구분	① 휴가 시기 선택의 자유성	② 동료의 휴가 일정으로 부터의 자유성	③ 업무대행자 분담 관련 부담에서 자유로움	④ 휴가 시 업무로부터 자유로움	전체
직종					
관리자·전문가	78.8	25.7	57.3	55.8	(3,909) 100.0
사무종사자	81.1	20.2	56.7	57.6	(6,641)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70.8	18.5	53.2	62.2	(2,280) 100.0
기타	73.0	22.8	57.9	67.4	(2,027) 100.0
산업					
제조업	79.9	22.9	56.8	59.3	(3,105)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76.1	19.6	55.3	56.2	(2,181)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72.5	21.0	51.7	59.8	(3,300) 100.0
그 외 서비스업	78.4	25.6	60.2	59.1	(2,118) 100.0
기타	81.1	20.6	58.8	60.2	(4,153)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77.7	20.3	51.0	49.1	(1,741) 100.0
5~30인 미만	77.5	19.8	54.3	58.5	(4,702) 100.0
30~100인 미만	75.1	22.8	54.5	61.0	(3,285) 100.0
100~300인 미만	78.5	23.2	59.4	60.9	(1,981) 100.0
300인 이상	80.9	23.5	63.2	62.9	(3,148)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78.5	21.2	56.2	57.9	(11,559)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75.5	23.7	57.5	63.6	(3,298)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80.1	19.8	54.6	56.3	(12,053) 100.0
비정규직	71.0	29.8	64.5	71.8	(1,0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69.1	25.9	58.6	59.5	(2,237) 100.0
전일제 근무	79.4	21.0	56.1	59.1	(12,620)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69.1	20.0	56.5	64.6	(1,791) 100.0
교대제 아님	79.0	22.0	56.5	58.4	(13,066) 100.0

주: 1) ① 연차휴가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에서는 동료들끼리 연차휴가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를 권한다 ③ 업무대행자 지정, 업무 분담 등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다 ④ 연차휴가 때 일을 한 적이 있다
 2) 항목 ①과 ③은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고, 항목 ②와 ④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로 연차휴가 사용의 용이성이 높은 것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현재 직장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당해연도 소멸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체 금전 보상이 29.6%, 일부 금전 보상은 21.9%, 차년도 휴가로 이월은 10.6%로 나타났다.

당해 연도 소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은 43.9%, 남성은 33.1%로 1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고, 전체 금전 보상이나 일부 금전 보상을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는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 연도 소멸이 41.6%로 높고, 상용근로자보다 금전 보상을 받는 비율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전체 금전 보상에 대한 비율(39.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직 규모의 측면에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당해 연도 소멸 비율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전체 금전 보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교대제의 경우 전체 금전 보상의 비율이 40.3%로 높고, 당해 연도 소멸은 22.0%로 낮아 교대제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조건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9〉 미사용 연차휴가 처리 방법

(단위: %, 명)

구분		전체 금전 보상	일부 금전 보상	차년도 휴가로 이월	당해 연도 소멸	전체
전체		29.6	21.9	10.6	37.8	(14,857) 100.0
개인	성별					
	남성	31.1	24.8	10.9	33.1	(8,335) 100.0
	여성	27.7	18.2	10.3	43.9	(6,522) 100.0
특성	연령					
	만19~29세	29.2	19.0	14.4	37.4	(3,265) 100.0
	만30~39세	28.8	21.5	10.6	39.1	(3,717) 100.0
	만40~49세	30.0	21.5	9.2	39.3	(4,104) 100.0
	만50~59세	30.3	25.3	9.0	35.4	(3,771) 100.0

구분		전체 금전 보상	일부 금전 보상	차년도 휴가로 이월	당해 연도 소멸	전체	
일자리 특성	중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0.1	22.2	10.5	37.3	(13,091)	100.0
	임시·일용근로자	26.3	20.2	12.0	41.6	(1,766)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27.3	21.2	11.2	40.4	(3,909)	100.0
	사무종사자	27.9	23.0	10.5	38.6	(6,641)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29.1	21.7	10.9	38.3	(2,280)	100.0
	기타	40.1	20.1	9.9	29.9	(2,027)	100.0
	산업						
	제조업	39.2	20.0	7.8	32.9	(3,105)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7.2	21.4	11.5	40.0	(2,181)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26.5	18.0	9.4	46.1	(3,300)	100.0
	그 외 서비스업	26.2	20.1	12.5	41.2	(2,118)	100.0
	기타	27.9	27.7	12.3	32.1	(4,153)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21.7	22.9	11.1	44.2	(1,741)	100.0
	5~30인 미만	26.2	18.9	10.7	44.2	(4,702)	100.0
	30~100인 미만	28.4	19.4	10.4	41.8	(3,285)	100.0
	100~300인 미만	33.0	22.8	9.0	35.3	(1,981)	100.0
	300인 이상	38.1	28.1	11.5	22.2	(3,148)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29.8	20.1	9.8	40.3	(11,559)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28.9	28.2	13.6	29.3	(3,298)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29.8	22.7	10.6	36.9	(12,053)	100.0	
비정규직	32.7	16.2	8.7	42.3	(1,0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28.4	22.0	13.0	36.6	(2,237)	100.0	
전일제 근무	29.8	21.9	10.2	38.1	(12,620)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40.3	25.7	12.0	22.0	(1,791)	100.0	
교대제 아님	28.1	21.4	10.4	40.0	(13,066)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③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41.1%)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① 휴가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준수’가 25.4%, ‘② 직장 내 휴가 사

용 장려’는 14.5%, ‘⑤ 휴가 시 구성원 간 일정 및 업무조정 등 행정적 지원’이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에 대한 응답이 45.6%로 높아 사회초년생의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직장 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직 규모에 따라서는 5인 미만인 경우 휴가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준수에 대한 응답 비율이 27.4%로 5인 이상의 규모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지켜야 하는 휴가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응답에 대한 비율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21.0%)보다는 민간 조직 등(26.7%)에서 높게 나타나 민간의 소규모 조직에서 휴가의 법적 보장 준수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0〉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단위: %, 명)

구분		① 법제도 적 보장 및 준수	② 휴가 사용 장려	③ 직장 내 분위기	④ 사회적 인식	⑤ 일정 및 업무 조정 등 행정 지원	⑥ 기타	전체
전체		25.4	14.5	41.1	7.0	11.5	0.4	(14,857) 100.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27.0	15.2	39.5	7.4	10.5	0.5	(8,335) 100.0
	여성	23.4	13.6	43.2	6.5	12.9	0.3	(6,522) 100.0
	연령							
	만19~29세	22.2	15.5	45.6	8.5	8.0	0.2	(3,265) 100.0
만30~39세	26.2	13.6	43.1	5.6	11.3	0.2	(3,717) 100.0	
만40~49세	25.6	14.4	39.3	7.0	13.2	0.5	(4,104) 100.0	
만50~59세	27.2	14.6	37.3	7.2	13.0	0.7	(3,771) 100.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5.7	14.5	40.9	6.5	12.0	0.4	(13,091) 100.0
	임시·일용근로자	23.6	14.5	43.0	10.7	7.9	0.4	(1,766)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26.7	14.0	40.5	7.2	11.2	0.4	(3,909) 100.0
	사무종사자	24.4	15.1	42.3	6.1	11.8	0.4	(6,641)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25.2	13.3	39.4	8.0	13.4	0.7	(2,280) 100.0
기타	26.4	14.9	40.6	8.6	9.2	0.4	(2,027) 100.0	

구분	① 법제도 적 보장 및 준수	② 휴가 사용 장려	③ 직장 내 분위기	④ 사회적 인식	⑤ 일정 및 업무 조정 등 행정 지원	⑥ 기타	전체
산업							
제조업	26.4	15.2	41.9	6.6	9.4	0.5	(3,105)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6.9	14.9	40.7	6.6	10.6	0.2	(2,181)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25.8	13.0	38.9	7.4	14.4	0.5	(3,300) 100.0
그 외 서비스업	25.9	14.1	42.4	6.9	10.1	0.5	(2,118) 100.0
기타	23.3	15.1	42.0	7.3	12.0	0.3	(4,153)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27.4	14.4	38.3	8.8	10.9	0.3	(1,741) 100.0
5~30인 미만	26.6	14.8	40.0	7.3	10.9	0.4	(4,702) 100.0
30~100인 미만	25.5	14.2	40.4	7.1	12.4	0.5	(3,285) 100.0
100~300인 미만	26.4	14.1	41.7	5.4	12.2	0.2	(1,981) 100.0
300인 이상	21.9	14.6	44.9	6.6	11.6	0.5	(3,148)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26.7	14.7	41.2	6.5	10.6	0.4	(11,559)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21.0	13.9	41.0	8.8	14.7	0.7	(3,298)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25.9	14.6	40.7	6.5	11.9	0.4	(12,053) 100.0
비정규직	22.9	12.6	43.4	7.2	13.5	0.3	(1,0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25.4	15.7	39.0	11.1	8.5	0.2	(2,237) 100.0
전일제 근무	25.4	14.3	41.5	6.3	12.1	0.5	(12,620)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24.7	16.3	38.1	8.0	12.4	0.5	(1,791) 100.0
교대제 아님	25.5	14.2	41.6	6.9	11.4	0.4	(13,066) 100.0

주: 1) ① 휴가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준수 ② 직장 내 휴가 사용 장려 ③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④ 휴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⑤ 휴가 시 구성된 간 일정 및 업무조정 등 행정적 지원 ⑥ 기타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에는 '대체인력 지원', '휴가비 지원' 등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추가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보상의 개념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인 보상휴가제를 현재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임금근로자의 33.4%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니는 직장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20대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50대 집단에서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관리자 및 전문가와 사무종사자, 제조업 및 기타, 조직 규모 100인 이상,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정규직, 교대제 근무의 조건을 가진 경우가 직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시행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2021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34.6%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사용 비율은 29.9%, 조직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 22.1%, 시간제 근무인 경우 21.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는 사용 비율이 39.6%로 상대 집단인 민간 및 기타 집단(32.4%)보다 높으며, 다른 특성별 집단 중에서도 약 40%의 사용 비율을 보인 집단은 나타나지 않아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 보상휴가제도 사용이 특히 용이하고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11〉 보상휴가제 실시 및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보상휴가제 실시				보상휴가제 사용 경험			
		예	아니오	χ^2	N	예	아니오	χ^2	N
전체		33.4	46.3		(14,857)	34.6	65.4		(3,429)
개인 특성	성별								
	남성	37.1	44.3	88.36***	(8,335)	35.1	64.9	0.98	(2,241)
	여성	28.6	48.9		(6,522)	33.5	66.5		(1,188)
	연령								
	만19~29세	32.2	38.3	24.56***	(3,265)	36.7	63.3	2.37	(457)
만30~39세	34.8	45.9	(3,717)		35.4	64.6	(938)		
만40~49세	33.1	49.3	(4,104)		34.4	65.6	(1,037)		
만50~59세	33.3	50.3	(3,771)		33.0	67.0	(997)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4.9	47.3	15.17***	(13,091)	35.9	64.1	70.22***	(3,301)
	임시·일용근로자	22.0	38.7		(1,766)	0.0	100.0		(128)
	직종								
	관리자·전문가	35.1	48.0	9.87*	(3,909)	33.3	66.7	1.78	(1,025)
	사무종사자	35.5	47.1		(6,641)	35.6	64.4		(1,714)
	판매·서비스종사자	28.8	43.4		(2,280)	33.9	66.1		(359)
기타	28.2	43.7	(2,027)		33.6	66.4	(331)		

구분	보상휴가제 실시				보상휴가제 사용 경험			
	예	아니오	χ^2	N	예	아니오	χ^2	N
산업								
제조업	33.9	48.9		(3,105)	32.1	67.9		(777)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8.0	45.0		(2,181)	29.9	70.1		(358)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29.4	48.6	89.80***	(3,300)	35.5	64.5	9.06	(625)
그 외 서비스업	31.5	47.7		(2,118)	34.8	65.2		(444)
기타	39.9	42.5		(4,153)	37.0	63.0		(1,225)
조직 규모								
5인 미만	22.6	49.4		(1,741)	22.1	77.9		(162)
5~30인 미만	27.3	50.8		(4,702)	32.8	67.2		(712)
30~100인 미만	30.3	51.0	493.79***	(3,285)	32.3	67.7	20.89***	(699)
100~300인 미만	35.2	43.8		(1,981)	34.9	65.1		(528)
300인 이상	50.5	34.6		(3,148)	38.1	61.9		(1,328)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31.2	48.1		(11,559)	32.4	67.6		(2,402)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41.1	40.1	107.58***	(3,298)	39.6	60.4	16.04***	(1,027)
정규직 여부								
정규직	35.5	47.5	5.99*	(12,053)	36.3	63.7	4.76*	(3,124)
비정규직	27.9	45.1		(1,039)	28.2	71.8		(177)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28.0	39.4	0.08	(2,237)	21.6	78.4		(328)
전일제 근무	34.3	47.5		(12,620)	35.9	64.1	26.74***	(3,102)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38.5	37.5	49.09***	(1,791)	34.3	65.7	0.01	(492)
교대제 아님	32.7	47.5		(13,066)	34.6	65.4		(2,937)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보상휴가제 실시는 14,857명(100%) 중 '모르겠음' 응답 비율을 제외하고 표시하였음. χ^2 값은 '모르겠음'을 제외한 '예'와 '아니오'에 대한 교차분석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비임금근로자의 휴가

비임금근로자의 휴가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휴가 사용 여부를 질문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일이 없어서 일주일 이상 쉬었던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계획한 휴가 일수와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아보았는데, 계획한 휴가 일수 평균은 사전에 계획한 일수가 있는 경우의 평균을 의미한다. 평균 8.40일의 휴가를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평균 4.33일로 계획한 휴가와 실제 휴가 사이에 4.07일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용한 휴가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산업 분야인 경우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 휴가 일수가 많았다. 조직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는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가 6.86일로 300인 미만인 경우보다 긴 특징을 보인다.

〈표 5-12〉 지난 한 해 휴가 일수

(단위: 일, 명)

구분		계획한 휴가 일수			실제 휴가 일수		
		N	평균	t/F	N	평균	t/F
전체		(337)	8.40		(1,096)	4.33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202)	9.05	1.52	(680)	4.48	1.58
	여성	(134)	7.43		(416)	4.09	
	연령						
	만19~29세	(35)	11.93	2.03	(129)	3.86	1.19
	만30~39세	(46)	7.71		(168)	4.69	
	만40~49세	(110)	8.64		(306)	4.25	
	만50~59세	(146)	7.61		(493)	4.38	
	혼인상태						
	미혼	(76)	9.80	1.44	(339)	4.00	-1.88
	기혼	(261)	8.00		(756)	4.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4)	8.36	1.07	(546)	4.56	-0.28
비맞벌이	(46)	6.92	(138)		4.67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8)	9.16	-0.76	(295)	3.90	2.85**	
자녀 있음	(213)	8.15		(589)	4.70		

구분		계획한 휴가 일수			실제 휴가 일수		
		N	평균	t/F	N	평균	t/F
일자리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5)	5.65		(138)	3.10	
	300~500만 원 미만	(73)	9.90		(279)	4.28	
	500~700만 원 미만	(99)	8.09	1.26	(280)	4.41	8.04***
	700만 원 이상	(112)	8.59		(312)	5.03	
	무응답	(28)	7.29		(86)	3.67	
	산업						
	제조업	(30)	9.74		(77)	3.83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94)	6.43		(385)	3.83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70)	8.02	2.42*	(193)	4.51	4.44**
	그 외 서비스업	(50)	11.33		(181)	4.34	
	기타	(92)	8.69		(260)	5.08	
	조직 규모						
	5인 미만	(218)	7.32		(834)	4.16	
	5~30인 미만	(61)	10.13		(140)	4.77	
	30~100인 미만	(25)	11.76	2.22	(55)	4.53	3.82**
	100~300인 미만	(18)	9.40		(39)	4.32	
	300인 이상	(14)	10.53		(27)	6.86	
	프리랜서 여부						
	프리랜서로 일함	(56)	7.32	0.58	(280)	4.12	0.86
프리랜서 아님	(72)	6.80		(296)	3.8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	(91)	9.05	1.32	(264)	4.60	2.1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	(98)	7.22		(458)	3.95		
플랫폼 종사자 여부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	(16)	16.97	1.37	(94)	4.49	0.82	
플랫폼 종사자 아님	(174)	7.32		(628)	4.14		

주: 1) * p<0.05, ** p<0.01, *** p<0.001

2) 계획한 휴가 일수는 있는 경우만 응답함.

3)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자영업자가 사용한 휴가 일수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 1년간 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해 만족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총 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4점을 중심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만족하지 않고, 숫자가 높을수록 만족한다는 의미이다.

전체적인 만족 정도는 3.67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 정도가 높았고, 20대의 만족 정도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았다. 앞의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20대 자영업자는 사용한 휴가 일수가 평균 3.86일로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는데, 만족 정도는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다. 20대 자영업자 중 휴가를 계획하지 않은 경우는 휴가 일수에 대한 기대가 스스로 크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이었는데, 앞의 결과에서 기혼과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대 집단에 비해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집단은 휴가의 양이 더 필요한 집단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 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표 5-13〉 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t/F	
전체	(2,101)	3.67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1,075)	3.76	
	여성	(1,025)	3.58	2.33*
	연령			
	만19~29세	(346)	4.08	
	만30~39세	(298)	3.64	
	만40~49세	(582)	3.61	
	만50~59세	(874)	3.56	8.34***
	혼인상태			
	미혼	(781)	3.83	
	기혼	(1,320)	3.58	3.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978)	3.58		
비맞벌이	(204)	3.66	-0.61	

구분		평균	t/F
일자리 특성	자녀 유무		
	자녀 없음	(647)	3.79
	자녀 있음	(1,045)	3.5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83)	3.66
	300~500만 원 미만	(546)	3.57
	500~700만 원 미만	(563)	3.66
	700만 원 이상	(508)	3.85
	무응답	(100)	3.46
	산업		
	제조업	(139)	3.73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601)	3.58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523)	3.65
	그 외 서비스업	(377)	3.68
	기타	(460)	3.80
조직 규모			
5인 미만	(1,145)	3.66	
5~30인 미만	(543)	3.63	
30~100인 미만	(204)	3.88	
100~300인 미만	(108)	3.65	
300인 이상	(100)	3.72	
프리랜서 여부			
프리랜서로 일함	(280)	3.76	
프리랜서 아님	(296)	3.36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	(633)	3.84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	(1,095)	3.57	
플랫폼 종사자 여부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	(219)	3.71	
플랫폼 종사자 아님	(1,508)	3.66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지난 1년간 내가 사용한 휴가 일수에 만족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휴식

일을 하는 경우와 일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삶에서의 휴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평소 휴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본 결과,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48.8%, 충분한 편은 36.4%,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11.2%,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나, 부족하다는 쪽¹¹⁾의 응답이 60%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휴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30대와 40대가 20대나 50대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30대의 경우는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15.9%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매우 부족에 대한 응답이 11.9%로 높은 편이며, 대학원 졸업인 경우와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가 휴식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비취업의 경우는 휴식이 충분하다는 쪽의 응답(58.9%)이 부족하다는 쪽의 응답(41.1%)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취업한 경우는 부족하다는 쪽의 응답이 64.9%로 높은 비율을 보여 취업 여부에 따른 휴식 정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월평균 개인소득에 따라서는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취업 집단과 같이 충분한 쪽에 대한 응답이 56.3%로 부족한 쪽에 대한 응답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 원인 집단에 비취업인 경우가 다수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11) '부족한 편'과 '매우 부족함'을 합한 수치임.

〈표 5-14〉 평소 휴식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부족함		부족	충분함		충분	전체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		충분한 편	매우 충분함		
전체	11.2	48.8	60.0	36.4	3.6	40.0	(22,000) 100.0
성별($x^2=61.48^{***}$)							
남성	10.0	47.9	57.9	38.1	4.0	42.1	(11,287) 100.0
여성	12.4	49.8	62.3	34.6	3.1	37.7	(10,713) 100.0
연령($x^2=668.57^{***}$)							
만19~29세	11.3	42.7	53.9	39.3	6.8	46.1	(5,069) 100.0
만30~39세	15.9	53.6	69.5	27.9	2.6	30.5	(4,803) 100.0
만40~49세	11.3	53.1	64.3	33.4	2.3	35.7	(5,877) 100.0
만50~59세	7.4	46.3	53.7	43.4	2.9	46.3	(6,251) 100.0
거주지($x^2=51.11^{***}$)							
수도권	11.9	50.3	62.2	34.6	3.2	37.8	(11,620) 100.0
비수도권	10.4	47.3	57.7	38.4	3.9	42.3	(10,380) 100.0
학력($x^2=65.05^{***}$)							
고졸 이하	11.1	45.8	56.9	37.5	5.6	43.1	(3,368) 100.0
대졸	11.3	49.1	60.4	36.5	3.1	39.6	(16,376) 100.0
대학원졸	10.7	51.4	62.2	33.8	4.0	37.8	(2,257) 100.0
혼인상태($x^2=174.18^{***}$)							
미혼	11.6	45.6	57.2	37.5	5.3	42.8	(9,222) 100.0
기혼	10.9	51.2	62.1	35.6	2.3	37.9	(12,778) 100.0
자녀 유무($x^2=208.14^{***}$)							
자녀 없음	11.4	45.2	56.7	38.0	5.4	43.3	(7,356) 100.0
자녀 있음	10.9	52.2	63.1	35.0	1.9	36.9	(10,295) 100.0
취업 여부($x^2=994.59^{***}$)							
비취업	6.6	34.5	41.1	50.8	8.1	58.9	(4,490) 100.0
취업	12.4	52.5	64.9	32.7	2.4	35.1	(17,510) 100.0
월평균 개인소득($x^2=1067.13^{***}$)							
200만 원 미만	8.0	35.7	43.7	48.2	8.1	56.3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14.4	52.9	67.3	30.7	1.9	32.7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12.6	55.2	67.7	30.3	2.0	32.3	(4,382) 100.0
400만 원 이상	9.7	51.5	61.2	36.6	2.2	38.8	(6,164) 100.0
무응답	12.8	48.5	61.3	32.5	6.2	38.7	(508)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가구소득의 x^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휴식이 나의 삶과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이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4.1%였는데,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은 90.5%로 나타났다. 휴식이 나의 일에 집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도 93.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마다의 동의 비율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5〉 휴식에 대한 생각(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단위: %, 명)

구분	휴식은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휴식은 나의 일에 집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체	
전체	94.1	93.6	(22,000)	100.0
성별				
남성	92.6	92.2	(11,287)	100.0
여성	95.6	95.0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92.6	91.9	(5,069)	100.0
만30~39세	93.6	93.4	(4,803)	100.0
만40~49세	94.3	93.7	(5,877)	100.0
만50~59세	95.3	95.0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94.1	93.3	(11,620)	100.0
비수도권	94.0	93.9	(10,380)	100.0
학력				
고졸 이하	90.5	90.9	(3,368)	100.0
대졸	94.6	94.0	(16,376)	100.0
대학원졸	95.4	94.2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93.0	92.7	(9,222)	100.0
기혼	94.8	94.2	(12,77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93.8	93.4	(7,356)	100.0
자녀 있음	95.3	94.5	(10,295)	100.0
취업 여부				
비취업	93.4	92.6	(4,490)	100.0
취업	94.2	93.8	(17,510)	100.0

구분	휴식은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휴식은 나의 일에 집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체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93.7	93.0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93.8	93.5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94.0	94.1	(4,382)	100.0
400만 원 이상	95.0	94.1	(6,164)	100.0
무응답	89.4	88.9	(508)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소결

한국인은 주중과 주말 여가시간에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연령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대의 여가생활 만족 정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자녀가 없는 집단은 미혼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 이 결과를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이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아, 가장 많은 여가생활은 동영상 시청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드는 여가생활을 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여가생활을 얼마나 실천하는지와 관련지어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 정도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가에 이어 알아본 휴가와 휴식에서, 휴가는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비임금근로자의 휴가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가 부여받은 휴가는 평균 약 17일이고 실제 사용한 휴가는 평균 11.6일 정도로 사용

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약 5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전체적으로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약 11일이었는데, 조직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는 사용한 휴가가 약 12일로 긴 특징을 보인다. 반면, 짧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특징을 보이는 집단에는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약 6일)와 시간제 근로자(약 9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집단은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가 짧은 것에 비례하는 것이다. 연차휴가에 대한 적절한 일수는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5인 미만 규모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가 약 9일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짧은 휴가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만족의 차이에서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에는 만족하지만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가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많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여받은 휴가를 실제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 결과는 일부러 수당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과 여러 사정으로 결국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반드시 사용하려고 하기보다 수당을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없는 점과 업무량 과다로 인한 이유가 차지해 조직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자 자신의 의도와 근로자가 처한 환경이 혼합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당으로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처음부터 의도된 목적인지, 직장의 환경이나 상황이 연차휴가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차

라리 수당으로 받으려는 생각으로 전환된 것인지 추후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 선택은 자유로운 편이고, 업무대행자나 휴가 기간의 업무 분담에 대한 부담과 휴가 기간에 업무로 인한 방해가 약간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특성상 동료의 휴가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보다 계획한 휴가 일수나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가 모두 더 짧았다. 계획한 휴가는 약 8일이며, 실제 사용한 휴가는 약 4일인 것으로 나타나 연간 휴가 일수가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획한 것보다 절반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비임금근로자의 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은 보통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가 일수가 매우 짧아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비취업자와 취업자 모두를 포함한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평소 휴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식이 삶에 중요하며 일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일-생활 균형

제1절 일-생활 균형 전반

제2절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제3절 집단별 일-생활 균형 세부 분석

제4절 소결

제6장 일-생활 균형

제6장에서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이나 중요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려운 점과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모두의 일-생활 균형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자신이 주로 하는 활동, 예를 들면 학업, 훈련, 가사 및 돌봄 등을 '일'로 생각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1절 일-생활 균형 전반

일-생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53.1%로 과반으로 나타났고,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39.9%로 나타나 중요하다는 쪽¹²⁾에 대한 응답이 93.0%로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생활 균형에 대해 중요하다는 쪽의 응답 비율이 높다. 전 연령층에서 중요하다는 쪽의 응답은 고르게 높지만, 20대와 30대의 집단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 각각 46.5%와 47.0%로 40대 이상의 집단보다 높은 특성을 보인다.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서 수도권 거주자가 일-생활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다.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에서는 중요하다는 쪽의 응답이 89.4%로 다른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29.5%로 대졸의 41.4%와 대학원 졸업 집단의 44.4%와 비교해 낮다. 미혼보다는

12) '중요한 편'과 '매우 중요함'을 합한 수치임.

기혼 집단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는 있는 집단이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는 쪽에 응답 비율이 높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반대로 기혼보다 미혼인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여 미혼과 자녀가 없는 두 집단은 일-생활 균형이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보인다.

〈표 6-1〉 일-생활 균형의 중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편임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전체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중요함	
전체	1.5	5.5	7.0	53.1	39.9	93.0	(22,000) 100.0
성별($\chi^2=266.21^{***}$)							
남성	2.0	7.4	9.5	54.0	36.6	90.5	(11,287) 100.0
여성	1.0	3.5	4.4	52.2	43.3	95.6	(10,713) 100.0
연령($\chi^2=548.65^{***}$)							
만19~29세	2.3	6.5	8.8	44.7	46.5	91.2	(5,069) 100.0
만30~39세	1.8	5.5	7.2	45.8	47.0	92.8	(4,803) 100.0
만40~49세	1.3	5.9	7.2	55.6	37.2	92.8	(5,877) 100.0
만50~59세	0.9	4.3	5.2	63.3	31.5	94.8	(6,251) 100.0
거주지($\chi^2=12.46^{**}$)							
수도권	1.6	5.4	7.0	52.1	40.9	93.0	(11,620) 100.0
비수도권	1.5	5.5	7.0	54.3	38.7	93.0	(10,380) 100.0
학력($\chi^2=229.51^{***}$)							
고졸 이하	2.6	8.0	10.6	59.8	29.5	89.4	(3,368) 100.0
대졸	1.4	5.1	6.5	52.1	41.3	93.5	(16,376) 100.0
대학원졸	0.7	4.6	5.3	50.3	44.4	94.7	(2,257) 100.0
혼인상태($\chi^2=148.95^{***}$)							
미혼	2.1	6.2	8.2	48.6	43.2	91.8	(9,222) 100.0
기혼	1.1	5.0	6.1	56.4	37.5	93.9	(12,778) 100.0
자녀 수($\chi^2=167.43^{***}$)							
자녀 없음	1.6	5.3	6.9	48.6	44.5	93.1	(7,356) 100.0
1명	0.9	4.7	5.6	55.9	38.5	94.4	(3,817) 100.0
2명 이상	0.9	4.4	5.3	59.1	35.5	94.7	(6,478) 100.0
취업 여부($\chi^2=8.32^*$)							
비취업	1.5	4.8	6.3	54.7	39.0	93.7	(4,490) 100.0
취업	1.5	5.7	7.2	52.7	40.1	92.8	(17,510) 100.0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편임	중요 하지 않음	중요함			전체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월평균 개인소득($\chi^2=37.77^{***}$)							
200만 원 미만	1.8	5.0	6.8	54.1	39.1	93.2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1.5	5.2	6.7	50.8	42.5	93.3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1.3	5.8	7.1	52.3	40.6	92.9	(4,382) 100.0
400만 원 이상	1.3	5.5	6.8	55.1	38.1	93.2	(6,164) 100.0
무응답	3.2	11.6	14.7	53.4	31.9	85.3	(508)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개인소득의 χ^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는 총 7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4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아질수록 불만족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우 불만족은 1점이고 매우 만족은 7점이다.

전반적으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는 평균 4.4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만족 정도가 높으며, 30대와 40대가 20대나 50대보다 만족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할 연령대의 일-생활 균형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만족 정도가 높으며, 미혼보다는 기혼의 경우, 취업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도 높아지는 경향도 찾아볼 수 있다.

〈표 6-2〉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t/F
전체	(22,000)	4.44	
성별			
남성	(11,287)	4.49	6.22***
여성	(10,713)	4.38	
연령			
만19~29세	(5,069)	4.54	26.04***
만30~39세	(4,803)	4.35	
만40~49세	(5,877)	4.37	
만50~59세	(6,251)	4.49	
거주지			
수도권	(11,620)	4.43	-1.39
비수도권	(10,380)	4.45	
학력			
고졸 이하	(3,368)	4.24	65.69***
대졸	(16,376)	4.45	
대학원졸	(2,257)	4.64	
혼인상태			
미혼	(9,222)	4.42	-1.99*
기혼	(12,778)	4.45	
자녀 수			
자녀 없음	(7,356)	4.44	-0.17
1명	(3,817)	4.42	
2명 이상	(6,478)	4.46	
취업 여부			
비취업	(4,490)	4.32	-6.57***
취업	(17,510)	4.4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688)	4.21	86.27***
300~500만 원 미만	(5,751)	4.35	
500~700만 원 미만	(6,198)	4.49	
700만 원 이상	(5,741)	4.62	
무응답	(622)	4.38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생활 균형의 어려운 점은 취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유가 다르므로 각 조건에 따라 질문 선택지가 다르게 구성되었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의 가장 어려운 점을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어려운 점 없다는 응답은 15.0%이다. 어려운 점 중에서는 다른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20.2%로 가장 높고, 장시간 일하는 문화로 인해 어렵다는 경우가 17.1%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과도한 업무량이 13.9%, 불규칙한 근무 일정이 11.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어려운 점이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성은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자유허간과 체력 부족에 대한 응답이 12.7%로 남성의 5.6%보다 높다. 30대와 40대 집단에서도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자유허간과 체력 부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나며, 40대와 50대 집단은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유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기혼과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집단은 상대 집단과 비교해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자유허간과 체력 부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이 다른 이유보다는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자유허간과 체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드러난다. 기혼이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대와 40대, 그리고 여성이 이 이유로 인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94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표 6-3〉 일-생활 균형의 가장 어려운 점(1순위): 취업자

(단위: %, 명)

구분	어려운 점 없음	장시간 일하는 문화	과도한 업무량	불규칙한 근무 일정	일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	다른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자율 시간과 체력 부족	건강상 이유로 다른 활동 어려움	주변 여가 활동 환경/ 시설/ 프로그램 부족	기타	전체
전체	15.0	17.1	13.9	11.6	7.3	20.2	8.8	2.1	3.3	0.6	(17,510) 100.0
성별											
남성	16.4	17.3	15.0	13.4	8.0	19.0	5.6	1.8	3.0	0.5	(9,636) 100.0
여성	13.1	16.9	12.6	9.5	6.5	21.7	12.7	2.4	3.7	0.7	(7,874) 100.0
연령											
만19~29세	19.5	18.4	15.4	13.4	9.0	15.5	3.5	1.7	2.8	0.9	(3,656) 100.0
만30~39세	13.6	20.4	16.5	10.2	7.3	15.6	11.4	1.5	2.5	1.0	(4,103) 100.0
만40~49세	12.3	16.2	14.3	10.8	6.7	20.3	14.1	1.9	3.0	0.3	(4,863) 100.0
만50~59세	15.4	14.3	10.3	12.4	6.8	27.5	5.3	3.1	4.6	0.4	(4,888) 100.0
거주지											
수도권	15.2	17.8	14.5	11.3	7.4	19.7	8.5	2.0	2.8	0.8	(9,435) 100.0
비수도권	14.7	16.3	13.3	12.0	7.3	20.9	9.1	2.2	3.9	0.3	(8,075) 100.0
학력											
고졸 이하	14.8	19.0	10.6	13.0	7.9	22.8	5.4	3.1	2.9	0.4	(2,367) 100.0
대졸	14.7	17.2	14.0	11.5	7.4	20.1	9.2	2.0	3.3	0.6	(13,138) 100.0
대학원졸	16.8	14.5	17.2	10.6	6.5	18.3	10.0	1.8	3.6	0.8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17.1	19.1	15.1	12.8	9.0	18.0	2.6	2.0	3.3	0.9	(7,107) 100.0
기혼	13.5	15.8	13.1	10.8	6.2	21.7	13.0	2.2	3.3	0.4	(10,403)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16.9	19.8	15.3	11.8	8.6	17.9	3.4	2.1	3.3	0.9	(5,555) 100.0
1명	12.7	16.2	13.1	9.9	5.2	19.8	17.3	2.3	3.0	0.4	(3,149) 100.0
2명 이상	13.0	13.9	12.3	11.0	6.1	23.4	14.0	2.3	3.6	0.4	(5,18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5.0	16.2	13.6	12.6	9.0	24.3	4.7	1.9	2.2	0.6	(2,657) 100.0
300~500만원 미만	13.5	17.6	14.1	12.5	7.1	21.5	7.9	2.2	3.2	0.4	(4,457) 100.0
500~700만원 미만	14.2	16.9	13.0	11.1	7.4	21.2	9.6	2.1	3.7	0.9	(5,049) 100.0
700만 원 이상	17.2	17.5	15.0	10.3	6.4	16.1	11.1	2.1	3.7	0.5	(4,971) 100.0
무응답	14.0	15.8	12.8	19.4	11.2	17.5	5.1	1.8	1.2	1.1	(377)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에는 '과도한 출퇴근 시간', '무기력함', '직장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비취업자 집단에서는 평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이 21.2%로 나타나 취업자 집단보다 어려운 점이 없는 경우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어려움 중에서는 다른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31.1%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학습이나 훈련 또는 돌봄 및 가사 등 현재 주로 하는 일의 양이 과도해서 어렵다는 응답이 22.1%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 이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 10.4%, 건강상 이유로 다른 활동이 어렵다는 점이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유로 일-생활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20대와 미혼,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27.7%, 24.2%, 26.2%로 다른 집단보다 높다.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의 양이 많은 점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4〉 일-생활 균형의 가장 어려운 점(1순위): 비취업자

(단위: %, 명)

구분	어려운 점 없음	과도한 일(학습·돌봄·가사)의 양	일(학습·훈련/돌봄·가사)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	다른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건강상 이유로 다른 활동 어려움	주변 여가 활동 환경/시설/프로그램 부족	기타	전체
전체	21.2	22.1	10.4	31.1	9.1	5.3	0.8	(4,490) 100.0
성별								
남성	23.5	21.5	8.9	32.1	9.1	4.1	0.9	(1,651) 100.0
여성	19.9	22.5	11.2	30.6	9.1	5.9	0.7	(2,838) 100.0
연령								
만19~29세	27.7	26.0	11.2	24.8	5.8	3.6	0.9	(1,413) 100.0
만30~39세	17.9	28.5	13.4	27.1	7.2	4.5	1.2	(700) 100.0
만40~49세	16.7	22.3	11.7	33.9	9.7	5.1	0.7	(1,014) 100.0
만50~59세	19.6	14.8	7.0	37.6	13.1	7.5	0.4	(1,363) 100.0

구분	어려운 점 없음	과도한 일(학습·훈련·돌봄·가사)의 양	일(학습·훈련·돌봄·가사)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	다른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건강상 이유로 다른 활동 어려움	주변 여가 활동 환경/시설/프로그램 부족	기타	전체
거주지								
수도권	21.2	22.0	10.3	32.6	8.6	4.6	0.8	(2,185) 100.0
비수도권	21.2	22.3	10.5	29.7	9.6	5.9	0.8	(2,305) 100.0
학력								
고졸 이하	19.1	15.6	7.8	36.2	14.5	6.2	0.6	(1,001) 100.0
대졸	21.9	23.5	11.6	29.7	7.4	5.2	0.8	(3,238) 100.0
대학원졸	20.5	31.4	5.4	29.7	9.3	2.8	0.9	(251) 100.0
혼인상태								
미혼	24.2	22.7	10.2	29.6	8.6	3.7	1.0	(2,115) 100.0
기혼	18.6	21.6	10.5	32.5	9.5	6.7	0.5	(2,375)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26.2	21.4	10.6	28.6	8.2	4.1	1.0	(1,802) 100.0
1명	17.2	21.9	12.4	29.6	11.6	6.8	0.5	(668) 100.0
2명 이상	17.4	23.1	10.2	34.4	7.8	6.4	0.7	(1,29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7.2	19.3	8.2	37.7	12.6	4.2	0.8	(1,031) 100.0
300-500만 원 미만	19.1	22.4	12.0	31.9	8.8	5.0	0.8	(1,294) 100.0
500-700만 원 미만	21.9	24.0	11.3	29.3	6.8	6.1	0.6	(1,149) 100.0
700만 원 이상	28.8	23.8	9.3	24.1	7.1	6.0	0.9	(771) 100.0
무응답	22.0	19.1	10.1	29.9	13.5	5.1	0.4	(245)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에는 '취업의 어려움', '시간 부족', '무기력함'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더욱 조화로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간을 조정한다면 어떤 활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기를 원하는지 알아보았다. 개인 여가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고, 수면, 식사, 개인위생 등에 필요한 필수 유지 시간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21.9%,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이나 모임 등 가족단위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도 19.9%로 나타났다. 일, 업무, 학업이나 돌봄 등 의무활동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은 9.7%로 나타났다.

여성은 개인 여가시간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다는 의견이 52.0%로 과반이 개인 활동 시간에 대한 욕구를 보였다. 기혼의 경우는 가족 단위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28.9%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집단 역시 가족단위 여가시간 증가 희망에 대해 30% 내외의 응답 수준을 보여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과의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대, 미혼, 자녀가 없는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개인 여가와 필수 유지 시간에 대한 욕구를 보였는데, 20대와 자녀가 없는 집단 구성원의 다수가 미혼의 가능성이 크므로 미혼 집단의 특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6-5〉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은 활동

(단위: %, 명)

구분	필수 유지 시간	의무활동 시간	개인 여가시간	가족단위 여가시간	기타	전체
전체	21.9	9.7	48.4	19.9	0.1	(22,000) 100.0
성별($x^2=147.28^{***}$)						
남성	22.3	11.4	45.0	21.2	0.1	(11,287) 100.0
여성	21.4	7.9	52.0	18.6	0.1	(10,713) 100.0
연령($x^2=967.07^{***}$)						
만19~29세	27.6	13.6	50.6	8.1	0.1	(5,069) 100.0
만30~39세	25.2	9.8	48.7	16.2	0.1	(4,803) 100.0
만40~49세	19.2	8.7	47.1	24.8	0.1	(5,877) 100.0
만50~59세	17.2	7.3	47.6	27.8	0.1	(6,251) 100.0
거주지($x^2=14.32^{**}$)						
수도권	22.5	9.6	48.7	19.1	0.1	(11,620) 100.0
비수도권	21.2	9.8	48.1	20.8	0.1	(10,380) 100.0
학력($x^2=68.59^{***}$)						
고졸 이하	25.2	8.5	44.9	21.2	0.2	(3,368) 100.0
대졸	21.4	9.9	49.5	19.2	0.1	(16,376) 100.0
대학원졸	20.7	9.8	46.0	23.4	0.1	(2,257) 100.0
혼인상태($x^2=1608.55^{***}$)						
미혼	27.2	11.7	53.4	7.5	0.2	(9,222) 100.0
기혼	18.0	8.2	44.8	28.9	0.0	(12,778) 100.0
자녀 수($x^2=812.20^{***}$)						
자녀 없음	25.7	10.3	50.9	12.9	0.1	(7,356) 100.0
1명	19.1	8.0	43.8	29.1	0.1	(3,817) 100.0
2명 이상	15.9	8.3	44.6	31.2	0.0	(6,478) 100.0
취업 여부($x^2=55.06^{***}$)						
비취업	20.3	11.8	48.9	18.8	0.3	(4,490) 100.0
취업	22.3	9.1	48.3	20.3	0.1	(17,510) 100.0

구분	필수 유지 시간	의무활동 시간	개인 여가시간	가족단위 여가시간	기타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chi^2=354.52^{***}$)						
300만 원 미만	25.4	12.4	50.4	11.6	0.3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23.6	10.1	47.7	18.6	0.0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20.3	9.0	48.7	21.9	0.1	(6,198) 100.0
700만 원 이상	19.4	7.7	47.8	25.0	0.0	(5,741) 100.0
무응답	23.1	15.0	45.9	15.3	0.7	(622)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가구소득의 χ^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4) '기타'에는 '잘 모르겠다', '건강 회복', '종교활동'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이나 인프라가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육아 및 돌봄 관련 환경은 61.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문화여가 환경에 대해서는 6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의 환경과 인프라의 영향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 구분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외에 동(洞)부와 읍·면부로도 나누어 살펴보았다.

거주하는 지역의 육아 및 돌봄 관련 환경이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동부와 읍·면부는 각각 62.4%와 54.9%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의 문화여가 환경이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62.9%가 도움이 된다는 쪽에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58.4%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동부와 읍·면부로 거주지를 나누면 문화여가 환경이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주하는 곳이 동부인 경우는 61.9%, 읍·면부인 경우에는 51.7%가 자신이 거주하

는 곳의 문화여가 환경이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된다는 쪽에 응답했다. 문화여가 환경보다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환경이 거주지에 따른 차이가 덜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6-6〉 거주지 환경 및 인프라(시설 및 서비스)의 일-생활 균형 유지에 대한 도움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단위: %, 명)

구분	육아 및 돌봄 관련 환경	문화여가 환경	전체	
전체	61.5	60.7	(22,000)	100.0
성별				
남성	61.5	63.0	(11,287)	100.0
여성	61.6	58.3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61.9	65.1	(5,069)	100.0
만30~39세	59.9	58.8	(4,803)	100.0
만40~49세	60.6	57.8	(5,877)	100.0
만50~59세	63.3	61.4	(6,251)	100.0
거주지 1				
수도권	61.9	62.9	(11,620)	100.0
비수도권	61.1	58.4	(10,380)	100.0
거주지 2				
동부	62.4	61.9	(19,458)	100.0
읍·면부	54.9	51.7	(2,542)	100.0
학력				
고졸 이하	58.1	57.9	(3,368)	100.0
대졸	61.8	60.9	(16,376)	100.0
대학원졸	64.6	63.7	(2,257)	100.0
취업 여부				
비취업	62.7	60.3	(4,490)	100.0
취업	61.2	60.8	(17,510)	100.0
혼인상태				
미혼	57.8	61.5	(9,222)	100.0
기혼	64.2	60.2	(12,778)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59.3	61.2	(7,356)	100.0
1명	64.6	59.2	(3,817)	100.0
2명 이상	66.1	61.6	(6,47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5.7	56.8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59.8	60.2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62.8	60.6	(6,198)	100.0
700만 원 이상	65.7	64.1	(5,741)	100.0
무응답	59.4	58.3	(62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과 가족생활이나 개인 생활 사이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일-생활 균형 실천을 파악해 보았다. 일과 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는 경우는 33.4%, 일 때문에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는 40.6%, 업무 스트레스가 생활에까지 연결된다는 경우는 48.5%, 가족 및 개인 생활 때문에 일에 충실하기가 힘들다는 경우는 30.2%, 가족 및 개인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에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37.8%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이나 개인 생활에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일과 생활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인해 다른 한쪽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일 때문에 가족이나 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 40대, 기혼, 자녀 있는 경우, 제조업 및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직 규모 100인 이상인 곳에서 일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족이나 개인 생활로 인해 일에 충실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높은 집단은 남성,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조직 규모가 100인 이상인 집단으로 일 때문에 가족이나 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높은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생활이 일에 스트레스를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30대와 40대, 기혼인 경우, 자녀가 1명 이상인 집단, 사무종사자, 100인 이상 규모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이나 개인 생활까지 연결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이나 개인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성, 40대, 기혼,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 일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다. 특히 자녀가 1명 이상인 집단에서 가족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에 연결된다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육아와 일 병행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7〉 일과 가족/개인 생활의 균형 실천(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단위: %, 명)

구분	일과 가족/개인 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음	일 때문에 가족/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함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개인 생활까지 연결됨	가족/개인 생활 때문에 일에 충실하기 힘들	가족/개인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에까지 연결됨	전체	
전체	33.4	40.6	48.5	30.2	37.8	(17,510) 100.0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36.2	43.2	47.6	32.9	39.3	(9,636) 100.0
	여성	30.0	37.4	49.7	26.8	35.9	(7,874) 100.0
	연령						
	만19~29세	30.6	36.6	45.9	29.2	34.8	(3,656) 100.0
	만30~39세	34.5	40.5	51.2	31.2	38.5	(4,103) 100.0
	만40~49세	36.3	44.8	51.4	31.8	40.5	(4,863) 100.0
	만50~59세	31.8	39.5	45.5	28.4	36.6	(4,888) 100.0
	거주지						
	수도권	32.2	40.6	49.2	29.7	37.6	(9,435) 100.0
	비수도권	34.9	40.6	47.7	30.7	37.9	(8,075) 100.0
	학력						
	고졸 이하	33.2	42.5	45.4	30.1	37.5	(2,367) 100.0
	대졸	33.4	40.2	49.0	30.3	38.2	(13,138) 100.0
	대학원졸	33.7	40.9	49.0	29.1	35.3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27.3	34.7	46.0	26.1	33.9	(7,107) 100.0
	기혼	37.6	44.6	50.3	32.9	40.4	(10,403)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28.0	33.2	46.7	25.1	33.3	(5,555) 100.0
1명	41.2	47.9	51.5	35.9	42.7	(3,149) 100.0	
2명 이상	39.3	47.6	51.4	34.7	42.1	(5,18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0.8	38.2	47.4	29.4	37.9	(2,657) 100.0	
300-500만 원 미만	33.4	41.1	48.2	30.2	37.4	(4,457) 100.0	
500-700만 원 미만	34.3	41.3	49.2	31.1	38.9	(5,049) 100.0	
700만 원 이상	33.9	40.6	48.7	29.1	36.7	(4,971) 100.0	
무응답	35.1	41.4	49.6	38.5	40.3	(377) 100.0	

20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구분	일과 가족/개인 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음	일 때문에 가족/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함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개인 생활까지 연결됨	가족/개인 생활 때문에 일에 충실하기 힘들	가족/개인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에만 연결됨	전체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9.4	44.5	51.7	33.7	41.0	(5,434) 100.0
임시·일용근로자	36.9	47.7	49.8	34.6	41.2	(987) 100.0
자영업·무급가족종사	35.3	42.3	47.5	31.3	39.3	(1,191)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38.9	43.1	50.4	33.8	39.6	(2,271) 100.0
사무종사자	40.2	45.2	51.7	34.4	42.2	(2,362)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37.7	45.9	51.1	33.0	40.8	(1,597) 100.0
기타	35.7	44.3	49.6	31.8	39.9	(1,381) 100.0
산업						
제조업	36.7	43.3	49.5	31.0	37.4	(1,194)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37.9	47.5	51.1	34.9	41.7	(1,330)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41.1	45.1	51.9	34.2	40.5	(1,796) 100.0
그 외 서비스업	37.0	43.0	50.3	31.8	40.0	(1,086) 100.0
기타	38.4	43.7	50.7	34.1	42.4	(2,205)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32.9	37.8	45.7	29.7	37.0	(3,445) 100.0
5~30인 미만	32.5	39.9	47.4	29.0	37.3	(5,290) 100.0
30~100인 미만	32.3	41.3	49.5	29.8	38.0	(3,478) 100.0
100~300인 미만	36.1	43.7	50.3	32.1	38.9	(2,072) 100.0
300인 이상	35.1	42.1	51.3	31.8	38.3	(3,224)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32.8	40.7	47.7	29.7	37.2	(14,02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35.9	40.1	51.8	32.1	40.1	(3,48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가족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까지 연결되는 상황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일을 하는 대상자 중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일과 육아·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79.1%, ‘일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에 대해서는 64.7%, ‘일

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62.6%로 나타났다.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64.2%가 동의하였고, '육아·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에 동의하는 응답은 46.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것은 대부분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 육아나 양육 환경에 많이 놓여있지 않을 20대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의 육아 및 양육기가 지나갔을 상황이 많을 50대는 30대와 40대에 비해 일과 육아·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큰 30대는 육아·양육 병행의 어려움에 85.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있는 취업자라면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을 겪을 시기로 보인다.

일 때문에 자녀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20대와 30대 양육자에게서 높은 동의 비율을 찾아볼 수 있다. 아이가 어릴 가능성이 많은 20대의 경우는 일하는 동안 아이에 대한 걱정, 또는 생각했던 대로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육아·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절반 이하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58.2%로 나타나 남성의 동의 비율인 37.9%와 약 2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20대, 30대 이하와 고졸 이하의 집단에서 일을 그만두는 고민을 한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근로자와 3~50인 미만인 규모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도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직종별로는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및 그 외 서비스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표 6-8〉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생각(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단위: %, 명)

구분	일과 육아·양육 병행은 어려움	일 때문에 자녀 돌볼 시간이 부족함	일하는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됨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려움	육아·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 있음	전체	
전체	79.1	64.7	62.6	64.2	46.5	(8,335) 100.0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78.9	66.5	62.0	64.3	37.9	(4,809) 100.0
	여성	79.3	62.2	63.3	64.1	58.2	(3,526) 100.0
	연령						
	만19~29세	77.7	73.3	76.7	79.2	51.8	(86) 100.0
	만30~39세	85.1	74.6	70.1	70.5	53.5	(1,200) 100.0
	만40~49세	80.7	67.9	64.5	66.6	47.7	(3,220) 100.0
	만50~59세	75.9	58.7	58.3	60.0	43.1	(3,829) 100.0
	거주지						
	수도권	79.0	66.0	63.0	64.2	46.3	(4,259) 100.0
	비수도권	79.1	63.3	62.1	64.3	46.6	(4,076) 100.0
	거주지						
	동부	79.1	64.9	62.8	64.4	46.3	(7,348) 100.0
	읍·면부	78.5	63.0	61.1	63.2	48.0	(986) 100.0
	학력						
	고졸 이하	78.0	60.2	65.1	66.3	50.4	(1,147) 100.0
	대졸	79.0	65.0	62.1	64.0	46.5	(6,040) 100.0
	대학원졸	80.5	67.4	62.7	63.4	42.2	(1,147) 100.0
	혼인상태						
	미혼	-	-	-	-	-	- -
	기혼	79.1	64.7	62.6	64.2	46.5	(8,335)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	-	-	-	-	- -	
1명	81.0	66.9	64.7	64.7	47.8	(3,149) 100.0	
2명 이상	77.9	63.4	61.3	64.0	45.7	(5,18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79.0	62.1	64.6	63.9	49.6	(429) 100.0	
300~500만 원 미만	80.1	65.5	62.6	65.7	46.3	(1,872) 100.0	
500~700만 원 미만	78.5	64.1	62.0	64.1	47.2	(2,819) 100.0	
700만 원 이상	78.9	65.3	63.0	63.5	45.3	(3,081) 100.0	
무응답	81.2	62.4	57.9	63.6	50.0	(133) 100.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80.2	65.3	64.7	65.3	51.0	(4,291) 100.0
	임시·일용근로자	74.6	62.9	61.5	62.1	43.5	(806) 100.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76.9	62.1	60.5	61.3	48.6	(1,006) 100.0	

구분	일과 육아·양육 병행은 어려움	일 때문에 자녀 돌볼 시간이 부족함	일하는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됨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려움	육아·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 있음	전체
직종						
관리자·전문가	78.3	63.6	63.0	62.1	54.2	(1,822) 100.0
사무종사자	80.6	66.8	65.7	66.4	50.0	(1,835)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78.1	65.0	63.0	64.0	41.1	(1,324) 100.0
기타	78.4	61.4	61.7	64.2	51.5	(1,121) 100.0
산업						
제조업	78.6	63.0	64.4	64.5	55.5	(953)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77.2	64.6	63.6	65.8	50.6	(1,073)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79.0	65.4	62.6	64.0	40.0	(1,472) 100.0
그 외 서비스업	77.2	62.9	58.8	60.0	47.0	(860) 100.0
기타	81.0	65.2	66.4	65.3	55.2	(1,746)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77.6	59.3	59.0	60.5	48.2	(1,666) 100.0
5~30인 미만	79.0	65.3	64.5	65.1	50.2	(2,272) 100.0
30~100인 미만	79.9	64.4	62.3	63.9	46.4	(1,689) 100.0
100~300인 미만	81.3	67.5	62.7	67.3	44.4	(975) 100.0
300인 이상	78.5	67.9	63.6	65.2	41.3	(1,733)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79.4	65.1	62.3	64.5	46.5	(6,594)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77.8	63.2	63.5	63.0	46.3	(1,741)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배우자 또는 파트너나 애인이 있으면서 일하는 경우 상대방의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자신의 배우자(파트너나 애인)가 ‘일과 가족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31.2%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일 때문에 가족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에 대해서는 34.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 생활까지 연결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41.8%가 동의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상대 배우자의 일-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이 일과 생활 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클 가능성을 배우자의 생각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 균형은 앞서 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의 균형에 대해 스스로 응답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항목마다 5% 포인트 정도 씩 균일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과 배우자가 느끼는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떠한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많은지에 대한 경향성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 중에서는 50대가 상대방의 일-생활 충돌이나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대보다 덜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0대와 40대가 상대의 일-생활 충돌과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맞벌이인 경우와 자녀가 없는 집단이 상대의 일-생활 충돌과 스트레스가 덜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월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배우자(파트너나 애인)의 일-생활 충돌과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느끼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6-9〉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생각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단위: %, 명)

구분		일과 가족생활이 충돌하여 같등이 있음	일 때문에 가족생활에 충실하지 못함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생활까지 연결됨	전체	
전체		31.2	34.6	41.8	(9,320)	100.0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36.5	38.0	45.3	(3,920)	100.0
	여성	27.3	32.1	39.4	(5,400)	100.0
	연령					
	만19~29세	33.5	35.6	45.2	(318)	100.0
	만30~39세	33.7	35.2	44.0	(1,908)	100.0
	만40~49세	34.3	38.2	45.6	(3,369)	100.0
	만50~59세	26.9	30.9	37.1	(3,724)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8	36.4	43.3	(7,612)	100.0
	비맞벌이	23.9	26.6	35.5	(1,707)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24.7	27.2	38.3	(1,606)	100.0
	1명	34.2	36.8	43.0	(2,761)	100.0
	2명 이상	31.5	35.6	42.3	(4,78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9.0	39.0	46.7	(465)	100.0	
300~500만 원 미만	31.6	34.9	41.9	(1,965)	100.0	
500~700만 원 미만	31.0	35.0	41.3	(3,238)	100.0	
700만 원 이상	29.8	33.5	41.5	(3,504)	100.0	
무응답	35.6	35.6	45.1	(148)	100.0	
일자리 특성	배우자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1.0	34.5	42.0	(6,686)	100.0
	임시·일용근로자	33.1	37.2	42.7	(1,128)	100.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30.5	33.2	40.5	(1,506)	100.0
	배우자 직종					
	관리자·전문가	30.4	34.6	41.7	(2,843)	100.0
	사무종사자	32.4	35.2	42.8	(2,769)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32.5	33.9	41.4	(1,891)	100.0
	기타	29.0	34.4	41.0	(1,817)	100.0
	배우자 산업					
	제조업	30.9	33.7	42.2	(1,587)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30.9	36.8	42.2	(1,620)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33.7	34.5	43.5	(1,992)	100.0
	그 외 서비스업	28.9	32.4	40.7	(1,359)	100.0
	기타	30.7	35.0	40.8	(2,76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앞의 배우자(파트너나 애인)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한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그렇다는 쪽에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배우자(파트너나 애인)의 일-생활 균형 어려움이 자신의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65.7%가 배우자(파트너나 애인)가 일-생활 균형에 충돌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신의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¹³⁾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파트너나 애인)의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으로부터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및 육아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큰 30대와 40대의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배우자(파트너나 애인)가 일-생활 균형 어려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 비맞벌이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배우자(파트너나 애인)의 일-생활 균형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도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집단으로 드러났다.

〈표 6-10〉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일-생활 균형 어려움이 나의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그렇지 않다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체	4.1	30.2	34.3	57.5	8.1	65.7	(4,908) 100.0
성별($x^2=48.13^{***}$)							
남성	4.5	34.4	38.9	54.9	6.2	61.1	(2,231) 100.0
여성	3.8	26.8	30.5	59.7	9.7	69.5	(2,677) 100.0
연령($x^2=55.75^{***}$)							
만19~29세	4.5	35.9	40.4	49.6	10.0	59.6	(184) 100.0
만30~39세	4.5	28.9	33.4	55.4	11.2	66.6	(1,062) 100.0

13)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구분	그렇다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만40~49세	3.4	28.3	31.7	58.9	9.4	68.3	(1,895) 100.0
만50~59세	4.6	32.5	37.1	58.1	4.8	62.9	(1,768) 100.0
학력($x^2=31.82^{***}$)							
고졸 이하	6.6	34.0	40.6	54.0	5.4	59.4	(732) 100.0
대졸	3.7	29.4	33.1	58.6	8.2	66.9	(3,579) 100.0
대학원졸	3.3	30.5	33.8	55.3	10.9	66.2	(597) 100.0
맞벌이 여부($x^2=28.25^{***}$)							
맞벌이	4.0	31.2	35.3	57.4	7.4	64.7	(4,107) 100.0
비맞벌이	4.3	25.1	29.4	58.4	12.2	70.6	(801) 100.0
자녀 수($x^2=15.35^*$)							
자녀 없음	5.6	33.7	39.3	52.5	8.2	60.7	(748) 100.0
1명	3.6	29.7	33.3	57.8	8.9	66.7	(1,544) 100.0
2명 이상	3.9	29.2	33.1	59.1	7.8	66.9	(2,526) 100.0
월평균 가구소득($x^2=10.47$)							
300만 원 미만	4.8	31.3	36.1	52.8	11.1	63.9	(272) 100.0
300~500만 원 미만	3.6	29.0	32.6	58.3	9.1	67.4	(1,073) 100.0
500~700만 원 미만	4.1	29.5	33.6	58.7	7.7	66.4	(1,682) 100.0
700만 원 이상	4.4	31.2	35.6	57.3	7.2	64.4	(1,799) 100.0
무응답	0.7	37.6	38.3	44.2	17.5	61.7	(81)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가구소득의 x^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집단별 일-생활 균형 세부 분석

이 절에서는 일-생활 균형 실천과 만족 정도에 대해 집단별로 나누어 세부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정도의 관계 파악과 이에 대한 집단별 분석을 한다. 일-생활 균형은 여러 조건과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 성별, 혼인상태, 자녀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조건을 기준으로 세부 분석을 한다. 일-생활 균형과 관련해 취업 여부는 매우 다른 조건을 생성하기 때문에 성별, 혼인상태, 자녀 조건을 중심으로 차이를 파악할 때, 취업 집단과 비취업 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또한 양육자 조건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양육자는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는데, 대부분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 대한 분석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양육자가 1명일 때와 2명일 때를 구분해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양육자의 수와 취업 여부 등 기존 연구에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기준을 중심으로 집단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일-생활 균형 실천 및 만족 정도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과 만족 정도를 분석하였다. 성별, 혼인상태, 자녀 조건, 양육자 조건에 따른 세부 분석 내용을 차례로 제시하며, 성별, 혼인상태, 자녀 조건 분석에 대해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구분하였다.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은 취업자만 응답한 항목¹⁴⁾이기 때문에 취업자에 대한 세부 분석에만 포함되어 있다.

14) 직장생활/하는 일과 가족(개인)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 사이에서 응답

가. 성별 분석

1) 취업자

먼저 취업자에 대해 성별 집단으로 나누어, 일-생활 균형의 실천에 있어 갈등 정도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남성 취업자의 갈등 평균이 2.27점으로 여성 취업자의 갈등 평균이 2.1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한 남성과 여성 집단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 있어 갈등 정도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일-생활 균형 실천의 측면에서 갈등 정도가 높지만, 남성 중에서도 40대, 기혼, 자녀가 1명인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절대적인 갈등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다. 여성 중에서 갈등이 높은 집단은 자녀가 1명이거나 2명 이상인 집단이다. 이 자녀가 있는 집단은 남성과 여성의 갈등 정도가 모두 높은 경향이 있다. 자녀가 1명인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경우, 기혼보다 미혼의 경우에 갈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남성과 여성의 갈등 정도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자녀 수나 혼인상태가 달라질 때 나타나는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갈등 정도의 변화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서 발생하는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1〉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성별

(단위: 점, 명)

구분	남성		여성		t		
	N	평균	N	평균			
전체	(9,636)	2.27	(7,874)	2.17	8.84***		
개인·가족 특성	연령	만19~29세	(1,893)	2.18	(1,763)	2.05	5.05***
		만30~39세	(2,232)	2.30	(1,871)	2.18	4.84***
		만40~49세	(2,719)	2.34	(2,145)	2.23	5.25***
		만50~59세	(2,792)	2.23	(2,096)	2.20	1.95
	거주지	수도권	(5,149)	2.26	(4,286)	2.14	7.43***
		비수도권	(4,487)	2.28	(3,589)	2.20	4.94***
	학력	고졸 이하	(1,164)	2.24	(1,202)	2.19	1.56
		대졸	(7,256)	2.27	(5,882)	2.16	8.42***
		대학원졸	(1,216)	2.27	(790)	2.18	2.74**
	혼인상태	미혼	(3,740)	2.15	(3,368)	2.03	6.98***
		기혼	(5,896)	2.34	(4,507)	2.27	4.75***
	자녀 수	자녀 없음	(2,759)	2.18	(2,795)	2.06	6.21***
		1명	(1,867)	2.39	(1,282)	2.36	1.04
		2명 이상	(2,942)	2.37	(2,244)	2.32	2.7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809)	2.18	(1,548)	2.14	1.17
		200~300만 원 미만	(1,934)	2.21	(3,244)	2.15	2.79**
		300~400만 원 미만	(2,337)	2.30	(1,618)	2.18	5.07***
		400만 원 이상	(4,348)	2.29	(1,245)	2.24	2.33*
일자리 특성	중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601)	2.28	(5,791)	2.16	9.47***
		임시·일용근로자	(1,130)	2.23	(1,340)	2.18	1.72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905)	2.25	(743)	2.26	-0.46
	직종	관리자·전문가	(3,111)	2.27	(1,602)	2.15	5.31***
		사무종사자	(3,248)	2.28	(3,699)	2.15	7.55***
		판매·서비스종사자	(1,468)	2.22	(1,820)	2.19	1.25
		기타	(1,808)	2.29	(752)	2.28	0.08
	산업	제조업	(2,380)	2.27	(894)	2.16	3.84***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1,558)	2.22	(1,411)	2.18	1.61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1,248)	2.28	(2,682)	2.18	3.83***
		그 외 서비스업	(1,425)	2.25	(1,197)	2.14	3.88***
		기타	(3,024)	2.29	(1,690)	2.16	5.71***
	조직 규모	5인 미만	(1,645)	2.21	(1,800)	2.20	0.46
		5~30인 미만	(2,571)	2.25	(2,719)	2.15	4.84***
		30~100인 미만	(1,887)	2.27	(1,591)	2.15	4.72***
		100~300인 미만	(1,302)	2.30	(770)	2.20	3.15**
	조직 영역	300인 이상	(2,230)	2.31	(994)	2.17	4.92***
		민간 및 기타	(7,930)	2.25	(6,098)	2.16	7.19***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1,706)	2.33	(1,777)	2.19	5.78***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직장생활/하는 일'과 가족(개인) 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개인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생활 균형 실천의 측면에서 느끼는 갈등은 취업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는데,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는 여성이 4.42점으로 남성의 4.51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집단 사이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는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민간 및 기타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일-생활 균형 만족 수준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특히 여성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매우 낮아지면서 취업한 남성과 여성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부분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4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여성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남성보다 높아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표 6-12〉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성별

(단위: 점, 명)

구분		남성		여성		t	
		N	평균	N	평균		
전체		(9,636)	4.51	(7,874)	4.42	4.72***	
개인 · 가족 특성	연령	만19~29세	(1,893)	4.64	(1,763)	4.48	3.43**
		만30~39세	(2,232)	4.42	(1,871)	4.36	1.52
		만40~49세	(2,719)	4.43	(2,145)	4.38	1.57
		만50~59세	(2,792)	4.57	(2,096)	4.46	3.14**
	거주지	수도권	(5,149)	4.50	(4,286)	4.41	3.25**
		비수도권	(4,487)	4.52	(3,589)	4.42	3.43**
	학력	고졸 이하	(1,164)	4.27	(1,202)	4.26	0.28
		대졸	(7,256)	4.52	(5,882)	4.42	4.35***
		대학원졸	(1,216)	4.68	(790)	4.63	0.86
	혼인상태	미혼	(3,740)	4.49	(3,368)	4.39	3.29**
		기혼	(5,896)	4.52	(4,507)	4.44	3.29**
	자녀 수	자녀 없음	(2,759)	4.52	(2,795)	4.40	3.16**
		1명	(1,867)	4.50	(1,282)	4.37	2.75**
		2명 이상	(2,942)	4.55	(2,244)	4.45	2.94**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809)	4.67	(1,548)	4.40	4.78***
		200~300만 원 미만	(1,934)	4.36	(3,244)	4.30	1.60
300~400만 원 미만		(2,337)	4.37	(1,618)	4.53	-3.94***	
400만 원 이상		(4,348)	4.63	(1,245)	4.58	1.07	

구분		남성		여성		t	
		N	평균	N	평균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601)	4.52	(5,791)	4.43	3.80***
		임시·일용근로자	(1,130)	4.49	(1,340)	4.40	1.6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905)	4.49	(743)	4.35	2.22*
	직종	관리자·전문가	(3,111)	4.60	(1,602)	4.52	2.06*
		사무종사자	(3,248)	4.55	(3,699)	4.46	2.93**
		판매·서비스종사자	(1,468)	4.49	(1,820)	4.35	3.07**
		기타	(1,808)	4.30	(752)	4.16	2.57*
	산업	제조업	(2,380)	4.40	(894)	4.32	1.56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1,558)	4.41	(1,411)	4.28	2.58**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1,248)	4.69	(2,682)	4.53	3.50***
		그 외 서비스업	(1,425)	4.53	(1,197)	4.37	3.04**
		기타	(3,024)	4.56	(1,690)	4.42	3.59***
	조직 규모	5인 미만	(1,645)	4.44	(1,800)	4.37	1.50
		5~30인 미만	(2,571)	4.44	(2,719)	4.36	2.34*
		30~100인 미만	(1,887)	4.47	(1,591)	4.50	-0.58
		100~300인 미만	(1,302)	4.49	(770)	4.40	1.48
		300인 이상	(2,230)	4.68	(994)	4.53	3.04**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7,930)	4.46	(6,098)	4.35	4.96***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1,706)	4.75	(1,777)	4.65	2.29*
	일-생활 갈등	없음	(6,146)	4.67	(5,509)	4.57	4.28***
있음		(3,489)	4.24	(2,365)	4.06	4.64***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개인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4) 일-생활 갈등은 '직장생활/하는 일과 가족(개인) 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비취업자

취업자에 이어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서의 성별 집단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만족도 평균이 4.29점으로 남성의 만족도 평균인 4.39점보다 낮아 취업자 집단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취업 남성과 여성 집단이 취업한 남성(4.51점)과 여성(4.42점) 집단보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취업하지 않은 남성이 취업한 남성보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비취업 20대 남성의 경우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4.64점으로 취업한 남성 20대 집단과 동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여성은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비취업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기는 했지만, 취업자 집단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대부분 조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50대 비취업자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취업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여성보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취업하지 않은 30대, 50대, 고졸 이하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인 남성 집단은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여성 집단 중에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30대,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임을 찾아볼 수 있다. 30대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비취업 한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아서 성별에 따른 집단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13〉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성별

(단위: 점, 명)

구분	남성		여성		t	
	N	평균	N	평균		
전체	(1,651)	4.39	(2,838)	4.29	2.41*	
연령	만19~29세	(762)	4.64	(651)	4.33	4.31***
	만30~39세	(253)	4.08	(446)	4.06	0.22
	만40~49세	(266)	4.24	(748)	4.19	0.54
	만50~59세	(369)	4.19	(993)	4.43	-3.20**
거주지	수도권	(730)	4.36	(1,455)	4.24	1.93
	비수도권	(922)	4.41	(1,383)	4.33	1.33
학력	고졸 이하	(361)	4.16	(640)	4.20	-0.48
	대졸	(1,185)	4.45	(2,053)	4.30	2.99**
	대학원졸	(105)	4.49	(146)	4.44	0.27
혼인상태	미혼	(1,197)	4.40	(918)	4.23	2.94**
	기혼	(454)	4.34	(1,921)	4.31	0.43

구분	남성		여성		t	
	N	평균	N	평균		
주된 일	가사 및 돌봄	(55)	4.38	(1,817)	4.31	0.41
	학업 및 교육 수강	(868)	4.49	(683)	4.32	2.49*
	기타	(728)	4.27	(338)	4.12	1.58
자녀 수	자녀 없음	(878)	4.44	(924)	4.34	1.57
	1명	(112)	4.44	(556)	4.27	1.23
	2명 이상	(217)	4.33	(1,075)	4.25	0.75
	300만 원 미만	(494)	4.12	(537)	4.06	0.78
월평균 가구소득	300~500만 원 미만	(423)	4.43	(871)	4.18	2.95**
	500~700만 원 미만	(334)	4.57	(815)	4.41	2.04*
	700만 원 이상	(258)	4.65	(513)	4.52	1.24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혼인상태별 분석

일-생활 균형 실천과 만족 정도에 대해서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취업자

취업자가 직장생활 및 하는 일과 생활 사이의 갈등을 얼마나 경험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해서 일-생활 균형 실천이 혼인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취업자가 직장 일이나 자신이 하는 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 사이 갈등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총 4점)를 가지고 혼인상태에 따른 일-생활 균형 실천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혼이 평균 2.31점으로 미혼(평균 2.09점)보다 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더 컸지만,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

대 연령 중 기혼 집단은 평균 2.38점, 40대 기혼 집단은 평균 2.36점으로 30대 40대 집단은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갈등이 비교적 많은 집단으로 보인다. 이 평균 점수는 자녀가 1명인 기혼 집단의 평균인 2.37점, 자녀가 2명 이상인 기혼 집단의 2.35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와 일을 병행할 가능성이 큰 집단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일하는 조직, 하는 일이나 지위 등에 따라서는 상용근로자와 사무종사자, 민간 조직에서 일하는 집단이 미혼과 기혼 사이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경험하는 갈등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혼인상태별

(단위: 점, 명)

구분	미혼		기혼		t		
	N	평균	N	평균			
전체	(7,107)	2.09	(10,403)	2.31	-19.46***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3,740)	2.15	(5,896)	2.34	-12.54***
		여성	(3,368)	2.03	(4,507)	2.27	-14.94***
	연령	만19~29세	(3,349)	2.11	(307)	2.20	-1.81
		만30~39세	(2,119)	2.11	(1,984)	2.38	-11.75***
		만40~49세	(1,139)	2.05	(3,724)	2.36	-13.60***
		만50~59세	(500)	2.00	(4,388)	2.24	-8.19***
	거주지	수도권	(4,054)	2.07	(5,381)	2.31	-16.31***
		비수도권	(3,053)	2.13	(5,022)	2.31	-10.81***
		고졸 이하	(901)	2.12	(1,465)	2.27	-4.92***
	학력	대졸	(5,611)	2.10	(7,527)	2.32	-17.21***
		대학원졸	(595)	2.02	(1,411)	2.32	-8.64***
	자녀 수	자녀 없음	(3,916)	2.11	(1,639)	2.14	-1.35
		1명	-	-	(3,149)	2.37	-
		2명 이상	-	-	(5,186)	2.35	-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1,314)	2.08	(1,042)	2.24	-4.87***	
	200~300만 원 미만	(2,851)	2.09	(2,327)	2.28	-9.50***	
	300~400만 원 미만	(1,663)	2.10	(2,291)	2.36	-11.02***	
	400만 원 이상	(1,063)	2.08	(4,530)	2.32	-9.90***	
일자리 특성	상용근로자	(5,198)	2.08	(8,193)	2.31	-17.93***	
	임시·일용근로자	(1,414)	2.13	(1,057)	2.30	-5.7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495)	2.12	(1,153)	2.31	-5.11***	

구분	미혼		기혼		t	
	N	평균	N	평균		
직종	관리자·전문가	(1,602)	2.08	(3,112)	2.31	-9.99***
	사무종사자	(2,882)	2.07	(4,066)	2.30	-13.48***
	판매·서비스종사자	(1,485)	2.07	(1,803)	2.31	-9.20***
	기타	(1,139)	2.20	(1,422)	2.35	-5.21***
산업	제조업	(1,156)	2.10	(2,119)	2.32	-8.4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1,322)	2.08	(1,647)	2.30	-8.45***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1,505)	2.09	(2,425)	2.30	-8.66***
	그 외 서비스업	(1,271)	2.09	(1,351)	2.30	-7.50***
조직 규모	기타	(1,853)	2.11	(2,862)	2.33	-10.08***
	5인 미만	(1,329)	2.06	(2,117)	2.29	-9.06***
	5~30인 미만	(2,405)	2.08	(2,885)	2.30	-10.42***
	30~100인 미만	(1,423)	2.07	(2,055)	2.31	-9.45***
	100~300인 미만	(828)	2.16	(1,244)	2.33	-5.30***
조직 영역	300인 이상	(1,123)	2.12	(2,102)	2.35	-8.33***
	민간 및 기타	(5,748)	2.08	(8,280)	2.31	-17.63***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1,360)	2.13	(2,123)	2.34	-8.18***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직장생활/하는 일과 가족(개인)생활이 충돌하여 같듯이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개인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는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연령 집단마다 미혼과 기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50대 집단에서 미혼과 기혼의 일-생활 균형 만족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미혼 집단은 50대가 만족 정도가 가장 낮고(4.29점), 기혼 집단에서는 반대로 50대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아(4.55점) 50대의 미혼과 기혼 사이의 일-생활 균형 만족에 대한 차이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인 경우, 사무종사자 및 판매·서비스종사자, 제조업, 도소매·운수·숙박 및 음식점업, 30~1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규모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 일하는 집단, 월평균 개

인소득이 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그 내부에서 미혼과 기혼의 일-생활 균형 만족에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미혼이면서 20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혼 중에서는 50대, 대학원 졸업 집단, 300인 이상 규모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생활 사이 갈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일-생활 균형 만족도의 점수가 비교적 높은 집단이다.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집단은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이었고,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일과 생활 사이 갈등이 없는 경우에는 미혼보다 기혼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6-15〉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혼인상태별

(단위: 점, 명)

구분	미혼		기혼		t		
	N	평균	N	평균			
전체	(7,107)	4.44	(10,403)	4.48	-1.94		
개인·가족 특성	성별	남성	(3,740)	4.49	(5,896)	4.52	-0.90
		여성	(3,368)	4.39	(4,507)	4.44	-1.63
	연령	만19~29세	(3,349)	4.57	(307)	4.45	1.44
		만30~39세	(2,119)	4.34	(1,984)	4.46	-2.88*
		만40~49세	(1,139)	4.34	(3,724)	4.43	-2.01*
		만50~59세	(500)	4.29	(4,388)	4.55	-4.49***
	거주지	수도권	(4,054)	4.43	(5,381)	4.48	-2.01*
		비수도권	(3,053)	4.47	(5,022)	4.48	-0.62
	학력	고졸 이하	(901)	4.26	(1,465)	4.27	-0.06
		대졸	(5,611)	4.46	(7,527)	4.48	-1.06
		대학원졸	(595)	4.57	(1,411)	4.70	-2.14*
	자녀 수	자녀 없음	(3,916)	4.43	(1,639)	4.52	-2.15*
1명		-	-	(3,149)	4.45	-	
2명 이상		-	-	(5,186)	4.51	-	

	구분	미혼		기혼		t	
		N	평균	N	평균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1,314)	4.59	(1,042)	4.37	4.02***	
	200~300만 원 미만	(2,851)	4.36	(2,327)	4.27	2.65**	
	300~400만 원 미만	(1,663)	4.44	(2,291)	4.43	0.40	
	400만 원 이상	(1,063)	4.47	(4,530)	4.65	-3.95***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198)	4.42	(8,193)	4.51	-3.84***
		임시·일용근로자	(1,414)	4.52	(1,057)	4.33	3.68***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495)	4.44	(1,153)	4.42	0.34
	직종	관리자·전문가	(1,602)	4.53	(3,112)	4.60	-1.60
		사무종사자	(2,882)	4.43	(4,066)	4.55	-3.73***
		판매·서비스종사자	(1,485)	4.50	(1,803)	4.35	3.18**
		기타	(1,139)	4.29	(1,422)	4.23	1.23
	산업	제조업	(1,156)	4.28	(2,119)	4.43	-3.23**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1,322)	4.45	(1,647)	4.27	3.5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1,505)	4.55	(2,425)	4.60	-1.20
		그 외 서비스업	(1,271)	4.44	(1,351)	4.47	-0.53
		기타	(1,853)	4.46	(2,862)	4.55	-2.39*
	조직 규모	5인 미만	(1,329)	4.44	(2,117)	4.39	1.00
5~30인 미만		(2,405)	4.44	(2,885)	4.37	1.80	
30~100인 미만		(1,423)	4.43	(2,055)	4.53	-2.25*	
100~300인 미만		(828)	4.43	(1,244)	4.48	-0.74	
300인 이상		(1,123)	4.50	(2,102)	4.70	-4.01***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5,748)	4.40	(8,280)	4.42	-0.67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1,360)	4.63	(2,123)	4.75	-2.62**	
일-생활 갈등	없음	(5,164)	4.55	(6,491)	4.68	-5.57***	
	있음	(1,943)	4.17	(3,912)	4.16	0.0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개인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4) 일-생활 갈등은 '직장생활/하는 일'과 가족(개인)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비취업자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를 혼인상태로 구분해 차이를 살펴 보았다. 전체적으로 미혼과 기혼 사이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 집단 중 40대와 50대의 미혼과 기혼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비취업자이면서 50대 미혼인 경우에 일-생활 균형 만족의 정도는 3.8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 정도를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취업자이면서 50대 기혼의 경우는 일-생활 균형 만족에 대한 점수가 4.44점으로 비교적 높은 집단에 속해 차이를 보였다. 비취업자 중 학력이 대학원 졸업 학력을 가진 경우는 기혼이 미혼보다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을 졸업한 기혼 비취업자의 경우 일-생활 균형 만족 점수가 4.66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비취업자 중 자녀가 없는 기혼의 경우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4.66점으로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비취업자는 기혼보다 미혼인 경우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기혼과 미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비취업자 중에서 50대의 미혼 집단(3.88점)이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낮은 집단이다. 반대로 비취업자 중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높은 집단은 대학원을 졸업한 기혼(4.66점) 집단, 자녀가 없는 기혼(4.66점),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기혼(4.60점)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6-16〉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혼인상태별

(단위: 점, 명)

구분	미혼		기혼		t	
	N	평균	N	평균		
전체	(2,115)	4.33	(2,375)	4.32	0.17	
성별	남성	(1,197)	4.40	(454)	4.34	0.79
	여성	(918)	4.23	(1,921)	4.31	-1.67
연령	만19~29세	(1,354)	4.51	(59)	4.20	1.74
	만30~39세	(341)	4.04	(358)	4.10	-0.58
	만40~49세	(240)	4.05	(774)	4.25	-2.03*
	만50~59세	(180)	3.88	(1,183)	4.44	-5.82***
거주지	수도권	(1,024)	4.28	(1,161)	4.28	-0.06
	비수도권	(1,091)	4.37	(1,213)	4.35	0.28
학력	고졸 이하	(399)	4.11	(602)	4.23	-1.42
	대졸	(1,633)	4.39	(1,605)	4.32	1.64
	대학원졸	(83)	4.06	(167)	4.66	-3.19**
주된 일	가사 및 돌봄	-	-	(1,872)	4.31	-
	학업 및 교육 수강	(1,367)	4.41	(184)	4.41	-0.02
	기타	(748)	4.17	(319)	4.34	-1.82
자녀 수	자녀 없음	(1,479)	4.33	(323)	4.66	-3.94***
	1명	-	-	(668)	4.30	-
	2명 이상	-	-	(1,292)	4.27	-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71)	4.14	(361)	3.99	1.73
	300~500만 원 미만	(520)	4.34	(774)	4.21	1.70
	500~700만 원 미만	(446)	4.52	(703)	4.42	1.32
	700만 원 이상	(277)	4.50	(494)	4.60	-1.01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 자녀 조건별 분석

일-생활 균형은 대부분 돌보아야 하는 대상인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생활 균형 실천과 만족 정도에 대해서 자녀 유무에 따라 집단별 분석을 하였다. 이 차이를 알아보는 데 있어 모든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미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까지 분석에 포함되어 혼인상태 조건이 다른 집단이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

서 여기에서는 혼인상태가 기혼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자녀 조건에 따른 집단 차이를 분석하였다.

1) 기혼 취업자

결혼을 했으며 일하는 경우에 자녀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차이가 발견되었다.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정도가 자녀가 없는 집단은 2.14점, 자녀가 있는 집단은 2.36점으로 자녀가 있는 집단의 갈등 정도가 높았다.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은 자녀가 있는 남성과 자녀가 있는 여성 집단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집단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대졸의 경우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차이가 자녀 유무에 따라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특성에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컸다. 이는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앞서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인 시간이 더욱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갈등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조건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없는 집단도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녀가 있는 집단과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직에서 일하는 경우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갈등 정도가 크게 나타났는데,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민간 기관의 경우보다 작지만,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평균 점수는 자녀가 없는 집단이나 있는 집단 모두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7〉 기준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자녀 유무별 (단위: 점, 명)

구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t		
		N	평균	N	평균			
전체		(1,639)	2.14	(8,335)	2.36	-11.56***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826)	2.19	(4,809)	2.38	-7.18***	
		여성	(813)	2.08	(3,526)	2.33	-8.88***	
	연령	만19~29세	(200)	2.08	(86)	2.49	-4.08***	
		만30~39세	(720)	2.19	(1,200)	2.51	-9.26***	
		만40~49세	(401)	2.13	(3,220)	2.40	-7.87***	
		만50~59세	(318)	2.06	(3,829)	2.27	-5.39***	
	거주지	수도권	(918)	2.12	(4,259)	2.36	-9.39***	
		비수도권	(720)	2.16	(4,076)	2.36	-6.84***	
	학력	고졸 이하	(196)	2.08	(1,147)	2.32	-4.52***	
		대졸	(1,224)	2.15	(6,040)	2.36	-9.53***	
		대학원졸	(218)	2.11	(1,147)	2.37	-4.9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35)	2.28	(429)	2.38	-1.34	
		300~500만 원 미만	(371)	2.14	(1,872)	2.40	-6.42***	
		500~700만 원 미만	(594)	2.16	(2,819)	2.35	-5.82***	
700만 원 이상		(500)	2.07	(3,081)	2.33	-7.89***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323)	2.13	(6,594)	2.36	-10.95***	
		임시·일용근로자	(157)	2.08	(823)	2.35	-4.51***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59)	2.28	(918)	2.34	-1.04	
	직종	관리자·전문가	(431)	2.08	(2,553)	2.35	-7.32***	
		사무종사자	(720)	2.11	(3,232)	2.36	-8.67***	
		판매·서비스종사자	(274)	2.23	(1,437)	2.34	-2.32*	
		기타	(214)	2.23	(1,113)	2.40	-3.22**	
	산업	제조업	(311)	2.11	(1,726)	2.37	-6.07***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82)	2.19	(1,272)	2.33	-3.28**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329)	2.18	(2,019)	2.32	-3.44**	
		그 외 서비스업	(259)	2.06	(1,027)	2.37	-6.64***	
	기타	기타	(458)	2.14	(2,291)	2.38	-6.53***	
		조직 규모	5인 미만	(324)	2.18	(1,666)	2.33	-3.52***
			5~30인 미만	(469)	2.11	(2,272)	2.34	-6.51***
			30~100인 미만	(302)	2.15	(1,689)	2.34	-4.53***
			100~300인 미만	(223)	2.14	(975)	2.39	-4.81***
	300인 이상	(321)	2.12	(1,733)	2.40	-6.32***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1,322)	2.13	(6,594)	2.35	-10.6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317)	2.17	(1,741)	2.38	-4.7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직장생활/하는 일'과 가족(개인)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개인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혼을 했으며 일하는 경우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를 자녀 유무 조건에 따라 살펴보았다. 일-생활 균형 실천에 따른 갈등은 자녀 유무에 따라 집단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서는 자녀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나타난 경우를 살펴보면, 30대 연령 집단이다. 결혼한 30대의 취업자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집단(4.55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있는 집단(4.3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자녀가 없는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4.38점으로 자녀가 있는 집단의 만족도 평균인 4.22점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차이를 보였다.

결혼한 취업자 중 전체적으로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집단은 300인 이상 규모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4.72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의 자녀 없는 집단(4.79점)으로 일자리 특성으로 구분한 것에서 나타났다.

대부분 자녀가 없는 집단이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높지만, 반대의 경향을 보인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남성은 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대, 대학원 졸업한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 사무종사자, 그 외 서비스업, 조직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의 평균값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생활 실천에 따른 갈등은 있거나 없거나 모두 자녀가 있는 집단의 만족 정도가 더 높았다.

〈표 6-18〉 기준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자녀 유무별

(단위: 점, 명)

구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t	
		N	평균	N	평균		
전체		(1,639)	4.52	(8,335)	4.48	0.92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826)	4.53	(4,809)	4.53	-0.06
		여성	(813)	4.50	(3,526)	4.42	1.68
	연령	만19~29세	(200)	4.47	(86)	4.53	-0.29
		만30~39세	(720)	4.55	(1,200)	4.38	2.66**
		만40~49세	(401)	4.42	(3,220)	4.44	-0.32
		만50~59세	(318)	4.59	(3,829)	4.56	0.48
	거주지	수도권	(918)	4.54	(4,259)	4.48	1.39
		비수도권	(720)	4.49	(4,076)	4.49	-0.16
	학력	고졸 이하	(196)	4.31	(1,147)	4.29	0.26
		대졸	(1,224)	4.54	(6,040)	4.48	1.47
		대학원졸	(218)	4.58	(1,147)	4.72	-1.3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35)	4.18	(429)	4.04	1.07
		300~500만 원 미만	(371)	4.38	(1,872)	4.22	2.19*
		500~700만 원 미만	(594)	4.57	(2,819)	4.50	1.29
700만 원 이상		(500)	4.63	(3,081)	4.70	-1.09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323)	4.52	(6,594)	4.52	0.02
		임시·일용근로자	(157)	4.52	(823)	4.32	1.87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59)	4.50	(918)	4.40	0.85
	직종	관리자·전문가	(431)	4.62	(2,553)	4.60	0.37
		사무종사자	(720)	4.54	(3,232)	4.55	-0.08
		판매·서비스종사자	(274)	4.36	(1,437)	4.36	0.01
		기타	(214)	4.41	(1,113)	4.21	2.12*
	산업	제조업	(311)	4.50	(1,726)	4.43	0.98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82)	4.37	(1,272)	4.26	1.28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329)	4.66	(2,019)	4.60	0.88
		그 외 서비스업	(259)	4.39	(1,027)	4.51	-1.39
		기타	(458)	4.58	(2,291)	4.54	0.63
	조직 규모	5인 미만	(324)	4.39	(1,666)	4.40	-0.07
		5~30인 미만	(469)	4.42	(2,272)	4.37	0.78
		30~100인 미만	(302)	4.53	(1,689)	4.53	0.09
		100~300인 미만	(223)	4.58	(975)	4.46	1.30
		300인 이상	(321)	4.72	(1,733)	4.69	0.4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1,322)	4.45	(6,594)	4.42	0.92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317)	4.79	(1,741)	4.75	0.55	
일-생활 갈등	없음	(1,180)	4.66	(4,998)	4.69	-0.78	
	있음	(458)	4.14	(3,337)	4.18	-0.49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4) 일-생활 갈등은 '직장생활/하는 일'과 가족(개인)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기혼 비취업자

결혼을 했으며 일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를 알아보았다. 기혼 취업자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는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4.66점으로 자녀가 있는 집단의 평균인 4.2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녀가 없는 집단은 비취업자의 경우가 4.66점으로 기혼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4.52점)보다 높았고, 자녀가 있는 집단은 비취업자의 경우가 4.28점으로 기혼 취업자의 경우(4.48점)보다 낮았다.

기혼 비취업자 중 남성은 자녀 유무에 따라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는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비취업자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전업 양육자(돌봄자)로 볼 수 있는데 여성 전업 양육자(돌봄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비취업자의 주된 일이 학업이나 교육 수강 또는 기타인 경우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자녀가 없는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30대와 주된 일이 가사 및 돌봄인 경우에 자녀가 없는 집단과 자녀가 있는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비취업자이면서 자녀가 있고, 주된 일이 가사 및 돌봄인 경우도 가족 내에서 전업으로 가사 일이나 양육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19〉 기준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자녀 유무별

(단위: 점, 명)

구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t	
	N	평균	N	평균		
전체	(323)	4.66	(1,961)	4.28	4.97***	
성별	남성	(71)	4.53	(329)	4.36	0.97
	여성	(251)	4.70	(1,631)	4.26	5.05***
연령	만19~29세	(32)	4.65	(26)	3.60	3.13**
	만30~39세	(96)	4.68	(256)	3.86	4.94***
	만40~49세	(95)	4.57	(659)	4.23	2.44*
	만50~59세	(100)	4.74	(1,020)	4.43	2.13*
거주지	수도권	(167)	4.72	(960)	4.23	4.54***
	비수도권	(155)	4.60	(1,001)	4.33	2.48*
학력	고졸 이하	(81)	4.60	(485)	4.21	2.33*
	대졸	(214)	4.62	(1,340)	4.28	3.60***
	대학원졸	(28)	5.17	(136)	4.53	2.26*
주된 일	가사 및 돌봄	(233)	4.69	(1,604)	4.26	4.90***
	학업 및 교육 수강	(44)	4.42	(129)	4.40	0.11
	기타	(45)	4.73	(227)	4.37	1.7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5)	4.38	(248)	3.96	2.07*
	300~500만 원 미만	(116)	4.73	(637)	4.11	4.45***
	500~700만 원 미만	(90)	4.76	(601)	4.36	2.94**
	700만 원 이상	(42)	4.72	(446)	4.60	0.58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라. 양육자 조건별 분석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세부 분석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는데,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양육자의 다양한 조건 중 양육자 수와 취업 여부를 주요 조건으로 살펴보았다. 양육자 수에 따라 양육자가 1인인 가족과 양육자가 2인인 가족으로 나누어 전체적인 차이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육자가 모두 일하는 조건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1) 전체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양육자 수는 중요한 조건이다.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과 양육자 2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양부모 가족의 경우를 구분해서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총 7점 중 한부모 가족은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4.14점이었고, 양부모 가족은 4.44점으로 양육자가 2인인 경우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양육자 수로 집단을 구분해 확인한 일-생활 균형의 만족 차이는 자녀 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 수에서 나타난 차이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양부모 가족의 만족 정도가 한부모 가족보다 일-생활 균형의 만족 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20〉 양육자 조건별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전체

(단위: 점, 명)

구분	한부모 가족		양부모 가족		t	
	N	평균	N	평균		
전체	(421)	4.14	(9,189)	4.44	-4.65***	
자녀 수	1명	(213)	4.07	(3,403)	4.43	-3.93***
	2명 이상	(208)	4.22	(5,787)	4.45	-2.58*
	300만 원 미만	(132)	3.80	(477)	4.04	-1.84
월평균 가구소득	300~500만 원 미만	(148)	4.13	(2,181)	4.18	-0.48
	500~700만 원 미만	(88)	4.46	(3,106)	4.45	0.09
	700만 원 이상	(42)	4.77	(3,291)	4.66	0.7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일하는 양육자

가사 및 돌봄 측면에서 양육자가 1인일 경우, 그 양육자가 일을 하게 되면 양육자 2인 가족 중 1명만 일하는 경우보다는 2명 모두 일을 하는 경우와 상황이 더욱 비슷해진다. 따라서 일하는 양육자 조건에 대해서는 일하는 한부모 상황과 맞벌이 가족의 상황을 비교한다.

일하는 한부모 가족보다는 맞벌이 가족인 경우가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 수가 1명, 또는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일하는 한부모와 맞벌이 집단의 차이가 나타났고, 그 차이는 자녀가 1명일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하는 한부모의 경우, 자녀 수가 1명일 때 일-생활 균형 만족도 4.03점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4.28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하는 한부모는 자녀가 1명일 때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사이의 돌봄이 가능해지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6-21〉 양육자 조건별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일하는 양육자

(단위: 점, 명)

구분	일하는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t	
	N	평균	N	평균		
전체	(356)	4.15	(5,728)	4.48	-4.71***	
자녀 수	1명	(185)	4.03	(2,152)	4.47	-4.36***
	2명 이상	(171)	4.28	(3,575)	4.49	-2.0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06)	3.85	(171)	4.04	-1.14
	300~500만 원 미만	(123)	4.08	(1,004)	4.21	-1.10
	500~700만 원 미만	(78)	4.43	(2,000)	4.43	-0.02
	700만 원 이상	(38)	4.84	(2,463)	4.66	1.14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무응답 집단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총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삶의 만족 점수를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 정도는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7점으로 구성되었으며, 보통 4점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불만족, 높을수록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평균 4.4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만족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의 만족 정도가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비취업 집단보다는 취업 집단의 만족 정도가 높았다. 일-생활 균형 정도에 따라 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일-생활 균형을 만족 정도가 높은 집단이 삶에 대한 만족 정도도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는 집단은 삶의 만족 정도 평균이 5.17점으로 높았고,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은 삶에 대한 만족 정도가 3.23점으로 낮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표 6-22〉 삶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N	평균	t/F
전체	(22,000)	4.44	
성별			
남성	(11,287)	4.46	1.84
여성	(10,713)	4.42	
혼인상태			
미혼	(9,222)	4.33	-9.86***
기혼	(12,778)	4.52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356)	4.42	-4.74***
자녀 있음	(10,295)	4.51	
취업 여부			
비취업	(4,490)	4.33	-6.00***
취업	(17,510)	4.47	

구분	N	평균	t/F
일-생활 균형 정도			
만족	(10,648)	5.17	
보통	(7,183)	4.06	5410.33***
불만족	(4,169)	3.2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일-생활 균형 정도는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을 기준으로 5점 이상은 '만족', 4점은 '보통', 3점 이하는 '불만족'으로 구분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관계에 대한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혼인상태, 자녀 조건, 양육자 조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일-생활 만족 정도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사이의 특성이 차이를 고려해 따로 알아보았고, 자녀 조건별 분석은 결혼한 경우만, 양육자 조건별 분석은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 성별 분석

1) 취업자

취업자 집단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관계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취업한 여성보다는 취업한 남성이 삶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수준별 집단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확인해 보면,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취업 남성의 삶의 질 만족 정도가 3.23점으로 여성의 3.34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23〉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성별

(단위: 점, 명)

구분	남성		여성		t	
	N	평균	N	평균		
전체	(9,636)	4.49	(7,874)	4.45	2.16*	
일-생활 균형 정도	만족	(4,989)	5.16	(3,776)	5.14	0.86
	보통	(2,946)	4.07	(2,552)	4.08	-0.42
	불만족	(1,701)	3.23	(1,547)	3.34	-2.48*

주: 1) * p<0.05, ** p<0.01, *** p<0.001

2) 일-생활 균형 정도는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을 기준으로 5점 이상은 '만족', 4점은 '보통', 3점 이하는 '불만족'으로 구분함.

3) 삶의 만족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비취업자

비취업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관계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비취업 여성의 삶의 만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비취업자의 경우도 취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일-생활 균형 정도에 불만족한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삶의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남성은 삶의 만족 정도가 2.78점으로 여성의 3.22점보다도 낮았다.

〈표 6-24〉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성별

(단위: 점, 명)

구분	남성		여성		t	
	N	평균	N	평균		
전체	(1,651)	4.27	(2,838)	4.36	-1.97*	
일-생활 균형 정도	만족	(719)	5.19	(1,164)	5.24	-0.90
	보통	(613)	3.96	(1,072)	4.04	-1.49
	불만족	(318)	2.78	(602)	3.22	-4.56***

주: 1) * p<0.05, ** p<0.01, *** p<0.001

2) 일-생활 균형 정도는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을 기준으로 5점 이상은 '만족', 4점은 '보통', 3점 이하는 '불만족'으로 구분함.

3) 삶의 만족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혼인상태별 분석

1) 취업자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을 혼인상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취업한 미혼의 경우 삶의 만족 정도가 4.38점이고 기혼은 4.53점으로 취업한 기혼의 삶의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정도에 따라 구분한 모든 집단에서 혼인상태별 차이가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하는 집단, 보통인 집단, 불만족한 집단 모두 기혼인 경우가 미혼보다 일-생활 균형 정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6-25〉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혼인상태별

(단위: 점, 명)

구분	미혼		기혼		t	
	N	평균	N	평균		
전체	(7,107)	4.38	(10,403)	4.53	-7.81***	
일-생활 균형 정도	만족	(3,533)	5.08	(5,232)	5.20	-5.41***
	보통	(2,133)	3.99	(3,364)	4.14	-5.52***
	불만족	(1,441)	3.22	(1,807)	3.33	-2.38*

주: 1) * p<0.05, ** p<0.01, *** p<0.001

2) 일-생활 균형 정도는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을 기준으로 5점 이상은 '만족', 4점은 '보통', 3점 이하는 '불만족'으로 구분함.

3) 삶의 만족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비취업자

취업자와 동일하게 비취업자에 대해서도 일-생활 균형 정도와 삶의 만족 관계에서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비취업자인 미혼은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4.20점이고 기혼은 4.44점으로 비취업자 집단에서도 기혼이 더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정도에 따라 구분한 집단마다 혼인상태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 보통, 불만족 집단 모두 미혼보다 기혼의 삶의 만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띠면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생활 균형 정도에 불만족한 집단 중 미혼의 삶의 만족 정도는 2.86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하는 집단 중 기혼의 경우는 삶의 만족 평균이 5.31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26〉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혼인상태

(단위: 점, 명)

구분	미혼		기혼		t	
	N	평균	N	평균		
전체	(2,115)	4.20	(2,375)	4.44	-5.62***	
일-생활 균형 정도	만족	(885)	5.13	(998)	5.31	-3.44**
	보통	(787)	3.90	(899)	4.11	-3.75***
	불만족	(443)	2.86	(478)	3.26	-4.30***

주: 1) * p<0.05, ** p<0.01, *** p<0.001

2) 일-생활 균형 정도는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을 기준으로 5점 이상은 '만족', 4점은 '보통', 3점 이하는 '불만족'으로 구분함.

3) 삶의 만족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 자녀 조건별 분석

1) 기혼 취업자

결혼을 하였고 일을 하는 경우 자녀 조건에 따라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기혼 취업자의 경우 자녀가 있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4.53점, 자녀가 없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4.64점으로 자녀가 없는 집단의 만족 정도가 더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일-생활 균형 정도에 따라 보면, 현재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자녀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정도에 불만족한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는 정도가 약간 높았다.

〈표 6-27〉 기혼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자녀 유무별

(단위: 점, 명)

구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t	
	N	평균	N	평균		
전체	(1,639)	4.64	(8,335)	4.53	3.38**	
일-생활 균형 정도	만족	(879)	5.25	(4,174)	5.20	1.36
	보통	(460)	4.22	(2,734)	4.13	1.80
	불만족	(299)	3.50	(1,427)	3.31	2.38*

주: 1) * p<0.05, ** p<0.01, *** p<0.001

2) 일-생활 균형 정도는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을 기준으로 5점 이상은 '만족', 4점은 '보통', 3점 이하는 '불만족'으로 구분함.

3) 삶의 만족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기혼 비취업자

결혼을 하였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4.57점)의 삶의 만족이 자녀가 있는 경우(4.44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기는 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 정도에 따라서 자녀 유무 집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기혼 비취업자 중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하는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의 삶의 만족도가 높지만, 그 외에 일-생활 균형 정도가 보통이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표 6-28〉 기준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자녀 유무별 (단위: 점, 명)

구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t	
	N	평균	N	평균		
전체	(323)	4.57	(1,961)	4.44	1.43	
일-생활 균형 정도	만족	(162)	5.39	(810)	5.29	1.13
	보통	(118)	4.04	(737)	4.14	-0.98
	불만족	(43)	2.95	(413)	3.33	-1.79

주: 1) * p<0.05, ** p<0.01, *** p<0.001

2) 일-생활 균형 정도는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을 기준으로 5점 이상은 '만족', 4점은 '보통', 3점 이하는 '불만족'으로 구분함.

3) 삶의 만족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보통'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라. 양육자 조건별 분석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정도 사이의 관계를 양육자 조건에 따라서 구분해 보았다. 우선 양육자 수에 따라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경우를 구분해 분석하고, 이어서 일하는 조건을 더해 일하는 한부모와 맞벌이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다.

일하는 조건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양육자 수에 따른 삶의 만족 정도에서는 양육자가 한 명인 한부모 가족 집단의 삶의 만족 정도가 4.09점, 양부모 가족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4.52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생활 균형 정도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양부모 가족 집단의 삶의 만족 정도가 한부모 가족 집단보다 높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정도가 보통이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양부모 가족 집단보다 한부모 가족 집단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일-생활 균형 정도에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라도 한부모 가족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4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표 6-29〉 양육자 조건별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전체

(단위: 점, 명)

구분	한부모 가족		양부모 가족		t	
	N	평균	N	평균		
전체	(421)	4.09	(9,189)	4.52	-6.98***	
일-생활 균형 정도	만족	(144)	5.06	(4,473)	5.22	-1.51
	보통	(179)	3.87	(3,055)	4.16	-3.87***
	불만족	(99)	3.04	(1,660)	3.32	-2.16*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양육자가 모두 일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즉, 양육자 1인이 일하는 경우인 일하는 한부모 집단, 양육자 2인이 모두 일하는 맞벌이 집단을 비교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일하는 한부모 집단의 삶의 만족 정도(4.11점)보다는 맞벌이 집단의 삶의 만족 정도(4.54점)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경우에는 일하는 한부모가 맞벌이보다 삶의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이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에 대해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한부모 집단과 맞벌이 집단의 삶의 만족에 대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6-30〉 양육자 조건별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일하는 양육자

(단위: 점, 명)

구분	일하는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t	
	N	평균	N	평균		
전체	(356)	4.11	(5,728)	4.54	6.40***	
일-생활 균형 정도	만족	(123)	5.01	(2,875)	5.21	-1.95
	보통	(149)	3.92	(1,856)	4.16	-3.04**
	불만족	(83)	3.12	(997)	3.31	-1.4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무응답 집단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소결

이 절은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의 결과와 집단별 세부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일-생활 균형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만족 정도, 그리고 일-생활 균형 실천과 어려움 등을 살펴보았다. 대다수의 조사 참여자가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일-생활 균형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가 일-생활 균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미혼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 수에 따른 차이에서도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가 없는 집단(44.5%)이 자녀가 있는 집단(자녀 1명: 38.5%, 자녀 2명 이상: 35.5%)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일-생활 균형 중요성의 정도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더한 중요하다는 쪽에 응답한 비율은 기혼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지만, 일-생활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반대로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더 높은 것이다.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는 남성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혼인상태와 자녀 유무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중요도 생각은 차이가 있었으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는 혼인상태에 따라서만 약간 차이가 있었다. 취업을 한 집단이 취업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연령집단으로 보면,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20대에는 높다가 30대와 40대에서 낮아지고, 다시 50대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자에게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장시간 일하는 문화 및 과도한 업무량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일하는 문화로 인해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는 응답은 30대 집단이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남성과 20~30대,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여성과 30~40대 집단,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자울 시간과 체력 부족의 이유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특징도 보여, 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집단과 가사 및 육아로 인해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30대 집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연령대임을 엿볼 수 있다. 비취업자(학습 및 훈련이나 돌봄 및 가사 등을 일로 봄)의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일의 양이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비취업자는 취업자와 비교해서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국인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더 할애하고 싶은 활동은 개인 여가시간으로 나타났다. 여성, 20대, 미혼,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이에 대한 응답자가 과반으로 나타났는데, 20대의 상당수와 자녀가 없는 경우는 미혼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혼 집단과 여성을 중심으로 개인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기혼과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가족 단위 여가 활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다. 모든 집단이 개인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가 더 높기는 하지만, 가족 단위 여가시간 욕구에 대한 차이에서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취업자의 1/3 정도가 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 사이의 충돌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 및 개인 생활에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가족이나 개인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각각 40% 정도로 나타나 일과 생활 간에 스트레스가 전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일-생활 사이 충돌을 더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 사이 갈등은 스스로 응답한 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 사이의 갈등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갈등 및 스트레스를 묻는 항목마다 자신의 응답과 배우자의 응답 사이 차이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자신과 배우자가 느끼는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떠한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많은지에 대한 경향성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생활까지 연결되는 것이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세부 분석을 통해서 일-생활 균형 실천에 따른 갈등 정도와 만족 정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파악해 보았다. 일-생활 균형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 조건인 성별, 혼인상태, 자녀 조건과 기존 연구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양육자 조건을 중심으로 세부 분석을 하였다. 이때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을 구분해 분석하였다.

성별 분석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실천에 따른 갈등 정도를 먼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남성 취업자가 여성 취업자보다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집단별 분석을 한 결과, 취업한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가 있을 때 갈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갈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남성(2.37점)과 여성(2.32점)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가 1명일 때 남성(2.39점)과 여성(2.36점) 모두 갈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갈등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자녀가 1명일 때 여성의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는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데 따른 갈등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생활 균형 만족 측면에서는 취업한 남성(4.51점)이 취업한 여성(4.42점)보다 대부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평균 개인소득이 300~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여성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4.53점)가 남성(4.37점)보다 높아 다른 경우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정도와 만족 정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만족 수준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제도 사용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거나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를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성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여성의 만족 정도보다 높았다. 그러나 50대의 경우는 여성의 만족 정도가 남성보다 높아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혼인상태별 분석에서는 미혼보다는 기혼이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일-생활 균형 사이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은 더 높지만, 이를 경험하는 차이가 혼인상태에 따라 더 크게 나타난 집단은 여성이었다. 일의 특성 측면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사무종사자, 민간조직에서 일하는 집단이 미혼과 기혼 사이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경험하는 갈등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의 만족 정도는 기혼과 미혼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별로 미혼과 기혼 차이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갈등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었는데, 미혼보다 기혼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실천 측면에서 갈등이 없으며 기혼인 경우가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비취업자의 경우도 미혼과 기혼 사이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50대 집단에서 미혼과 기혼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미혼이 기혼보다 낮은 수준의 일-생활 균형 만족도를 보였다.

자녀 조건별 분석에서는 자녀가 있는 집단(2.36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2.14점)보다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것에서 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경우에 자녀가 있는 집단의 갈등이 더 크게 나타나 자녀가 없는 집단과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자녀 유무에 따라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갈등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 자녀가 없어도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혼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서는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기혼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자녀가 없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기혼 비취업자 중 여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주된 일이 가사 및 돌봄인 경우에 자녀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만족 정도의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나 전업 양육자(돌봄자)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이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이 결과는 그동안 일-생활 균형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집단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육자 조건별 분석에서는 양육자 수가 1인인 한부모 가족과 양육자가 2인인 양부모 가족의 일-생활 균형의 만족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한부모 가족보다는 양부모 가족인 경우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높았다. 양육자가 모두 일하는 조건에서 살펴보면, 취업한 한부모 집단이 맞벌이 집단보다 일-생활 균형의 만족 정도가 낮았다. 또한 자녀 수가 1명이거나 2명 이상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맞벌이가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보다 1명인 경우에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면서 일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가 자녀 수가 동일한 맞벌이 가족보다,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일하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보다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낮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의 서로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봄을 나누어 할 양육자가 부재한 한부모는 일-생활 균형에 더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분석에서 일-생활 균형 만족과 삶에 대한 만족 사이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성별 분석에서는 취업자 중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성은 삶의 질 만족 정도가 여성보다 낮은 특성을 보였다. 여성은 일-생활 균형에 불만족하더라도 삶의 만족은 남성보다 높았다.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성별에 다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 수준이 근소하게 더 높은 것을 찾아볼 수 있어서 일-생활 균형 정도가 취업 여성보다는 취업 남성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에서도 취업자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생활 균형에 불만족한 경우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에서는 일-생활 균형에 만족, 보통, 불만족인 모든 경우에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즉,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기혼 집단은 삶의 만족 정도가 미혼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자

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와 삶의 만족을 혼인상태에 따라서 본 결과는 앞의 취업자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비취업자이면서 미혼인 경우는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낮으면 삶의 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낮으면 기혼 역시 삶의 만족 정도도 낮은 수준이기는 했으나 미혼 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자와 취업자 모두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도가 낮은 미혼 집단이 삶의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고,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도가 높은 기혼 집단이 삶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드러났다. 자녀 조건별 분석에서는 기혼 취업자 중 일-생활 균형에 불만족한 경우에 자녀가 없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높아 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양육자 조건별 분석에서는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자가 1명인 한부모 집단이 양육자가 2명인 양부모 집단보다 삶의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한부모와 맞벌이 집단 사이에는 일-생활 균형 정도가 보통이면 일하는 한부모 집단의 삶의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만족 정도 점수로 보면, 일-생활 균형 정도에 불만족한 경우의 일하는 한부모가 가장 낮은 집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7장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제1절 유연근무제도

제2절 임신·출산 및 돌봄 관련 일-생활 균형 제도

제3절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욕구

제4절 소결

제 7 장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이 장에서는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나아가 제도 이용의 제약 및 필요성 등을 파악하였다. 일-생활 균형 제도는 유연 근무제도,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 돌봄 관련 제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 제도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일-생활 균형 제도로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일-생활 균형에서 중요한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인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간략히 알아보았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5개 특례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8%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7.8% 포인트였다. 그리고 40대 집단에서의 인지도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용 근로자인 경우에 인지 비율이 높고, 직종이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 또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지가 유의하게 높아서 그 차이

는 9.9% 포인트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제 근무보다 전일제 근무하는 이들의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주 52시간 근무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안다	모른다	전체	
전체		57.8	42.2	(22,000)	100.0
개인 특성	성별($x^2=135.91^{***}$)				
	남성	61.6	38.4	(11,287)	100.0
	여성	53.8	46.2	(10,713)	100.0
	연령($x^2=16.35^{**}$)				
	만19~29세	55.8	44.2	(5,069)	100.0
	만30~39세	58.3	41.7	(4,803)	100.0
	만40~49세	57.3	42.7	(5,877)	100.0
	만50~59세	59.5	40.5	(6,251)	100.0
	거주지($x^2=2.32$)				
	수도권	58.3	41.7	(11,620)	100.0
비수도권	57.2	42.8	(10,380)	100.0	
학력($x^2=45.80^{***}$)					
고졸 이하	53.5	46.5	(3,368)	100.0	
대졸	58.0	42.0	(16,376)	100.0	
대학원졸	62.4	37.6	(2,257)	100.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x^2=122.87^{***}$)				
	상용근로자	60.3	39.7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49.0	51.0	(2,471)	100.0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53.9	46.1	(1,648)	100.0
	직종($x^2=74.32^{***}$)				
	관리자·전문가	60.1	39.9	(4,714)	100.0
	사무종사자	60.2	39.8	(6,948)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52.0	48.0	(3,288)	100.0
	기타	56.4	43.6	(2,561)	100.0
	산업($x^2=163.60^{***}$)				
	제조업	66.1	33.9	(3,275)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55.6	44.4	(2,969)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52.2	47.8	(3,930)	100.0
	그 외 서비스업	55.7	44.3	(2,622)	100.0
	기타	60.2	39.8	(4,715)	100.0
	조직 규모($x^2=236.38^{***}$)				
	5인 미만	50.5	49.5	(3,445)	100.0
5~30인 미만	54.4	45.6	(5,290)	100.0	
30~100인 미만	59.8	40.2	(3,478)	100.0	
100~300인 미만	65.0	35.0	(2,072)	100.0	
300인 이상	65.9	34.1	(3,224)	100.0	

구분	안다	모른다	전체	
조직 영역($\chi^2=1.36$)				
민간 및 기타	58.3	41.7	(14,02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57.2	42.8	(3,482)	100.0
정규직 여부($\chi^2=48.46^{***}$)				
정규직	61.3	38.7	(12,053)	100.0
비정규직	51.4	48.6	(1,339)	100.0
시간제 여부($\chi^2=80.85^{***}$)				
시간제 근무	51.1	48.9	(2,902)	100.0
전일제 근무	60.2	39.8	(12,961)	100.0
교대제 여부($\chi^2=0.55$)				
교대제 근무	57.7	42.3	(1,955)	100.0
교대제 아님	58.6	41.4	(13,907)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1절 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도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로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도입 비율을 살펴보면, 시간선택제는 33.9%, 시차출퇴근제는 36.9%, 선택근무제는 27.1%, 원격근무제는 25.7%, 재택근무제는 34.1%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는 모든 제도가 남성이 일하는 곳의 도입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도입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의 제도 도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모든 제도에 있어서 기타 업종의 도입 비율이 가장 높고, 조직 규모가 큰 경우와 조직 영역이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인 경우의 제도 도입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일제, 교대제가 아닌 집단에서도 제도 도입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7-2〉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여부(도입되었음)

(단위: %, 명)

구분		시간 선택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제	전체
전체		33.9	36.9	27.1	25.7	34.1	(15,862) 100.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35.9	39.2	30.6	27.5	35.8	(8,731) 100.0
	여성	31.4	34.1	22.9	23.4	32.1	(7,131) 100.0
	연령						
	만19~29세	30.3	33.9	25.3	24.3	31.5	(3,482) 100.0
	만30~39세	34.4	38.2	24.8	23.9	34.4	(3,848) 100.0
만40~49세	34.2	37.8	27.2	26.2	34.2	(4,381) 100.0	
만50~59세	36.0	37.5	30.8	27.9	36.1	(4,152) 100.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5.3	38.3	27.1	25.6	34.6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26.2	29.7	27.1	26.2	31.9	(2,471)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38.2	40.4	30.4	30.1	37.8	(4,117) 100.0
	사무종사자	36.0	40.6	27.1	26.2	38.0	(6,794)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29.2	31.2	25.5	21.8	26.7	(2,652) 100.0
	기타	25.0	26.5	23.1	20.8	24.8	(2,299) 100.0
	산업						
	제조업	28.6	33.3	24.4	22.1	30.1	(3,166)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3.4	28.8	22.2	20.4	26.7	(2,397)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업	36.0	32.9	23.8	24.9	30.9	(3,630) 100.0
	그 외 서비스업	29.5	36.6	25.9	25.7	35.7	(2,315) 100.0
	기타	43.9	47.6	35.2	31.8	43.1	(4,354)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22.3	26.5	23.3	22.2	27.1	(2,052) 100.0	
5~30인 미만	24.7	27.4	20.2	19.9	26.5	(5,105) 100.0	
30~100인 미만	34.8	35.3	23.1	25.3	33.4	(3,435) 100.0	
100~300인 미만	35.9	40.4	27.9	27.4	35.5	(2,050) 100.0	
300인 이상	53.4	58.1	44.3	36.3	50.7	(3,220)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26.9	32.2	23.5	23.3	31.1	(12,38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58.6	54.0	39.9	34.3	44.9	(3,474)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35.9	38.7	27.4	25.5	34.7	(12,053) 100.0	
비정규직	29.4	34.2	24.9	26.4	33.6	(1,3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30.9	32.5	31.4	29.5	34.2	(2,902) 100.0	
전일제 근무	34.5	37.9	26.2	24.8	34.1	(12,961)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36.8	34.7	30.8	24.3	29.0	(1,955) 100.0	
교대제 아님	33.4	37.3	26.6	25.9	34.9	(13,907)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도입 여부는 '모르겠음' 응답은 제외하고 '도입되었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어서 앞서 살펴본 유연근무제도의 이용이 용이한 정도와 경험 여부, 그리고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용 용이성과 이용 경험은 도입 여부에서 '도입되었음'에 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 용이성은 '쉬운 편임'과 '매우 쉬움'을 더한 비율을 나타내고, 이용 경험은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 도움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이며, '도움되는 편'과 '매우 도움됨'을 더한 비율을 나타낸다.

먼저 이용 용이성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연근무제도 중 시차출퇴근제가 가장 높은 61.0%, 선택근무제가 55.3%, 시간선택제가 53.4%, 원격근무제가 49.6%, 재택근무제가 48.7%로 시차출퇴근제의 이용 용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는 모든 제도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제도 이용 용이성이 높고, 대체로 만 19~29세에서 이용이 용이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대체로 기혼보다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의 제도 이용 용이성이 높고, 모든 제도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보다 제도 이용의 용이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직종에 따라서는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의 제도 이용 용이성이 높고, 대체로 조직 규모가 5인 미만 기업의 제도 이용 용이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를 제외하면, 정규직에서 이용 용이성이 높거나 유사한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간선택제는 18.2%, 시차출퇴근제는 39.5%, 선택근무제는 31.7%, 원격근무제는 35.8%, 재택근무제는 52.0%로 재택근무제의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제도에서 남성의 이용 경험이 여성보다 많지만, 연령에 따른 명확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제도에서 수도권외의 이용 경험률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재택근무제는 17.1% 포인트, 원격근무제는 11.1% 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시간선택제는 임시·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보다 제도 이용 경험이 8.0% 포인트 높고, 선택근무제는 임시·일용근로자가 9.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종에서는 대체로 관리자·전문가의 제도 이용 경험률이 높은 경향이 있고, 조직 규모가 큰 경우 재택근무제의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 영역이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에 비하여 민간 및 기타의 제도 이용 경험률이 높고, 정규직의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이용 경험률이 비정규직보다 각각 7.5% 포인트, 8.9%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일제 근무의 재택근무제 이용 경험률이 시간제 근무보다 12.5% 포인트 높고, 교대제가 아닌 경우의 재택근무제 이용 경험률은 교대제인 경우보다 24.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소득별로 보면, 시간선택제와 선택근무제 이외에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재택근무제는 소득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사용이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시간선택제는 93.6%, 시차출퇴근제는 93.5%, 선택근무제는 89.9%, 원격근무제는 85.3%, 재택근무제는 87.3%로 시차출퇴근제가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는 거주지, 종사상지위, 산업, 교대제 여부에서 도움 정도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원격근무제는 수도권 이 비수도권보다 5.3% 포인트, 시차출퇴근제는 상용근로자가 임시·일용근로자보다 6.6% 포인트, 원격근무제는 그 외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10.9%, 선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교대제 여부의 차이가 각각 12.3% 포인트, 18.6% 포인트로 교대제가 아닌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관리자·전문가 집단이 도움 정도의 비율이 높았다.

〈표 7-3〉 유언구제도의 이용 용이, 이용 경험 및 일·생활 균형에 도움

구분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이용 이용 용이 경험			일·생활 균형 도움			이용 이용 용이 경험			일·생활 균형 도움			이용 이용 용이 경험			일·생활 균형 도움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5,371)	53.4	(980)	93.6	(5,859)	61.0	39.5	(2,314)	93.5	(4,304)	55.3	31.7	(1,363)	89.9	(4,072)	49.6	35.8	(1,457)	85.3	(5,416)	48.7	52.0	(2,818)	87.3	
성별	(3,133)	55.4	(579)	92.7	(3,426)	62.7	39.6	(1,355)	93.0	(2,669)	57.2	33.0	(880)	88.2	(2,401)	50.8	35.9	(862)	84.3	(3,129)	50.2	52.0	(1,626)	86.2	
남성	(2,239)	50.5	(401)	94.8	(2,433)	58.7	39.4	(959)	94.2	(1,635)	52.1	29.5	(482)	92.7	(1,671)	47.8	35.6	(594)	86.7	(2,287)	46.7	52.1	(1,192)	89.0	
여성	(1,055)	60.4	(188)	92.5	(1,180)	63.6	40.9	(483)	93.3	(881)	58.6	38.1	(336)	89.4	(848)	50.7	37.2	(315)	81.9	(1,097)	48.6	48.6	(533)	87.7	
만19~29세	(1,322)	52.7	(232)	95.3	(1,469)	61.5	45.4	(667)	94.8	(954)	54.5	33.9	(323)	92.0	(919)	48.7	38.7	(356)	84.0	(1,322)	45.6	58.4	(772)	89.9	
만30~39세	(1,499)	47.1	(185)	(718)	95.3	(1,654)	58.4	36.7	(607)	92.2	(1,192)	53.6	29.5	(351)	90.0	(1,148)	48.3	36.7	(422)	86.0	(1,497)	49.2	52.8	(790)	87.3
만40~49세	(1,496)	55.2	(182)	(772)	94.8	(1,555)	61.4	35.8	(557)	93.5	(1,278)	55.1	27.6	(352)	88.4	(1,158)	50.7	31.4	(364)	88.6	(1,499)	51.0	48.2	(723)	84.4
만50~59세	(2,787)	52.8	(189)	(527)	95.7	(3,312)	63.4	43.6	(1,443)	94.2	(2,320)	57.8	35.2	(817)	91.4	(2,264)	51.5	40.7	(921)	87.2	(3,114)	50.8	59.3	(1,846)	88.4
60세 이상	(2,584)	54.0	(175)	(453)	91.1	(2,547)	58.0	34.2	(870)	92.3	(1,984)	52.4	27.5	(545)	87.8	(1,808)	47.2	29.6	(535)	81.9	(2,302)	45.8	42.2	(971)	85.4
개인	(1,980)	56.6	(322)	91.3	(2,191)	62.1	40.7	(893)	92.5	(1,534)	56.9	35.1	(538)	90.5	(1,568)	50.4	38.1	(598)	81.7	(2,125)	48.4	52.3	(1,112)	86.7	
가족	(3,392)	51.4	(194)	(658)	94.7	(3,688)	60.4	38.7	(1,421)	94.1	(2,770)	54.4	29.8	(824)	89.5	(2,505)	49.0	34.3	(859)	87.7	(3,291)	48.9	51.8	(1,706)	87.7
특성	(2,541)	50.6	(199)	(507)	95.3	(2,688)	59.2	39.1	(1,051)	93.9	(2,043)	52.9	29.4	(600)	87.6	(1,860)	48.9	34.6	(644)	87.0	(2,425)	48.5	51.4	(1,247)	88.1
만별이 여부	(695)	55.2	(118)	(92.0)	(802)	64.2	37.3	(299)	94.8	(592)	59.8	30.3	(179)	94.1	(524)	49.4	33.3	(169)	89.4	(717)	49.9	53.1	(380)	85.8	
비밀번호	(1,580)	56.0	(160)	(253)	92.7	(1,770)	62.5	41.2	(728)	93.3	(1,248)	55.2	32.6	(407)	91.4	(1,218)	50.8	39.0	(475)	83.7	(1,668)	47.5	52.5	(875)	88.7
자녀 없음	(2,743)	50.8	(203)	(557)	95.5	(2,940)	60.0	37.6	(1,107)	93.8	(2,277)	54.2	29.1	(662)	89.2	(2,046)	48.0	33.0	(676)	88.0	(2,668)	48.5	50.9	(1,358)	87.2
자녀 있음	(488)	55.8	(262)	(128)	94.6	(572)	57.2	33.6	(192)	90.8	(508)	54.7	33.4	(170)	92.0	(496)	47.9	31.8	(157)	85.3	(578)	50.8	36.7	(212)	85.9
월평균 개인소득	(1,380)	51.4	(157)	(216)	91.9	(1,496)	57.7	37.1	(555)	91.3	(1,018)	49.7	27.3	(278)	89.3	(1,046)	48.3	31.4	(329)	79.5	(1,431)	46.1	45.9	(657)	86.9
200만 원 미만	(1,266)	51.7	(182)	(231)	94.6	(1,325)	60.3	42.1	(583)	95.2	(942)	55.8	30.6	(289)	88.8	(918)	49.3	38.3	(351)	85.4	(1,206)	47.2	52.8	(637)	90.3
200~300만 원 미만	(2,150)	54.8	(182)	(391)	93.8	(2,386)	64.9	41.2	(983)	94.4	(1,768)	58.6	34.2	(605)	90.3	(1,553)	51.3	38.4	(597)	88.3	(2,120)	50.6	59.9	(1,269)	86.4
300~400만 원 이상	(87)	59.4	(14)	(86.4)	(80)	50.6	32.3	(26)	87.7	(68)	50.1	32.8	(22)	88.0	(60)	47.2	38.0	(23)	85.1	(81)	52.4	53.3	(43)	85.4	
무응답	(4,725)	53.2	(173)	(816)	94.1	(5,124)	61.1	39.9	(2,045)	94.2	(3,635)	54.8	30.2	(1,099)	90.5	(3,426)	48.8	35.3	(1,210)	85.2	(4,629)	47.4	53.0	(2,455)	87.3
상용근로자	(647)	54.6	(253)	(163)	91.0	(735)	60.7	36.6	(269)	87.6	(669)	57.8	39.5	(264)	87.4	(646)	53.5	38.1	(246)	85.7	(788)	56.1	46.3	(364)	87.9
임시·일용근로자	(1,572)	55.6	(196)	(308)	94.5	(1,665)	64.7	41.4	(689)	94.4	(1,250)	59.1	34.3	(429)	91.4	(1,238)	52.7	41.0	(508)	86.9	(1,538)	53.0	56.0	(873)	85.3
관리자·전문가	(2,449)	52.7	(174)	(425)	94.7	(2,755)	62.4	41.8	(1,152)	94.9	(1,844)	55.5	31.1	(383)	88.1	(1,777)	50.1	39.3	(681)	86.4	(2,579)	47.9	59.9	(1,545)	89.0
사무종사자	(775)	52.0	(182)	(141)	(93.2)	(829)	53.9	33.5	(278)	90.2	(677)	51.8	30.3	(203)	92.6	(579)	45.2	27.5	(159)	80.5	(709)	45.2	34.7	(246)	87.1
판매·서비스종사자	(575)	52.0	(183)	(105)	(86.6)	(610)	54.5	32.0	(195)	86.5	(532)	50.2	29.2	(155)	80.5	(478)	44.5	22.8	(109)	77.2	(570)	44.7	27.1	(154)	82.8
기타																									

(단위: %, 명)

유연근무제도 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건강과 안전을 위해’ 33.7%, ‘출퇴근 시간 혼잡 피하기 위해’ 27.3%, ‘개인 시간 및 자기계발 활동을 위해’ 12.0%, ‘회사 내부의 방침 때문에’ 13.0%, ‘가족 돌봄을 위해’ 11.8%, 기타 2.2%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건강과 안전을 위해’는 집단마다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도 중 어떠한 제도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유연근무제도 중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를 시간과 관련된 제도로 구분하고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도는 장소와 관련된 제도로 구분해 이 중 시간 관련 제도를 한 개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면 시간 제도 사용으로 구분하고, 장소 관련 제도도 마찬가지로 한 개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면 장소 제도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둘 다 사용한 적 있으면 모두 사용으로 구분해 차이를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경우, 장소 관련 제도를 사용한 비율이 57.9%로 시간 관련 제도를 사용한 비율(16.1%)과 시간·장소 관련 제도를 모두 사용한 비율(26.8%)보다 높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출퇴근 시간 혼잡 피하기 위해’는 거주지와 산업, 사용 제도 종류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보다 11.2% 포인트, 그 외 서비스업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보다 14.8% 포인트, 사용한 제도의 종류가 시간 제도인 경우나 시간·장소 관련 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장소와 관련된 제도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각각 10% 포인트 이상씩 높게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이유 중 ‘가족 돌봄을 위해서’는 30대와 40대, 맞벌이,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4〉 유연근무제도 이용의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구분		출퇴근 시간 혼잡 피하기 위해	개인 시간 및 자기개발 활동을 위해	코로나 19 감염 우려 등 건강과 안전성을 위해	회사 내부의 방침 때문에	가족 돌봄을 위해	기타	전체
전체		27.3	12.0	33.7	13.0	11.8	2.2	(4,863) 100.0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27.9	12.7	33.5	14.0	10.4	1.5	(2,806) 100.0
	여성	26.6	11.0	34.0	11.7	13.6	3.1	(2,057) 100.0
	연령							
	만19~29세	29.6	16.8	30.6	16.3	3.3	3.3	(1,076) 100.0
	만30~39세	29.6	11.0	31.6	12.1	13.4	2.2	(1,291) 100.0
	만40~49세	21.9	9.7	34.4	12.2	20.0	1.9	(1,318) 100.0
	만50~59세	28.8	11.2	38.1	12.0	8.4	1.6	(1,178) 100.0
	거주지							
	수도권	31.6	11.2	32.7	11.7	10.7	2.1	(2,997) 100.0
	비수도권	20.4	13.2	35.4	15.2	13.5	2.3	(1,866) 100.0
	혼인상태							
	미혼	29.9	15.6	34.1	15.7	1.8	3.0	(1,977) 100.0
	기혼	25.6	9.5	33.5	11.2	18.6	1.6	(2,886)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2	9.4	33.1	11.0	20.6	1.6	(2,137) 100.0
	비맞벌이	31.1	9.3	32.9	11.4	14.1	1.2	(609)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3.0	14.3	33.0	13.9	3.1	2.8	(1,558) 100.0
	자녀 있음	23.4	8.7	33.6	10.7	22.0	1.6	(2,278)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3.7	14.9	31.2	14.6	11.5	4.1	(483) 100.0	
200~300만 원 미만	25.7	12.1	34.7	14.8	9.4	3.3	(1,196) 100.0	
300~400만 원 미만	28.6	12.9	33.8	12.3	11.3	1.2	(1,128) 100.0	
400만 원 이상	28.9	10.8	33.2	11.9	13.5	1.7	(1,980) 100.0	
무응답	15.8	9.7	45.7	15.4	12.6	0.9	(76) 100.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7.6	11.9	33.8	12.5	12.2	2.1	(4,159) 100.0
	임시·일용근로자	25.7	12.4	33.3	16.2	9.4	2.9	(703)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26.2	12.4	35.0	12.3	11.2	2.8	(1,456) 100.0
	사무종사자	30.1	11.0	33.1	12.4	11.8	1.7	(2,399)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20.4	12.7	35.7	16.8	11.2	3.2	(595) 100.0
	기타	25.3	15.2	30.0	13.6	14.6	1.3	(412) 100.0
	산업							
	제조업	28.8	13.8	30.0	12.8	12.5	2.1	(809)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6.0	12.5	34.1	13.3	11.6	2.4	(585)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18.1	9.1	40.2	15.7	13.8	3.1	(962) 100.0
	서비스업							
	그 외 서비스업	32.9	13.0	30.0	11.5	10.3	2.4	(816) 100.0
	기타	29.7	12.1	33.4	12.3	11.0	1.6	(1,691) 100.0

구분	출퇴근 시간 혼잡 피하기 위해	개인 시간 및 자기개발 활동을 위해	코로나 19 감염 우려 등 건강과 안전을 위해	회사 내부의 방침 때문에	가족 돌봄을 위해	기타	전체
조직 규모							
5인 미만	25.6	15.1	34.7	11.2	11.6	1.8	(514) 100.0
5~30인 미만	26.3	12.5	34.4	13.9	10.7	2.3	(1,223) 100.0
30~100인 미만	24.4	10.3	37.6	14.0	11.5	2.2	(998) 100.0
100~300인 미만	33.0	10.6	32.2	13.6	9.3	1.3	(675) 100.0
300인 이상	28.2	12.2	30.8	12.0	14.1	2.7	(1,452)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29.7	11.8	32.6	12.8	10.9	2.2	(3,525)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21.2	12.5	36.5	13.6	13.9	2.3	(1,338)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28.1	11.7	33.8	11.9	12.3	2.1	(3,791) 100.0
비정규직	22.1	14.1	33.4	18.0	10.5	1.9	(368)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21.8	14.5	34.7	16.4	10.8	1.7	(883) 100.0
전일제 근무	28.6	11.4	33.5	12.3	12.0	2.3	(3,980)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24.1	16.1	30.5	18.8	8.1	2.4	(451) 100.0
교대제 아님	27.7	11.6	34.0	12.4	12.1	2.2	(4,412) 100.0
사용한 제도 종류							
시간 제도	30.4	16.8	16.1	16.3	17.0	3.4	(1,679) 100.0
장소 제도	18.1	5.5	57.9	11.7	5.6	1.1	(1,652) 100.0
시간·장소 모두	34.0	13.7	26.8	10.8	12.7	2.0	(1,531)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용한 제도 종류는 유연근무제의 시간 관련 제도를 사용한 경우, 장소 관련 제도를 사용한 경우, 둘 다 사용한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제도 중 1개 이상을 사용한 경우임.

3) '기타'에는 '개인 사유', '업무의 유연성을 위해', '자연재해로 인해'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유연근무제도 이용의 어려움은 '어려운 점 없음'이 39.6%,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17.5%,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협력이 어려움' 12.2%,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번거로움' 6.8%,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그룹웨어, 온라인 소통 방식 등)' 6.4%, '제도 이용 시 불이익 우려' 6.1%,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개인 업무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자택의 환경 등)' 4.8%, '임금 근로와 가사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더 피

곤함' 4.9%, '회사의 노동 감시가 오히려 더 심해짐' 1.1%, '기타' 0.5%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던 '어려운 점 없음'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나 교대제 근무가 아닌 경우가 교대제 근무인 경우보다 17.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는 조직 규모가 5인 미만에 비하여 300인 이상이 11.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유연근무제도 이용의 어려움(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없음	② 조직 문화	③ 신청 절차	④ 불이익 우려	⑤ 소통 협력	⑥ 시스 템	⑦ 개인 환경	⑧ 경계 모호	⑨ 노동 감시	기타	전체	
전체		39.6	17.5	6.8	6.1	12.2	6.4	4.8	4.9	1.1	0.5	(4,863) 100.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37.3	18.5	7.4	7.1	13.0	6.4	4.7	4.3	0.9	0.5	(2,806) 100.0	
	여성	42.8	16.2	6.0	4.8	11.2	6.4	5.0	5.8	1.4	0.5	(2,057) 100.0	
	연령												
	만19~29세	41.7	15.4	9.5	7.8	11.6	5.7	3.4	3.6	1.0	0.4	(1,076) 100.0	
	만30~39세	41.5	19.8	5.5	5.9	11.8	5.5	4.6	3.4	1.2	0.9	(1,291) 100.0	
	만40~49세	34.3	19.6	6.8	6.3	12.5	7.8	4.8	6.7	0.9	0.4	(1,318) 100.0	
	만50~59세	41.4	14.6	5.9	4.6	12.9	6.5	6.5	5.8	1.3	0.4	(1,178)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38.7	14.4	9.5	7.7	9.3	7.3	5.3	5.4	2.1	0.2	(483) 100.0	
200~300만 원 미만	43.2	16.4	7.5	5.4	11.4	5.5	5.0	4.5	0.6	0.5	(1,196) 100.0		
300~400만 원 미만	37.6	17.7	7.5	6.9	11.5	7.4	5.8	4.4	1.0	0.2	(1,128) 100.0		
400만 원 이상	39.2	18.5	5.4	5.5	13.8	6.1	4.1	5.3	1.2	0.8	(1,980) 100.0		
무응답	26.9	26.0	5.8	10.0	13.3	8.3	3.7	6.0	0.0	0.0	(76) 100.0		
일자리 특성	중상상지위												
	상용근로자	39.6	18.3	6.4	5.8	12.3	6.4	4.8	4.7	1.1	0.6	(4,159) 100.0	
	임시·일용근로자	39.4	12.5	9.4	8.0	11.6	6.3	4.9	6.4	1.3	0.1	(703)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40.7	15.1	6.7	6.4	13.7	6.5	4.1	5.4	0.9	0.5	(1,456) 100.0	
	사무종사자	39.8	19.2	5.7	5.0	11.7	6.3	5.3	4.8	1.3	0.7	(2,399)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40.1	16.6	9.0	8.5	10.8	5.3	4.2	4.7	0.7	0.1	(595) 100.0	
	기타	33.4	17.4	10.3	7.7	11.8	8.0	5.5	4.2	1.1	0.4	(412) 100.0	
	산업												
	제조업	35.7	21.5	6.5	6.4	13.2	4.9	3.3	6.7	1.3	0.6	(809)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38.8	18.9	7.8	6.8	11.2	6.0	4.3	5.1	0.9	0.1	(585)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40.0	14.5	6.6	6.5	11.5	7.6	6.3	5.4	1.1	0.5	(962) 100.0	
	그 외 서비스업	44.1	14.5	6.9	5.4	9.9	6.3	5.3	5.8	1.6	0.2	(816) 100.0	
기타	39.3	18.3	6.7	5.8	13.7	6.6	4.7	3.3	0.8	0.8	(1,691) 100.0		

구분	① 없음	① 조직 문화	② 신청 절차	③ 불이익 우려	④ 소통· 협력	⑤ 시스 템	⑥ 개인 환경	⑦ 경계 모호	⑧ 노동 감시	⑨ 기타	전체
조직 규모											
5인 미만	45.7	11.4	7.1	7.8	11.4	7.5	4.2	4.2	0.7	0.2	(514) 100.0
5~30인 미만	41.0	14.7	6.5	7.1	10.7	7.1	5.5	5.7	1.4	0.3	(1,223) 100.0
30~100인 미만	39.7	15.5	6.3	5.5	13.6	7.1	6.2	4.9	1.0	0.2	(998) 100.0
100~300인 미만	36.8	19.1	8.6	7.2	11.9	6.8	3.0	4.7	1.5	0.3	(675) 100.0
300인 이상	37.4	22.7	6.4	4.5	13.0	4.7	4.4	4.7	0.8	1.2	(1,452)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40.3	17.5	6.2	5.5	12.6	6.2	4.5	5.4	1.2	0.5	(3,525)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37.6	17.5	8.4	7.6	11.2	6.8	5.7	3.8	0.7	0.6	(1,338)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39.1	18.8	6.3	5.8	12.6	6.3	5.0	4.5	1.1	0.6	(3,791) 100.0
비정규직	44.7	14.2	7.0	5.8	9.5	7.3	3.2	6.4	1.1	0.8	(368)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34.7	14.6	12.8	10.6	10.4	6.3	4.5	4.9	1.1	0.1	(883) 100.0
전일제 근무	40.7	18.2	5.5	5.1	12.6	6.4	4.9	4.9	1.1	0.6	(3,980)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23.7	19.4	16.8	13.5	14.0	6.1	1.7	3.9	0.9	0.0	(451) 100.0
교대제 아님	41.2	17.3	5.8	5.3	12.0	6.4	5.1	5.0	1.1	0.6	(4,412) 100.0
제도 사용											
사용한 제도 종류											
시간 제도	44.3	19.0	7.6	5.7	9.9	6.4	3.2	2.6	0.6	0.7	(1,679) 100.0
장소 제도	32.3	15.1	5.9	6.6	15.9	8.3	6.9	7.1	1.3	0.5	(1,652) 100.0
시간·장소 모두	42.3	18.4	6.9	5.9	10.9	4.4	4.4	5.1	1.4	0.4	(1,531) 100.0

주: 1) ① 어려운 점 없음 ①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②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번거로움 ③ 제도 이용 시 불이익 우려 ④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협력이 어려움 ⑤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그룹웨어, 온라인 소통 방식 등) ⑥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개인 업무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자택의 환경 등) ⑦ 임금 근로와 가사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더 피곤함 ⑧ 회사의 노동 감시가 오히려 더 심해짐 ⑨ 기타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에는 '일찍 출근할수록 더 많은 야근과 일을 해야 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필요한 자료의 획득이 어려움'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이용할 필요가 없었음' 48.5%,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그룹웨어, 온라인 소통 방식 등)' 12.3%,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협력이 어려움' 10.2%, '제도 이용 시 불이익 우려' 8.5%,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번거로움' 6.8%,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개인 업무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자택의 환

경 등) 6.2%, ‘임금 근로와 가사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더 피곤할 것 같아서’ 2.5%, ‘회사의 노동 감시가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아서’ 1.3%, ‘기타’ 3.8%로 나타나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이용할 필요가 없음’은 월평균 개인소득이 400만 원 이상보다 200만 원 미만이 1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그룹웨어, 온라인 소통 방식 등)’은 대부분 집단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유연근무제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필요 없음	② 신청 절차 우려	③ 불이익 우려	④ 소통 협력 힘력	⑤ 회사 시스템	⑥ 개인 환경	⑦ 경계 모호	⑧ 노동 감시	⑨ 기타	전체	
전체	48.5	6.8	8.5	10.2	12.3	6.2	2.5	1.3	3.8	(3,964) 100.0	
성별	남성	48.1	6.7	9.3	12.2	11.9	5.5	2.2	1.1	3.0	(2,206) 100.0
	여성	49.0	6.8	7.4	7.7	12.8	7.1	2.8	1.6	4.8	(1,757) 100.0
연령	만19~29세	50.4	7.5	8.7	10.5	9.9	4.9	2.1	2.6	3.5	(850) 100.0
	만30~39세	42.3	8.2	12.0	10.7	10.5	6.9	2.5	1.4	5.4	(899) 100.0
	만40~49세	43.2	6.9	9.5	12.1	13.9	6.4	3.3	1.1	3.6	(1,092) 100.0
	만50~59세	57.2	5.0	4.4	7.7	13.9	6.5	1.8	0.4	3.1	(1,122) 100.0
개인 혼인상태	미혼	49.9	7.7	8.2	9.5	10.6	5.8	2.3	1.8	4.2	(1,575) 100.0
	기혼	47.6	6.1	8.6	10.6	13.4	6.5	2.6	1.0	3.6	(2,389) 100.0
가족 특성	맞벌이 여부										
	맞벌이 비맞벌이	45.8 50.7	6.9 4.2	9.1 8.3	11.1 10.7	13.6 12.9	5.8 7.2	2.7 2.4	1.1 0.6	3.9 3.0	(1,753) (51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8.1	7.1	9.8	9.9	10.9	6.7	1.7	1.6	4.2	(1,218) 100.0
	자녀 있음	48.1	6.1	8.0	10.7	14.2	6.0	2.8	0.9	3.3	(1,970)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57.8	5.4	6.6	5.4	10.2	7.8	2.9	0.7	3.0	(493) 100.0
	200~300만 원 미만	48.7	7.5	8.2	7.8	13.4	6.8	2.1	1.5	3.9	(1,201) 100.0
	300~400만 원 미만	45.1	6.4	9.5	10.7	12.8	5.4	3.4	1.9	4.7	(911) 100.0
	400만 원 이상	47.4	6.6	8.6	13.9	11.8	5.7	2.0	0.7	3.3	(1,308) 100.0
	무응답	40.4	12.9	8.5	9.6	7.2	8.1	0.0	4.9	8.3	(52) 100.0

구분	① 필요 없음	① 신청 절차	② 불이익 우려	③ 소통 협력	④ 회사 시스템	⑤ 개인 환경	⑥ 경계 모호	⑦ 노동 감시	⑧ 기타	전체
총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7.7	7.1	8.5	10.5	12.3	6.0	2.3	1.3	4.2	(3,378) 100.0
임시·일용근로자	53.1	4.6	8.0	8.3	12.3	7.3	3.5	1.1	2.0	(586)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49.6	6.4	7.6	13.6	11.0	5.9	2.0	0.7	3.3	(1,017) 100.0
사무종사자	46.1	7.5	9.6	11.0	11.7	5.9	2.8	1.7	3.7	(1,616)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49.5	6.4	8.9	6.4	13.3	7.0	1.9	1.1	5.4	(743) 100.0
기타	52.0	5.8	6.3	6.8	14.9	6.6	2.9	1.4	3.3	(587) 100.0
산업										
제조업	48.1	6.6	9.3	11.5	12.9	6.1	1.8	1.5	2.1	(748)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50.0	3.3	7.3	8.4	15.2	7.7	2.5	2.2	3.3	(517)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50.4	7.2	7.3	8.5	11.7	6.5	2.9	1.1	4.5	(1,038) 100.0
그 외 서비스업	46.0	7.0	8.4	10.2	11.6	7.9	3.5	1.0	4.3	(497) 100.0
기타	47.4	7.9	9.5	11.6	11.5	4.6	2.0	1.1	4.4	(1,163) 100.0
일자리 특성										
조직 규모										
5인 미만	52.6	5.3	6.1	8.9	14.1	6.3	1.7	2.5	2.6	(386) 100.0
5~30인 미만	50.9	5.9	7.5	8.8	13.8	6.6	2.4	1.3	2.9	(1,076) 100.0
30~100인 미만	46.7	7.2	9.3	9.5	13.2	6.4	2.7	1.1	3.9	(972) 100.0
100~300인 미만	47.0	6.6	8.5	10.8	12.4	6.2	3.8	0.9	3.8	(549) 100.0
300인 이상	46.8	8.0	9.6	12.5	8.9	5.6	1.9	1.3	5.4	(980)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46.8	6.6	8.4	10.8	13.3	6.7	2.4	1.6	3.3	(2,679)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52.1	7.0	8.6	8.8	10.1	5.1	2.6	0.7	4.9	(1,284)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47.4	7.3	8.6	11.0	12.3	6.0	2.3	1.3	3.8	(3,026) 100.0
비정규직	50.2	5.5	8.2	6.8	11.9	6.1	2.0	2.0	7.3	(351)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51.0	5.4	10.0	8.6	11.7	7.3	2.8	1.0	2.1	(734) 100.0
전일제 근무	47.9	7.1	8.1	10.5	12.4	6.0	2.4	1.4	4.2	(3,229)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47.7	5.8	9.6	8.6	14.0	7.7	1.7	0.4	4.5	(625) 100.0
교대제 아님	48.6	6.9	8.2	10.5	12.0	5.9	2.6	1.5	3.7	(3,338) 100.0

주: 1) ① 이용할 필요가 없었음 ①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번거로움 ② 제도 이용 시 불이익 우려 ③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협력이 어려움 ④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그룹웨어, 온라인 소통 방식 등) ⑤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개인 업무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자택의 환경 등) ⑥ 임금 근로와 가사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더 피곤할 것 같아서 ⑦ 회사의 노동 감시가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아서 ⑧ 기타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에는 '업무특성상 어려움', '특수한 상황에만 사용 가능해서', '대체인력 부족'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도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그렇다’¹⁵⁾쪽에 응답한 비율은 84.4%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연근무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7.0% 포인트 더 높고, 20대와 30대에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기혼보다 미혼, 비맞벌이보다 맞벌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로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400만 원 미만인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직종에서는 사무종사자, 산업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그 외 서비스업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고,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교대제가 아닌 경우에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연근무를 사용한 경우¹⁶⁾가 없는 경우보다 7.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체	
전체		3.1	12.5	15.6	59.2	25.2	84.4	(15,862)	100.0
개인	성별($\chi^2=169.92^{***}$)								
	남성	3.8	14.9	18.7	58.5	22.8	81.3	(8,731)	100.0
	여성	2.2	9.5	11.7	60.1	28.2	88.3	(7,131)	100.0
가족 특성	연령($\chi^2=568.50^{***}$)								
	만19~29세	2.6	10.1	12.7	56.0	31.2	87.3	(3,482)	100.0
	만30~39세	2.4	9.8	12.2	52.6	35.2	87.8	(3,848)	100.0
	만40~49세	3.1	14.0	17.2	61.1	21.7	82.8	(4,381)	100.0
	만50~59세	4.0	15.4	19.4	65.9	14.7	80.6	(4,152)	100.0

15)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16) 유연근무제도 사용 경험은 유연근무제도 사용 경험 질문에서 어떤 제도도 사용한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음’, 한 가지라도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있음’에 해당.

구분	그렇다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일자리 특성	거주지($x^2=66.83^{***}$)								
	수도권	2.9	11.9	14.8	57.4	27.8	85.2	(8,633)	100.0
	비수도권	3.3	13.2	16.5	61.3	22.2	83.5	(7,229)	100.0
	혼인상태($x^2=63.32^{***}$)								
	미혼	2.8	11.0	13.8	58.0	28.2	86.2	(6,612)	100.0
	기혼	3.3	13.5	16.8	60.0	23.2	83.2	(9,250)	100.0
	맞벌이 여부($x^2=18.70^{***}$)								
	맞벌이	3.1	12.9	16.0	59.6	24.3	84.0	(6,751)	100.0
	비맞벌이	3.3	15.1	18.4	61.6	19.9	81.6	(1,925)	100.0
	자녀 유무($x^2=123.44^{***}$)								
	자녀 없음	2.6	10.6	13.2	57.2	29.7	86.8	(5,115)	100.0
	자녀 있음	3.3	13.8	17.1	61.5	21.4	82.9	(7,417)	100.0
	월평균 개인소득($x^2=91.04^{***}$)								
	200만 원 미만	3.7	11.4	15.1	63.8	21.1	84.9	(2,096)	100.0
	200~300만 원 미만	2.6	10.8	13.5	60.4	26.1	86.5	(4,901)	100.0
	300~400만 원 미만	2.9	12.5	15.4	55.9	28.7	84.6	(3,639)	100.0
	400만 원 이상	3.3	14.6	17.9	58.6	23.6	82.1	(4,994)	100.0
	무응답	4.7	12.3	17.1	57.2	25.8	82.9	(233)	100.0
	종사상지위($x^2=17.21^{**}$)								
	상용근로자	3.0	12.5	15.6	58.6	25.8	84.4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3.3	12.2	15.5	62.4	22.1	84.5	(2,471)	100.0
	직종($x^2=251.82^{***}$)								
	관리자·전문가	3.7	13.9	17.7	57.6	24.7	82.3	(4,117)	100.0
	사무종사자	1.9	10.4	12.3	57.9	29.8	87.7	(6,794)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3.6	12.5	16.0	64.3	19.7	84.0	(2,652)	100.0
	기타	4.7	16.2	20.9	60.1	19.0	79.1	(2,299)	100.0
	산업($x^2=67.60^{***}$)								
	제조업	3.7	14.8	18.5	55.8	25.7	81.5	(3,166)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3.2	13.0	16.1	61.4	22.4	83.9	(2,397)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2.8	11.7	14.4	62.5	23.1	85.6	(3,630)	100.0	
그 외 서비스업	3.1	11.7	14.7	59.1	26.1	85.3	(2,315)	100.0	
기타	2.8	11.7	14.5	57.7	27.8	85.5	(4,354)	100.0	
조직 규모($x^2=120.65^{***}$)									
5인 미만	4.5	12.7	17.2	64.0	18.8	82.8	(2,052)	100.0	
5~30인 미만	3.2	12.0	15.2	61.2	23.6	84.8	(5,105)	100.0	
30~100인 미만	2.3	13.4	15.7	58.9	25.4	84.3	(3,435)	100.0	
100~300인 미만	2.6	13.0	15.6	55.9	28.5	84.4	(2,050)	100.0	
300인 이상	3.1	11.8	14.9	55.4	29.7	85.1	(3,220)	100.0	
조직 영역($x^2=6.36$)									
민간 및 기타	3.2	12.7	15.9	58.8	25.3	84.1	(12,38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2.6	11.8	14.4	60.6	24.9	85.6	(3,474)	100.0	
정규직 여부($x^2=10.13^*$)									
정규직	3.0	12.7	15.7	58.2	26.1	84.3	(12,053)	100.0	
비정규직	3.2	10.8	14.1	62.3	23.6	85.9	(1,339)	100.0	

구분	그렇다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시간제 여부 ($x^2=99.63^{***}$)							
시간제 근무	4.7	14.8	19.5	61.3	19.2	80.5	(2,902) 100.0
전일제 근무	2.7	12.0	14.7	58.7	26.6	85.3	(12,961) 100.0
교대제 여부 ($x^2=107.54^{***}$)							
교대제 근무	5.4	16.7	22.1	59.0	18.9	77.9	(1,955) 100.0
교대제 아님	2.7	11.9	14.6	59.2	26.1	85.4	(13,907) 100.0
유연 근무 제도	제도 사용 경험 ($x^2=214.88^{***}$)						
없음	4.2	16.9	21.1	60.8	18.1	78.9	(3,964) 100.0
있음	2.2	11.2	13.4	56.4	30.2	86.6	(4,863)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개인소득의 x^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4) 유연근무제도 사용 경험은 유연근무제도 사용 경험 질문에서 어떤 제도도 사용한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없음', 한 가지라도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있음'에 해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근무환경에 있어서 유연한 시간과 장소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연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46.7%, 시간과 장소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응답이 37.6%, 장소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5.7%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시간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미혼보다 기혼, 비맞벌이보다 맞벌이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보다 상용근로자, 판매 및 서비스종사자인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유연근무제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시간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리자 및 전문가와 사무종사자,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경우, 정규직, 시간제,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유연근무제도 사용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유연한 장소 선택이 가능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8〉 근무환경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유연한 시간 사용이 더 중요	유연한 장소 선택이 더 중요	시간과 장소 동등하게 중요	전체	
전체		46.7	15.7	37.6	(13,394)	100.0
개인 · 가족 특성	성별($x^2=44.81^{***}$)					
	남성	45.6	17.7	36.8	(7,098)	100.0
	여성	48.0	13.5	38.5	(6,296)	100.0
	연령($x^2=62.95^{***}$)					
	만19~29세	42.8	17.4	39.8	(3,039)	100.0
	만30~39세	44.1	16.1	39.8	(3,378)	100.0
	만40~49세	48.4	16.0	35.6	(3,629)	100.0
	만50~59세	51.0	13.5	35.5	(3,348)	100.0
	거주지($x^2=59.39^{***}$)					
	수도권	43.8	17.0	39.2	(7,356)	100.0
	비수도권	50.3	14.1	35.6	(6,038)	100.0
	혼인상태($x^2=46.00^{***}$)					
	미혼	43.4	16.3	40.3	(5,698)	100.0
	기혼	49.2	15.2	35.6	(7,696)	100.0
	맞벌이 여부($x^2=1.25$)					
	맞벌이	49.2	15.6	35.2	(5,669)	100.0
	비맞벌이	48.5	14.9	36.6	(1,570)	100.0
	자녀 유무($x^2=28.89^{***}$)					
	자녀 없음	44.4	16.4	39.1	(4,442)	100.0
	자녀 있음	49.7	15.1	35.2	(6,147)	100.0
월평균 개인소득($x^2=28.69^{***}$)						
200만 원 미만	44.1	15.3	40.7	(1,781)	100.0	
200~300만 원 미만	46.7	14.4	38.9	(4,240)	100.0	
300~400만 원 미만	47.5	15.2	37.2	(3,078)	100.0	
400만 원 이상	47.6	17.3	35.1	(4,102)	100.0	
무응답	39.9	20.3	39.8	(193)	100.0	
종사상지위($x^2=16.69^{***}$)						
상용근로자	47.5	15.4	37.2	(11,306)	100.0	
임시·일용근로자	42.7	17.5	39.8	(2,088)	100.0	
일자리 특성	직종($x^2=49.87^{***}$)					
관리자·전문가	48.1	17.4	34.5	(3,390)	100.0	
사무종사자	44.4	16.2	39.5	(5,957)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50.3	13.5	36.2	(2,227)	100.0	
기타	47.5	13.6	39.0	(1,819)	100.0	

구분	유연한 시간 사용이 더 중요	유연한 장소 선택이 더 중요	시간과 장소 동등하게 중요	전체		
산업($x^2=58.22^{***}$)						
제조업	49.2	15.3	35.5	(2,582)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44.6	17.0	38.4	(2,011)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51.3	13.8	35.0	(3,106)	100.0	
그 외 서비스업	43.9	15.6	40.5	(1,974)	100.0	
기타	43.9	16.9	39.2	(3,721)	100.0	
조직 규모($x^2=9.42$)						
5인 미만	47.0	14.6	38.3	(1,699)	100.0	
5~30인 미만	46.9	15.4	37.7	(4,330)	100.0	
30~100인 미만	47.1	17.0	36.0	(2,894)	100.0	
100~300인 미만	46.1	16.3	37.6	(1,730)	100.0	
300인 이상	46.3	15.0	38.7	(2,740)	100.0	
조직 영역($x^2=0.73$)						
민간 및 기타	46.6	15.6	37.8	(10,421)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47.2	15.9	36.9	(2,973)	100.0	
정규직 여부($x^2=11.60^{**}$)						
정규직	47.5	15.7	36.8	(10,156)	100.0	
비정규직	46.6	12.5	40.9	(1,150)	100.0	
시간제 여부($x^2=31.83^{***}$)						
시간제 근무	43.5	19.4	37.1	(2,337)	100.0	
전일제 근무	47.4	14.9	37.7	(11,057)	100.0	
교대제 여부($x^2=16.18^{***}$)						
교대제 근무	47.1	18.8	34.1	(1,523)	100.0	
교대제 아님	46.7	15.3	38.0	(11,871)	100.0	
유연 근무 제도	제도 사용 경험($x^2=39.93^{***}$)					
	없음	48.7	15.9	35.4	(3,128)	100.0
	있음	42.0	20.3	37.7	(4,212)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개인소득의 x^2 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4) 유연근무제도 사용 경험은 유연근무제도 사용 경험 질문에서 어떤 제로도 사용한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없음', 한 가지라도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있음'에 해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임신·출산 및 돌봄 관련 일-생활 균형 제도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는 유연근무제도 이외에 임신·출산기와 양육기에 사용 가능한 제도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제도와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제도를 나누어 살펴본다.

1.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

임신·출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이용 용이성,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용 용이성은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질문하였으며, 표에 제시한 수치는 ‘잘 모르겠음’에 대한 응답은 제외하고 ‘쉬운 편임’과 ‘매우 쉬움’을 더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용 경험은 최근 3년(2020년~현재) 이내에 제도 이용 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제도 이용 경험이 ‘있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임신·출산 관련 제도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난임치료 휴가제도, 태아검진시간 보장, 유산·사산 휴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생리휴가까지 더해 살펴본다.¹⁷⁾

먼저 임신·출산 관련 제도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난임치료 휴가제도를 살펴보았다. 인지 비율을 살펴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은 48.0%, 출산전후휴가제도는 76.5%,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76.9%, 난임치료 휴가제도는 39.4%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인지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대부분 제도

17) 그 외의 임신부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부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임신 중 근로 전환, 임신부 위험·유해직종 근무 금지, 수유시간 허용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 정도를 부표에 결과로 제시한다.

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인지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보다는 기혼,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인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보다는 상용근로자, 직종은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에서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에서 높고,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인지율도 높아졌다. 또한, 민간 및 기타보다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정규직, 교대제가 아닌 경우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비율이 높았다.

이용 용이성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64.5%, 출산전후휴가제도는 71.2%,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56.7%, 난임치료 휴가제도는 62.9%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는 대부분 제도 이용 용이에 있어서 여성보다 남성, 임시·일용 근로자보다 상용근로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중에서는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산업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에서 이용 용이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이용 용이성도 증가하는데 5인 미만과 300인 이상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 영역에서는 민간 및 기타보다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인 경우의 이용 용이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용 경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42.9%, 출산전후휴가제도는 56.9%,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44.1%, 난임치료 휴가제도는 7.8%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임신 및 출산 이행 비율이 높은 30대에서 자연스럽게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의 이용 경험률이 높고, 직종이 사무종사자인 경우 대체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 영역이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정규직, 교대제가 아닌 경우의 제도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임산·출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이용 용이 및 경험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난임치료 휴가제도

구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난임치료 휴가제도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5,862)	48.0	(7,621)	64.5	(2,668)	42.9	(15,863)	76.5	(2,133)	71.2	(222)	56.9	(15,862)	76.9	(2,193)	56.7	(647)	44.1	(15,862)	39.4	(6,251)	62.9	(342)	7.8	(8,731)	35.5	(3,102)	69.6	(209)	8.0	(7,131)	44.1	(3,148)	56.0	(133)	7.3						
성별																																										
남성	(8,731)	43.0	(3,751)	71.2	-	-	(8,731)	71.7	(6,257)	75.0	-	-	(8,731)	73.3	(3,399)	62.5	(647)	44.1	(8,731)	35.5	(3,102)	69.6	(209)	8.0	(7,131)	44.1	(3,148)	56.0	(133)	7.3												
여성	(7,131)	54.3	(3,870)	57.9	(2,668)	42.9	(7,131)	82.4	(5,877)	67.3	(222)	56.9	(7,131)	81.2	(5,793)	49.6	-	-	(7,131)	44.1	(3,148)	56.0	(133)	7.3																		
연령																																										
만19~29세	(3,482)	41.5	(1,445)	67.9	(41)	28.8	(3,482)	70.9	(2,468)	71.4	(25)	31.4	(3,482)	68.7	(2,393)	57.7	(78)	16.0	(3,482)	30.3	(1,056)	58.2	(59)	7.1	(3,482)	41.2	(1,387)	59.7	(109)	7.7												
만30~39세	(3,848)	55.7	(2,142)	62.9	(174)	54.6	(3,848)	76.2	(2,933)	74.1	(159)	61.4	(3,848)	77.4	(2,980)	60.3	(556)	57.9	(3,848)	41.2	(1,387)	59.7	(109)	7.7	(3,848)	42.9	(1,879)	62.4	(122)	9.5												
만40~49세	(4,381)	48.9	(2,142)	62.1	(53)	15.5	(4,381)	78.2	(3,427)	70.7	(38)	54.8	(4,381)	79.0	(3,463)	54.5	(164)	39.7	(4,381)	42.9	(1,879)	62.4	(122)	9.5	(4,381)	41.6	(1,728)	68.3	(52)	4.5												
만50~59세	(4,152)	45.6	(1,892)	66.6	-	-	(4,152)	79.6	(3,306)	69.0	-	-	(4,152)	80.8	(3,357)	55.2	(49)	3.4	(4,152)	41.6	(1,728)	68.3	(52)	4.5																		
가주지																																										
수도권	(8,633)	47.7	(4,115)	64.3	(148)	45.9	(8,633)	75.4	(6,510)	72.4	(127)	58.8	(8,633)	76.0	(6,563)	55.9	(352)	44.8	(8,633)	38.0	(3,277)	61.2	(185)	6.9	(7,229)	48.5	(3,505)	64.7	(120)	39.3	(7,229)	77.8	(5,623)	69.8	(95)	54.4	(7,229)	41.1	(2,974)	64.7	(157)	8.8
비수도권	(7,229)	48.5	(3,505)	64.7	(120)	39.3	(7,229)	77.8	(5,623)	69.8	(95)	54.4	(7,229)	77.9	(5,628)	57.6	(295)	43.2	(7,229)	41.1	(2,974)	64.7	(157)	8.8																		
혼인상태																																										
미혼	(6,612)	41.9	(2,770)	66.8	(44)	4.7	(6,612)	70.8	(4,684)	71.2	(2)	100.0	(6,612)	69.6	(4,604)	54.6	(90)	7.5	(6,612)	31.2	(2,063)	61.1	(97)	5.9	(6,612)	41.9	(2,770)	66.8	(44)	4.7												
기혼	(9,250)	52.4	(4,850)	63.3	(223)	50.5	(9,250)	80.5	(7,449)	71.2	(220)	56.6	(9,250)	82.0	(7,588)	57.7	(557)	50.0	(9,250)	45.3	(4,187)	63.7	(245)	8.5	(9,250)	52.4	(4,850)	63.3	(223)	50.5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115)	45.6	(2,332)	65.1	(84)	43.1	(5,115)	73.9	(3,782)	70.2	(59)	14.7	(5,115)	73.8	(3,775)	53.7	(94)	2.6	(5,115)	34.5	(1,764)	57.4	(110)	13.8	(5,115)	45.6	(2,332)	65.1	(84)	43.1												
자녀 있음	(7,417)	53.3	(3,953)	63.3	(160)	49.1	(7,417)	81.6	(6,050)	71.5	(161)	72.0	(7,417)	83.0	(6,153)	58.6	(488)	56.9	(7,417)	46.1	(3,416)	65.5	(164)	4.3	(7,417)	53.3	(3,953)	63.3	(160)	49.1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096)	35.7	(748)	53.7	(21)	23.9	(2,096)	71.2	(1,492)	58.3	(20)	58.8	(2,096)	69.6	(1,459)	40.8	(22)	28.1	(2,096)	28.2	(592)	49.1	(31)	22.5	(2,096)	35.7	(748)	53.7	(21)	23.9												
200~300만 원 미만	(4,901)	45.3	(2,222)	58.1	(106)	54.7	(4,901)	74.9	(3,673)	62.3	(85)	56.6	(4,901)	74.8	(3,666)	47.7	(113)	39.0	(4,901)	34.9	(1,711)	55.6	(80)	5.3	(4,901)	45.3	(2,222)	58.1	(106)	54.7												
300~400만 원 미만	(3,639)	49.4	(1,799)	61.4	(76)	34.8	(3,639)	77.3	(2,813)	72.1	(69)	48.8	(3,639)	77.4	(2,815)	57.1	(183)	44.8	(3,639)	39.8	(1,450)	61.2	(84)	9.9	(3,639)	49.4	(1,799)	61.4	(76)	34.8												
400만 원 이상	(4,994)	54.9	(2,743)	73.2	(56)	40.3	(4,994)	79.7	(3,979)	81.4	(43)	65.7	(4,994)	81.8	(4,086)	67.3	(317)	47.1	(4,994)	48.0	(2,397)	71.5	(142)	4.9	(4,994)	54.9	(2,743)	73.2	(56)	40.3												
무응답	(233)	46.6	(109)	67.9	(9)	33.5	(233)	75.8	(176)	74.5	(5)	88.9	(233)	71.6	(167)	57.8	(12)	29.3	(233)	43.4	(101)	58.7	(5)	0.0	(233)	46.6	(109)	67.9	(9)	33.5												
총사양서위																																										
상용근로자	(3,392)	50.2	(6,728)	64.9	(246)	45.3	(3,392)	77.9	(10,436)	72.1	(203)	59.5	(3,392)	78.4	(10,319)	58.1	(618)	45.7	(3,392)	41.3	(5,537)	63.4	(298)	7.9	(3,392)	50.2	(6,728)	64.9	(246)	45.3												
임시·일용근로자	(2,471)	36.1	(893)	60.2	(22)	16.2	(2,471)	68.7	(1,697)	64.2	(19)	28.6	(2,471)	68.3	(1,689)	45.7	(29)	9.2	(2,471)	28.9	(714)	58.1	(43)	6.7	(2,471)	36.1	(893)	60.2	(22)	16.2												
직종																																										
관리자·전문가	(4,117)	50.3	(2,073)	69.2	(55)	32.1	(4,117)	76.2	(3,139)	75.1	(52)	47.3	(4,117)	77.5	(3,192)	60.9	(226)	40.4	(4,117)	42.4	(1,747)	67.4	(111)	8.7	(4,117)	50.3	(2,073)	69.2	(55)	32.1												

(단위: %, 명)

구분	인식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남임차료 휴가제도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시무종사자	(6,794)	53.8	(5,655)	64.6	(151)	51.8	(6,794)	79.9	(5,426)	73.5	(123)	64.1	(6,794)	80.1	(5,440)	58.5	(276)	50.0	(6,794)	43.4	(2,951)	63.2	(140)	7.9
판매·서비스종사자	(2,652)	41.8	(1,109)	59.0	(48)	31.5	(2,652)	75.2	(1,996)	63.6	(41)	50.2	(2,652)	73.5	(1,949)	47.4	(48)	41.6	(2,652)	34.7	(921)	55.9	(50)	8.7
기타	(2,299)	34.1	(784)	57.6	(13)	28.5	(2,299)	68.4	(1,573)	62.6	(6)	38.5	(2,299)	70.0	(1,610)	51.4	(97)	36.9	(2,299)	27.5	(632)	58.2	(41)	3.5
산업																								
제조업	(3,166)	45.6	(1,443)	60.1	(33)	53.8	(3,166)	76.3	(2,415)	68.9	(23)	72.4	(3,166)	78.2	(2,477)	56.2	(181)	46.7	(3,166)	34.5	(1,093)	58.2	(69)	6.0
도소매·음수·숙박·음식점업	(2,397)	39.6	(949)	57.4	(31)	56.0	(2,397)	72.2	(1,731)	62.4	(28)	62.2	(2,397)	71.7	(1,719)	44.3	(68)	44.2	(2,397)	30.3	(726)	52.9	(38)	14.5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3,630)	55.6	(2,020)	63.0	(104)	34.1	(3,630)	80.7	(2,928)	72.6	(88)	50.7	(3,630)	78.9	(2,865)	57.8	(111)	44.0	(3,630)	47.1	(1,711)	62.7	(95)	10.2
그 외 서비스업	(2,315)	44.7	(1,034)	64.6	(31)	55.8	(2,315)	74.9	(1,735)	69.6	(29)	53.7	(2,315)	75.4	(1,745)	53.7	(71)	40.5	(2,315)	35.4	(819)	60.9	(39)	3.4
기타	(4,354)	50.0	(2,175)	71.7	(69)	39.4	(4,354)	76.4	(3,325)	76.6	(54)	59.4	(4,354)	77.7	(3,384)	63.2	(215)	43.0	(4,354)	43.7	(1,901)	70.0	(101)	5.9
조직 규모																								
5인 미만	(2,052)	36.9	(757)	49.2	(27)	23.3	(2,052)	71.6	(1,470)	51.4	(18)	42.9	(2,052)	70.0	(1,436)	38.1	(29)	23.4	(2,052)	30.7	(631)	50.0	(37)	0.0
5-30인 미만	(5,105)	42.4	(2,164)	52.1	(81)	32.2	(5,105)	74.1	(3,782)	58.7	(72)	57.4	(5,105)	74.1	(3,784)	42.4	(141)	33.4	(5,105)	32.8	(1,676)	48.4	(99)	8.9
30-100인 미만	(3,435)	50.5	(1,735)	65.6	(55)	52.9	(3,435)	77.8	(2,672)	74.9	(44)	59.7	(3,435)	78.1	(2,681)	59.5	(146)	41.5	(3,435)	41.5	(1,427)	66.5	(74)	6.1
100-300인 미만	(2,050)	51.6	(1,057)	69.6	(45)	56.4	(2,050)	78.8	(1,615)	79.9	(33)	54.5	(2,050)	78.4	(1,608)	64.1	(110)	57.9	(2,050)	41.8	(858)	65.0	(49)	9.0
300인 이상	(3,220)	59.2	(1,908)	79.2	(60)	46.8	(3,220)	80.6	(2,594)	88.0	(55)	60.0	(3,220)	83.3	(2,683)	75.7	(221)	48.4	(3,220)	51.5	(1,660)	77.3	(83)	10.5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2,388)	44.9	(5,556)	58.0	(179)	38.0	(2,388)	74.8	(9,267)	65.8	(145)	52.5	(2,388)	75.2	(9,321)	49.6	(487)	43.0	(2,388)	34.1	(4,226)	53.4	(230)	7.2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3,474)	59.4	(2,064)	80.3	(88)	52.8	(3,474)	82.5	(2,866)	86.6	(77)	65.3	(3,474)	82.6	(2,870)	77.5	(160)	47.5	(3,474)	58.3	(2,025)	80.5	(112)	8.8
장규직 여부																								
장규직	(2,053)	50.9	(6,133)	64.9	(228)	45.5	(2,053)	78.1	(9,408)	72.7	(190)	61.0	(2,053)	78.8	(9,498)	58.8	(599)	46.3	(2,053)	41.9	(5,055)	63.7	(282)	8.4
장규직 여부	(1,339)	44.4	(595)	65.2	(17)	42.8	(1,339)	76.8	(1,029)	66.3	(13)	37.3	(1,339)	75.1	(1,005)	50.4	(19)	28.9	(1,339)	36.0	(482)	60.5	(17)	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2,902)	39.6	(1,150)	61.1	(29)	17.5	(2,902)	69.9	(2,027)	62.9	(27)	42.1	(2,902)	69.0	(2,002)	49.4	(69)	24.4	(2,902)	33.0	(956)	57.5	(79)	7.5
전일제 근무	(2,296)	49.9	(6,470)	65.0	(238)	46.0	(2,296)	78.0	(10,106)	72.7	(195)	58.9	(2,296)	78.6	(10,189)	58.0	(578)	46.4	(2,296)	40.8	(5,294)	63.8	(263)	7.8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1,955)	41.6	(813)	66.1	(17)	39.5	(1,955)	70.6	(1,380)	72.1	(17)	49.8	(1,955)	71.4	(1,395)	62.6	(85)	35.3	(1,955)	37.5	(733)	65.2	(67)	6.8
교대제 이면	(3,307)	48.9	(6,807)	64.3	(250)	43.2	(3,307)	77.3	(10,753)	71.1	(205)	57.5	(3,307)	77.6	(10,797)	55.9	(562)	45.4	(3,307)	39.7	(5,518)	62.6	(275)	8.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인지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3) 이용 용이는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질문하였으며, 잘 모르겠음에 대한 응답은 제외하고 '쉬운 편임과 '매우 쉬움'을 더한 비율을 나타냄.
 4) 이용 경험은 최근 3년(2020년~현재) 이내에 제도 이용 대상자 이용 경험의 N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이며, 제도 이용 경험이 있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살펴본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는 태아검진시간 보장, 유산·사산 휴가, 생리휴가이다. 먼저 인지율에 대해 살펴보면, 태아검진시간 보장 33.3%, 유산·사산 휴가 38.9%, 생리휴가 76.4%로 태아검진시간 보장과 유산·사산 휴가의 인지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인지율이 높고, 태아검진시간 보장과 유산·사산 휴가는 30~40대에서의 인지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에서는 상용근로자, 직종 중에서는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산업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의 인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대체로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인지율도 높고,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정규직, 교대제가 아닌 경우의 인지율이 높았다.

이용 용이성은 태아검진시간 보장 72.4%, 유산·사산 휴가 72.0%, 생리휴가 40.9%로 생리휴가의 이용 용이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용이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용근로자인 경우, 관리자·전문가인 경우 대체로 이용 용이성이 높은 편이었다. 조직 규모가 클수록,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이 민간 및 기타보다 이용 용이성이 높았다.

이용 경험은 태아검진시간 보장 36.6%, 유산·사산 휴가 15.8%, 생리휴가 7.4%로 비교적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임신 및 출산 경험이 많은 시기인 30대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고, 종사상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이용률이 높았는데 특히 태아검진시간 보장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직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 이용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조직에서는 태아검진시간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0〉 임신·출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이용 용이 및 경험 2: 태아검진시간 보장, 유산·사산휴가, 생리휴가

구분	태아검진시간 보장						유산·사산 휴가						생리휴가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5,862)	33.3	(5,285)	72.4	(237)	36.6	(15,862)	38.9	(6,173)	72.0	(137)	15.8	(15,862)	76.4	(12,127)	49.9	(4,535)	7.4
성별																		
남성	(8,731)	31.3	(2,730)	76.4	-	-	(8,731)	37.0	(3,229)	76.8	-	-	(8,731)	73.8	(6,441)	66.5	-	-
여성	(7,131)	35.8	(2,554)	68.1	(237)	36.6	(7,131)	41.3	(2,944)	66.7	(137)	15.8	(7,131)	79.7	(5,685)	33.1	(4,535)	7.4
연령																		
만19~29세	(5,482)	28.3	(984)	66.9	(34)	18.1	(5,482)	33.1	(1,153)	68.9	(32)	7.4	(5,482)	68.1	(2,372)	41.9	(918)	9.0
만30~39세	(3,848)	35.5	(1,366)	68.0	(139)	51.7	(3,848)	41.4	(1,595)	69.8	(48)	35.1	(3,848)	75.8	(2,915)	39.1	(1,146)	7.8
만40~49세	(4,381)	33.4	(1,464)	73.4	(45)	19.4	(4,381)	40.9	(1,790)	71.7	(39)	6.4	(4,381)	78.0	(3,418)	50.5	(1,282)	7.6
만50~59세	(4,152)	35.4	(1,471)	78.3	(19)	0.0	(4,152)	39.4	(1,656)	75.9	(18)	0.0	(4,152)	82.4	(3,422)	62.6	(1,190)	5.6
거주지																		
수도권	(8,633)	31.9	(2,758)	71.4	(130)	36.2	(8,633)	37.3	(3,221)	71.2	(69)	18.3	(8,633)	76.2	(6,581)	49.4	(2,415)	8.2
비수도권	(7,229)	35.0	(2,527)	73.5	(107)	37.0	(7,229)	40.8	(2,952)	72.9	(68)	13.4	(7,229)	76.7	(5,546)	50.5	(2,120)	6.4
혼인상태																		
미혼	(6,612)	26.6	(1,760)	70.5	(39)	2.7	(6,612)	31.6	(2,087)	69.9	(45)	2.3	(6,612)	70.6	(4,671)	42.5	(1,856)	8.5
기혼	(9,250)	38.1	(3,525)	73.2	(198)	43.2	(9,250)	44.2	(4,086)	72.9	(93)	22.3	(9,250)	80.6	(7,455)	54.0	(2,679)	6.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115)	30.1	(1,538)	68.4	(67)	33.0	(5,115)	34.6	(1,772)	68.9	(55)	27.0	(5,115)	73.4	(3,755)	41.9	(1,603)	7.5
자녀 있음	(7,417)	38.8	(2,877)	74.4	(152)	42.6	(7,417)	45.2	(3,351)	73.5	(62)	11.3	(7,417)	81.8	(6,069)	55.9	(2,103)	6.3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096)	23.0	(483)	60.7	(15)	0.0	(2,096)	27.4	(574)	58.3	(17)	0.0	(2,096)	70.9	(1,485)	41.3	(754)	3.9
200~300만 원 미만	(4,901)	30.0	(1,468)	67.3	(97)	49.4	(4,901)	34.1	(1,670)	65.2	(56)	22.8	(4,901)	73.4	(3,597)	36.9	(1,917)	5.5
300~400만 원 미만	(5,639)	34.8	(1,266)	69.2	(64)	29.2	(5,639)	40.1	(1,460)	69.1	(40)	15.8	(5,639)	76.0	(2,766)	46.3	(1,002)	9.3
400만 원 이상	(4,994)	39.6	(1,980)	80.2	(55)	33.3	(4,994)	47.4	(2,368)	80.7	(24)	11.0	(4,994)	82.3	(4,111)	65.6	(796)	13.0
주요업종																		
공공기관	(233)	37.8	(88)	67.3	(6)	28.6	(233)	43.6	(101)	70.4	-	-	(233)	72.3	(168)	44.1	(66)	6.1
종사성지위																		
상용근로자	(13,392)	34.9	(4,674)	73.1	(218)	38.4	(13,392)	40.7	(5,445)	72.5	(112)	19.0	(13,392)	77.6	(10,391)	50.0	(3,806)	7.7
임시·일용근로자	(2,471)	24.7	(611)	65.7	(19)	15.6	(2,471)	29.5	(728)	67.4	(26)	2.2	(2,471)	70.3	(1,736)	49.2	(729)	5.7
직종																		
관리자·전문가	(4,117)	36.8	(1,514)	75.7	(54)	21.2	(4,117)	42.4	(1,747)	75.6	(31)	24.9	(4,117)	77.5	(3,189)	57.5	(874)	8.3

(단위: %, 명)

구분	태아감진시간 보장						유산·사산 휴가						생리휴가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N	%	N	%	N	%	N	%	N	%	N	%	N	%	N	%	N	%
사무종사자	(6,794)	36.0	(2,449)	72.4	(135)	46.5	(6,794)	41.7	(2,855)	72.3	(70)	18.3	(6,794)	79.0	(5,368)	45.3	(2,383)	6.7
판매·서비스종사자	(2,652)	28.9	(767)	66.0	(39)	27.0	(2,652)	34.3	(911)	66.7	(27)	3.8	(2,652)	73.2	(1,942)	45.9	(921)	7.3
기타	(2,299)	24.1	(554)	71.7	(9)	21.8	(2,299)	29.6	(680)	67.4	(8)	0.0	(2,299)	70.8	(1,626)	56.2	(357)	9.9
산업																		
제조업	(3,166)	29.0	(919)	70.6	(30)	41.6	(3,166)	35.6	(1,127)	69.5	(10)	5.4	(3,166)	77.6	(2,458)	56.2	(570)	9.7
도매·유통·숙박·음식점업	(2,397)	26.2	(627)	65.7	(27)	31.0	(2,397)	31.2	(747)	64.1	(15)	16.1	(2,397)	71.0	(1,702)	44.4	(665)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3,630)	39.3	(1,426)	71.4	(83)	30.3	(3,630)	45.2	(1,642)	71.5	(49)	27.0	(3,630)	79.3	(2,880)	41.8	(1,649)	6.1
그 외 서비스업	(2,315)	29.4	(681)	73.5	(35)	39.5	(2,315)	34.6	(802)	70.6	(24)	13.3	(2,315)	74.6	(1,728)	49.7	(624)	8.3
기타	(4,354)	37.5	(1,631)	76.1	(63)	43.2	(4,354)	42.6	(1,855)	77.4	(39)	5.9	(4,354)	77.2	(3,359)	55.7	(1,027)	8.3
조직 규모																		
5인 미만	(2,052)	25.5	(523)	63.8	(21)	20.3	(2,052)	28.8	(590)	60.1	(25)	10.8	(2,052)	71.2	(1,460)	42.3	(719)	4.5
5~30인 미만	(5,105)	27.7	(1,412)	62.3	(70)	32.3	(5,105)	32.0	(1,634)	59.1	(36)	15.8	(5,105)	74.2	(3,786)	40.3	(1,620)	5.3
30~100인 미만	(3,435)	36.5	(1,253)	74.6	(56)	33.9	(3,435)	41.6	(1,430)	72.9	(33)	12.4	(3,435)	78.1	(2,681)	48.9	(1,020)	4.5
100~300인 미만	(2,050)	35.2	(722)	73.4	(40)	39.8	(2,050)	41.8	(856)	77.5	(20)	26.2	(2,050)	77.0	(1,579)	55.2	(495)	7.4
300인 이상	(3,220)	42.7	(1,374)	82.4	(51)	49.6	(3,220)	51.6	(1,662)	84.0	(23)	16.9	(3,220)	81.4	(2,620)	65.2	(683)	19.7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12,388)	28.9	(3,583)	65.7	(144)	30.4	(12,388)	34.0	(4,210)	64.5	(82)	16.0	(12,388)	75.4	(9,345)	48.3	(3,332)	7.3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3,474)	49.0	(1,702)	85.2	(93)	46.3	(3,474)	56.5	(1,963)	86.4	(55)	15.5	(3,474)	80.1	(2,782)	55.1	(1,203)	7.6
장규직 여부																		
장규직	(12,053)	35.3	(4,251)	72.9	(204)	37.4	(12,053)	41.4	(4,989)	72.8	(103)	18.1	(12,053)	77.7	(9,364)	50.4	(3,295)	7.8
비장규직	(1,339)	31.6	(423)	74.9	(14)	54.0	(1,339)	34.0	(456)	69.1	(9)	29.0	(1,339)	76.7	(1,026)	45.9	(511)	7.1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2,902)	28.5	(827)	64.7	(29)	15.7	(2,902)	33.8	(981)	65.7	(31)	1.8	(2,902)	68.6	(1,990)	51.7	(892)	5.0
전일제 근무	(12,961)	34.4	(4,458)	73.7	(208)	39.5	(12,961)	40.1	(5,193)	73.1	(106)	19.9	(12,961)	78.2	(10,137)	49.6	(3,643)	8.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1,955)	31.8	(622)	70.4	(22)	30.4	(1,955)	38.3	(749)	74.2	(15)	5.9	(1,955)	70.9	(1,386)	59.4	(401)	17.4
교대제 아님	(13,907)	33.5	(4,663)	72.7	(215)	37.2	(13,907)	39.0	(5,424)	71.7	(122)	17.1	(13,907)	77.2	(10,741)	48.7	(4,134)	6.4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인지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3) 이용 용이는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질문하였으며, 잘 모르겠음에 대한 응답은 제외하고 '쉬운 편임'과 '매우 쉬움'을 더한 비율을 나타냄.
 4) 이용 경험은 최근 3년(2020년~현재) 이내에 제도 이용 대상자(이용 경험의 N)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이며, 제도 이용 경험이 '없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돌봄 관련 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제도 중 돌봄과 관련된 제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휴직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두 제도의 인지율은 각각 36.0%, 73.2%로 나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비교적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미혼보다 기혼, 비맞벌이보다 맞벌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인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제도를 직접 사용하는 대상, 연령층에서 많이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시·일용근로자보다 상용근로자인 경우,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인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 중에는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산업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에서 비교적 인지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조직 영역에서는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그리고 정규직, 교대제가 아닌 경우에 인지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용 용이성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58.0%, 육아휴직제도가 51.7%로 두 제도 모두 절반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맞벌이보다 비맞벌이,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용이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큰 30대와 40대에서 이용 용이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임시·일용근로자보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에서 높고, 대체로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이용 용이성이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정규직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용 대상인 경우에 한해 알아본 이용 경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0.2%, 육아휴직제도가 14.1%로 두 제도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 비맞벌이보다 맞벌이의 이용 경험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임신·일용근로자보다 상용근로자인 경우, 직종 중에서는 판매·서비스종사자, 산업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에서 높고, 육아휴직제도는 대체로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이용 용이성이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교대제가 아닌 경우의 이용 경험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률에서는 성별, 종사상지위, 조직 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97.0%, 육아휴직제도가 95.8%로 두 제도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 돌봄 관련 제도를 일단 사용하면 일-생활 균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서는 그 외 서비스업이 낮은 편이며,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도움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7-11〉 자녀 돌봄 제도에 대한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일-생활 균형에 도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단위: %, 명)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일-생활 균형 도움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일-생활 균형 도움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5,862)	36.0	(5,710)	58.0	(805)	10.2	(82)	97.0	(15,862)	73.2	(11,609)	51.7	(1,471)	14.1	(207)	95.8				
성별																				
남성	(8,731)	32.8	(2,861)	64.0	(474)	7.3	(35)	100.0	(8,731)	70.2	(6,125)	54.6	(995)	7.1	(70)	94.3				
여성	(7,131)	40.0	(2,849)	52.0	(330)	14.2	(47)	94.8	(7,131)	76.9	(5,485)	48.4	(475)	28.7	(137)	96.6				
연령																				
만19~29세	(3,482)	26.4	(918)	66.7	(28)	8.2	(2)	100.0	(3,482)	66.8	(2,326)	57.4	(49)	20.8	(10)	100.0				
만30~39세	(3,848)	36.6	(1,407)	53.7	(419)	10.8	(45)	98.2	(3,848)	73.5	(2,880)	51.0	(634)	20.0	(127)	96.2				
만40~49세	(4,381)	40.1	(1,756)	54.4	(336)	10.2	(34)	95.4	(4,381)	76.2	(3,336)	47.0	(675)	9.9	(67)	94.2				
만50~59세	(4,152)	39.2	(1,629)	60.7	(22)	0.0	-	-	(4,152)	75.1	(3,117)	53.0	(113)	2.8	(3)	100.0				
거주지																				
수도권	(8,633)	33.6	(2,898)	57.4	(419)	7.3	(31)	97.3	(8,633)	72.5	(6,262)	51.5	(736)	14.8	(109)	93.7				
비수도권	(7,229)	38.9	(2,812)	58.6	(385)	13.3	(51)	96.9	(7,229)	74.0	(5,348)	51.8	(734)	13.3	(98)	98.2				
혼인상태																				
미혼	(6,612)	27.1	(1,794)	62.3	-	-	-	-	(6,612)	67.1	(4,435)	53.3	-	-	-	-				
기혼	(9,250)	42.3	(3,915)	56.0	(805)	10.2	(82)	97.0	(9,250)	77.6	(7,174)	50.6	(1,471)	14.1	(207)	95.8				
가족 형태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51)	44.5	(3,004)	55.0	(658)	11.0	(73)	96.7	(6,751)	78.4	(5,296)	50.3	(1,106)	17.2	(190)	96.7				
비맞벌이	(1,925)	38.1	(734)	59.9	(130)	7.1	(9)	100.0	(1,925)	77.7	(1,496)	53.8	(340)	4.1	(14)	82.7				
특성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115)	29.8	(1,524)	60.5	(40)	1.7	(1)	100.0	(5,115)	69.3	(3,547)	52.2	(61)	5.0	(3)	100.0				
자녀 있음	(7,417)	44.7	(3,316)	55.2	(752)	10.8	(81)	97.0	(7,417)	79.2	(5,873)	50.8	(1,395)	14.6	(204)	95.7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096)	26.7	(559)	48.8	(52)	3.9	(2)	100.0	(2,096)	66.4	(1,392)	43.7	(101)	17.6	(18)	100.0				
200~300만 원 미만	(4,901)	32.1	(1,576)	53.6	(192)	13.7	(26)	94.4	(4,901)	69.6	(3,410)	45.4	(298)	20.9	(62)	95.2				
300~400만 원 미만	(3,639)	36.6	(1,333)	56.7	(205)	10.6	(22)	95.6	(3,639)	73.9	(2,689)	51.2	(373)	17.3	(64)	96.2				
400만 원 이상	(4,994)	43.2	(2,158)	64.2	(349)	8.9	(31)	100.0	(4,994)	79.5	(3,969)	60.0	(685)	8.7	(60)	94.6				
무응답	(233)	36.0	(84)	61.7	(7)	8.3	(1)	100.0	(233)	63.6	(148)	55.1	(14)	18.6	(3)	100.0				
조사지위																				
상용근로자	(13,392)	37.6	(5,030)	58.4	(753)	10.7	(80)	97.0	(13,392)	74.3	(9,953)	52.6	(1,376)	14.8	(203)	95.7				
임시·일용근로자	(2,471)	27.5	(680)	55.1	(52)	3.2	(2)	100.0	(2,471)	67.0	(1,657)	46.3	(95)	3.8	(4)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4,117)	37.8	(1,556)	62.2	(222)	13.1	(29)	100.0	(4,117)	74.3	(3,058)	56.1	(405)	10.4	(42)	9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임·생활 균형 도움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임·생활 균형 도움	
	N	%	N	%	N	%	N	%	N	%	N	%	N	%	N	%
사무종사자	(6,794)	40.2	(2,728)	57.6	(438)	8.5	(37)	95.7	(6,794)	77.1	(5,239)	52.9	(752)	16.9	(127)	96.8
판매·서비스·종사자	(2,652)	32.9	(872)	53.3	(82)	15.4	(13)	100.0	(2,652)	70.5	(1,869)	47.1	(156)	15.6	(24)	97.7
기타	(2,299)	24.1	(554)	55.4	(63)	4.9	(3)	73.0	(2,299)	62.8	(1,443)	43.8	(158)	8.1	(13)	100.0
산업																
제조업	(3,166)	29.7	(940)	49.3	(160)	5.1	(8)	100.0	(3,166)	70.3	(2,226)	43.6	(348)	8.7	(30)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397)	27.9	(669)	53.1	(85)	1.2	(1)	100.0	(2,397)	67.6	(1,622)	42.6	(165)	14.7	(24)	95.3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3,630)	45.0	(1,635)	57.3	(229)	16.5	(38)	97.5	(3,630)	77.9	(2,829)	57.3	(352)	18.5	(65)	99.2
서비스업																
그 외 서비스업	(2,315)	32.7	(750)	56.2	(103)	8.8	(9)	83.8	(2,315)	71.6	(1,656)	47.3	(171)	11.2	(19)	85.4
기타	(4,354)	39.3	(1,710)	66.2	(227)	11.4	(26)	100.0	(4,354)	75.3	(3,277)	59.0	(434)	15.6	(68)	94.6
조직 규모																
5인 미만	(2,052)	26.2	(538)	45.9	(52)	6.8	(4)	100.0	(2,052)	64.7	(1,328)	35.1	(105)	5.6	(6)	100.0
5~30인 미만	(5,105)	30.6	(1,561)	47.2	(199)	6.7	(13)	100.0	(5,105)	69.7	(3,557)	38.5	(363)	10.9	(40)	94.1
30~100인 미만	(3,435)	39.7	(1,364)	63.5	(200)	15.3	(31)	94.8	(3,435)	76.1	(2,612)	55.0	(331)	15.6	(52)	97.7
100~300인 미만	(2,050)	38.3	(784)	60.7	(122)	10.0	(12)	93.2	(2,050)	74.7	(1,531)	59.3	(252)	16.6	(42)	91.7
300인 이상	(3,220)	45.4	(1,463)	67.3	(231)	9.6	(22)	100.0	(3,220)	80.1	(2,581)	70.4	(420)	16.2	(68)	97.6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12,388)	30.5	(3,783)	49.8	(536)	6.2	(33)	95.5	(12,388)	70.3	(8,712)	43.5	(1,062)	10.0	(106)	95.6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3,474)	55.5	(1,927)	74.1	(269)	18.2	(49)	98.0	(3,474)	83.4	(2,898)	76.2	(409)	24.6	(101)	96.0
정규직 여부																
정규직	(12,053)	38.0	(4,580)	58.5	(723)	10.5	(76)	96.8	(12,053)	74.8	(9,020)	52.8	(1,315)	14.9	(195)	95.6
비정규직	(1,339)	33.6	(450)	57.5	(50)	13.8	(4)	100.0	(1,339)	69.7	(933)	50.2	(60)	13.0	(8)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2,902)	30.6	(889)	53.5	(84)	2.9	(2)	100.0	(2,902)	66.2	(1,921)	45.8	(159)	10.6	(17)	90.3
전일제 근무	(12,961)	37.2	(4,821)	58.8	(721)	11.0	(79)	96.9	(12,961)	74.8	(9,689)	52.8	(1,312)	14.5	(190)	96.3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1,955)	33.3	(651)	60.6	(53)	8.8	(5)	100.0	(1,955)	68.7	(1,343)	53.4	(143)	10.1	(14)	96.1
교대제 아닌	(13,907)	36.4	(5,059)	57.7	(751)	10.3	(77)	96.9	(13,907)	73.8	(10,267)	51.4	(1,328)	14.5	(193)	95.8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인지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3) 이용 용이성은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질문하였으며, '쉬운 편임'과 '매우 쉬움'을 타한 비율을 나타냄.
 4) 이용 경험은 최근 3년(2020년~현재) 이내에 제도 이용 대상자(이용 경험의 N)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이며, 제도 이용 경험이 '있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5) 임·생활 균형 도움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이며, '도움되는 편'과 '매우 도움됨'을 타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임·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도의 인지율을 살펴보면,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51.2%,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44.3%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고, 비수도권, 기혼, 맞벌이, 자녀가 있는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에서 높은 편이었고,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인지율도 높고,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정규직에서 인지율이 높았는데, 특히 조직 영역에서는 민간 및 기타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용 용이성은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53.7%,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52.3%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비수도권,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용이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의 경우, 조직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에 인지율이 높았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조직에서의 가족돌봄 관련 제도의 이용 용이성은 인지도의 결과와 유사하게 조직 영역에서 민간 및 기타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2.9%,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1.0%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률이 매우 낮아 세부 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94.4%,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84.8%로 나타났다. 제도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도움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제도를 이용한 경험한 표본 수 자체가 매우 적으므로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돌봄 제도 역시 일단 사용하면 일-생활 균형에 도움은 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12〉 가족 돌봄 제도에 대한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일-생활 균형에 도움: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직제도

구분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직제도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일-생활 균형 도움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일-생활 균형 도움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5,862)	51.2	(8,122)	53.7	(8,085)	2.9	(23.4)	94.4	(15,862)	44.3	(7,021)	52.3	(6,982)	1.0	(67)	84.8
성별	(8,731)	50.7	(4,430)	58.8	(4,407)	2.9	(127)	90.8	(8,731)	44.1	(3,852)	57.3	(3,838)	1.1	(44)	78.4
남성	(7,131)	51.8	(3,692)	47.5	(3,678)	2.9	(107)	98.8	(7,131)	44.4	(3,170)	46.3	(3,144)	0.7	(23)	97.2
여성	(1,600)	43.4	(811)	57.1	(729)	1.6	(20)	69.8	(1,600)	36.2	(2,182)	57.2	(2,255)	1.4	(18)	74.1
연령	(3,848)	47.2	(1,816)	53.1	(1,809)	4.2	(76)	96.7	(3,848)	40.3	(1,551)	50.1	(1,548)	0.9	(13)	76.8
만19~29세	(4,381)	55.0	(2,408)	49.8	(2,397)	4.1	(98)	97.5	(4,381)	47.7	(2,088)	47.0	(2,070)	0.7	(15)	84.3
만30~39세	(4,152)	57.5	(2,387)	55.9	(2,374)	1.6	(37)	97.4	(4,152)	51.2	(2,124)	56.3	(2,110)	1.0	(20)	100.0
만40~49세	(8,633)	48.3	(4,169)	52.6	(4,155)	2.3	(95)	92.3	(8,633)	41.3	(3,568)	51.4	(3,547)	1.0	(37)	86.3
만50~59세	(7,229)	54.7	(3,953)	54.9	(3,931)	3.5	(139)	95.9	(7,229)	47.8	(3,453)	53.3	(3,435)	0.9	(29)	83.0
거주지	(6,612)	41.9	(2,771)	53.9	(2,760)	1.3	(37)	76.7	(6,612)	35.2	(2,327)	53.8	(2,315)	1.3	(30)	71.0
수도권	(9,250)	57.9	(5,351)	53.6	(5,325)	3.7	(197)	97.8	(9,250)	50.8	(4,695)	51.6	(4,667)	0.8	(36)	96.4
비수도권	(6,751)	59.5	(4,016)	52.2	(3,995)	4.1	(165)	99.0	(6,751)	52.0	(3,510)	50.0	(3,485)	0.8	(28)	95.4
혼인상태	(1,925)	55.7	(1,073)	58.9	(1,069)	2.5	(26)	89.6	(1,925)	49.2	(946)	58.2	(944)	0.5	(5)	100.0
미혼	(5,115)	43.8	(2,242)	53.4	(2,231)	1.5	(33)	86.5	(5,115)	37.2	(1,904)	53.0	(1,897)	1.0	(20)	76.7
기혼	(7,417)	60.3	(4,470)	53.7	(4,447)	4.2	(185)	98.7	(7,417)	53.1	(3,935)	51.6	(3,907)	0.8	(32)	96.0
맞벌이 여부	(2,096)	41.4	(868)	46.7	(865)	3.0	(26)	89.8	(2,096)	35.1	(736)	45.4	(729)	1.3	(9)	54.3
맞벌이 있음	(4,901)	46.2	(2,263)	47.3	(2,258)	2.0	(46)	87.0	(4,901)	38.9	(1,908)	46.6	(1,904)	0.7	(13)	90.0
맞벌이 없음	(3,639)	51.6	(1,878)	53.0	(1,874)	3.9	(72)	98.7	(3,639)	44.0	(1,600)	51.8	(1,598)	1.0	(16)	93.9
자녀 유무	(4,994)	59.9	(2,990)	61.1	(2,970)	3.0	(89)	96.1	(4,994)	53.3	(2,663)	58.8	(2,640)	1.0	(27)	86.7
자녀 없음	(2,33)	52.6	(122)	51.9	(119)	0.8	(1)	100.0	(2,33)	48.7	(113)	50.4	(111)	1.5	(2)	100.0
자녀 있음	(13,392)	52.5	(7,032)	54.6	(7,000)	3.1	(215)	95.7	(13,392)	45.6	(6,110)	52.9	(6,075)	0.9	(57)	84.6
월평균 개인소득	(2,471)	44.1	(1,090)	47.9	(1,085)	1.7	(19)	80.0	(2,471)	36.9	(912)	48.4	(908)	1.0	(9)	86.2
200만 원 미만	(4,117)	52.6	(2,167)	57.1	(2,154)	3.2	(69)	93.6	(4,117)	46.9	(1,931)	56.0	(1,916)	1.3	(25)	75.4
300~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무응답																
중상징치																
상용근로자																
일시·일용근로자																
직종																
관리자·전문가																

(단위: %, 명)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직제도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일-생활 균형 도움		인지		이용 용이		이용 경험		일-생활 균형 도움	
	N	%	N	%	N	%	N	%	N	%	N	%	N	%	N	%
시무증서자	(6,794)	54.2	(3,681)	54.6	(3,669)	3.2	(117)	96.3	(6,794)	46.2	(3,138)	52.2	(3,122)	0.8	(26)	92.7
판매·서비스종사자	(2,652)	47.2	(1,253)	48.7	(1,247)	2.1	(26)	94.1	(2,652)	41.5	(1,101)	48.0	(1,098)	0.7	(8)	82.8
기타	(2,299)	44.4	(1,022)	49.5	(1,015)	2.2	(22)	87.7	(2,299)	37.1	(852)	49.9	(846)	1.0	(8)	90.6
산업	(3,166)	46.8	(1,481)	45.2	(1,475)	2.1	(31)	91.4	(3,166)	39.8	(1,259)	45.3	(1,255)	1.3	(17)	87.2
제조업	(2,397)	41.6	(998)	45.7	(991)	1.8	(18)	89.4	(2,397)	36.3	(871)	46.1	(867)	1.1	(9)	80.1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3,630)	57.2	(2,075)	53.9	(2,068)	2.6	(53)	96.9	(3,630)	50.1	(1,819)	53.4	(1,808)	0.8	(15)	9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교육	(2,315)	49.2	(1,138)	53.9	(1,133)	2.5	(29)	100.0	(2,315)	40.8	(944)	48.9	(940)	0.5	(5)	87.4
서비스업	(4,354)	55.8	(2,430)	61.9	(2,418)	4.3	(103)	93.4	(4,354)	48.9	(2,129)	59.7	(2,113)	1.0	(21)	76.3
그 외 서비스업	(2,052)	40.4	(828)	41.3	(825)	2.2	(18)	84.1	(2,052)	33.8	(694)	41.0	(692)	0.5	(3)	53.7
5~30인 미만	(5,105)	44.5	(2,274)	42.9	(2,259)	2.3	(52)	93.1	(5,105)	38.6	(1,968)	42.1	(1,956)	1.1	(21)	88.7
30~100인 미만	(3,435)	54.7	(1,879)	54.4	(1,870)	2.9	(53)	97.0	(3,435)	47.3	(1,624)	55.0	(1,616)	0.8	(12)	88.9
100~300인 미만	(2,050)	52.8	(1,084)	58.2	(1,080)	3.4	(36)	93.1	(2,050)	45.8	(939)	56.3	(933)	1.3	(12)	78.7
300인 이상	(3,220)	63.9	(2,058)	67.5	(2,051)	3.6	(74)	96.7	(3,220)	55.8	(1,796)	63.4	(1,785)	1.0	(18)	87.3
조직 영역	(12,388)	45.2	(5,605)	45.1	(5,584)	1.9	(109)	92.0	(12,388)	38.5	(4,768)	44.5	(4,750)	1.0	(46)	82.7
민간 및 기타	(3,474)	72.5	(2,517)	72.7	(2,501)	5.0	(125)	96.6	(3,474)	64.9	(2,254)	69.0	(2,232)	0.9	(21)	89.4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12,053)	53.0	(6,383)	54.8	(6,351)	3.2	(201)	95.8	(12,053)	46.1	(5,561)	53.0	(5,526)	1.0	(55)	85.4
청구직 여부	(1,339)	48.5	(649)	52.1	(649)	2.2	(14)	94.5	(1,339)	41.0	(549)	51.8	(549)	0.4	(2)	67.7
장규직	(2,902)	46.7	(1,355)	45.6	(1,348)	2.2	(30)	84.4	(2,902)	40.8	(1,185)	46.4	(1,173)	1.9	(23)	84.0
비장규직	(12,961)	52.2	(6,767)	55.3	(6,737)	3.0	(204)	95.9	(12,961)	45.0	(5,836)	53.5	(5,809)	0.8	(44)	85.2
시간제 여부	(1,955)	52.2	(1,021)	54.1	(1,014)	3.1	(32)	94.9	(1,955)	46.6	(911)	55.8	(903)	1.9	(17)	74.5
시간제 근무	(13,907)	51.1	(7,101)	53.6	(7,071)	2.9	(202)	94.4	(13,907)	43.9	(6,110)	51.8	(6,080)	0.8	(49)	88.5
전일제 근무																
교대제 근무																
교대제 야근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인지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3) 이용 용이는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질문하였으며, '쉬운 편임'과 '매우 쉬움'을 더한 비율을 나타냄.
 4) 이용 경험은 최근 3년(2020년~현재) 이내에 제도 이용 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이며, 제도 이용 경험이 있음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5) 일-생활 균형 도움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이며, '도움되는 편'과 '매우 도움됨'을 더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두 가지 제도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제도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에게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인데, 이는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1개월간 부모 각각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비율이 6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 미혼, 비맞벌이, 월평균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임시·일용근로자, 산업별로는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 영역이 민간 및 기타인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에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율은 71.8%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 미혼, 비맞벌이, 월평균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 산업별로는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및 기타 조직인 경우, 비정규직, 교대제가 아닌 경우에 제도에 대한 미인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13〉 최근 육아·양육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구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		진체
	진혀 모를 들어본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진혀 모를 들어본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전체	67.2	27.5	5.3	4.9	(15,862) 100.0
성별					
남성	65.2	29.6	5.2	5.2	(8,731) 100.0
여성	69.7	24.9	5.5	4.5	(7,131) 100.0
연령					
만19~29세	72.8	24.3	2.8	3.4	(3,482) 100.0
만30~39세	66.8	27.3	5.9	5.3	(3,848) 100.0
만40~49세	64.9	28.8	6.3	5.0	(4,381) 100.0
만50~59세	65.3	28.9	5.8	5.6	(4,152) 100.0
거주지					
수도권	69.6	25.6	4.8	4.6	(8,633) 100.0
비수도권	64.4	29.7	6.0	5.2	(7,229) 100.0
혼인상태					
미혼	74.8	22.4	2.8	3.3	(6,612) 100.0
기혼	61.8	31.1	7.1	6.0	(9,250) 100.0
가속 특성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5	31.8	7.7	6.5	(6,751) 100.0
비맞벌이	63.6	30.7	5.7	5.0	(1,925)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1.8	25.2	3.0	3.3	(5,115) 100.0
자녀 있음	60.2	31.8	8.0	6.6	(7,417)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75.5	21.8	2.6	2.5	(2,096) 100.0
200~300만 원 미만	72.2	24.4	3.4	3.4	(4,901) 100.0
300~400만 원 미만	66.4	27.6	6.0	5.5	(3,639) 100.0
400만 원 이상	59.8	32.5	7.7	6.8	(4,994) 100.0
무응답	59.6	33.3	7.1	7.7	(233) 100.0
임사리 특성					
상용근로자	65.8	28.4	5.8	5.3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75.0	22.4	2.6	2.6	(2,471) 100.0

(단위: %·명)

구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		진체
	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직종					
관리자·전문가	64.3	29.9	69.0	25.4	(4,117) 100.0
사무종사자	66.2	27.7	71.7	23.0	(6,794)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69.9	25.7	73.3	22.3	(2,652) 100.0
기타	72.3	24.6	75.3	21.9	(2,299) 100.0
산업					
제조업	68.3	27.4	73.0	23.1	(3,166)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	72.5	23.4	74.7	21.3	(2,397)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63.6	29.9	70.3	23.8	(3,630) 100.0
그 외 서비스업	70.7	24.9	73.2	22.4	(2,315) 100.0
기타	64.6	29.0	69.9	24.7	(4,354)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75.7	21.5	77.2	19.8	(2,052) 100.0
5~30인 미만	71.4	24.6	74.4	21.7	(5,105) 100.0
30~100인 미만	65.3	28.3	71.1	23.3	(3,435) 100.0
100~300인 미만	64.5	29.4	70.4	23.8	(2,050) 100.0
300인 이상	59.0	33.7	65.9	27.9	(3,220)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71.1	24.6	74.6	21.3	(12,388) 100.0
정부·공기관 및 협력	53.4	37.5	61.8	30.4	(3,474) 100.0
장규직 여부					
정규직	65.1	28.8	70.0	24.5	(12,053) 100.0
비정규직	71.9	24.7	77.8	19.0	(1,3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68.1	28.1	70.6	25.1	(2,902) 100.0
전일제 근무	67.0	27.3	72.1	22.9	(12,961)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64.4	30.8	66.7	28.1	(1,955) 100.0
교대제 아님	67.6	27.0	72.5	22.7	(13,907) 100.0

주: 기종차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휴직 제도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는 것(동료에게 부담)’이 44.9%, ‘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가 25.0%, ‘휴직 기간으로 인해 업무 경력이나 승진에서 (동료보다) 뒤처질까 봐’가 9.0%, ‘휴직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가능성’이 9.6%,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가 10.7%, ‘기타’가 0.9%로 나타났다.

먼저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는 것(동료에게 부담)’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비맞벌이, 대체로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보다 민간 및 기타, 정규직, 교대제가 아닌 경우에 대체인력이 없는 것이 휴직 제도 이용의 제약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에 대한 응답은 남성, 비맞벌이,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및 기타보다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비정규직, 교대제인 경우에 소득 감소로 인해 휴직 제도 이용이 어렵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14〉 휴직 제도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

(단위: %, 명)

구분		① 대체 인력 부족	② 소득 감소	③ 경력· 승진 뒤처짐	④ 인사상 불이익	⑤ 조직 문화	⑥ 기타	전체
전체		44.9	25.0	9.0	9.6	10.7	0.9	(15,862) 100.0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44.0	26.3	9.6	9.8	9.6	0.7	(8,731) 100.0
	여성	46.0	23.5	8.1	9.2	12.1	1.1	(7,131) 100.0
	연령							
	만19~29세	36.2	22.4	11.3	12.5	16.9	0.8	(3,482) 100.0
	만30~39세	42.3	26.1	8.8	10.6	11.6	0.8	(3,848) 100.0
	만40~49세	48.6	25.5	8.0	8.3	8.8	0.9	(4,381) 100.0
	만50~59세	50.6	25.8	8.3	7.5	6.7	1.0	(4,152) 100.0
	혼인상태							
	미혼	43.4	21.5	9.4	11.4	13.6	0.7	(6,612) 100.0
기혼	45.9	27.6	8.6	8.3	8.6	1.0	(9,250) 100.0	

구분	① 대체 인력 부족	② 소득 감소	③ 경력 승진 뒤처짐	④ 인사상 불이익	⑤ 조직 문화	⑥ 기타	전체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4	27.1	9.2	8.4	9.0	1.0	(6,751)	100.0
비맞벌이	47.8	29.1	7.9	7.9	6.6	0.7	(1,925)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4.3	21.9	9.0	10.8	13.2	0.8	(5,115)	100.0
자녀 있음	46.6	27.8	8.7	7.8	8.1	1.0	(7,417)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37.8	23.9	8.4	12.5	15.9	1.6	(2,096)	100.0
200~300만 원 미만	44.8	24.4	7.2	9.9	12.9	0.7	(4,901)	100.0
300~400만 원 미만	47.2	25.5	8.8	8.3	9.3	0.8	(3,639)	100.0
400만 원 이상	46.3	25.9	10.8	9.0	7.3	0.8	(4,994)	100.0
무응답	42.5	23.4	13.2	8.4	12.1	0.6	(233)	100.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6.8	24.8	8.7	8.9	10.1	0.8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34.4	26.2	10.6	13.4	14.1	1.3	(2,471)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49.0	23.0	10.3	8.4	8.6	0.7	(4,117)	100.0
사무종사자	45.1	24.6	8.5	9.9	11.1	0.8	(6,794)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43.2	25.9	7.7	10.2	11.8	1.2	(2,652)	100.0
기타	38.8	29.1	9.4	9.9	11.8	1.0	(2,299)	100.0
산업								
제조업	46.4	23.6	8.9	9.6	11.0	0.6	(3,166)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43.2	24.9	8.0	10.1	12.8	0.9	(2,397)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46.1	26.1	8.5	8.4	9.9	1.0	(3,630)	100.0
서비스업	46.9	22.6	8.4	10.2	10.4	1.6	(2,315)	100.0
기타	42.6	26.6	10.2	9.9	10.1	0.6	(4,354)	100.0
일자리 특성								
조직 규모								
5인 미만	47.7	20.9	7.3	9.7	12.9	1.5	(2,052)	100.0
5~30인 미만	49.3	21.9	7.2	9.2	11.6	0.7	(5,105)	100.0
30~100인 미만	44.2	26.7	8.8	9.0	10.4	0.9	(3,435)	100.0
100~300인 미만	41.4	27.6	10.6	9.4	10.5	0.4	(2,050)	100.0
300인 이상	39.0	29.3	11.9	10.8	8.1	0.9	(3,220)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46.1	23.5	8.2	10.1	11.3	0.8	(12,38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40.5	30.5	11.8	7.7	8.5	0.9	(3,474)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47.2	24.5	8.9	8.8	9.9	0.7	(12,053)	100.0
비정규직	43.1	27.8	6.3	9.4	11.8	1.6	(1,3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35.6	26.2	11.5	12.7	12.5	1.4	(2,902)	100.0
전일제 근무	47.0	24.8	8.4	8.9	10.3	0.7	(12,961)	100.0

구분	① 대체 인력 부족	② 소득 감소	③ 경력 승진 뒤쳐짐	④ 인사상 불이익	⑤ 조직 문화	⑥ 기타	전체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40.2	27.0	10.6	11.0	10.3	0.9	(1,955) 100.0
교대제 아님	45.5	24.8	8.7	9.4	10.7	0.9	(13,907) 100.0

주: 1) ①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는 것(동료에게 부담) ② 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 ③ 휴직 기간으로 인해 업무 경력이나 승진에서 (동료보다) 뒤처질까 봐 ④ 휴직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가능성 ⑤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⑥ 기타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에는 '잘 모르겠다', '대상자 아님', '모두 해당',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욕구

근무하는 직장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직장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수치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을 합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직장이 일-생활 균형에 관심이 있다는 비율은 46.2%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관리자·전문가, 조직 규모가 클수록,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정규직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장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제도를 잘 알고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4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세부 특성별로는 남성, 관리자·전문가, 조직 규모가 클수록,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정규직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7-15〉 직장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관심 정도(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단위: %, 명)

구분		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음	②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제도 이용 지원함	전체
전체		46.2	42.8	(15,862) 100.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48.5	45.7	(8,731) 100.0
	여성	43.4	39.3	(7,131) 100.0
	연령			
	만19~29세	51.1	46.4	(3,482) 100.0
만30~39세	44.4	40.4	(3,848) 100.0	
만40~49세	42.4	39.0	(4,381) 100.0	
만50~59세	47.7	46.1	(4,152) 100.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6.0	42.8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47.0	42.7	(2,471)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51.7	48.1	(4,117) 100.0
	사무종사자	45.7	42.8	(6,794)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44.8	39.8	(2,652) 100.0
	기타	39.4	37.0	(2,299) 100.0
	산업			
	제조업	39.7	37.1	(3,166)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40.8	37.2	(2,397)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48.7	45.2	(3,630) 100.0
	그 외 서비스업	46.8	43.6	(2,315) 100.0
	기타	51.5	47.7	(4,354)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40.6	36.8	(2,052) 100.0
	5~30인 미만	41.1	36.9	(5,105) 100.0
	30~100인 미만	44.4	42.5	(3,435) 100.0
	100~300인 미만	47.6	44.3	(2,050) 100.0
	300인 이상	58.8	55.5	(3,220)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41.7	38.0	(12,38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62.1	59.9	(3,474)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46.3	43.0	(12,053) 100.0	
비정규직	44.2	41.1	(1,3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48.6	45.0	(2,902) 100.0	
전일제 근무	45.6	42.3	(12,961)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45.8	43.7	(1,955) 100.0	
교대제 아님	46.2	42.7	(13,907) 100.0	

주: 1) ① 직장(회사)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대해 관심(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경영목표나 추진계획 등)을 가지고 있다 ② 직장(회사)은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 제도나 정책을 잘 알고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돌봄시간 중 어떤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총 7점 척도로 조사하였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양육자의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로 서비스나 타인의 도움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주로 일하는 시간에 대폭 변화를 주는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 즉, 중간인 4점을 기준으로 4점 미만은 일하는 시간 보장, 4점 초과는 직접 돌보는 시간 보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4.75점으로 나타나 일하는 시간 보장보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직접 돌봄에 대한 시간 보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여성,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이 큰 연령대인 30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비취업,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6〉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간 보장에 대한 생각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t/F
전체	(22,000)	4.75	
성별			
남성	(11,287)	4.66	
여성	(10,713)	4.84	-8.97***
연령			
만19~29세	(5,069)	4.73	
만30~39세	(4,803)	4.85	
만40~49세	(5,877)	4.78	17.82***
만50~59세	(6,251)	4.65	
거주지			
수도권	(11,620)	4.76	
비수도권	(10,380)	4.73	1.28

구분		평균	t/F
학력			
고졸 이하	(3,368)	4.56	36.85***
대졸	(16,376)	4.77	
대학원졸	(2,257)	4.84	
혼인상태			
미혼	(9,222)	4.68	-6.00***
기혼	(12,778)	4.8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356)	4.76	-2.35*
자녀 있음	(10,295)	4.81	
취업 여부			
비취업	(4,490)	4.84	4.47***
취업	(17,510)	4.7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688)	4.64	23.32***
300~500만 원 미만	(5,751)	4.67	
500~700만 원 미만	(6,198)	4.80	
700만 원 이상	(5,741)	4.84	
무응답	(622)	4.64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평균은 '일하는 시간 그대로 보장' 1점 ~ '직접 돌봄시간 보장'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월평균 가구소득의 F값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하는 1인 양육자(한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것 중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는데, 수치는 '필요한 편'과 '매우 필요함'을 합한 것이다. 한부모에게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83.8%,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85.9%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 월평균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자가 1인인 가족에 대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양육자가 1인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

해서는 여성,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월평균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7-17> 일하는 1인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필요 정도
(필요한 편+매우 필요함)

(단위: %, 명)

구분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확대	전체	
전체	83.6	85.9	(22,000)	100.0
성별				
남성	79.3	82.2	(11,287)	100.0
여성	88.2	89.7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82.0	84.9	(5,069)	100.0
만30~39세	84.2	85.6	(4,803)	100.0
만40~49세	83.3	85.3	(5,877)	100.0
만50~59세	84.9	87.3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83.3	85.7	(11,620)	100.0
비수도권	84.0	86.1	(10,380)	100.0
학력				
고졸 이하	81.8	84.9	(3,368)	100.0
대졸	83.7	85.9	(16,376)	100.0
대학원졸	85.3	86.7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82.5	84.2	(9,222)	100.0
기혼	84.5	87.0	(12,77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84.2	85.7	(7,356)	100.0
자녀 있음	84.6	87.5	(10,295)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83.7	86.3	(7,612)	100.0
비맞벌이	86.1	88.4	(4,337)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87.0	88.6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82.4	85.0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83.1	85.8	(4,382)	100.0
400만 원 이상	82.5	84.5	(6,164)	100.0
무응답	79.8	83.1	(508)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정책에서 어떤 측면이 더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대’는 28.8%, ‘사각지대 없는 제도 혜택(임금근로자 이외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등)’은 27.1%, ‘휴직 시 소득 보장 수준 제고’는 10.8%, ‘제도·정책 사용이 용이한 근무환경’은 10.6%, ‘(부족하거나 지나침 없는) 적정 근로시간 준수(주 52시간 등)’는 8.7%, ‘근무장소의 유연성 확대’는 7.9%, ‘성별 차이 없는 균등한 이용(남성 육아휴직 적극 이용 등)’은 5.9%, ‘기타’는 0.2%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대’를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 기혼, 맞벌이, 자녀가 있는 경우 높은 비율이었다. 임시·일용근로자, 판매·서비스종사자 및 기타에서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산업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에서 높고, 정규직, 교대제가 아닌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대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사각지대 없는 제도 혜택(임금근로자 이외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등)’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도권, 기혼, 비맞벌이, 자녀가 있는 경우,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및 기타 조직, 비정규직, 교대제가 아닌 경우에 사각지대 없는 제도 혜택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7-18〉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사각 지대 해소	근로 시간 준수	근무 시간 유연성	근무 장소 유연성	이용 용이 환경	소득 보장 수준	성차 없는 이용	기타		
전체	27.1	8.7	28.8	7.9	10.6	10.8	5.9	0.2	(22,000) 100.0	
개인 · 가족 특성	성별									
	남성	26.7	9.2	29.0	9.1	10.1	10.8	4.9	0.2	(11,287) 100.0
	여성	27.4	8.3	28.6	6.7	11.1	10.7	7.0	0.2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22.5	9.7	26.7	10.6	11.3	10.4	8.6	0.3	(5,069) 100.0
	만30~39세	23.8	8.5	28.2	8.9	12.5	11.8	6.1	0.1	(4,803) 100.0
	만40~49세	27.8	9.3	29.6	7.2	10.6	10.7	4.6	0.2	(5,877) 100.0
	만50~59세	32.6	7.6	30.2	5.7	8.5	10.4	4.9	0.2	(6,251) 100.0
	거주지									
	수도권	25.8	8.2	29.6	8.8	10.8	10.4	6.1	0.2	(11,620) 100.0
	비수도권	28.5	9.4	27.9	7.0	10.2	11.2	5.7	0.2	(10,380) 100.0
	혼인상태									
	미혼	25.1	9.5	27.2	9.1	11.5	10.1	7.3	0.3	(9,222) 100.0
	기혼	28.4	8.2	30.0	7.1	9.9	11.3	5.0	0.2	(12,778)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2	7.7	29.9	7.9	10.8	11.9	4.4	0.2	(7,612) 100.0
	비맞벌이	29.5	9.1	30.3	6.2	8.8	9.8	6.0	0.2	(4,337)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5.7	9.9	27.1	8.8	11.3	10.0	7.1	0.2	(7,356) 100.0
	자녀 있음	28.7	7.9	30.6	6.9	9.6	11.4	4.7	0.2	(10,29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7.2	9.6	28.0	6.8	9.8	9.7	8.7	0.2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28.3	8.5	27.8	7.6	10.6	11.2	5.7	0.3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26.0	9.1	28.1	8.9	11.1	11.7	4.9	0.2	(4,382) 100.0	
400만 원 이상	26.6	7.9	30.8	8.5	10.9	10.6	4.6	0.1	(6,164) 100.0	
무응답	26.4	10.7	29.2	8.2	9.5	10.9	4.7	0.3	(508) 100.0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6.0	8.3	29.2	8.5	11.7	11.5	4.6	0.2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28.4	8.3	25.7	9.3	11.1	10.8	6.2	0.2	(2,471) 100.0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2.5	9.1	29.0	6.9	6.7	8.3	7.1	0.4	(1,648)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27.4	8.1	30.2	9.1	10.7	9.6	4.7	0.2	(4,714) 100.0
	사무종사자	24.4	7.5	29.5	9.4	12.9	10.9	5.0	0.2	(6,948)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29.8	8.9	26.2	6.1	10.4	12.8	5.5	0.3	(3,288) 100.0
	기타	29.1	10.7	26.7	7.8	8.3	12.3	5.0	0.1	(2,561) 100.0
	산업									
	제조업	26.7	9.4	29.7	8.0	10.9	10.6	4.6	0.2	(3,275)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29.9	8.8	27.5	8.7	9.9	10.0	4.9	0.4	(2,969)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27.0	7.1	29.6	6.4	12.1	12.3	5.4	0.2	(3,930) 100.0
	그 외 서비스업	25.5	9.1	28.1	9.3	11.7	10.0	6.1	0.2	(2,622) 100.0
	기타	26.0	8.1	28.3	9.9	11.1	11.9	4.5	0.2	(4,715) 100.0

구분	① 사각 지대 해소	② 근로 시간 준수	③ 근무 시간 유연성	④ 근무 장소 유연성	⑤ 이용 용이 환경	⑥ 소득 보장 수준	⑦ 성차 없는 이용	⑧ 기타	전체
조직 규모									
5인 미만	31.4	8.2	27.0	7.1	9.4	10.0	6.7	0.2	(3,445) 100.0
5~30인 미만	28.3	8.3	28.1	7.6	11.8	10.8	4.9	0.2	(5,290) 100.0
30~100인 미만	25.5	8.4	29.4	9.1	11.7	11.5	4.0	0.3	(3,478) 100.0
100~300인 미만	24.8	9.9	27.4	10.2	11.2	11.1	5.1	0.2	(2,072) 100.0
300인 이상	22.7	7.7	31.5	9.6	11.5	12.4	4.5	0.1	(3,224)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28.0	8.4	28.8	8.4	10.8	10.3	5.0	0.2	(14,02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22.6	8.1	28.0	8.7	12.8	14.4	5.3	0.1	(3,482)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25.6	8.3	29.5	8.7	11.9	11.3	4.5	0.2	(12,053) 100.0
비정규직	28.9	8.7	26.9	6.6	10.0	13.4	5.4	0.2	(1,339) 100.0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26.4	8.5	27.1	10.9	11.6	9.8	5.5	0.2	(2,902) 100.0
전일제 근무	26.3	8.3	29.0	8.1	11.6	11.8	4.7	0.2	(12,961)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24.7	9.2	28.1	9.3	11.8	12.6	4.1	0.3	(1,955) 100.0
교대제 아님	26.6	8.2	28.7	8.5	11.6	11.2	4.9	0.2	(13,907) 100.0

주: 1) ① 사각지대 없는 제도 혜택(임금근로자 이외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등) ② (부족하거나 지나침 없는) 적정 근로시간 준수(주 52시간 등) ③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대 ④ 근무장소의 유연성 확대 ⑤ 제도·정책 사용이 용이한 근무 환경 ⑥ 휴직 시 소득 보장 수준 제고 ⑦ 성별 차이에 없는 균등한 이용(남성 육아휴직 적극 이용 등) ⑧ 기타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에는 '사회인식 변화', '대체인력 확보', '급여 인상' 등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다양한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경험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여러 가지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근무시간 관련 제도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지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과반 정도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는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1/3 정도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중에서 시차출퇴근제(36.7%)의 도입이 가장 높은 비

율로 나타났고, 시간선택제(33.9%), 재택근무제(34.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연근무제의 이용 용이성은 시차출퇴근제(61.0%)가 가장 높았고, 재택근무제(48.7%)가 가장 낮았다. 유연근무제의 이용 경험은 재택근무제(48.7%)가 가장 높고, 시간선택제(18.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제는 도입 비율에서는 순위가 높은 쪽에 속하나 이용 용이 정도에서는 절반 이하로 다른 제도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 경험에서는 과반으로 유연근무제도 중 가장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약 90% 전후로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차출퇴근제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원격근무제가 비교적 도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 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출퇴근 시간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약 60%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유연근무제도 이용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였다.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가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주된 이유는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절반 정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근무환경에 있어 유연한 시간 사용과 유연한 장소 선택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유연한 시간 사용에 대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의 인지 비율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출산전후 휴가제도, 생리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 휴가제도, 유

산·사산 휴가, 태아검진시간 보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제도의 이용 용이성은 태아검진시간 보장, 유산·사산 휴가, 출산전후휴가제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생리휴가의 이용 용이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용 경험은 출산전후휴가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돌봄 관련 제도의 인지율은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 휴가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도의 이용 용이성은 각 제도 모두 과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은 육아휴직제도가 가장 높고,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모든 제도 중 이용 경험이 낮은 수준이었다. 비교적 최근 시행 중인 제도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에 대해 인지율(들어본 적 있음 + 잘 알고 있음) 각각 30% 내외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유연근무제,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 돌봄 관련 제도로 살펴보았는데, 이 중 유연근무제는 주로 남성,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도입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에는 여성이 대상인 제도가 다수 있는데,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정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인지뿐만 아니라 이용 용이성과 이용 경험에서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돌봄 관련 제도는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보건업 및 보건복지·교육 서비스업, 정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인지뿐만 아니라 이용 용이성과 이용 경험에서도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휴직제도의 이용에 제약이 되는 것은 대체 인력이 없어 자신의 일이 동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휴직 기간에 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돌봄시간 중 어떤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다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보다 일하는 시간에 변화를 주어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일하는 1인 양육자(한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양육자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추가적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정책에서 강조가 되어야 할 부분은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 임금근로자 이외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등 사각지대 없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8장

결론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제2절 시사점

제 8 장 결론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이 연구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맞벌이와 비맞벌이, 기혼과 미혼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대규모 조사 위한 연구이다. 일과 생활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및 조건과 시간활용 내용 및 사용량을 개인 단위에서 면밀히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실태와 여러 집단마다의 실태 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일-생활 균형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제도적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생활 균형에서의 일은 취업자의 경우 직장 일 또는 하는 일을 일컬으며,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주로 하는 활동을 '일'로 생각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학업 또는 학습 및 훈련 등이 주된 일이 될 것이고, 응답자 자신이 전업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가사 및 돌봄 등의 일을 주된 일로 생각하고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온라인방식을 활용해 전국의 만 19~59세 성인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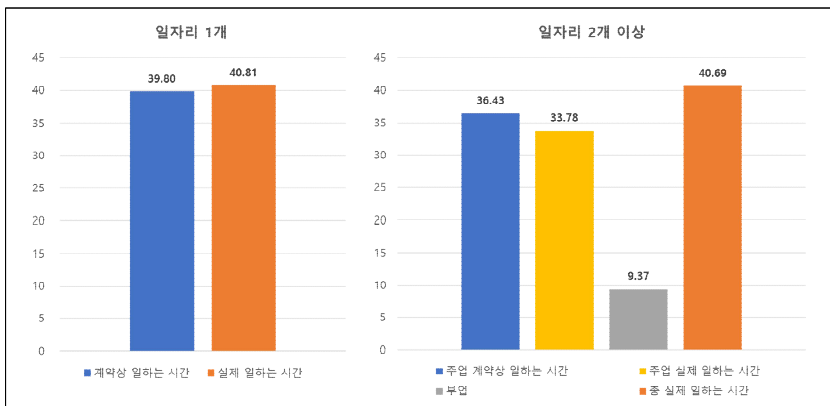
1.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과 환경에 관한 내용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중심이다. 단, 일할 때의 감정은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취업자의 일하는 시간은 일자리가 한 개인 경우와 두 개 이상인 집단을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일자리가 한 개인 경우는 계약상 일하는 시간이 39.80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이 40.81시간이었다.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주업의 계약상 일하는 시간은 36.43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은 33.78시간이고, 부업에서 일하는 시간은 9.37시간으로 일자리를 두 개 이상 가진 경우의 총 실제 일하는 시간은 40.69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림 8-1] 일하는 시간

(단위: 주당 시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자리 개수에 따라 계약상 일하는 시간이 다른 결과이다. 즉,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계약상 일하는 시간이 일자리가 한 개인 집단보다 짧다. 이에 더해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계약상 일하는 시간보다 실제 일하는 시간이 짧게 나타난 점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한 개인 경우와 두 개 이상인 집단의 총 실제 일하는 시간은 결국 큰 차이가 없다.

부업을 가진 경우는 주업의 계약상 일하는 시간 자체가 짧은 것과 그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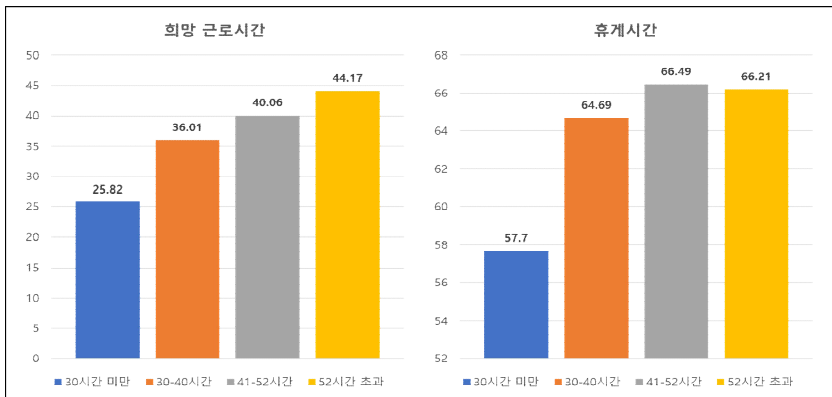
실제 일하는 시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업에 사용하는 시간 이외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뿐 아니라 수입과 생계의 측면에서도 부업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의 선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희망하는 일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36.70시간으로 현재 실제로 일하는 시간 평균(약 41시간)보다 3시간 정도 더 짧았다. 현재 일하는 시간을 집단별로 나누어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장시간 일하는 집단일수록 현재 일하는 평균 시간과 희망하는 평균 일하는 시간 사이 차이가 더 큰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긴 시간 일하는 집단인 주당 52시간 초과 근무 집단도 희망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45시간 이하로 나타났다.

일하는 동안의 휴게시간 평균은 하루 약 65분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인 집단까지는 근무시간 증가에 따라 휴게시간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집단은 41~52시간 일하는 집단과 휴게시간 차이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휴게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그림 8-2] 현재 일하는 시간에 따른 희망 근로시간과 실제 휴게시간

(단위: 주당 시간, 일당 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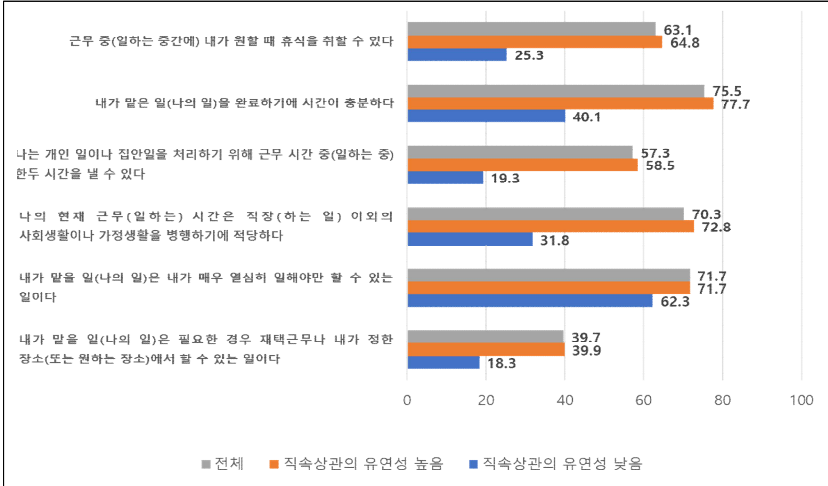
주당 근무시간이 긴 집단은 물론이고, 평균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특징을 보이는 남성, 제조업, 비맞벌이 집단에 속한 경우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하는 시간 관리 측면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당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보면,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휴게시간에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모든 일자리에서 적절한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일하는 환경 및 일자리 만족

일하는 환경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재 직장 일(하는 일)의 시간이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병행하기에 적당하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으면서도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근무시간이나 일하는 중간에 한두 시간을 내는 것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 경우는 60%가 되지 않았다. 또한 재택근무나 정한 장소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40% 이하의 수준에서 동의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조정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이 자율성은 더 낮은 경향이 있어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생활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직속상관의 특성이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속상관의 소통 가능성이나 유연성이 낮은 경우 자율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직속상관의 유연성은 반드시 상관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해당 조직의 분위기나 조직문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하는 곳의 분위기가 근로자가 일하는 환경의 유연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3] 직속상관의 특징에 따른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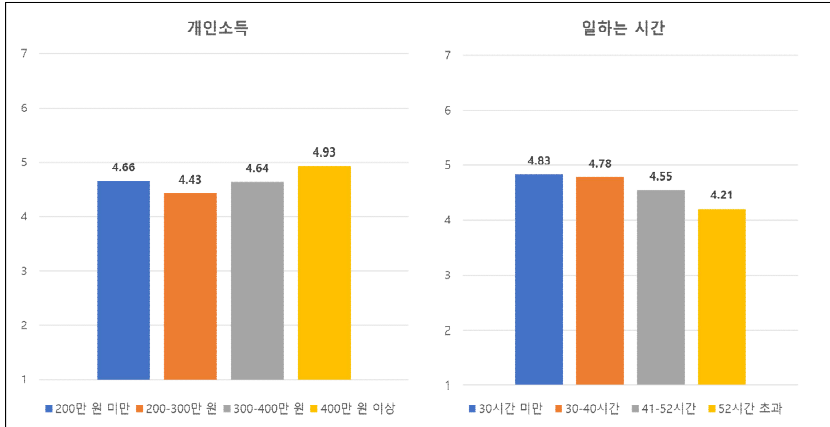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할 때에는 에너지도 있고 열정적이기도 한 편이지만 일 때문에 진이 빠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 사회의 취업자 집단은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일로 인해 소진이 되는 경우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용근로자는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느끼거나 열정적이기보다 일로 인해 진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나, 자영업자는 에너지가 충분하고 열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때가 진이 빠진다는 느낌보다 많아 종사상지위에서 두 집단은 상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자리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은 전체적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만족하는 수준이지만, 개인소득과 일하는 시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개인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 되는 집단의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만족 정도의 수준이 낮아지는데, 특히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집단부터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근로시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그림 8-4] 개인소득과 일하는 시간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

(단위: 점)



주: 만족도는 1점~7점으로 총 7점 척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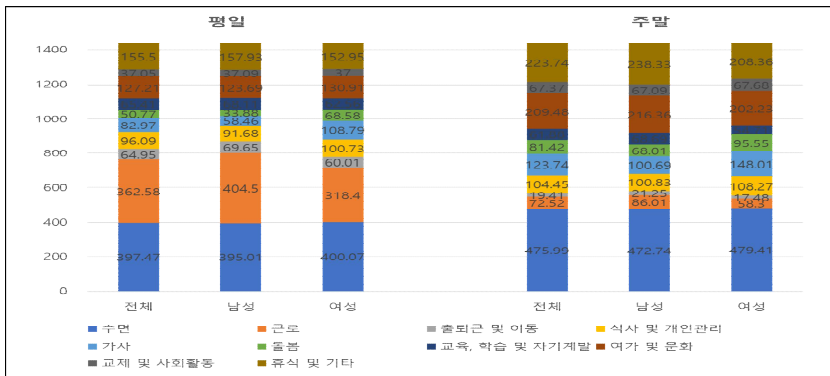
3. 생활시간

일반 시민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고, 가사 일과 돌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였다. 시간 사용은 평일과 주말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평일의 경우 가장 활동이 많은 생활시간은 수면시간과 근로시간이었으며, 이어서 휴식 및 기타 시간과 여가 및 문화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남성, 30~40대, 학력 및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반면, 휴식 및 기타 시간은 근로시간과는 반대로 30~40대 이외, 학력 및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는 평일보다 수면시간, 여가 및 문화시간, 휴식 및 기타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근로시간과 출퇴근 및 이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및 문화시간과 휴식 및 기타 시간은 학력이 낮거나 자녀가 없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높은 경향이 있었다.

주말이 되면 평일보다 근로시간은 줄고, 수면, 휴식 및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활동을 제외하고 가사와 돌봄에 대한 시간 변화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가사시간 전체 평균은 평일 1시간 23분에서 주말 2시간 4분으로 증가하고, 돌봄시간은 평일 51분에서 주말에는 1시간 21분으로 증가했다. 남성의 가사시간은 평일(59분)과 비교해 주말(1시간 41분)에 42분 증가하고, 여성의 가사시간은 평일 (1시간 49분)과 비교해 주말(2시간 28분)에 39분 증가했다. 돌봄시간의 변화를 보면, 남성의 돌봄시간은 평일(34분)보다 주말(1시간 8분)이 34분 더 길고, 여성의 돌봄시간은 평일(1시간 9분)과 비교해 주말(1시간 36분)이 27분 더 길었다. 평일보다 주말에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또한, 평일과 주말 사이 가사와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량의 증가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가사와 돌봄활동에 주된 시간을 사용하는 역할은 여전히 뚜렷하게 여성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5] 평일과 주말의 성별 시간 사용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생활시간의 충분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돌봄, 교제 및 사회활동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및 교제 및 사회활동 시간은 공통적으로 여성과 30~40대, 수도권, 학력이 낮을수록 충분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생활시간 중 시간을 증가시키고 싶은 활동은 수면, 여가 및 문화, 교육·학습 및 자기 계발 시간이었으며, 줄이고 싶은 활동은 근로, 출퇴근 및 이동, 가사 등의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는 취업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시간적인 여유에 대해서는 절반이 안 되는 비율이 충분하다고 응답을 했고, 하루 일과 후 피곤한 정도는 약 80%가 피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높은 경향이 있었다. 피곤하다는 이들은 대체로 일(직장)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건강 상태나 출퇴근 및 이동이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주된 활동으로 나타나 일하러 다니는 것에 따른 피곤함이 과반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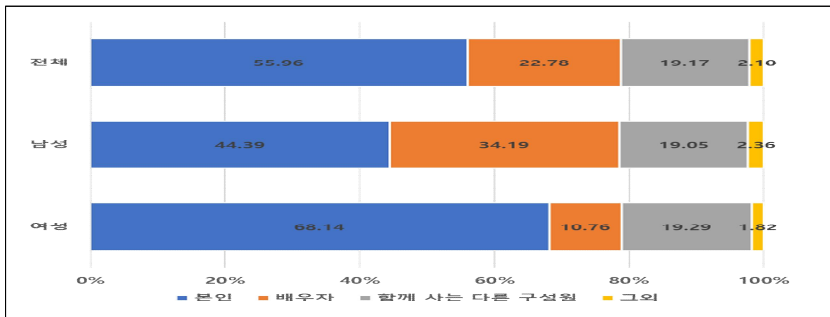
4. 가사 및 돌봄 환경

가사와 돌봄 부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배우자 보다 본인의 부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 차이가 크지 않게 응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부담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이 가사 및 돌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는 미혼이나 남성 1인 가구의 포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본인의 가사분담률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의 경우 본인의 가사분담률이 73.17%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으로 보았을 때의 결과로, 1인 가구인 경우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8-6] 가사 분담 비율

(단위: %)



주: 분담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가사 분담 비율, 가사 일의 빈도, 가사 일 부담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이 모든 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기혼인 경우, 비취업인 경우 매일 가사 일을 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40대 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가사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비취업인 경우 가사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기혼, 유자녀, 여성이 가사 일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응답자 연령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면 자녀 연령에 따른 가사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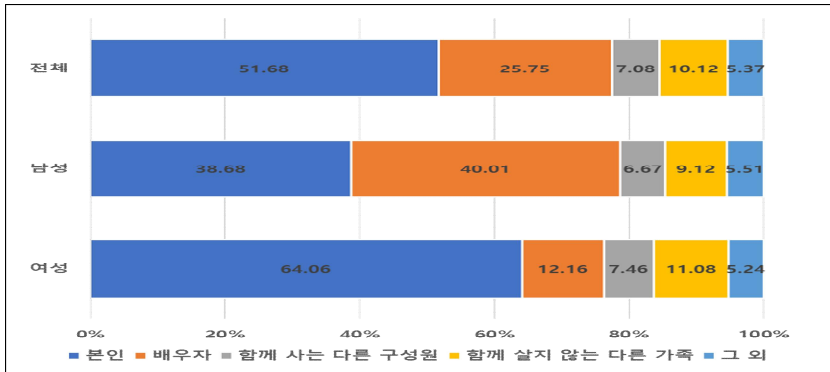
돌봄에 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정기적으로 돌보는 '돌봄 대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40% 이상이 매일 돌봄을 제

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돌봄’ 비율은 남성 36.0%, 여성 52.3%로 차이를 보였다. 40대의 경우 ‘돌봄 대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2.0%, ‘매일 돌봄’ 비율이 약 60%로 다른 연령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가사 일의 부담 정도가 가장 높게 조사된 연령대이기도 해서 돌봄과 가사 일 빈도가 잦고 그만큼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연령층으로 보인다.

돌봄 분담 비율에서도 가사 분담 비율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 분담 비율이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 분담 보다는 돌봄 분담에 대해 남성이 배우자의 돌봄 비율이 더 높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돌봄 분담 비율로 보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보통 본인, 배우자, 친인척 등이며, 가족이 아닌 그 외 사람이 돌보는 경우는 5% 내외 수준이었다. 이는 돌봄의 사회화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돌봄의 책임을 가족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7] 돌봄 분담 비율

(단위: %)



주: 분담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돌봄의 빈도에서 여성, 30대와 40대, 자녀가 1명인 경우, 비취업인 경우는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이 과반으로 높게 나타난 집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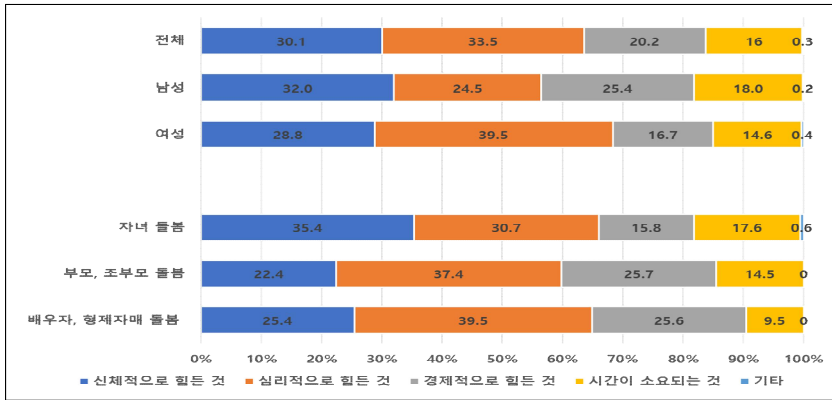
돌봄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36%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 일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남성 응답자의 경우 돌봄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29.2%)이 가사 일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2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사 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명 이상인 경우보다 돌봄에 대해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된 '매일 돌봄' 비율 결과에서 자녀가 1명일 때 더 높았던 결과에 따라 돌봄부담 역시 자녀가 1명일 때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월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가족 이외의 사람이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고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돌봄을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경우보다 돌봄 대상이 자녀나 부모인 경우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에 따른 어려움은 주로 '심리적으로 힘든 것', '신체적으로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해 성별에 따라 힘든 부분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50대의 경우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1/4 가깝게 나타나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높게 조사되었다.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경제적으로 힘든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돌봄 대상에 따라서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반면,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나 자녀와 그 외 돌봄 대상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8] 성별과 돌봄 대상자에 따른 돌봄 중 어려운 부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돌봄 공백 시 대신 맡아 줄 사람이 있는 비율은 약 66%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한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돌봄 공백 시 맡아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돌봄 대상이 자녀, 부모의 경우보다 배우자,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다소 낮았다.

돌봄도 전반적으로 기혼, 유자녀, 여성이 돌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자녀 연령에 따른 돌봄 빈도 및 부담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30대의 경우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을 고려하면 돌봄 대상이 영유아일 가능성이 있고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가사 일과 돌봄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는 대부분 가족인 것으로 나타나 돌봄의 사회화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가사 및 돌봄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 내외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매우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가족의 책임을 줄여 나가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5. 여가와 휴가·휴식

여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한국인은 주중과 주말 여가시간에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연령과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20대의 여가생활 만족 정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자녀가 없는 집단은 미혼과 2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연령과 자녀 유무에 따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보아, 가장 많은 여가생활은 동영상 시청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드는 여가생활을 원할 수도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 정도의 차이는 자신이 원하는 여가생활을 얼마나 실천하는지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가에 이어 휴가와 휴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휴가는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비임금근로자의 휴가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의 부여 받은 휴가는 평균 약 17일이고 실제 사용한 휴가는 평균 11.6일 정도여서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약 5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전체적으로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약 11일이었는데, 조직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는 사용한 휴가가 약 12일로 긴 특

징을 보인다. 반면, 짧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특징을 보이는 집단에는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약 6일)와 시간제 근로자(약 9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집단은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가 짧은 것에 비례하는 것이다.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적절한 휴가 일수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하지만, 5인 미만 규모의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도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가 약 9일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짧은 휴가를 가지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만족의 차이에서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에는 만족하지만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가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많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혼인 경우가 미혼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기혼과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대 집단에 비해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집단은 휴가의 양이 더 필요한 집단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여받은 휴가를 실제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 많은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는 이유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이유로 나타났다. 근로자 자신의 의도와 근로자가 처한 조직의 환경 모두 연차휴가 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상황상 결국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사용하기보다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던지는 추후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은 시기 선택은 자유로운 편이었으

나, 업무 대행자나 휴가 기간의 업무 분담에 대한 부담과 휴가 동안 업무로 인한 방해는 약간 있는 편이었다. 연차휴가 사용에서 가장 자율성이 낮은 것은 동료 휴가 일정에 대한 고려 부분이었는데, 조직이라는 특성상 동료의 휴가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보다 계획한 휴가 일수나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가 모두 더 짧았다. 계획한 휴가는 약 8일이며, 실제 사용한 휴가는 약 4일인 것으로 나타나 연간 휴가 일수가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획한 것보다 절반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비임금근로자의 휴가 일수에 대한 만족은 보통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가 일수가 매우 짧아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비취업자와 취업자 모두를 포함한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평소 휴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식이 삶에 중요하며 일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일-생활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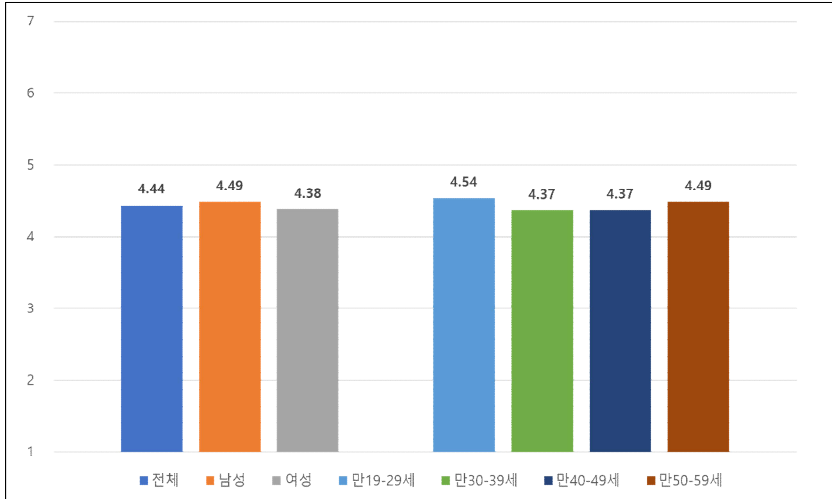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만족 정도, 그리고 일-생활 균형 실천과 어려움 등을 살펴보았다. 대다수의 조사 참여자가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일-생활 균형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보

다 기혼인 경우가 일-생활 균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미혼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 수에 따른 차이에서도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중요성의 정도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더한 중요하다는 쪽에 응답한 비율은 기혼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지만, 일-생활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반대로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더 높아서 중요하다는 인식 쪽에 응답한 비율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와 같이 살펴보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는 남성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혼인상태와 자녀 유무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중요도 생각은 차이가 있었으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는 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을 한 집단이 취업을 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연령집단별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는 20대에는 높다가 30대와 40대에서 낮아지고, 다시 50대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8-9]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생활 균형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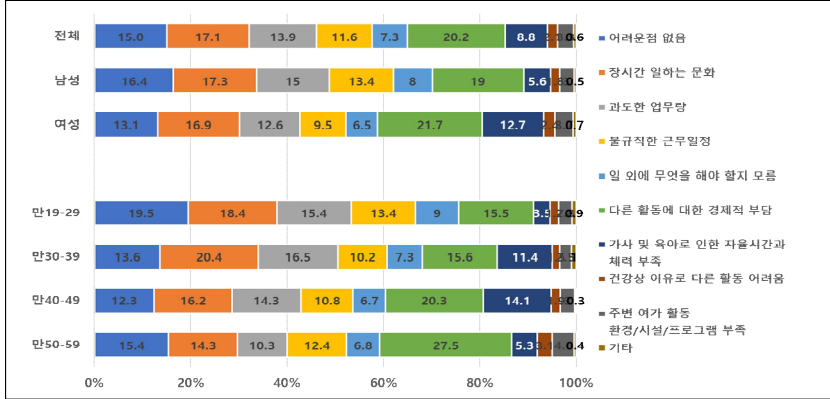
주: 만족도는 1점~7점으로 총 7점 척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이유를 알아본 결과, 다른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장시간 일하는 문화 및 과도한 업무량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일하는 문화로 인해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는 응답은 30대 집단이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남성과 20~30대,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여성과 30~40대 집단,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자유허간과 체력 부족의 이유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특징도 보여 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집단과 가사 및 육아로 인해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30대 집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연령대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림 8-10] 취업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생활 균형 어려운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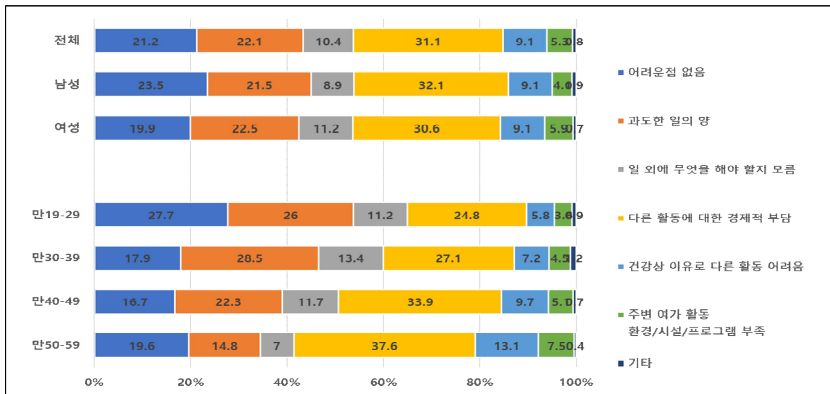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비취업자(학습 및 훈련이나 돌봄 및 가사 등을 일로 봄)의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이유 중에서는 다른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일의 양이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비취업자는 취업자와 비교해서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8-11] 비취업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생활 균형 어려운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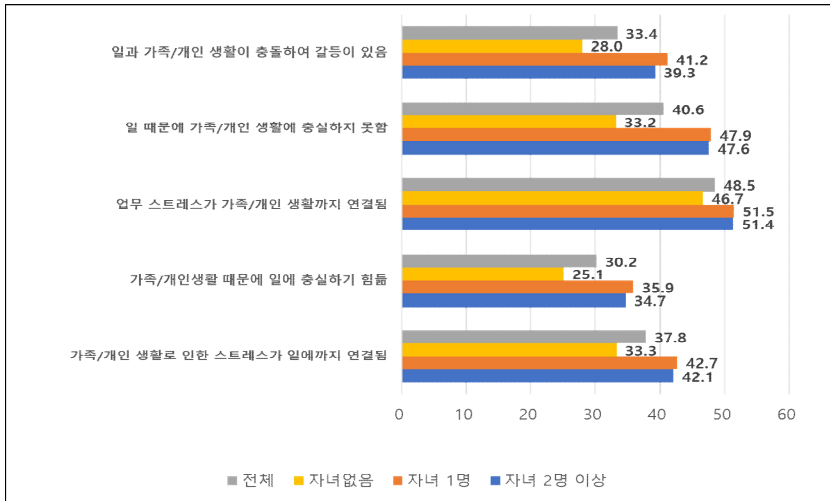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인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더 할애하고 싶은 활동은 개인 여가시간으로 나타났다. 여성, 20대, 미혼,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이에 대한 응답자가 과반으로 나타나, 20대의 상당수와 자녀가 없는 경우는 미혼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혼 집단이 개인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혼과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가족 단위 여가 활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다. 모든 집단이 개인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가 더 높기는 하지만, 가족 단위 여가시간 욕구가 달라서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일과 생활 사이 균형을 위한 실천의 측면에서는 취업자의 1/3 이상이 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 사이 충돌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 및 개인 생활에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족이나 개인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에까지 연

[그림 8-12] 자녀 수에 따른 일-생활 균형 실천(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되는 경우도 40% 가까이 나타나 일과 생활 간에 스트레스가 전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일-생활 사이 충돌을 더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 사이 갈등은 스스로 응답한 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 사이의 갈등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갈등 및 스트레스를 묻는 항목마다 자신의 응답과 배우자의 응답 사이 차이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자신과 배우자가 느끼는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떠한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많은지에 대한 경향성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생활까지 연결되는 것이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7. 일-생활 균형 세부 분석

세부 분석을 통해 집단별 일-생활 균형 실천 및 만족 정도,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별, 혼인상태별, 자녀 조건 및 양육자 조건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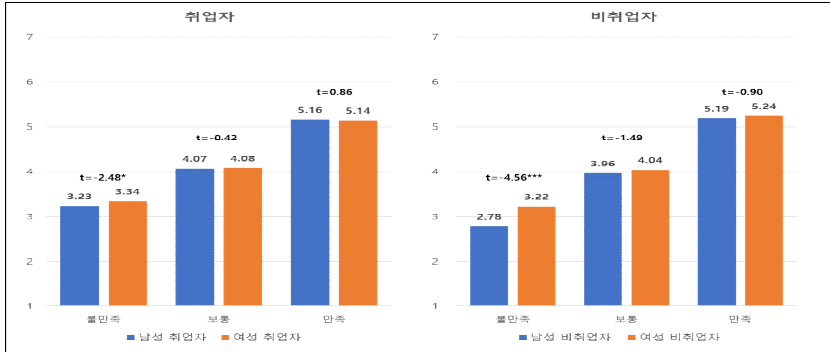
성별 분석에서 일-생활 균형 실천에 있어서 갈등 정도는 전반적으로 남성 취업자가 여성 취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가 있을 때 갈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만족 측면에서는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한 남성이 취업한 여성보다 대부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정도와 만족 정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갈등이 높은 정도에 따라 만족 수준이 그만큼 낮아지기보다는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제도 사용 및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거나 기본적으로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를 가능성 등이 있어 갈등 수준과 만족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시간 사용에서 가사 및 돌봄에 대해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상황이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생겼다면 여성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되거나, 또는 돌봄 시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이 돌봄을 더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여성은 그 상황을 갈등이라고 털 느끼지만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는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 정도와 삶의 만족 정도에 대한 관계에서는 취업자 중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성은 삶의 질 만족 정도가 여성보다 낮은 특성을 보였고, 여성은 일-생활 균형에 불만족하더라도 삶의 만족은 남성보다 높았다. 또한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성별에 다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 수준이 근소하게 더 높아서 일-생활 균형 정도가 취업 여성보다는 취업 남성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또한 일-생활 균형에 불만족한 경우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8-13] 성별에 따른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단위: 점)



주: 1) * p<0.05, ** p<0.01, *** p<0.001

2) 만족도는 1점~7점으로 총 7점 척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혼인상태별 분석

미혼과 기혼 사이에 일과 생활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갈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실천의 측면에서 혼인 상태 집단별 분석을 한 결과, 미혼보다는 기혼이 일과 생활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일-생활 균형 사이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은 더 높지만, 이를 경험하는 차이가 혼인상태에 따라 더 크게 나타난 집단은 여성으로, 결혼 전과 후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여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일의 특성 측면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사무종사자, 민간 조직에서 일하는 집단이 미혼과 기혼 사이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경험하는 갈등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혼인상태에 따른 취업자의 일-생활 사이 갈등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미혼		기혼		t	
	N	평균	N	평균		
전체	(7,107)	2.09	(10,403)	2.31	-19.46***	
성별	남성	(3,740)	2.15	(5,896)	2.34	-12.54***
	여성	(3,368)	2.03	(4,507)	2.27	-14.9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198)	2.08	(8,193)	2.31	-17.93***
	임시·일용근로자	(1,414)	2.13	(1,057)	2.30	-5.7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495)	2.12	(1,153)	2.31	-5.11***
직종	관리자·전문가	(1,602)	2.08	(3,112)	2.31	-9.99***
	사무종사자	(2,882)	2.07	(4,066)	2.30	-13.48***
	판매·서비스종사자	(1,485)	2.07	(1,803)	2.31	-9.20***
	기타	(1,139)	2.20	(1,422)	2.35	-5.21***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5,748)	2.08	(8,280)	2.31	-17.63***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1,360)	2.13	(2,123)	2.34	-8.18***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직장생활/하는 일'과 가족(개인)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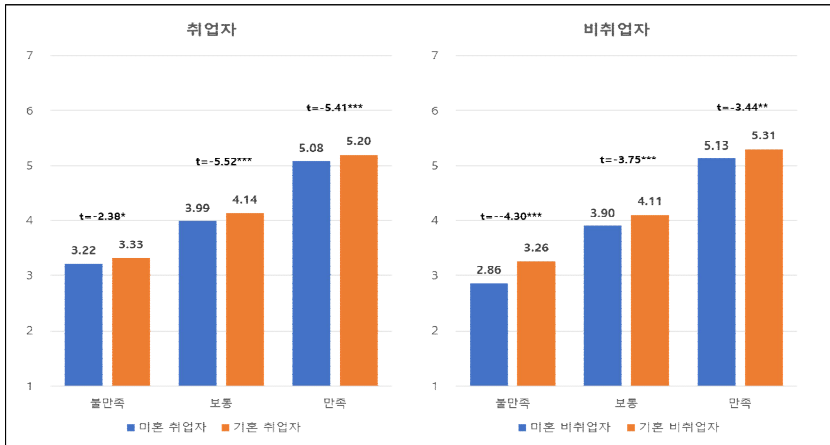
취업한 미혼과 기혼 집단 사이에 일-생활 균형의 만족 정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0대와 50대 집단,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대학원 졸업 학력을 가진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미혼 집단이 기혼 집단보다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더 컸으나, 월평균 개인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의 만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직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 일-생활 갈등이 없는 집단에서의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컸다. 비취업자의 경우도 미혼과 기혼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0대 집단에서 미혼과 기혼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미혼이 기혼보다 낮은 수준의 일-생활 균형 만족도를 보였다.

취업한 미혼과 기혼 집단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정도에서는 일-

생활 균형에 만족, 보통, 불만족인 모든 경우에서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혼 집단은 삶의 만족 정도가 미혼 집단보다 높았다.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와 삶의 만족을 혼인상태에 따라서 본 결과는 앞의 취업자에 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자이면서 미혼인 경우는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낮으면 삶의 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낮으면 기혼 역시 삶의 만족 정도도 낮은 수준이기는 했으나 미혼 집단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비취업자와 취업자 모두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도가 낮은 미혼 집단이 삶의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고, 일-생활 균형 정도에 만족도가 높은 기혼 집단이 삶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드러났다.

[그림 8-14] 혼인상태에 따른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단위: 점)



주: 1) * p<0.05, ** p<0.01, *** p<0.001
 2) 만족도는 1점~7점으로 총 7점 척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자녀 조건별 분석

자녀 조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임금근로자에게서는 나타났지만,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 자녀가 없어도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의 갈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 대해서는 기혼 취업자는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혼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자녀가 없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 비취업자 중 여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낮아 차이를 보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비취업자 사례 수가 적기도 하지만, 자녀 유무에 따른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취업자의 주된 일이 가사 및 돌봄인 경우에 자녀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만족 정도의 차이 또한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주부나 전업 양육자(돌봄자) 집단에 대한 일-생활 균형에 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와 삶의 질 만족 정도에 대한 자녀 조건별 분석에서는 기혼 취업자 중 일-생활 균형에 불만족한 경우에 자녀가 없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높아 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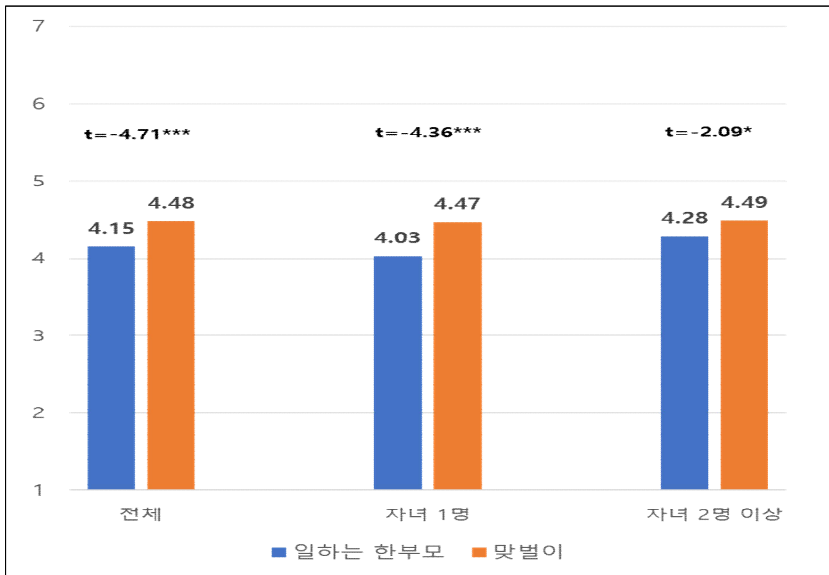
4) 양육자 조건별 분석

양육자 조건별로는 양육자 수가 1인 한부모 가족과 2인인 양부모 가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양육자가 모두 취업한 조건에서 일-생활 균형의

만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일하는 한부모 집단이 맞벌이 집단보다 일-생활 균형의 만족 정도가 낮았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보다 1명인 경우에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자녀가 1명이면서 일하는 한부모 가족이 자녀 수가 동일한 맞벌이보다,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일하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보다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낮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의 서로 돌봄이 가능하므로 돌봄을 나누어 할 양육자가 부재한 한부모는 양육자 수나 자녀 수 조건이 다른 경우보다 일-생활 균형에 더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15] 양육자 조건에 따른 일-생활 균형 만족도

(단위: 점)



주: 1) * p<0.05, ** p<0.01, *** p<0.001

2) 만족도는 1점~7점으로 총 7점 척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양육자 조건에 따라서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와 삶의 질 만족 정도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자가 1명인 집단이 양육자가 2명인 집단보다 삶의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1인 양육자와 맞벌이 2인 양육자 집단 사이에는 일-생활 균형 정도가 보통인 경우 일하는 1인 양육자 집단의 삶의 만족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만족 정도 점수로 보면, 일-생활 균형 정도에 불만족한 경우의 일하는 1인 양육자가 가장 낮은 집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일-생활 균형 제도와 욕구

일-생활 균형 제도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지도이다. 조사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이 제도에 대해 과반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다양한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경험 등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연근무제는 응답자의 1/3 정도가 직장에 도입되었다고 하였으며, 그중에서 시차출퇴근제가 가장 많이 도입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유연근무제의 이용 용이성은 시차출퇴근제가 가장 높았고, 재택근무제가 가장 낮았다. 유연근무제의 이용 경험은 재택근무제가 가장 높고, 시간선택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는 이용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최근 불가피하게 사용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연근무제의 사용은 약 90% 전후로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시간선택제와 시차출퇴근제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원격근무제가 비교적 도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 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출퇴근 시간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약 60%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한 경우, 제도 이용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는 응답이 약 40%였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가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주된 이유는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 및 협력이 어려운 점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들을 더해 보면, 직장 내 제도 이용에 대한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유연한 근무환경은 크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유연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소와 시간의 유연성 중에 어떠한 측면이 더 중요한지 알아본 결과, 유연한 시간 사용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제도 중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에서 인지도가 높은 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생리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 휴가제도, 유산·사산 휴가, 태아검진시간 보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도의 이용 용이성은 태아검진시간 보장이 가장 높고, 생리휴가가 가장 낮았다. 제도의 이용 경험은 출산전후휴가제도가 가장 높고, 생리휴가가 가장 낮았다.

돌봄 관련 제도의 인지율이 높은 순서는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 휴가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였다. 이들 제도의 이용 용이성 수준은 모두 과반 정도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은 육아휴직제도가 가장 높고,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이용 경험이 낮은 수준이었다. 비교적 최근 제도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에 대해 인지율은 각각 30% 내외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도입 또는 인지, 이용 용이성, 경험, 일-생활 균형에 도움 정도에서 특성별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유연근

무제는 주로 남성,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도입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는 여성이 대상이 되는 제도가 다수 있는데,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정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인지뿐만 아니라 이용 용이성과 이용 경험에서도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돌봄 관련 제도는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보건업 및 보건복지·교육 서비스업, 정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인지뿐만 아니라 이용 용이성과 이용 경험도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는 상용근로자,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정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인지할 가능성이 크고,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돌봄을 위해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제약은 대체 인력이 없어 자기의 일이 동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직 기간에 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돌봄시간 중 어떤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자의 일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보다 일하는 시간에 변화를 주어 일하는 양육자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일하는 1인 양육자(한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근무시간의 유

연성을 확대하는 것, 임금근로자 이외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등 사각지대 없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응답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2절 시사점

이 연구는 최근 한국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특정 집단이 아닌 취업자와 비취업자, 맞벌이와 비맞벌이, 기혼과 미혼 등 모든 집단을 포함하는 자료를 생성하고자 했으며, 조사 결과를 통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생성된 자료를 활용해 앞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세부 실태 및 정책적 함의가 도출되겠지만, 이 절에서는 이번 조사에 따른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및 휴가 보장

일-생활 균형의 절반은 ‘일’이다. 그래서 일-생활 균형의 시작은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거나 근로시간 동안 적절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을 제거해야 한다.

일-생활 균형을 실제 생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적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이기는 하지만 주 최대 52시간 근무 제도나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평균 주당 약 37시간 정도로 나타났고 현재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집단도 희망 근로시간은 약 45시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일하는 시간에 대한 관리는 꾸준히 필요해 보인다. 남성, 제조업, 비맞벌이 집단 등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긴 특징을 보였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적절한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환경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과 함께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 보였다. 특히 근로시간이 긴 집단에서는 근로시간 증가에 비례해 휴게시간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일하는 동안 적절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근로자의 피로와 스트레스, 나아가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로 매우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주어진 휴가 기간을 충분히 사용하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여받은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어야 하고, 부여받은 휴가가 없는 경우에도 적절한 휴가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히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연간 사용한 휴가가 매우 짧았다. 비임금근로자의 휴가는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쓰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휴가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2. 일하는 곳의 분위기와 조직문화의 중요성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일-생활 균형 제도는 활용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지적된다. 이때 빈번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직장 분위기 등 조직문화이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다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다. 제도 활용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한 유연성은 조직의 분위기와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고, 긴급한 상황에는 조직의 유연성을 발휘해 일-생활 균형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일하는 시간 중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일 처리를 위해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내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60% 미만이었으며, 직속상관의 유연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 가능성이 20%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약 40%만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직속상관의 유연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 또한 2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직속상관의 유연성이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 해당 조직의 분위기나 조직문화에 의한 결과로 본다면 어떠한 분위기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일하는 환경의 자율성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 자율성이 더 낮은 경향이 있는데, 자녀가 있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험한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이 직속상관의 유연성이 결국 조직 내 분위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제도 이용의 어려움 중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로 인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있는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정당하게 제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부담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3. 일하는 시간 및 장소 선택의 유연성 확대

일하는 시간과 장소 선택에 있어서 현재보다는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조직이 여전히 많아 보인다. 근무 중 한두 시간 빼는 것이나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조직 분위기상 유연성이 높지 않다면 개인/가족에게 일이 있을 때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근무시간과 장소 등 유연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 이용 측면에서 보아도 유연근무제의 이용이 쉽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유연근무제도 중 시차출퇴근제의 이용 용이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간 유연성 관련 제도가 장소의 유연성 관련 제도보다는 비교적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보였다. 재택근무의 이용 용이성이 낮고 근무장소 선택에 대한 자율성이 낮았던 결과로 미루어보아, 근무장소 선택에 대한 유연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일의 특성상 근무장소 선택이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중에서 더 요구되는 것은 일하는 시간에 대한 유연성이었다. 시간 유연성은 앞으로의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욕구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기도 해서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유연한 시간 사용이 가능한 법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장소 선택 유연성이 시간 선택의 유연성보다는 더 낮은 것으로 보였다. 다만, 재택근무제의 이용 용이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연근무제도와 비교해 이용 경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기간의 특수성이 반영된 일시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앞으

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의 활용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 인지는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재택근무가 집에 머물면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해 '집'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일하는 장소의 선택권과 자율성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재택근무 관련 제도 발전 및 정착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4. 개인 및 가족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다각적 접근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일하는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생활에서 느끼는 번아웃(burn out)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해서 일, 개인, 가족 등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혼은 기혼보다 장시간 업무, 과도한 일 등에 대한 부담이 많다거나 기혼 또는 여성의 경우는 가사와 돌봄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은 것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돌봄 역할 수행에서 자녀가 1명 일 때 매일 돌봄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난 점을 생각해 보면 첫째 자녀만 있을 때 양육 부담을 가장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남성은 돌봄에 있어 신체적으로 힘들고 여성은 심리적으로 힘든 면이 더 컸다. 그리고 주로 돌보는 대상이 자녀일 때는 신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 외 대상은 심리적인 부분이 더 힘든 부분으로 나타나 주된 돌봄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느끼는 어려운 부분도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맞춤형 정책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5. 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 실천과 제도 이용

가사 및 돌봄 시간량이나 이에 대한 부담감 등은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한 여성의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취업한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이유가 과도한 업무량 때문인 경우는 남성이 더 많았고,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자율시간과 체력 부족으로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경우는 여성이 더 많았다. 그러나 현재 일-생활 균형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면 삶의 만족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것은 남성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일-생활 균형 정도와 이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 일-생활 균형 실천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조율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 접근이나 이용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 자녀돌봄 제도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이용이 용이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이용이 가능한 제도의 이용 경험을 보면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하였다. 이용이 쉽지 않음에도 결국 돌봄을 위해 제도를 이용하는 쪽은 여성인 것이다. 유연근무제도 이용 용이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이 제도 이용이 더 어렵다고 하였지만, 재택근무 이용 경험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거나 개인 업무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데 대한 이유가 남성보다 많고, 남성은 제도 이용 시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유연근무사용으로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 및 협력이 어렵다는 이유가 여성보다 많았다. 즉, 여성은 환경에 대한 이유가 남성보다 많고, 남성은 불이익이나 관

제 등에 대한 이유가 여성보다 많아 제도 접근 측면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더욱 적극 동의하기도 하였고, 일-생활 균형 제도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적극 이용 등 성별 차이 없는 균등한 이용에 대해 근소하게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갖추어진 제도에 대한 이용 용이성과 실제 제도 이용에 있어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6. 다양한 조건에서의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개인이나 가족 조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획일적인 제도로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나타나 일-생활 균형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에 있어서도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이나 욕구를 반영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성별, 혼인, 가족 조건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평소 돌봄 및 가사에 할애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많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한 주체는 여성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생활 균형에 갈등 정도는 남성이 더 높았지만, 실제로 일-생활 균형 만족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유연근무제도 이용 용이 정도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용이하다는 응답이 더 높아서 일-생활 균형에서 갈등 경험보다는 만족 정도에서 여성이 더 낮은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상태 별로는 일-생활 균형을 실천함에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가 미혼보다 기혼이 높았다.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갈등 경험에서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드러났다. 그리고 양육자가 1명인지 2명인지에

따라서도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성별, 혼인, 자녀 및 양육자 조건은 일-생활 균형 만족과 삶의 질 만족 정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1명인 경우는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이 낮아질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시간 보전이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공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양육자가 1명인 가족의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부나 모 한쪽의 육아휴직 동안에만 양육자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와 함께 하는 시간량에서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1인 양육자 대상 가사지원 서비스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는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는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 제도에 있어 이용 활성화와 함께 제도 사용자의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한 제도 정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일-생활 균형은 생애주기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모두의 워라밸이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나 조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일을 가장 많이 할 시기이면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는 30대와 40대이다. 특히 30대는 장시간 일하는 문화, 과도한 업무량,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시간·체력 부족 등을 일과 가족 생활에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양육자가 모두 일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나아가 지역 또한 다양한 조건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시간 사용이나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한 환경 등의 측면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약간씩 발견되었다. 큰 틀에서의 법과 제도는 중앙에서 시행하는 것에 기준

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실천은 결국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지에 따라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욕구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지역의 특성이나 생활 영역에 대한 고려를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 제도적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 적절한 일-생활 균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 차원에서 제도의 실행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단위로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정책과 제도를 실행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7.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관심

일-생활 균형은 ‘일’이 있을 때의 경우를 상정하고 제도나 정책적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취업자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비취업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주로 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여러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자리를 갖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사 및 돌봄, 교육 및 자기계발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취업자보다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점은 주로 하는 학습이나 돌봄 및 가사 일이 많아서 어렵다는 응답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그동안 일-생활 균형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집단인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도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것이 비취업자의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에서 결혼한 비취업자의 경우는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혼 비취업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 일-생활 균형에 대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만족 정도가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균형 정도가 높았다. 또한 기혼 비취업자이면서 주로 하는 일이 가사 및 돌봄인 경우, 자녀 유무에 따른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여성과 가사 및 돌봄 일을 주로 하는 경우에 자녀 유무에 따라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가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자녀가 있는 집단은 기혼 취업자보다 기혼 비취업자의 경우에 더 낮은 일-생활 균형 만족 수준을 보였다. 그동안 취업자에 대한 일-생활 균형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비취업 전업주부나 전업 양육자(돌봄자)의 경우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취업자의 시간 사용이나 일-생활 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8. 앞으로의 일-생활 균형 제도 방향

앞으로의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정책에서 가장 많은 욕구를 보인 것은 근무시간 유연성과 임금근로자 이외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등 제도 혜택에 있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었다. 시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과 모두에게 제도가 적용되는 환경이 요구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과 같은 제도 이용 경험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제도 혜택에 있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나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생활 균형 실천에서 자녀 유무가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간 보장 방법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자가 일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보다 일하는 시간을 조정해 일하는 양육자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과 3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양육기 근로시간 유연성이나 휴직제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양육 집중 시기에는 근로의 제도 활용이 당연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휴직 제도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이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 동료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의 제도 사용으로 인해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제도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제도를 사용할 상황은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시키는 것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일부에게만 지원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차별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제도 사용 가능성 자체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조사 중 정책 관련 분야는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나 조사에서는 최근에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 사용에 대한 실태 및 욕구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워라벨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도록 정책적 환경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계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생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사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초 결과 이외

에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다양한데, 이 연구에서는 기초 결과 제시에 대부분을 할애하여 세부 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생성된 자료를 활용하여 세분화된 대상이나 분야 등에 대한 심층분석이 이후의 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8호. 2020. 6. 9. 일부 개정.
- 고용노동부. (2021).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12. 3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29에서 2022. 6. 21. 인출.
- 권소영, 이재림. (2019).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유형화와 유형별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의 양, 근로시간대, 근로시간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4), 1-25.
- 권혜원. (2016).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유연근무제와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문경영인연구, 19(1), 71-99.
- 김경희. (2016).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경희, 변미리, 김종진, 엄규숙, 황윤옥, 이동연.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서울의 24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pp. 11-42). 서울: 서울연구원.
- 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2005)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효과성. 여가학연구, 2(3), 29-48.
- 김진욱. (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7(3), 51-72.
- _____. (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2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 개정.
- 대한민국정부.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새로마지플랜 2010.
-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 근로자 휴가조사.

- _____. (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 _____. (2021b). 2021 근로자 휴가조사.
- _____. (2021c). 코로나19로 문화 향유, 여가 활동의 비대면화 가속-20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민여가활동조사’·‘근로자 휴가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 12. 30.).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306&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에서 2022. 6. 5. 인출.
- 박예송, 박지혜. (2013).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2000년 이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HRD연구, 15(1), 1-29.
-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제6차 근로환경조사 설문지 및 자료이용 설명서. 울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손영미, 박정열. (2014). 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변인과 결과변인의 차이연구: 기혼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2), 161-190.
-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장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27-52.
- 송혜림, 강은주. (2021). 취업 1인가구의 일-생활 균형: 20-30대 미혼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55-70.
- 신경아. (2009).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노동시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 176-211.
- 여성가족부. (2017).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https://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에서 6. 12. 인출.
- 여성가족부. (2022).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가족친화지수 지속 상승-2021년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 5. 2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62에서 2022. 6. 7. 인출.
- 이선형, 기나휘. (2020). 서울시 청년세대의 일·생활균형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명선, 이영호. (2020).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2), 175-218.
- 장영은, 박정윤, 이승미, 권보라. (2011). 유자녀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 균형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63-72.
- 전기택, 김종숙, 김난주, 신우리, 이선행, 노우리. (2021).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기택, 박수범, 신우리, 김수진, 박민영. (2021).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서영, 박정윤, 김양희. (2008). 기혼 남녀의 일-가족 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59-79.
- 조희금, 서지원. (2009).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61-81.
- 진미정, 성미애. (2012). 직장 유형에 따른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지각: 가족 친화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3-24.
- 통계청. (2019a).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18.).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9366에서 2022. 5. 15. 인출.
- 통계청. (2019b). 생활시간조사 통계정보보고서.
<https://www.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c>

- onfmNo=101052에서 2022. 6. 16. 인출.
- 통계청. (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0. 7. 3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bmode=read&aSeq=384161&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2. 6. 16. 인출.
- 한경혜, 장미나. (2009). 기혼남녀근로자의 일·가족 균형과 관련요인: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85-115.
- Bertolini, S., & Poggio, B. (2022). *Research handbook on work-life balance: Emerging issues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UK: Edward Elgar Publishing.
- Casper, W. J., Marquardt, D. H., Roberto, K. J., & Buss, C. (2016). The hidden family lives of single adults without dependent children. In T.D. Allen & L. T. Eby (Eds.), *The Oxford Handbook of Work and Family* (pp. 182-195).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found. (2017a). *Sixth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Overview report(2017 update)*.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Eurofound. (2017b).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2016: Quality of life,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quality of society*.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 (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10-531.
- Kirchmeyer, C. (2000). Work-life initiatives: Greed of benevolence regarding worker' time. In C. L. Cooper & D. M. Rousseas(Eds.), *Trends in organizational behavior*(Vol. 7, pp. 79-93). West Sussex, UK: Wiley.

- Tausing, M., & Fenwick, R. (2001). Unbinding time: Alternate work-schedules and work-life balanc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2), 101-119.
- Tracey, W. (2015). Work-life balance/imbalance: the dominance of the middle class and the neglect of the working clas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6(4), 691-717.

〈홈페이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KWCS). [웹사이트]. (2022. 6. 17.). URL:
<https://oshri.kosha.or.kr/oshri/researchField/introduction.do>
- 일생활균형재단.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웹사이트]. (2022. 6. 17.). URL:
<https://kwlf.org/%EC%9E%AC%EB%8B%A8%EC%86%8C%EA%B0%9C/%EC%9D%BC%EC%83%9D%ED%99%9C%EA%B7%A0%ED%98%95%EC%9D%B4%EB%9E%80/>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 세대수. [웹사이트]. (2022. 9. 2.). URL: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웹사이트]. (2022. 9. 2.). URL: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총조사인구(2015년 이후)-표본(20% 부문(2020년)-경제활동(20%표본)-성별/연령별/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시도. [웹사이트]. (2022. 9. 2.). URL: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총조사인구(2015년 이후)-표본(20%) 부문(2020년)-경제활동(20%표본)-성,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상태인구(15세 이상)-시군구. [웹사이트]. (2022. 9. 2.). URL: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총조사인구(2015년 이후)-표본(20%) 부문(2020년)-경제활동(20%표본)-성, 교육정도 및 경제활동상태인구(15세 이상)-시군구. [웹사이트]. (2022. 9. 2.). URL: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Cambridge Dictionary. work-life balance. [Website]. (2022. 5. 15.).

URL: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

Eurofound. EWCTS 2021-Questionnaire. [Website]. (2022. 7. 11.). URL:

<https://www.eurofound.europa.eu/surveys/european-working-conditions-surveys/european-working-conditions-survey-2021/ewcs-2021-questionnaire>

OECD Better Life Index. [Website]. (2022. 6. 17.). URL: Work-life

Balance.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work-life-balance/>

OECD. Stat. [Website]. (2022. 10. 24.).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부록 1]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조사표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일-생활 균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국민 2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요 시간은 약 30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코드화되며, 통계 산출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보안 처리가 되어 있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며, 향후 연구결과물에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본 조사가 향후 정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책임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변수정 연구위원 담당연구원: 오신희 전문연구원 (☎ 044-287-8355)	조사 수행 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담당자: 강지환 매니저 (☎ 02-3429-1758)
----------	--	----------------	--

Screening Questions

SQ1.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년 □□월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동'과 '읍/면'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동 ② 읍/면

SQ5. 귀하의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사실혼, 동거 포함) ③ 이혼/별거 ④ 사별

(SQ5의 ②번 응답자만)

SQ5-1. 귀하는 혼인 신고를 하셨습니까?

- ① 했음 ② 안 했음

A. 경제활동 및 일자리

모든 응답자

지금부터 귀하의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A1.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까?

- * 지난 1주일 동안 명절(추석연휴)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병가 등으로 한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 1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돈을 받지 않고 동일가구 내 가족 또는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일을 하였음'입니다.

① 일을 하였음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취업자 (문A1-1로 이동)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비취업자 (문A1-2로 이동)

취업자 모두 응답 [문A1의 ①, ② 응답자]

문A1-1. 귀하의 일자리(혹은 직업)는 몇 개입니까?

① 1개 → (문A2로 이동)

② 2개 → (문A1-1-1로 이동)

③ 3개 이상 → (문A1-1-1로 이동)

문A1-1-1. 귀하가 2개 이상의 일자리(직업)를 가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업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 ②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추가 수입을 위해
- ③ 즐거운 일/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 ④ (이직 및 창업 등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비취업자 모두 응답 [문A1의 ③ 응답자]

문A1-2. 귀하의 현재 주된 역할 또는 하고 계신 일(상태)은 무엇입니까?

- ① 가사 일 및 돌봄(전업주부)
- ② 학업 또는 교육 수강(학생, 취업 준비생, 유학 준비생, 재수생, 고시생, 직장 소속이 아닌 직업 훈련생 등)
- ③ 군인 또는 군입대 대기 중
- ④ 교육·훈련, 가사·돌봄 일 없이 무직
-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A1-3. 귀하는 **최근 3년 이내**에 수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A1-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WA1 또는 문B13으로 이동)

문A1-4. 귀하가 과거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거나 계속 일하지 않은 이유가 일과 생활(돌봄, 가족·개인생활 및 여가 등)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서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문WA1 또는 문B13으로 이동)

취업자 모두 응답 [문A1의 ①, ② 응답자]

지금부터 귀하의 일자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귀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세요. 만일 각 일자리에 같은 양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귀하가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문A2. 귀하의 지난 1주일 동안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① 상용근로자 → (문A2-1-1로 이동)
- ② 임시근로자 → (문A2-1-2로 이동)

- ③ 일용근로자 → (문A2-1-2로 이동)
-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 (문A3으로 이동)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문A2-2-1로 이동)
- ⑥ 무급가족종사자 → (문A3으로 이동)

* 상용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의 인사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거나 퇴직금과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 임시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포함)

* 일용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유급 고용원을 1명 이상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일주일 중 하루라도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예: 일요일만 고용)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명 이상 동료(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 내 가족 또는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보수를 받는 경우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로 간주

(문A2의 ①, ②, ③ 응답자만)

문A2-1. 귀하의 현재 일자리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번호	질문
문A2-1-1	(문A2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정규직 으로 일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예, 정규직 근무 ② 아니요, 비정규직 근무

번호	질문																				
문A2-1-2	<p>귀하는 시간제로 근무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시간제로 근무 ② 아니오, 전일제로 근무</p> <p>* 시간제 근로(part time): 고용 계약 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짧게 근로하는 형태(단,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전일제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동등하다면 '전일제'로 분류)</p> <p>* 전일제 근로(full time): 고용 계약 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정규 직원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로하는 형태(격일제, 교대제 포함)</p>																				
문A2-1-3	<p>귀하는 교대제로 근무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교대제 근무 ② 아니오, 교대제 아님</p>																				
문A2-1-4	<p>귀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p> <p>② 아니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p> <p>*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409 930 1016 1135"> <thead> <tr> <th colspan="4">법정특고직업유형</th> </tr> </thead> <tbody> <tr> <td>보험설계사</td> <td>건설기계조종사</td> <td>방문강사</td> <td>학습지교사</td> </tr> <tr> <td>골프장캐디</td> <td>택배배송기사</td> <td>퀵서비스기사</td> <td>대출모집인</td> </tr> <tr> <td>신용카드 회원모집인</td> <td>대리운전기사</td> <td>방문판매원</td> <td>대여제품 방문점검원</td> </tr> <tr> <td>가전제품설치원</td> <td>화물차주</td> <td>레미콘기사</td> <td>소프트웨어 기술자(프로그래머)</td> </tr> </tbody> </table>	법정특고직업유형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배송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레미콘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로그래머)
법정특고직업유형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배송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레미콘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로그래머)																		
문A2-1-5	<p>귀하는 플랫폼 종사자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p> <p>② 아니오, 플랫폼 종사자 아님</p> <p>* 플랫폼 종사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등을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 (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p>																				

(문A2의 ⑤ 응답자만)

문A2-2. 귀하가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번호	질문																				
문A2-2-1	<p>귀하는 자유 활동가(프리랜서)로 일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자유 활동가(프리랜서)로 일함</p> <p>② 아니오, 자유 활동가(프리랜서)로 일하지 않음</p>																				
문A2-2-2	<p>귀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p> <p>② 아니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p> <p>*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로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법정특고직업유형</th> </tr> </thead> <tbody> <tr> <td>보험설계사</td> <td>건설기계조종사</td> <td>방문강사</td> <td>학습지도사</td> </tr> <tr> <td>골프장캐디</td> <td>택배배송기사</td> <td>퀵서비스기사</td> <td>대출모집인</td> </tr> <tr> <td>신용카드 회원모집인</td> <td>대리운전기사</td> <td>방문판매원</td> <td>대여제품 방문점검원</td> </tr> <tr> <td>가전제품설치원</td> <td>화물차주</td> <td>레미콘기사</td> <td>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td> </tr> </tbody> </table>	법정특고직업유형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학습지도사	골프장캐디	택배배송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레미콘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법정특고직업유형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학습지도사																		
골프장캐디	택배배송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레미콘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문A2-2-3	<p>귀하는 플랫폼 종사자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p> <p>② 아니오, 플랫폼 종사자 아님</p> <p>* 플랫폼 종사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등을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 (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p>																				

문A3. 귀하가 현재 주로 일하시는 곳(직장)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 및 창고업

-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정보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부동산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⑭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⑳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A4. 귀하의 현재 일자리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숙련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보기〉	
직업대분류	직업 설명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전 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안내 및 접수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이나 신변보호, 돌봄, 보건·의료분야 보조 서비스와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공공 사회서비스 및 개인 생활 서비스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한다.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홍보하며, 매장에서 계산을 하거나 요금정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보기〉	
직업대분류	직업 설명
⑥ 농림어업숙련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하고, 물고기 및 기타 수생 동·식물을 번식 및 양식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 작업은 손과 수공구를 주로 사용하며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기계의 성능보다 사람의 능력이 갖는 역할이 중요하다.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과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또한 운송장비의 운전업무도 포함된다.
⑨ 단순노무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문A5. 귀하가 현재 일하는 회사나 조직(사업 또는 농어업 활동 포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민간회사

* 민간(개인) 소유의 회사/조직/사업체

②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중앙정부/지자체/국가 소유의 학교·병원·대학(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공공기관(정부투자, 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공공 협력 조직

* 정부/지자체가 지분을 갖고 있으나 민간 자본도 투자되어 있는 공기업

④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관(NGO)

* 국가 소유가 아니면서 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대한적십자사, 기독교 청년회(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 연합 등의 시민 사회단체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A6. 귀하가 현재 일하는 직장(사업체)에는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 귀하의 직장(사업체)이 여러 곳(본사+지사)인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일하는 곳'의 종사자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 *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과 일정하게 고정된 근무지가 없어 사업장(사업체)내 또는 현장, 일반가정, 사업체,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하는 경우, 현재 주로 가장 많이 일하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응답자가 사업주로 있는 점포만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① 1명(나 혼자 일함) | ② 2~4명 | ③ 5~9명 |
| ④ 10~29명 | ⑤ 30~49명 | ⑥ 50~99명 |
| ⑦ 100~249명 | ⑧ 250~299명 | ⑨ 300~499명 |
| ⑩ 500~999명 | ⑪ 1,000~1,999명 | ⑫ 2,000명 이상 |

(문A6의 ① 응답자만 제외)

문A7. 귀하가 현재 일하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중 여성의 비중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① 없거나 거의 없음 ② 반보다 적음 ③ 반 정도
 ④ 반보다 많음 ⑤ 모두 혹은 거의 모두

문A8. 귀하의 사회보험 가입 상태는 어떠합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사회보험 종류	가입 상태
문A8-1. 고용보험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예, 가입함 → (문A8-2로 이동) ② 아니오, 가입하지 않음 → (문A8-1-1로 이동)
문A8-1-1.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가입대상자가 아님 → (문A8-1-2로 이동) ② 가입대상이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 안 함 → (문A8-2로 이동) ③ 가입대상이지만 사업주(고용주)가 가입하지 않음 → (문A8-2로 이동)

사회보험 종류	가입 상태
문A8-1-2. 고용보험 가입 의향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있음 ② 없음
문A8-2. 건강보험	귀하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는 무엇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의료수급권자 ④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문A8-3. 국민연금	귀하의 국민연금 가입 상태는 어떠합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특수지역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사학연금) ④ 가입하지 않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문WA1부터 B파트 앞까지 추가 질문 [SQ5의 ② 응답자]

다음은 귀하의 [배우자]의 경제활동, 일자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WA1. 귀하의 배우자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까?

* 지난 1주일 동안 명절(추석연휴)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병가 등으로 한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 1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돈을 받지 않고 동일가구 내 가족 또는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일을 하였음'입니다.

① 일을 하였음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취업자 (문WA1-1로 이동)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비취업자 (문WA1-2로 이동)

취업자 모두 응답 [문WA1의 ①, ② 응답자]

문WA1-1. 귀하의 배우자의 일자리(혹은 직업)는 몇 개입니까?

- ① 1개 → (문WA2로 이동)
- ② 2개 → (문WA1-1-1로 이동)
- ③ 3개 이상 → (문WA1-1-1로 이동)

문WA1-1-1. 귀하의 배우자가 2개 이상의 일자리(직업)를 가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업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 ②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추가 수입을 위해
- ③ 즐거운 일/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 ④ (이직 및 창업 등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비취업자 모두 응답 [문WA1의 ③ 응답자]

문WA1-2. 귀하의 배우자가 주로 하는 역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가사 일 및 돌봄(전업주부)
- ② 학업 또는 교육 수강(학생, 취업 준비생, 유학 준비생, 재수생, 고시생, 직장 소속이 아닌 직업 훈련생 등)
- ③ 군인 또는 군입대 대기 중
- ④ 교육·훈련, 가사·돌봄 일 없이 무직
-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WA1-3. 귀하의 배우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수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WA1-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B1 또는 문B13으로 이동)

문WA1-4. 귀하의 배우자가 과거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거나 계속 일하지 않은 이유가 일과 생활(돌봄, 가족·개인생활 및 여가 등)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서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문B1 또는 문B13으로 이동)

취업자 모두 응답 [문WA1의 ①, ② 응답자]

지금부터 귀하의 [배우자]의 일자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배우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세요.
만일 각 일자리에 같은 양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귀하의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문WA2. 귀하의 배우자의 지난 1주일 동안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① 상용근로자 → (문WA2-1-1로 이동)
- ② 임시근로자 → (문WA2-1-2로 이동)
- ③ 일용근로자 → (문WA2-1-2로 이동)
-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 (문WA3)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문WA2-2-1로 이동)
- ⑥ 무급가족종사자 → (문WA3으로 이동)

* 상용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의 인사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거나 퇴직금과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 임시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포함)

* 일용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유급 고용원을 1명 이상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일주일 중 하루라도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예: 일요일만 고용)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명 이상 동료(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 내 가족 또는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보수를 받는 경우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로 간주

(문WA2의 ①, ②, ③ 응답자만)

문WA2-1. 귀하의 배우자의 현재 일자리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번호	질문																				
문WA2-1-1	(문WA2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배우자는 정규직 으로 일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예, 정규직 근무 ② 아니오, 비정규직 근무																				
문WA2-1-2	귀하의 배우자는 시간제 로 근무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예, 시간제로 근무 ② 아니오, 전일제로 근무 * 시간제 근로(part time): 고용 계약 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짧게 근로하는 형태(단,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전일제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동등하다면 '전일제'로 분류) * 전일제 근로(full time): 고용 계약 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정규 직원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로하는 형태(격일제, 교대제 포함)																				
문WA2-1-2-1	귀하의 배우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예, 주 15시간 미만 근무 ② 아니오, 주 15시간 이상 근무																				
문WA2-1-3	귀하의 배우자는 교대제 로 근무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예, 교대제 근무 ② 아니오, 교대제 아님																				
문WA2-1-4	귀하의 배우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 ② 아니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로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법정특고직업유형</th> </tr> </thead> <tbody> <tr> <td>보험설계사</td> <td>건설기계조종사</td> <td>방문강사</td> <td>학습지교사</td> </tr> <tr> <td>골프장캐디</td> <td>택배배송기사</td> <td>퀵서비스기사</td> <td>대출모집인</td> </tr> <tr> <td>신용카드 회원모집인</td> <td>대리운전기사</td> <td>방문판매원</td> <td>대여제품 방문점검원</td> </tr> <tr> <td>가전제품설치원</td> <td>화물차주</td> <td>레미콘기사</td> <td>소프트웨어 기술자(프로그래머)</td> </tr> </tbody> </table>	법정특고직업유형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배송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레미콘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로그래머)
법정특고직업유형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배송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레미콘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로그래머)																		

번호	질문
문WA2-1-5	<p>귀하의 배우자는 플랫폼 종사자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 ② 아니오, 플랫폼 종사자 아님</p> <p>* 플랫폼 종사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등을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 (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p>

(문WA2의 ⑤ 응답자만)

문WA2-2. 귀하의 배우자가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번호	질문																				
문WA2-2-1	<p>귀하의 배우자는 자유 활동가(프리랜서)로 일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자유 활동가(프리랜서)로 일함 ② 아니오, 자유 활동가(프리랜서)로 일하지 않음</p>																				
문WA2-2-2	<p>귀하의 배우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 ② 아니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p> <p>*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로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colspan="4">법정특고직업유형</th> </tr> </thead> <tbody> <tr> <td>보험설계사</td> <td>건설기계조종사</td> <td>방문강사</td> <td>학습지교사</td> </tr> <tr> <td>골프장캐디</td> <td>택배배송기사</td> <td>퀵서비스기사</td> <td>대출모집인</td> </tr> <tr> <td>신용카드 회원모집인</td> <td>대리운전기사</td> <td>방문판매원</td> <td>대여제품 방문점검원</td> </tr> <tr> <td>가전제품설치원</td> <td>화물차주</td> <td>레미콘기사</td> <td>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td> </tr> </tbody> </table>	법정특고직업유형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배송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레미콘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법정특고직업유형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배송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레미콘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문WA2-2-3	<p>귀하의 배우자는 플랫폼 종사자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p> <p>① 예,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 ② 아니오, 플랫폼 종사자 아님</p>																				

번호	질문
	* 플랫폼 종사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등을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 (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문WA3.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주로 일하시는 곳(직장)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 및 창고업
-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정보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부동산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⑭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⑳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WA4. 귀하 배우자의 현재 일자리 직종은 무엇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숙련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보기〉	
직업대분류	직업 설명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보기〉	
직업대분류	직업 설명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직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안내 및 접수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이나 신변보호, 돌봄, 보건·의료분야 보조 서비스와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공공 사회서비스 및 개인 생활 서비스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한다.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홍보하며, 매장에서 계산을 하거나 요금정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⑥ 농림어업숙련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하고, 물고기 및 기타 수생 동·식물을 번식 및 양식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 작업은 손과 수공구를 주로 사용하며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기계의 성능보다 사람의 기능이 갖는 역할이 중요하다.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과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또한 운송장비의 운전업무도 포함된다.
⑨ 단순노무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문WA5.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일하는 회사나 조직(사업 또는 농어업 활동 포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① 민간회사

* 민간(개인) 소유의 회사/조직/사업체

②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중앙정부/지자체/국가 소유의 학교·병원·대학(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공공기관(정부 투자, 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공공 협력 조직

* 정부/지자체가 지분을 갖고 있으나 민간 자본도 투자되어 있는 공기업

④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관(NGO)

* 국가 소유가 아니면서 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대한적십자사, 기독교 청년회(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 연합 등의 시민 사회단체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B. 근로시간·환경 및 만족

취업자 모두 응답 [문A1의 ①, ② 응답자]

지금부터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B1. 귀하의 계약상 근로시간과 실제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및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응답
- * 0시간은 응답할 수 없으며, 30분이 넘는 경우 1시간으로 반올림하여 적을 것
- * 주업과 부업을 응답한 경우 총 일하는 시간이 맞는지 확인
- * 주업: 자기 또는 가구(원)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로서 지난 1주간 취업시간이 가장 많은 일
- * 부업: 자기 또는 가구(원)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로서 주업 이외에 하는 부수적인 일
- * 근로시간 포함: 초과 근무시간,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한 무급가족종사자가 일한 시간 등
- * 근로시간 제외: 가사일, 무보수 봉사활동, 주당 18시간 미만 동안 무급으로 가족 일을 도운 시간 등
- *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은 실제 일하는 시간만 응답

(※ 일주일, 한 달 중 응답하기 편리한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A1-1의 ① 응답자)

문항	일주일 기준	또는	한달 기준
계약상 근로시간	문B1-1-1. 주 □□ 시간	또는	문B1-1-2. 월 □□□ 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문B1-2-1. 주 □□ 시간	또는	문B1-2-2. 월 □□□ 시간
			문B1-1-2-1. ① 계약상 근로시간 정하지 않음 문B1-1-2-2. ② 잘 모름

(문A1-1의 ②, ③ 응답자)

문항	일주일 기준	또는	한달 기준
계약상 근로 시간	주된 일자리(주업) 문B1-3-1. 주 □□ 시간	또는	문B1-3-2. 월 □□□ 시간
			문B1-3-2-1. ① 계약상 근로시간 정하지 않음 문B1-3-2-2. ② 잘 모름

문항	일주일 기준	또는	한달 기준
실제 일하는 시간	1) 주된 일자리(주업) 문B1-4-1-1. 주 □□ 시간	또는	문B1-4-1-2. 월 □□□ 시간
	2) 다른 일자리(부업) 문B1-4-2-1. 주 □□ 시간	또는	문B1-4-2-2. 월 □□□ 시간
	총 실제 일하는 시간 문B1-4-3-1. 주 □□ 시간	또는	문B1-4-3-2. 월 □□□ 시간

문B2. 귀하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일주일 또는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고 싶습니까?

*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주당(월당) 희망 근로시간을 기재하되, 근무시간이 많아지면 소득이 늘고, 짧아지면 소득이 줄어 들 수 있으므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주당 희망 근로시간을 기재
* (참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의 일주일 법정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허용되는 추가 연장 근무 시간은 주 12시간임

(※ 일주일, 한 달 중 응답하기 편리한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일주일 기준 주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시간	또는	한 달 기준 월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시간
--	----	--

문B3. 귀하의 휴(무)일은 대개 어느 때입니까?

- ① 토·일요일
- ② 평일(월~금)
- ③ 휴(무)일이 있지만 불규칙적이다(자유롭게 정한다)
- ④ 휴(무)일이 없다

문B4. 귀하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며칠 정도 아래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십니까? (주된 일 자리 기준으로 응답)

* 비임금근로자(문A2의 ④, ⑤, ⑥)와 프리랜서(문A2-2-1의 ①)는 문B4-1만 응답

항목	하지 않음	일
문B4-1. 월당 평균 근로일 수	0	한 달에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일
문B4-2. 평일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0	한 달에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일
문B4-3. 밤 근무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	0	한 달에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일
문B4-4. 일요일 근무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0	한 달에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일
문B4-5. 토요일 근무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0	한 달에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일

문B5. 귀하의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실제 평균 휴게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하루에 분

문B6. 귀하는 근무시간 중의 휴게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① 매우 부족함 ② 부족한 편 ③ 충분한 편 ④ 매우 충분함

지금부터 근로환경 및 특성과 일자리 만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B7. 귀하의 현재 업무 상황에 대해 다음의 각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B7-1. 근무 중(일하는 중간에)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B7-2. 내가 맡은 일(나의 일)을 완료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문B7-3. 나는 개인 일이나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근무 시간 중(일하는 중) 한두 시간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B7-4. 나의 현재 근무(일하는) 시간은 직장(하는 일) 이외의 사회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병행하기에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문B7-5. 내가 맡은 일(나의 일)은 내가 매우 열심히 일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문B7-6. 내가 맡은 일(나의 일)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나 내가 정한 장소(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문B8. 귀하는 일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B8-1. 일할 때 에너지가 총만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B8-2. 업무를 할 때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문B8-3. 업무를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문B8-4. 일 때문에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문A2의 ④, ⑤ 응답자 제외)

문B9. 귀하가 현재 일하는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직속 상관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어떻습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B9-1. 상관은 나에게 인격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대한다	①	②	③	④
문B9-2. 나는 상관이 퇴근하지 않았더라도 편하게 내가 먼저 퇴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B9-3. 나는 상관에게 휴가나 조퇴 사용이 필요할 때 편하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B9-4. 상관은 내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시간 또는 휴가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바꾸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문B10. 다음은 귀하가 다니는 직장(사업체)의 근로 여건 및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B10-1. 귀하가 다니는 직장(사업체)의 근로 여건(귀하가 하는 일의 조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항목	만족 정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문B10-1-1. 수입(하는 일에 대한 적절한 임금)	①	②	③	④
문B10-1-2. 근로시간(너무 길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시간)	①	②	③	④
문B10-1-3. 일, 가족, 개인생활 균형	①	②	③	④
문B10-1-4. 고용 안정성 보장	①	②	③	④
문B10-1-5. 경직되지 않은 자율적인 업무환경	①	②	③	④
문B10-1-6. 안전한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문B10-1-7. 사회보장(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	①	②	③	④
문B10-1-8. 복지 및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문B10-2. 귀하가 다니는 직장(사업체)을 선택하는 데 있어 근로 여건(귀하가 하는 일의 조건)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항목	중요 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는 편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문B10-2-1. 수입(하는 일에 대한 적절한 임금)	①	②	③	④
문B10-2-2. 근로시간(너무 길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시간)	①	②	③	④
문B10-2-3. 일, 가족, 개인생활 균형	①	②	③	④
문B10-2-4. 고용 안정성 보장	①	②	③	④
문B10-2-5. 경직되지 않은 자율적인 업무환경	①	②	③	④
문B10-2-6. 안전한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문B10-2-7. 사회보장(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	①	②	③	④
문B10-2-8. 복지 및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문B11. 귀하는 자신의 직장(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A2의 ①, ②, ③ 응답자만)

문B12. 귀하의 노동조합 가입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 ①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음
-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 됨
- ③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 ④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 ⑤ 직장의 노동조합 유무를 모름

비취업자 응답 [문A1의 ③ 응답자]

문B13. 귀하는 자신이 주로 하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십니까?

*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주로 하는 활동을 '일'로 생각하여 응답
 예)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학업 또는 학습 및 훈련 등을, 주부의 경우는 가사 및 돌봄 등 주부로서의 주된 일을 '일'로 생각하고 응답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B13-1.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낀다	①	②	④	⑤
문B13-2.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열정적이다	①	②	④	⑤
문B13-3.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④	⑤
문B13-4. 내가 맡은 일 때문에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④	⑤

문B14. 귀하는 앞으로 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항목		일평균 시간	
C1-7. 교육, 학습 및 자기계발	학교·학원에서 하는 학습, 개인학습 및 자기계발, 자격증/취업 관련 활동	평일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주말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C1-8. 여가 및 문화	취미나 여가 활동 (독서, 스포츠, 영화, TV, 게임, OTT, 인터넷 등 포함)	평일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주말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C1-9. 교제 및 사회활동	교제 활동, 봉사/종교 활동	평일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주말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C1-10. 휴식 및 기타	활동없이 쉬는 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된 휴식은 제외)	평일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주말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총 시간		평일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4 시간 <input type="text"/> 0 <input type="text"/> 0 분
		주말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4 시간 <input type="text"/> 0 <input type="text"/> 0 분

문C2. 귀하는 다음의 활동에 대한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항목		매우 부족	부족한 편	충분한 편	매우 충분
C2-1. 수면	잠자는 시간	①	②	③	④
C2-2. 근로	소득을 위한 활동 [문A1에서 ②, ③번 응답자 비해당]	①	②	③	④
C2-3. 출퇴근 및 이동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정기적인 이동/예: 학생의 통학·이동 시간)	①	②	③	④
C2-4. 식사및개인관리	식사와 개인위생, 메이크업 및 외출 준비 등에 할애하는 시간	①	②	③	④
C2-5. 가사	가정관리(빨래, 청소, 음식준비, 세탁, 장보기 등)	①	②	③	④
C2-6. 돌봄	자녀 및 가족 등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	①	②	③	④
C2-7. 교육, 학습 및 자기계발	학교·학원에서 하는 학습, 개인학습 및 자기계발, 자격증/취업 관련 활동	①	②	③	④
C2-8. 여가 및 문화	취미나 여가 활동 (독서, 스포츠, 영화, TV, 게임, OTT, 인터넷 등 포함)	①	②	③	④

항목		매우 부족	부족한 편	충분한 편	매우 충분
C2-9. 교제 및 사회활동	교제 활동, 봉사/종교 활동	①	②	③	④
C2-10. 휴식 및 기타	활동 없이 쉬는 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된 휴식은 제외)	①	②	③	④

문C3. 귀하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느 활동에 대한 시간을 조절하고 싶습니까?

문C3-1. 가장 늘리고 싶은 시간 (우선순위 2개 선택)		문C3-2. 가장 줄이고 싶은 시간 (우선순위 2개 선택)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보기	① 수면 시간	② 근로 시간	
	③ 출퇴근 시간	④ 식사 및 개인관리 시간	
	⑤ 가사 시간	⑥ 돌봄 시간	
	⑦ 교육, 학습 및 자기계발 시간	⑧ 여가 및 문화활동 시간	
	⑨ 교제 및 사회활동 시간	⑩ 휴식 시간	
	⑪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C4. 귀하는 평소에 전반적으로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함 ② 부족한 편 ③ 여유 있는 편 ④ 매우 여유 있음

문C5. 귀하는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잠자리 들 때)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 ① 전혀 피곤하지 않음
 ② 피곤하지 않은 편임
 ③ 피곤한 편임 → (문C5-1로 이동)
 ④ 매우 피곤함 → (문C5-1로 이동)

(문C5의 ③, ④ 응답자만)

문C5-1. 귀하가 피곤함을 느끼는 가장 주된 활동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일 ② 출퇴근 및 이동 ③ 가사(자녀 양육 제외)
 ④ 자녀 양육 및 가족 등 돌봄 ⑤ 교육, 학습 및 자기계발
 ⑥ 교제 및 사회활동(친목, 모임, 동호회, 봉사, 종교 등)
 ⑦ 건강상태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지금부터 가구 상황 및 집안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C6.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귀하를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_____명

- * 본인을 포함한 숫자를 기입해 주세요.
- *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1"로 기입해 주세요.

문C7.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

- ① 같이 사는 사람 없음
- ② 배우자(파트너/애인) ③ 자녀 ④ 본인의 어머니
- ⑤ 본인의 아버지 ⑥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어머니
- ⑦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아버지 ⑧ 손자녀
- ⑨ 조카 ⑩ 본인이나 배우자(파트너/애인)의 형제, 자매
- ⑪ 본인이나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조부모 ⑫ 친구나 이웃
- ⑬ 기타(적어주세요: _____)

(SQ5에서 2번 응답자만 질문)

문C8. 귀하는 주말부부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C6의 "1명" 응답자 제외)

문C9.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 * 귀하의 법적 자녀가 아니더라도 자녀로 생각하고 사는 대상이 있다면 응답해 주세요.
- * 학교에 다닐 연령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연령 구분상 취학 연령대 아동으로 응답해 주세요.

자녀 현황	자녀 수
① 자녀 없음	-
② 미취학 아동 (0세~만 5세 이하)	_____명
③ 취학 연령대 아동 (만 6세 ~ 만 18세 이하)	초등 _____명
	중등 _____명
	고등 _____명
④ 성인 자녀	_____명
총 자녀 수	총 _____명

* 이어지는 질문에서 '가사'는 돌봄활동을 제외한 집안일(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에 대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C10. 귀댁의 일주일 동안 가사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 휴거나 명절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평소의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그 외 사람: 가사도우미나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가사 일을 하는 경우
- * 해당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

본인()% + 배우자(파트너/애인)()% + 함께 사는 다른 구성원()% + 그 외 사람()% = 100%

문C11. 귀하는 가사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① 한 달에 1회 미만 ② 한 달에 1~3회 정도
-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5회 정도 ⑤ 매일

문C12. 귀하는 가사 일이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부담되는 편이다 ④ 매우 부담된다

지금부터 돌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은 노인이나 아동 등 연령에 관계없이 밀접하게 돌보는 것 또는 활동이나 시간 관리 등을 돕고 보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 아동의 등하교 및 이동 시간을 함께 하거나 숙제를 하도록 돕는 것 포함

문C13. 귀하가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이 있습니까?

* 같이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이 있다면 '예'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예 → (문C13-1로 이동) ② 아니오 → (D영역으로 이동)

문C13-1. 귀하가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문C13-2. 귀하가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가장 많이 돌보는 대상 순으로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자녀 ② 배우자(파트너/애인) ③ 본인의 어머니
- ④ 본인의 아버지 ⑤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어머니 ⑥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아버지
- ⑦ 손자녀 ⑧ 본인이나 배우자(파트너/애인)의 형제, 자매
- ⑨ 조카 ⑩ 본인이나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조부모
- ⑪ 친척 ⑫ 친구나 이웃 ⑬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지금부터 귀하가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돌본다고 응답한 대상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C14. 귀하가 가장 많이 돌보는 대상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 세

→ 만 18세 이하는 문C14-1로 이동, 만 18세 이상은 문C15로 이동

문C14-1. 그 아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미취학 아동 → (문C14-1-1로 이동) ② 초등학생 → (문C14-1-2로 이동)
- ③ 중학생 → (문C15로 이동) ④ 고등학생 → (문C15로 이동)
- ⑤ 대학생 → (문C15로 이동)
- ⑥ 취학 연령대이지만 학교 안다님 → (문C15로 이동)

(문C14-1의 ①응답자만)

문C14-1-1. 그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놀이학교 등)에 다닙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C14-1의 ②응답자만)

문C14-1-2. 그 아동은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_____ 학년

문C20. 귀하가 돌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귀하를 대신해 돌봄을 맡을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C20-1로 이동) ② 아니오 → (D영역으로 이동)

문C20-1. 귀하가 돌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누구에게 돌봄을 부탁합니까?

- ① 배우자 ② (배우자 이외) 가족이나 친척 ③ 지인
 ④ 무료 서비스(기관/도우미) 이용 ⑤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기관/도우미) 이용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D. 여가 및 쉼

모든 응답자

지금부터 여가시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D1. 귀하는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 포함)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2개 선택]

주 중: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주말(휴일 포함):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 ①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유선방송,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② 문화 예술 관련 활동(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관람, 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③ 산책, 산행 및 스포츠 활동
 ④ 취미, 자기계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⑤ 여행 및 관광(캠핑 등)
 ⑥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⑦ 교제 및 사교 활동
 ⑧ 봉사 및 종교 활동
 ⑨ 수면, 휴식
 ⑩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D2. 귀하는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매우 만족 응답자(⑦)는 문D3으로 이동 / 그 외 ①~⑥ 응답자는 문D2-1로 이동

문D2-1.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①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하여
-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 ③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 ④ 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 ⑤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 ⑥ 즐기고 싶은 여가나 취미가 딱히 없어서
- ⑦ 여가에 집중하기 어려워서(가족 돌봄 등)
-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임금근로자 응답 [문A2의 ①, ②, ③ 응답자]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휴가 및 휴식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D3. 귀하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 입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 문D3의 값이 2021년 또는 그 이전인 경우 문D4로 이동 / 그 외는 문D7로 이동

문D4. 귀하는 지난 한 해(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습니까?

- ① 예 → (문D4-1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D4-2로 이동)

(문D4-1-1의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보다 문D4-1-2의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을 경우에만 해당)

문D6. 지난 한 해(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귀하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①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 ② 조직에서 연차 사용을 규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 ③ 업무량 과다로
- ④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 ⑤ 휴가경비가 부담스러워서
- ⑥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서
- ⑦ 특별한 휴가계획이 없어서
- ⑧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편해서
- ⑨ 작업 및 협업 일정을 맞추다 보니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놓쳐서
- ⑩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D7.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적절한 항목에 응답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D7-1. 연차휴가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D7-2. 회사에서는 동료들끼리 연차휴가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를 권한다	①	②	③	④
문D7-3. 업무대행자 지정, 업무 분담 등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D7-4. 연차휴가 때 일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D8. 귀하의 직장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전체 금전 보상
- ② 일부 금전 보상
- ③ 차년도 휴가로 이월
- ④ 당해연도 소멸

문D9. 귀하가 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휴가의 법적·제도적 보장 및 준수
- ② 직장 내 휴가 사용 장려 [예: 하계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 ③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 ④ 휴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 ⑤ 휴가 시 구성원 간 일정 및 업무조정 등의 행정적 지원
-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D10. 귀하의 직장은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보상휴가제: 추가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 보상의 개념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① 예 → (문D10-1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D12로 이동)
- ③ 모르겠음 → (문D12로 이동)

(문D3의 값이 2021년 또는 그 이전인 경우 & D10의 ① 응답자만)

문D10-1. 지난 한 해(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귀하는 보상휴가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____)일
- ② 아니오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

문D11. 귀하는 **작년 한 해(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일이 없어서 일주일 이상 쉬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D12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D11-1로 이동)

문D11-1. **작년 한 해(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귀하가 주말 및 공휴일 (또는 휴일로 지정된 날) 이외에 휴가로 **계획했던 일수**와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총 며칠입니까?

* 귀하가 의지를 가지고 사용한 휴가 일수를 응답해 주세요.

문D11-1-1. ① 계획한 휴가 일수 없음
 계획 일수 ② 계획한 휴가 일수 있음 일

문D11-1-2. 일
 실제 사용 일수

문D11-2. 지난 한 해(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귀하의 사용한 휴가 일수에 만족하십니까?

항목	← 보통 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지난 1년간 내가 사용한 휴가일수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모든 응답자

문D12. 귀하는 평소 휴식에 대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함 ② 부족한 편 ③ 충분한 편 ④ 매우 충분함

문D13. 귀하가 휴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적절한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D13-1. 휴식은 나의 삶(행복도, 건강, 가족 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①	②	③	④
문D13-2. 휴식은 나의 일에 집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①	②	③	④

E. 일-생활 균형

모든 응답자

지금부터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주로 하는 활동을 '일'로 생각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학업 또는 학습 및 훈련 등을, 주부의 경우는 가사 및 돌봄 등 주부로의 주된 일을 '일'로 생각하고 응답

문E1. 귀하는 자신의 삶에서 **일-생활 균형('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생활 균형(워라벨)은 개인/가족이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가족, 여가, 개인의 삶 등)의 일상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

- | | |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
| ③ 중요한 편임 | ④ 매우 중요함 |

문E2. 귀하는 자신의 **현재 일-생활 균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 ————— 보통 ————— >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E3. 귀하는 평소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취업자 선택지 [문A1에서 ①, ② 응답자]	① 어려운 점 없음 ① 장시간 일하는 (직장)문화 ② 과도한 업무량 ③ 불규칙한 근무일정 ④ 일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름 ⑤ 다른 활동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큼 ⑥ 가사 및 육아로 자유허간이나 체력 부족 ⑦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활동이 어려움 ⑧ 주변 여가 활동 환경(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E3-1-1. 1순위 <input style="width: 80%; height: 20px;" type="text"/> 문E3-1-2. 2순위 <input style="width: 80%; height: 20px;" type="text"/>
--	---	--

비취업자 선택지 [문A1에서 ③ 응답자]	① 어려운 점 없음 ① 과도한 일(학습·훈련/돌봄·가사)의 양 ② 일(학습·훈련/돌봄·가사)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름 ③ 다른 활동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큼 ④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활동이 어려움 ⑤ 주변 여가 활동 환경(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E3-2-1. 1순위 <input type="text"/>
		문E3-2-2. 2순위 <input type="text"/>

문E4. 귀하는 더욱 조화로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간을 조정한다면 어떤 활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으십니까?

* 순수한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은 '개인 여가시간'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필수 유지 시간(수면, 식사, 개인위생 등)을 늘릴 것이다
- ② 의무 활동 시간(일, 업무, 학업, 돌봄 등)을 늘릴 것이다
- ③ 개인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다
- ④ 가족 단위 여가시간(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모임 등)을 늘릴 것이다
-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E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 및 인프라(시설 및 서비스)는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E5-1. 육아 및 돌봄 관련 환경(시설 및 서비스)	①	②	③	④
문E5-2. 문화여가 환경(시설 및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문E6~E7: 취업자 모두 응답 [문A1에서 ①, ② 응답자]

(문C9의 총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응답자만)

문E6.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E6-1. 일과 육아·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E6-2. 일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문E6-3.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문E6-4.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E6-5. 육아·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E7. 다음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E7-1. 직장생활/하는 일과 가족(개인) 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E7-2. 직장생활/하는 일 때문에 가족(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문E7-3.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개인) 생활까지 연결된다	①	②	③	④
문E7-5. 가족(개인) 생활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일에 충실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문E7-6. 가족(개인)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장생활/하는 일까지 연결된다	①	②	③	④

SQ5의 ② 응답자 중 배우자가 문WA1의 ①, ②인 경우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일함) 응답

문E8. 다음은 배우자(파트너 또는 애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배우자(파트너 또는 애인)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E8-1. 직장생활/하는 일과 가족생활이 충돌하여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E8-2. (직장) 일 때문에 가족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문E8-3.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생활까지 연결된다	①	②	③	④

(문E8-1~문E8-3 문항 중 한 개라도 ③, ④를 선택한 응답자만)

문E9. 귀하의 배우자(파트너 또는 애인)의 일-생활 균형 어려움은 귀하의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F. 삶의 만족 및 건강과 가족 형성·가치관

모든 응답자

지금부터 삶의 만족과 건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F1. 귀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F2. 현재 귀하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F2-1. 현재 귀하의 신체적 건강은....			
매우 나쁨	나쁜 편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①	②	③	④

문F2-2. 현재 귀하의 정신적 건강은....			
매우 나쁨	나쁜 편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①	②	③	④

문F3.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항목	전혀 없음	가끔	자주	항상
문F3-1.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 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문F3-2. 별일 아닌 것에 대해서도 눈물이 난다	①	②	③	④
문F3-3.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문F3-4. 과수면 또는 불면증에 시달린다	①	②	③	④
문F3-5.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취업자 모두 응답 [문A1의 ①, ② 응답자]

문F4. 귀하가 하시는 일은 귀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

문F4-1. 신체적 건강	문F4-2. 정신적 건강
①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F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일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쉬어야 할 정도로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F5-1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F6으로 이동)
- ③ 해당없음(아프지 않았다) → (문F6으로 이동)

문F5-1. 귀하가 아파도 일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돈을 벌어야 해서
- ② 회사나 사업장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 ③ 휴가나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눈치보느라
-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모든 응답자

지금부터 가족 형성 및 가치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Q5의 ①, ③, ④)

문F6. 귀하는 현재 교제하는 상대가 있습니까?

- ① 없음
- ② 있음

(SQ5의 ①, ③, ④ or SQ5-1의 ② 응답자)

문F7.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음
- ② 없는 편임
- ③ 있는 편임
- ④ 매우 많음

문F8. 귀하는 앞으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음
- ② 없는 편임
- ③ 있는 편임
- ④ 매우 많음

문F9. 귀하는 다음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F9-1.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F9-2. 가사 일은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F9-3.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F9-4.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더 좋다	①	②	③	④
문F9-5.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밖에서 돈을 버는 일보다 보람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문G2-3에서 ②응답이 최소 한 개 이상인 응답자)

문G3. 귀하가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출퇴근시간 혼잡을 피하기 위해 ② 운동·학원 등 개인시간 및 자기계발 활동을 위해
- ③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건강과 안전을 위해 ④ 회사 내부의 방침 때문에
- ⑤ 가족 돌봄을 위해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G2-3에서 ②응답이 최소 한 개 이상인 응답자)

문G4. 귀하가 유연근무제도 이용 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① 어려운 점 없었음 ①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 ②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번거로움 ③ 제도 이용 시 불이익 우려
- ④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협력이 어려움
- ⑤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그룹웨어, 온라인 소통 방식 등)
- ⑥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개인 업무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자택의 환경 등)
- ⑦ 임금 근로와 가사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더 피곤함
- ⑧ 회사의 노동감시가 오히려 더 심해짐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G2-3에서 모두 ①응답자)

문G5. 귀하가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용할 필요가 없었음 ①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번거로움
- ② 제도 이용 시 불이익 우려 ③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협력이 어려움
- ④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그룹웨어, 온라인 소통 방식 등)
- ⑤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개인 업무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자택의 환경 등)
- ⑥ 임금 근로와 가사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더 피곤할 것 같아서
- ⑦ 회사의 노동감시가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아서 ⑧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G6. 귀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문G7로 이동)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문G7로 이동)
- ③ 그런 편이다 → (문G6-1로 이동)
- ④ 매우 그렇다 → (문G6-1로 이동)

문G6-1. 귀하는 근무환경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연한 시간 사용이 더 중요
- ② 유연한 장소 선택이 더 중요
- ③ 시간과 장소 동등하게 중요

지금부터 임신·출산 및 돌봄 지원 관련 제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G7. 임신·출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귀하 직장에서의 이용 용이 정도와 이용 경험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제도	문G7-1. 인지 여부		문G7-2. 이용 용이 정도 (문G7-1의 ②응답자)					문G7-3. 최근 3년 (2020년~ 현재) 대상자 여부 (문G7-2의 ⑤응답자 제외)		문G7-4. 이용 경험 (문G7-3의 ②응답자) *여러 연도에 걸쳐 사용한 경우, 가장 최근에 사용을 마친 연도로 응답		
	모름	알고 있음	매우 어려움	어 려움 편 임	쉬 움 편 임	매 우 쉬 움	잘 모 르 겠 음	대 상 자 아 님	대 상 자 아 님	이용 경험 없 음	이용 경험 있 음	가 장 최 근 이 용 연 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__년

제도	문G7-1. 인지 여부		문G7-2. 이용 용이 정도 (문G7-1의 ②응답자)					문G7-3. 최근 3년 (2020년~ 현재) 대상자 여부 (문G7-2의 ⑤응답자 제외)		문G7-4. 이용 경험 (문G7-3의 ②응답자) *여러 연도에 걸쳐 사용한 경우, 가장 최근에 사용을 마친 연도로 응답		
	모름	알고 있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편임	쉬운 편임	매우 쉬움	잘 모르겠음	대상 자 아 님	대 상 자 아 님	이용 경험 없음	이용 경험 있음	가 장 근 년 도
2) 출산전후휴가제도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에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__년
3)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근 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 가(10일) 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__년
4) 난임치료 휴가제도												
제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 임치료를 위한 연간 3일 의 휴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__년
5) 태아검진시간 보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게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 간(외출/휴가 등)을 허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__년
6) 유산·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 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 를 지원하는 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__년
7)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 을 경우 월 1회 생리휴가 (무급)를 부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__년

문G8. 임신·출산기 근무시에 이용 가능한 다음의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제도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문G8-1. 임신부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장	①	②	③
문G8-2. 임신부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야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 근로 제한	①	②	③
문G8-3. 임신 중 근로 전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업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①	②	③
문G8-4. 임신부 위험·유해직종 근무 금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도덕 상/보건상 유해·위험 직종에 근무 금지	①	②	③
문G8-5.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시간 제공	①	②	③

문G9. 육아 및 가족돌봄 관련 시간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귀하 직장에서의 이용 용이 정도와 이용 경험, 귀하의 일-생활 균형에 도움 정도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휴직을 현재 하고 있는 경우는 이용 후 복귀 계획으로 응답해 주세요.

제도	문G9-1. 인지 여부		문G9-2. 이용 용이 정도 (문G9-1의 ②응답자)				문G9-3. 최근 3년(2020년~현재) 대상자 여부 (문G9-1의 ②응답자)		문G9-4. 이용 경험 (제도1과 2는 문G9-3의 ②응답자, 제도3과 4는 모두 응답)				문G9-5. 일-생활 균형에 도움 정도 (문G9-4의 ②응답자)				
	모름	알고 있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쉬운편임	매우쉬운편	대상자 아님	대상자 임	이용 경험 없음	이용 경험 있음	가장 최근 이용 연도	총 이용 기간	이용 후 복귀 여부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는 편	도움되는 편	매우 도움됨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	년 개월	①	①	②	③	④

제도	문G9-1. 인지 여부		문G9-2. 이용 용이 정도 (문G9-1의 ②응답자)				문G9-3. 최근 3년(2020년~현재) 대상자 여부 (문G9-1의 ②응답자)		문G9-4. 이용 경험 (제도1과 2는 문G9-3의 ②응답자, 제도3과 4는 모두 응답)				문G9-5. 일-생활 균형에 도움 정도 (문G9-4의 ②응답자)					
	모름	알고 있음	매우 어렵음	어려운편임	쉬운편임	매우 쉬움	대상자 아님	대상자 임	이용 경험 없음	이용 경험 있음	가장 최근 이용 연도	총 이용 기간	이용 후 복귀 여부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는 편	도움되는 편	매우 도움됨	
2) 육아휴직제도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	-	① 복귀함 ② 복귀 안함	①	②	③	④	
3) 가족돌봄 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연간 최대 10일)	①	②	①	②	③	④	X		①	②	-	-	X		①	②	③	④
4)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X		①	②	-	-	① 복귀함 ② 복귀 안함	①	②	③	④	

문G10. 귀하는 다음의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도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문G10-1.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에게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 지급(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①	②	③
문G10-2.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개월간 부모 각각 월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 원 지급. 4개월째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적용	①	②	③

문G11. 귀하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휴직 제도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 무엇입니까?

- ①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는 것(동료에게 부담)
- ②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
- ③ 휴직 기간으로 인해 업무 경력이나 승진에서 (동료보다) 뒤처질까봐
- ④ 휴직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가능성
- ⑤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G12. 귀하 직장의 일-생활 균형 관련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G12-1. 귀하의 직장(회사)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대해 관심(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경영목표나 추진 계획 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문G12-2. 귀하의 직장(회사)은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 제도나 정책을 잘 알고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모든 응답자

문G13. 귀하는 육아기에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돌봄 시간 중 어떠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은 '양육자의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로 서비스나 타인의 도움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
 ⑦은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주로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시간에 대폭 변화를 주는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함

일하는 시간 그대로 보장 < _____ > 직접 돌봄 시간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G14. 귀하는 일하는 한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문G14-1.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문G14-2. 한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린다	①	②	③	④

문G15. 귀하는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정책에서 어떠한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① 사각지대 없는 제도 혜택(임금근로자 이외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등)
- ② (부족하거나 지나침 없는) 적정 근로시간 준수(주 52시간 등)
- ③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대
- ④ 근무장소의 유연성 확대
- ⑤ 제도·정책 사용이 용이한 근무환경
- ⑥ 휴직 시 소득 보장 수준 제고
- ⑦ 성별 차이 없는 균등한 이용(남성 육아휴직 적극 이용 등)
-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일반사항

마지막으로 응답자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초졸 이하 | ② 중졸 | ③ 고졸 |
| ④ 전문대 재학 중(휴학 포함) | ⑤ 전문대졸 | ⑥ 대학 재학 중(휴학 포함) |
| ⑦ 대졸 | ⑧ 대학원 재학 중(휴학 포함) | ⑨ 대학원 졸 |

DQ2. 귀하 **개인**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_____ 만 원 (세금 공제 전)

* 월평균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금융소득, 이전소득(연금, 생활비 이전) 등을 포함

DQ3.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_____ 만 원 (세금 공제 전)

* 개인소득을 포함한 가구의 총 수입으로 응답

*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금융소득, 이전소득(연금, 생활비 이전) 등을 포함

DQ4. 한국 사회의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7로 가정한다면 귀하는 사회적으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하층 < _____ > 최상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분석표

〈부표 1〉 경제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일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	일하지 않았음	전체	
전체	76.0	3.6	20.4	(22,000)	100.0
성별					
남성	82.1	3.3	14.6	(11,287)	100.0
여성	69.5	4.0	26.5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68.3	3.8	27.9	(5,069)	100.0
만30~39세	79.8	5.7	14.6	(4,803)	100.0
만40~49세	79.6	3.2	17.3	(5,877)	100.0
만50~59세	75.9	2.3	21.8	(6,251)	100.0
거주지 1					
수도권	77.6	3.5	18.8	(11,620)	100.0
비수도권	74.1	3.7	22.2	(10,380)	100.0
거주지 2					
동부	76.2	3.6	20.2	(19,458)	100.0
읍면부	74.6	3.8	21.6	(2,542)	100.0
학력					
고졸 이하	65.9	4.4	29.7	(3,368)	100.0
대졸	76.7	3.5	19.8	(16,376)	100.0
대학원졸	85.9	3.0	11.1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73.3	3.8	22.9	(9,222)	100.0
기혼	77.9	3.5	18.6	(12,77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1.8	3.7	24.5	(7,356)	100.0
자녀 있음	77.9	3.1	19.0	(10,29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7.4	4.6	28.0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73.8	3.7	22.5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77.8	3.7	18.5	(6,198)	100.0
700만 원 이상	83.9	2.6	13.4	(5,741)	100.0
무응답	55.4	5.1	39.4	(62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 일자리 개수(취업자)

(단위: %, 명)

구분	1개	2개	3개 이상	전체	
전체	90.7	8.2	1.1	(17,510)	100.0
성별					
남성	90.9	8.0	1.1	(9,636)	100.0
여성	90.4	8.5	1.1	(7,874)	100.0
연령					
만19~29세	88.5	10.2	1.2	(3,656)	100.0
만30~39세	90.9	7.9	1.2	(4,103)	100.0
만40~49세	91.4	7.6	0.9	(4,863)	100.0
만50~59세	91.5	7.5	1.0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90.2	8.6	1.2	(9,435)	100.0
비수도권	91.3	7.8	1.0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90.7	8.2	1.1	(15,518)	100.0
읍면부	90.7	8.2	1.2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91.1	7.7	1.3	(2,367)	100.0
대졸	91.0	8.0	1.0	(13,138)	100.0
대학원졸	88.2	10.5	1.4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89.8	8.9	1.3	(7,107)	100.0
기혼	91.3	7.7	0.9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89.5	9.3	1.2	(5,555)	100.0
자녀 있음	91.9	7.2	0.9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88.0	10.0	2.0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91.1	8.0	0.9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90.7	8.5	0.7	(3,954)	100.0
400만 원 이상	91.7	7.3	1.0	(5,593)	100.0
무응답	87.9	10.0	2.0	(42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90.4	8.2	1.4	(2,657)	100.0
300~500만 원 미만	90.9	8.2	0.9	(4,457)	100.0
500~700만 원 미만	91.1	7.7	1.2	(5,049)	100.0
700만 원 이상	90.6	8.5	0.9	(4,971)	100.0
무응답	87.6	10.3	2.1	(37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 2개 이상의 일자리(직업)를 가지게 된 주된 이유(취업자)

(단위: %, 명)

구분	생활비 마련	추가 수입	즐거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경험 쌓기	기타	전체	
전체	42.9	38.3	14.0	4.5	0.3	(1,627)	100.0
성별							
남성	47.4	35.2	12.8	4.2	0.3	(874)	100.0
여성	37.6	41.8	15.4	4.8	0.3	(753)	100.0
연령							
만19~29세	36.4	43.4	13.3	6.5	0.4	(419)	100.0
만30~39세	42.2	38.2	14.4	5.1	0.2	(374)	100.0
만40~49세	45.0	37.1	14.2	3.3	0.4	(416)	100.0
만50~59세	47.9	34.3	14.2	3.2	0.4	(417)	100.0
거주지 1							
수도권	41.7	39.4	14.6	3.9	0.4	(923)	100.0
비수도권	44.4	36.8	13.2	5.2	0.3	(704)	100.0
거주지 2							
동부	43.2	37.9	13.9	4.6	0.4	(1,440)	100.0
읍면부	40.3	41.1	15.3	3.3	0.0	(186)	100.0
학력							
고졸 이하	53.3	32.6	10.7	3.0	0.4	(212)	100.0
대졸	42.5	39.4	13.2	4.6	0.3	(1,177)	100.0
대학원졸	35.8	37.4	20.9	5.2	0.7	(238)	100.0
혼인상태							
미혼	43.4	36.6	13.4	6.0	0.7	(726)	100.0
기혼	42.5	39.6	14.5	3.3	0.1	(9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1.6	38.9	13.1	6.3	0.1	(584)	100.0
자녀 있음	43.1	39.6	14.3	3.0	0.0	(671)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50.7	27.7	15.4	5.3	0.9	(282)	100.0
200~300만 원 미만	48.0	34.1	13.7	3.6	0.6	(459)	100.0
300~400만 원 미만	44.3	39.4	12.4	3.7	0.2	(366)	100.0
400만 원 이상	32.8	47.7	13.9	5.6	0.0	(467)	100.0
무응답	35.8	39.6	21.8	2.8	0.0	(5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1.9	23.4	9.4	3.7	1.6	(255)	100.0
300~500만 원 미만	50.3	33.7	11.2	4.4	0.4	(407)	100.0
500~700만 원 미만	40.8	42.7	13.3	3.2	0.0	(449)	100.0
700만 원 이상	28.8	45.9	18.9	6.3	0.0	(470)	100.0
무응답	36.5	39.1	21.3	3.1	0.0	(4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취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사업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전체	
전체	76.5	9.5	4.6	3.2	5.3	0.9	(17,510)	100.0
성별								
남성	78.9	7.1	4.6	3.3	5.6	0.5	(9,636)	100.0
여성	73.5	12.5	4.5	3.1	5.0	1.4	(7,874)	100.0
연령								
만19~29세	68.7	18.3	8.3	2.0	1.8	0.9	(3,656)	100.0
만30~39세	84.9	5.5	3.4	2.3	3.2	0.7	(4,103)	100.0
만40~49세	79.5	7.2	3.4	3.0	5.9	1.0	(4,863)	100.0
만50~59세	72.3	8.6	4.0	5.0	9.1	1.0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77.6	9.2	4.7	3.0	4.9	0.7	(9,435)	100.0
비수도권	75.2	9.8	4.5	3.5	5.8	1.2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76.8	9.6	4.5	3.2	5.2	0.8	(15,518)	100.0
읍면부	74.2	9.0	5.4	3.2	6.5	1.7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65.8	11.4	9.4	3.8	7.6	2.0	(2,367)	100.0
대졸	77.5	9.5	4.1	3.1	5.0	0.8	(13,138)	100.0
대학원졸	82.5	7.4	1.9	3.2	4.4	0.6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73.1	13.4	6.5	2.2	4.0	0.8	(7,107)	100.0
기혼	78.8	6.8	3.3	3.8	6.2	1.0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3.4	12.6	6.1	2.5	4.5	1.0	(5,555)	100.0
자녀 있음	79.1	7.0	2.9	3.9	6.1	1.1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40.8	32.7	15.4	0.0	7.9	3.1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80.3	10.1	4.3	0.2	4.5	0.7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84.3	5.0	2.7	2.3	5.0	0.6	(3,954)	100.0
400만 원 이상	84.9	2.7	1.7	4.8	5.4	0.5	(5,593)	100.0
무응답	44.5	6.0	3.9	43.2	1.6	0.7	(42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7.5	16.5	8.6	0.1	6.1	1.2	(2,657)	100.0
300~500만 원 미만	75.4	10.1	5.0	1.7	6.4	1.4	(4,457)	100.0
500~700만 원 미만	78.2	9.6	3.9	3.2	4.4	0.9	(5,049)	100.0
700만 원 이상	82.4	5.4	2.9	3.9	5.0	0.4	(4,971)	100.0
무응답	51.8	6.7	4.5	33.5	3.1	0.6	(37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 정규직 여부(상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	90.0	10.0	(13,392)	100.0
성별				
남성	93.4	6.6	(7,601)	100.0
여성	85.5	14.5	(5,791)	100.0
연령				
만19~29세	86.9	13.1	(2,510)	100.0
만30~39세	92.8	7.2	(3,484)	100.0
만40~49세	92.3	7.7	(3,864)	100.0
만50~59세	86.9	13.1	(3,534)	100.0
거주지 1				
수도권	91.1	8.9	(7,318)	100.0
비수도권	88.6	11.4	(6,074)	100.0
거주지 2				
동부	90.0	10.0	(11,914)	100.0
읍면부	90.1	9.9	(1,478)	100.0
학력				
고졸 이하	84.5	15.5	(1,556)	100.0
대졸	91.1	8.9	(10,180)	100.0
대학원졸	88.5	11.5	(1,655)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11.5	(5,198)	100.0
기혼	91.0	9.0	(8,19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88.6	11.4	(4,079)	100.0
자녀 있음	91.1	8.9	(6,594)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66.7	33.3	(961)	100.0
200~300만 원 미만	86.3	13.7	(4,158)	100.0
300~400만 원 미만	92.9	7.1	(3,334)	100.0
400만 원 이상	95.9	4.1	(4,748)	100.0
무응답	90.6	9.4	(190)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6〉 시간제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전체	
전체	18.3	81.7	(15,862)	100.0
성별				
남성	15.0	85.0	(8,731)	100.0
여성	22.3	77.7	(7,131)	100.0
연령				
만19~29세	30.0	70.0	(3,482)	100.0
만30~39세	12.6	87.4	(3,848)	100.0
만40~49세	14.8	85.2	(4,381)	100.0
만50~59세	17.5	82.5	(4,152)	100.0
거주지 1				
수도권	16.8	83.2	(8,633)	100.0
비수도권	20.1	79.9	(7,229)	100.0
거주지 2				
동부	18.2	81.8	(14,097)	100.0
읍면부	19.3	80.7	(1,766)	100.0
학력				
고졸 이하	28.4	71.6	(2,050)	100.0
대졸	17.6	82.4	(11,971)	100.0
대학원졸	11.2	88.8	(1,841)	100.0
혼인상태				
미혼	23.0	77.0	(6,612)	100.0
기혼	14.9	85.1	(9,250)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2.4	77.6	(5,115)	100.0
자녀 있음	14.9	85.1	(7,417)	100.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9.8	90.2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64.4	35.6	(2,471)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65.0	35.0	(2,096)	100.0
200~300만 원 미만	15.2	84.8	(4,901)	100.0
300~400만 원 미만	10.0	90.0	(3,639)	100.0
400만 원 이상	7.4	92.6	(4,994)	100.0
무응답	26.2	73.8	(233)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7〉 교대제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교대제	교대제 아님	전체	
전체	12.3	87.7	(15,862)	100.0
성별				
남성	14.6	85.4	(8,731)	100.0
여성	9.5	90.5	(7,131)	100.0
연령				
만19~29세	19.5	80.5	(3,482)	100.0
만30~39세	10.0	90.0	(3,848)	100.0
만40~49세	9.1	90.9	(4,381)	100.0
만50~59세	12.0	88.0	(4,152)	100.0
거주지 1				
수도권	10.6	89.4	(8,633)	100.0
비수도권	14.4	85.6	(7,229)	100.0
거주지 2				
동부	12.3	87.7	(14,097)	100.0
읍면부	12.4	87.6	(1,766)	100.0
학력				
고졸 이하	20.9	79.1	(2,050)	100.0
대졸	12.2	87.8	(11,971)	100.0
대학원졸	3.6	96.4	(1,841)	100.0
혼인상태				
미혼	15.2	84.8	(6,612)	100.0
기혼	10.3	89.7	(9,250)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4.0	86.0	(5,115)	100.0
자녀 있음	10.3	89.7	(7,417)	100.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0.8	89.2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20.4	79.6	(2,471)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19.3	80.7	(2,096)	100.0
200~300만 원 미만	11.4	88.6	(4,901)	100.0
300~400만 원 미만	13.3	86.7	(3,639)	100.0
400만 원 이상	9.2	90.8	(4,994)	100.0
무응답	20.3	79.7	(233)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	전체	
전체	7.8	92.2	(15,862)	100.0
성별				
남성	7.7	92.3	(8,731)	100.0
여성	7.9	92.1	(7,131)	100.0
연령				
만19~29세	8.7	91.3	(3,482)	100.0
만30~39세	6.1	93.9	(3,848)	100.0
만40~49세	6.9	93.1	(4,381)	100.0
만50~59세	9.7	90.3	(4,152)	100.0
거주지 1				
수도권	7.6	92.4	(8,633)	100.0
비수도권	8.1	91.9	(7,229)	100.0
거주지 2				
동부	7.8	92.2	(14,097)	100.0
읍면부	8.2	91.8	(1,766)	100.0
학력				
고졸 이하	12.5	87.5	(2,050)	100.0
대졸	7.3	92.7	(11,971)	100.0
대학원졸	5.9	94.1	(1,841)	100.0
혼인상태				
미혼	8.4	91.6	(6,612)	100.0
기혼	7.4	92.6	(9,250)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8.1	91.9	(5,115)	100.0
자녀 있음	7.0	93.0	(7,417)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16.3	83.7	(2,096)	100.0
200~300만 원 미만	7.4	92.6	(4,901)	100.0
300~400만 원 미만	7.0	93.0	(3,639)	100.0
400만 원 이상	5.1	94.9	(4,994)	100.0
무응답	10.1	89.9	(233)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9〉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	전체	
전체	21.8	78.2	(929)	100.0
성별				
남성	22.0	78.0	(537)	100.0
여성	21.6	78.4	(393)	100.0
연령				
만19~29세	32.7	67.3	(67)	100.0
만30~39세	22.8	77.2	(132)	100.0
만40~49세	21.2	78.8	(288)	100.0
만50~59세	20.2	79.8	(442)	100.0
거주지 1				
수도권	23.1	76.9	(458)	100.0
비수도권	20.5	79.5	(472)	100.0
거주지 2				
동부	21.3	78.7	(800)	100.0
읍면부	25.0	75.0	(129)	100.0
학력				
고졸 이하	24.7	75.3	(179)	100.0
대졸	21.9	78.1	(663)	100.0
대학원졸	15.2	84.8	(87)	100.0
혼인상태				
미혼	23.5	76.5	(281)	100.0
기혼	21.1	78.9	(64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8.0	82.0	(248)	100.0
자녀 있음	20.9	79.1	(50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6.5	73.5	(187)	100.0
200~300만 원 미만	14.4	85.6	(232)	100.0
300~400만 원 미만	26.9	73.1	(200)	100.0
400만 원 이상	20.8	79.2	(304)	100.0
무응답	39.1	60.9	(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0〉 플랫폼 종사자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	플랫폼 종사자 아님	전체	
전체	2.2	97.8	(15,862)	100.0
성별				
남성	2.5	97.5	(8,731)	100.0
여성	1.9	98.1	(7,131)	100.0
연령				
만19~29세	3.4	96.6	(3,482)	100.0
만30~39세	2.0	98.0	(3,848)	100.0
만40~49세	1.6	98.4	(4,381)	100.0
만50~59세	2.1	97.9	(4,152)	100.0
거주지 1				
수도권	2.4	97.6	(8,633)	100.0
비수도권	2.0	98.0	(7,229)	100.0
거주지 2				
동부	2.3	97.7	(14,097)	100.0
읍면부	2.0	98.0	(1,766)	100.0
학력				
고졸 이하	4.8	95.2	(2,050)	100.0
대졸	1.9	98.1	(11,971)	100.0
대학원졸	1.3	98.7	(1,841)	100.0
혼인상태				
미혼	3.1	96.9	(6,612)	100.0
기혼	1.6	98.4	(9,250)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8	97.2	(5,115)	100.0
자녀 있음	1.5	98.5	(7,417)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5.9	94.1	(2,096)	100.0
200~300만 원 미만	2.4	97.6	(4,901)	100.0
300~400만 원 미만	1.4	98.6	(3,639)	100.0
400만 원 이상	1.0	99.0	(4,994)	100.0
무응답	4.0	96.0	(233)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1〉 플랫폼 종사자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	플랫폼 종사자 아님	전체	
전체	11.8	88.2	(929)	100.0
성별				
남성	10.1	89.9	(537)	100.0
여성	14.1	85.9	(393)	100.0
연령				
만19~29세	22.1	77.9	(67)	100.0
만30~39세	11.6	88.4	(132)	100.0
만40~49세	11.2	88.8	(288)	100.0
만50~59세	10.7	89.3	(442)	100.0
거주지 1				
수도권	13.1	86.9	(458)	100.0
비수도권	10.5	89.5	(472)	100.0
거주지 2				
동부	11.9	88.1	(800)	100.0
읍면부	11.0	89.0	(129)	100.0
학력				
고졸 이하	10.2	89.8	(179)	100.0
대졸	12.9	87.1	(663)	100.0
대학원졸	6.8	93.2	(87)	100.0
혼인상태				
미혼	14.9	85.1	(281)	100.0
기혼	10.4	89.6	(64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2.5	87.5	(248)	100.0
자녀 있음	11.1	88.9	(50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18.0	82.0	(187)	100.0
200~300만 원 미만	8.3	91.7	(232)	100.0
300~400만 원 미만	10.7	89.3	(200)	100.0
400만 원 이상	11.1	88.9	(304)	100.0
무응답	20.8	79.2	(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2〉 자유 활동가(프리랜서)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자유 활동가 (프리랜서)로 일함	자유 활동가 (프리랜서)로 일하지 않음	전체	
전체	56.4	43.6	(929)	100.0
성별				
남성	54.9	45.1	(537)	100.0
여성	58.6	41.4	(393)	100.0
연령				
만19~29세	72.7	27.3	(67)	100.0
만30~39세	64.8	35.2	(132)	100.0
만40~49세	55.4	44.6	(288)	100.0
만50~59세	52.2	47.8	(442)	100.0
거주지 1				
수도권	59.6	40.4	(458)	100.0
비수도권	53.3	46.7	(472)	100.0
거주지 2				
동부	56.5	43.5	(800)	100.0
읍면부	56.2	43.8	(129)	100.0
학력				
고졸 이하	54.6	45.4	(179)	100.0
대졸	55.4	44.6	(663)	100.0
대학원졸	68.0	32.0	(87)	100.0
혼인상태				
미혼	65.0	35.0	(281)	100.0
기혼	52.8	47.2	(64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7.3	42.7	(248)	100.0
자녀 있음	52.8	47.2	(50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67.0	33.0	(187)	100.0
200~300만 원 미만	48.5	51.5	(232)	100.0
300~400만 원 미만	53.5	46.5	(200)	100.0
400만 원 이상	57.4	42.6	(304)	100.0
무응답	81.5	18.5	(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3〉 근로 분야(취업자/주된 일자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전체	(단위: % 명)	
	0.8	0.1	18.7	1.4	0.6	6.3	9.7	3.2	4.0	6.1	2.7	1.7	6.6	2.0	7.3	13.0	9.5	3.3			3.0
성별																					
남성	0.9	0.1	24.7	2.2	0.7	7.7	8.7	4.2	3.3	7.7	2.5	1.6	7.0	2.5	8.0	7.5	5.4	2.8	2.5	(9,636)	100.0
여성	0.7	0.0	11.4	0.4	0.4	4.5	11.0	2.1	4.8	4.2	3.0	1.8	6.2	1.5	6.4	19.7	14.4	3.8	3.6	(7,874)	100.0
연령																					
만19~29세	1.1	0.1	14.6	1.6	0.7	4.6	8.9	3.0	7.4	6.7	2.0	1.1	8.3	1.8	8.0	11.5	10.2	5.4	3.0	(3,656)	100.0
만30~39세	0.6	0.0	21.7	1.4	0.5	5.6	9.5	3.2	3.1	7.5	2.3	0.9	8.1	1.1	7.2	10.8	9.7	3.9	2.8	(4,103)	100.0
만40~49세	0.7	0.1	20.4	1.1	0.6	6.9	10.1	3.2	2.8	5.9	3.2	1.6	6.4	2.0	7.0	14.0	8.9	2.5	2.9	(4,863)	100.0
만50~59세	1.0	0.0	17.6	1.4	0.5	7.4	10.1	3.5	3.4	4.8	3.1	2.9	4.4	3.2	7.1	14.9	9.3	2.0	3.2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0.4	0.0	17.1	1.0	0.4	6.4	11.0	3.4	3.4	8.6	3.0	1.8	7.9	2.0	5.9	12.3	8.1	4.1	3.1	(9,435)	100.0
비수도권	1.3	0.1	20.6	1.8	0.7	6.1	8.3	3.0	4.6	3.3	2.4	1.6	5.2	2.1	8.9	13.7	11.1	2.4	2.9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0.5	0.1	18.2	1.3	0.5	6.2	10.0	3.2	3.9	6.5	2.7	1.7	7.0	2.1	7.2	13.1	9.4	3.5	3.0	(15,518)	100.0
음면부	3.3	0.0	23.0	1.7	0.9	6.8	7.4	3.7	4.4	3.4	2.6	1.6	4.1	1.8	8.2	12.1	9.8	1.8	3.3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1.6	0.0	22.3	1.6	1.2	6.5	14.6	6.6	6.5	3.4	3.5	2.1	3.1	2.6	4.6	4.8	7.1	2.7	5.2	(2,367)	100.0
대졸	0.8	0.0	18.8	1.5	0.5	6.6	9.8	3.0	3.9	6.9	2.6	1.7	5.7	2.1	7.5	12.8	9.7	3.4	2.6	(13,138)	100.0
대학원졸	0.3	0.2	13.9	0.5	0.2	3.5	3.1	1.1	1.6	4.7	2.3	1.1	16.8	0.9	9.1	24.2	10.4	3.1	3.2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0.9	0.0	16.3	1.3	0.6	5.4	10.1	3.1	5.3	7.0	2.1	1.3	8.0	1.8	7.3	11.7	9.4	5.0	3.1	(7,107)	100.0
기혼	0.8	0.1	20.4	1.4	0.5	6.9	9.4	3.3	3.1	5.5	3.1	1.9	5.7	2.2	7.3	13.8	9.5	2.1	2.9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0	0.1	16.2	1.5	0.5	5.3	11.0	3.3	5.3	6.5	2.5	1.7	6.8	1.5	7.2	11.7	9.5	4.9	3.5	(5,555)	100.0
자녀 있음	0.7	0.1	20.7	1.3	0.5	6.9	9.1	3.1	3.0	5.4	3.1	1.9	5.4	2.4	7.5	14.6	9.6	1.8	2.7	(8,335)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진체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1.6	0.1	7.5	0.5	0.8	2.9	13.5	3.8	12.1	3.4	1.4	1.0	3.8	1.4	5.3	19.8	8.8	6.4	6.0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1.0	0.0	15.5	1.1	0.6	5.3	10.8	3.4	3.6	5.2	2.2	1.8	6.2	2.5	7.4	12.9	13.6	3.6	3.4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0.8	0.0	20.8	1.8	0.6	6.8	8.9	3.0	2.3	6.4	2.3	1.5	7.6	3.1	7.2	12.6	9.2	2.4	2.6	(3,954)	100.0
400만 원 이상	0.5	0.1	25.3	1.7	0.4	8.4	7.6	3.0	1.8	8.1	3.9	1.9	7.7	1.2	8.2	10.7	5.8	2.2	1.7	(5,593)	100.0
무응답	1.0	0.0	13.7	1.9	0.2	4.1	11.5	3.8	7.8	4.0	4.3	3.3	4.3	0.9	5.8	10.7	14.1	5.3	3.4	(427)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기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⑥ 건설업
-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 및 창고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정보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⑭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16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부표 14> 현재 일자리 직종(취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전체	11.5	15.4	39.7	12.8	6.0	0.4	4.0	2.1	8.1	(17,510) 100.0
성별										
남성	17.2	15.1	33.7	9.6	5.6	0.4	6.4	3.6	8.3	(9,636) 100.0
여성	4.5	15.9	47.0	16.8	6.4	0.3	1.1	0.3	7.8	(7,874) 100.0
연령										
만19~29세	5.6	17.1	36.2	16.6	7.3	0.4	3.6	2.2	11.1	(3,656) 100.0
만30~39세	7.4	17.4	48.8	10.1	4.2	0.4	3.0	2.1	6.7	(4,103) 100.0
만40~49세	13.3	14.9	43.0	11.0	4.8	0.3	4.0	2.0	6.7	(4,863) 100.0
만50~59세	17.6	13.1	31.3	14.1	7.5	0.5	5.3	2.2	8.4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11.9	16.8	42.7	11.6	5.3	0.2	3.0	1.6	6.9	(9,435) 100.0
비수도권	11.0	13.8	36.1	14.2	6.7	0.6	5.2	2.8	9.4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11.2	15.8	40.3	12.9	5.9	0.2	3.8	2.0	7.8	(15,518) 100.0
읍면부	13.5	12.3	35.2	12.1	6.1	1.6	5.7	2.9	10.6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7.2	4.6	25.2	17.7	10.7	0.7	8.6	4.4	20.8	(2,367) 100.0
대졸	11.5	13.7	43.6	12.7	5.7	0.4	3.6	2.0	6.7	(13,138) 100.0
대학원졸	16.9	39.1	30.9	7.7	1.7	0.2	1.4	0.2	1.9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6.4	16.1	40.5	14.6	6.3	0.3	3.7	2.0	10.0	(7,107) 100.0
기혼	15.0	14.9	39.1	11.6	5.7	0.4	4.3	2.2	6.8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6.7	15.0	42.0	14.1	6.9	0.4	3.2	2.1	9.7	(5,555) 100.0
자녀 있음	16.0	14.7	38.8	11.6	5.6	0.3	4.3	2.2	6.5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9	11.5	22.0	24.5	13.0	0.7	1.8	0.9	22.8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4.6	12.5	46.0	16.1	5.8	0.5	3.6	1.7	9.2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9.7	17.0	43.3	10.7	4.2	0.4	5.4	3.2	6.1	(3,954) 100.0
400만 원 이상	22.6	18.6	39.8	6.1	4.0	0.1	4.4	2.3	2.0	(5,593) 100.0
무응답	13.7	15.1	25.0	15.9	11.2	0.7	4.7	2.1	11.6	(427)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기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종사자 | ④ 서비스종사자 | ⑤ 판매종사자 |
| ⑥ 농림어업숙련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 |
| ⑨ 단순노무종사자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5〉 현재 회사/조직(사업 또는 농어업 활동 포함)의 속성(취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민간회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공공 협력조직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관	기타	전체
전체	76.7	17.1	2.8	3.2	0.2	(17,510) 100.0
성별						
남성	79.7	15.2	2.5	2.5	0.2	(9,636) 100.0
여성	73.0	19.5	3.1	4.1	0.3	(7,874) 100.0
연령						
만19~29세	74.9	18.0	4.0	2.7	0.4	(3,656) 100.0
만30~39세	77.7	16.6	2.3	3.3	0.2	(4,103) 100.0
만40~49세	77.7	16.8	2.1	3.3	0.1	(4,863) 100.0
만50~59세	76.1	17.3	2.9	3.4	0.3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80.7	13.8	2.6	2.6	0.2	(9,435) 100.0
비수도권	71.9	21.0	3.0	3.9	0.2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77.2	16.7	2.8	3.1	0.2	(15,518) 100.0
읍면부	72.7	20.0	2.8	4.3	0.2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85.6	9.0	3.0	2.4	0.1	(2,367) 100.0
대졸	78.0	16.1	2.7	3.0	0.2	(13,138) 100.0
대학원졸	57.7	33.1	3.1	5.4	0.7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77.5	16.1	3.1	3.0	0.3	(7,107) 100.0
기혼	76.1	17.8	2.6	3.3	0.2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7.9	15.9	2.8	3.1	0.2	(5,555) 100.0
자녀 있음	75.6	18.3	2.6	3.3	0.2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76.4	14.6	4.3	4.1	0.6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74.8	17.5	3.4	4.1	0.2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76.0	17.9	2.4	3.5	0.1	(3,954) 100.0
400만 원 이상	78.4	17.8	1.8	1.8	0.2	(5,593) 100.0
무응답	84.0	9.8	3.2	2.0	1.0	(427)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민간회사와 기타만 응답 가능.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6> 현재 직장(사업체)의 인력 규모(취업자/주된 일자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단위: %, 명)
	7.3	12.4	13.2	17.0	7.9	12.0	9.1	2.7	3.9	4.5	3.2	6.9		
전체	7.3	12.4	13.2	17.0	7.9	12.0	9.1	2.7	3.9	4.5	3.2	6.9	(17,510)	100.0
성별														
남성	7.2	9.9	11.0	15.6	7.6	12.0	10.2	3.3	4.6	5.6	3.7	9.3	(9,636)	100.0
여성	7.4	15.5	15.8	18.7	8.1	12.1	7.7	2.1	2.9	3.1	2.6	4.0	(7,874)	100.0
연령														
만19~29세	4.3	12.3	17.3	18.6	7.6	11.6	9.7	2.8	3.3	4.2	3.2	5.2	(3,656)	100.0
만30~39세	4.6	10.5	12.6	16.9	8.5	12.0	10.2	3.3	4.5	5.2	3.8	7.9	(4,103)	100.0
만40~49세	7.6	12.4	12.3	16.7	7.4	12.8	8.9	2.7	4.4	4.4	3.0	7.4	(4,863)	100.0
만50~59세	11.4	14.1	11.4	16.3	8.0	11.6	7.9	2.3	3.2	4.1	2.9	6.9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6.6	11.3	12.9	16.9	7.6	12.2	9.5	3.0	4.1	4.5	3.5	8.0	(9,435)	100.0
비수도권	8.1	13.7	13.5	17.2	8.1	11.8	8.6	2.5	3.6	4.5	2.9	5.6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7.1	12.4	13.2	17.0	7.6	12.0	9.1	2.8	3.9	4.5	3.3	7.2	(15,518)	100.0
읍면부	8.8	12.8	13.0	17.6	9.5	12.2	8.9	2.6	3.5	3.9	2.3	4.9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11.1	18.7	16.6	17.1	6.9	9.9	7.8	2.2	2.1	2.8	1.3	3.6	(2,367)	100.0
대졸	6.8	12.1	13.2	17.6	8.1	12.0	9.5	2.8	3.8	4.4	3.1	6.6	(13,138)	100.0
대학원졸	6.0	7.3	9.0	13.3	7.3	14.8	8.0	3.2	6.2	6.6	5.8	12.5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6.2	12.5	15.2	18.6	8.2	11.8	9.1	2.5	3.7	4.0	3.2	4.9	(7,107)	100.0
기혼	8.0	12.4	11.8	15.9	7.6	12.1	9.1	2.9	4.0	4.8	3.2	8.2	(10,403)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자녀 유무													
자녀 없음	6.5	13.4	15.1	18.6	7.8	11.0	9.2	2.8	3.2	4.0	3.0	5.3	(5,555) 100.0
자녀 있음	7.7	12.3	11.4	15.9	7.6	12.7	8.8	2.9	4.1	4.9	3.3	8.5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13.9	23.4	21.8	17.2	5.7	7.1	4.5	1.3	1.2	1.4	1.1	1.5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6.4	14.1	16.5	20.8	8.9	12.3	8.8	2.1	2.7	2.9	1.8	2.7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6.6	9.3	11.7	18.7	9.3	14.0	10.0	3.2	4.1	4.4	3.3	5.5	(3,954) 100.0
400만 원 이상	6.1	7.3	7.1	12.2	7.0	12.7	10.8	3.7	6.1	7.4	5.4	14.2	(5,593) 100.0
무응답	3.1	26.8	18.8	17.5	4.4	8.9	7.9	2.5	1.2	2.7	1.8	4.4	(427)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기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1명(나 혼자 일함) ② 2~4명 ③ 5~9명 ④ 10~29명 ⑤ 30~49명 ⑥ 50~99명 ⑦ 100~249명 ⑧ 250~299명 ⑨ 300~499명
 ⑩ 500~999명 ⑪ 1,000~1,999명 ⑫ 2,000명 이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7) 현재 직장(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비율(취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없거나 거의 없음	반보다 적음	반 정도	반보다 많음	모두 혹은 거의 모두	전체	
전체	13.4	33.7	19.2	24.0	9.7	(16,238)	100.0
성별							
남성	19.0	43.6	18.6	16.7	2.0	(8,943)	100.0
여성	6.5	21.4	19.8	33.0	19.2	(7,296)	100.0
연령							
만19~29세	13.0	27.6	25.1	23.5	10.6	(3,499)	100.0
만30~39세	13.0	33.9	21.0	23.7	8.4	(3,913)	100.0
만40~49세	13.8	35.8	17.6	23.3	9.4	(4,496)	100.0
만50~59세	13.6	36.1	14.4	25.4	10.5	(4,330)	100.0
거주지 1							
수도권	11.7	35.1	21.1	23.4	8.7	(8,814)	100.0
비수도권	15.4	31.9	16.9	24.8	11.0	(7,424)	100.0
거주지 2							
동부	13.1	33.5	19.5	24.1	9.8	(14,422)	100.0
읍면부	16.2	34.5	16.8	23.3	9.1	(1,816)	100.0
학력							
고졸 이하	19.3	30.5	16.6	21.8	11.8	(2,104)	100.0
대졸	13.6	33.9	19.1	23.8	9.7	(12,249)	100.0
대학원졸	5.9	35.5	22.4	28.3	7.8	(1,885)	100.0
혼인상태							
미혼	13.7	29.5	22.9	24.2	9.8	(6,666)	100.0
기혼	13.2	36.6	16.6	23.9	9.7	(9,572)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3.5	29.0	22.1	25.2	10.1	(5,192)	100.0
자녀 있음	12.9	37.4	16.0	23.7	10.0	(7,692)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10.7	18.5	22.2	26.9	21.7	(2,029)	100.0
200~300만 원 미만	13.1	26.2	18.8	28.4	13.5	(4,846)	100.0
300~400만 원 미만	15.9	35.2	19.2	23.4	6.4	(3,695)	100.0
400만 원 이상	12.9	46.2	18.4	19.1	3.4	(5,253)	100.0
무응답	14.6	22.9	18.3	27.4	16.8	(414)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로자가 1명(본인 혼자 일함)인 경우에는 응답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8〉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취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전체
		가입대상자 아님	가입대상이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대상이지만 사업주(고용주)가 미가입	
전체	20.2	73.9	16.2	9.9	(17,510) 100.0
성별					
남성	17.9	72.6	18.3	9.1	(9,636) 100.0
여성	23.0	75.1	14.2	10.7	(7,874) 100.0
연령					
만19~29세	22.8	65.6	18.9	15.5	(3,656) 100.0
만30~39세	14.2	73.5	16.2	10.2	(4,103) 100.0
만40~49세	18.6	76.9	15.1	8.1	(4,863) 100.0
만50~59세	24.7	77.5	15.1	7.4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18.5	72.7	16.2	11.1	(9,435) 100.0
비수도권	22.1	75.0	16.2	8.8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19.9	73.7	16.4	9.9	(15,518) 100.0
읍면부	22.4	75.0	15.0	10.0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25.9	65.3	23.4	11.3	(2,367) 100.0
대졸	19.1	74.5	15.6	10.0	(13,138) 100.0
대학원졸	20.3	83.2	9.1	7.7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21.3	70.0	18.2	11.8	(7,107) 100.0
기혼	19.4	76.8	14.7	8.6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1.7	70.4	17.4	12.2	(5,555) 100.0
자녀 있음	19.3	78.6	13.4	8.0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48.1	73.3	13.7	13.0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15.1	68.2	20.1	11.7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15.4	73.7	19.3	7.0	(3,954) 100.0
400만 원 이상	16.2	80.0	13.3	6.7	(5,593) 100.0
무응답	23.2	70.8	21.2	8.0	(42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부표 19> 고용보험 가입 의사(취업자/주된 일자리/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아님)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전체	
전체	71.0	29.0	(2,609)	100.0
성별				
남성	68.8	31.2	(1,250)	100.0
여성	73.0	27.0	(1,359)	100.0
연령				
만19~29세	74.6	25.4	(548)	100.0
만30~39세	68.5	31.5	(428)	100.0
만40~49세	67.4	32.6	(697)	100.0
만50~59세	72.6	27.4	(936)	100.0
거주지 1				
수도권	71.4	28.6	(1,271)	100.0
비수도권	70.5	29.5	(1,338)	100.0
거주지 2				
동부	71.8	28.2	(2,274)	100.0
읍면부	65.4	34.6	(335)	100.0
학력				
고졸 이하	69.1	30.9	(400)	100.0
대졸	70.8	29.2	(1,870)	100.0
대학원졸	74.0	26.0	(339)	100.0
혼인상태				
미혼	69.4	30.6	(1,058)	100.0
기혼	72.0	28.0	(1,551)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0.2	29.8	(847)	100.0
자녀 있음	72.7	27.3	(1,266)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72.6	27.4	(831)	100.0
200~300만 원 미만	74.1	25.9	(535)	100.0
300~400만 원 미만	71.6	28.4	(448)	100.0
400만 원 이상	66.0	34.0	(725)	100.0
무응답	73.9	26.1	(70)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0) 건강보험 가입 상태(취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 수급권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전체	
전체	81.2	13.5	1.2	4.2	(17,510)	100.0
성별						
남성	83.4	12.9	1.4	2.3	(9,636)	100.0
여성	78.5	14.1	0.9	6.6	(7,874)	100.0
연령						
만19~29세	75.7	14.5	3.2	6.5	(3,656)	100.0
만30~39세	87.6	9.4	0.6	2.4	(4,103)	100.0
만40~49세	83.3	12.7	0.4	3.7	(4,863)	100.0
만50~59세	77.8	16.9	0.9	4.5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82.0	12.8	1.0	4.2	(9,435)	100.0
비수도권	80.2	14.2	1.3	4.3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81.4	13.2	1.2	4.2	(15,518)	100.0
읍면부	79.5	15.1	1.1	4.3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71.9	20.3	2.5	5.3	(2,367)	100.0
대졸	82.1	12.8	1.1	4.0	(13,138)	100.0
대학원졸	85.7	9.9	0.3	4.0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78.2	15.9	2.1	3.8	(7,107)	100.0
기혼	83.2	11.8	0.6	4.5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7.9	15.4	1.9	4.8	(5,555)	100.0
자녀 있음	83.9	11.0	0.4	4.6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49.0	28.5	4.8	17.7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84.9	11.7	0.8	2.6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86.6	11.2	0.5	1.8	(3,954)	100.0
400만 원 이상	88.2	9.8	0.4	1.5	(5,593)	100.0
무응답	72.5	19.9	2.1	5.5	(42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1) 국민연금 가입 상태(취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특수직역연금	미가입	전체	
전체	82.8	9.9	0.4	6.9	(17,510)	100.0
성별						
남성	85.0	9.0	0.5	5.6	(9,636)	100.0
여성	80.1	11.0	0.3	8.6	(7,874)	100.0
연령						
만19~29세	77.5	8.9	1.0	12.5	(3,656)	100.0
만30~39세	88.6	6.9	0.3	4.2	(4,103)	100.0
만40~49세	84.9	9.4	0.1	5.6	(4,863)	100.0
만50~59세	79.8	13.6	0.3	6.3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83.5	9.7	0.4	6.5	(9,435)	100.0
비수도권	82.0	10.1	0.4	7.5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83.0	9.7	0.3	7.0	(15,518)	100.0
읍면부	81.0	11.7	0.8	6.5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74.1	14.3	0.4	11.2	(2,367)	100.0
대졸	83.7	9.4	0.4	6.5	(13,138)	100.0
대학원졸	87.1	7.9	0.5	4.5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80.0	9.9	0.5	9.6	(7,107)	100.0
기혼	84.7	9.9	0.3	5.1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9.9	10.3	0.5	9.3	(5,555)	100.0
자녀 있음	85.4	9.4	0.2	5.0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51.4	20.0	0.5	28.2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86.1	8.8	0.4	4.7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88.1	7.9	0.4	3.7	(3,954)	100.0
400만 원 이상	89.8	7.7	0.4	2.1	(5,593)	100.0
무응답	75.5	15.6	0.3	8.6	(42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2〉 현재 주된 역할 또는 일(상태)(비취업자)

(단위: %, 명)

구분	가사 일 및 돌봄	학업 또는 교육 수강	군인 또는 군입대 대기	무직	전체	
전체	41.7	34.6	1.5	22.2	(4,490)	100.0
성별						
남성	3.3	52.6	4.2	39.9	(1,651)	100.0
여성	64.0	24.1	0.0	11.9	(2,838)	100.0
연령						
만19~29세	2.7	76.2	4.9	16.2	(1,413)	100.0
만30~39세	42.3	31.6	0.0	26.2	(700)	100.0
만40~49세	63.1	19.2	0.0	17.6	(1,014)	100.0
만50~59세	65.9	4.3	0.0	29.8	(1,363)	100.0
거주지 1						
수도권	43.1	34.9	1.3	20.7	(2,185)	100.0
비수도권	40.4	34.2	1.8	23.6	(2,305)	100.0
거주지 2						
동부	41.6	35.1	1.3	22.1	(3,940)	100.0
읍면부	42.7	30.9	3.4	23.1	(549)	100.0
학력						
고졸 이하	49.0	20.8	1.5	28.7	(1,001)	100.0
대졸	39.5	39.4	1.6	19.4	(3,238)	100.0
대학원졸	40.3	26.7	0.8	32.2	(251)	100.0
혼인상태						
미혼	0.0	64.6	3.3	32.1	(2,115)	100.0
기혼	78.8	7.7	0.0	13.4	(2,375)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3.0	56.3	3.1	27.6	(1,802)	100.0
자녀 있음	81.8	6.6	0.0	11.6	(1,96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4.7	38.4	1.1	35.8	(1,031)	100.0
300~500만 원 미만	48.7	31.3	1.7	18.3	(1,294)	100.0
500~700만 원 미만	51.1	33.9	1.7	13.4	(1,149)	100.0
700만 원 이상	48.9	32.4	1.4	17.3	(771)	100.0
무응답	9.4	45.5	2.5	42.6	(245)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3〉 최근 3년 이내 수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경험 및 일과 생활 병행의 어려움과 일 종료의 관련성(비취업자)

(단위: %, 명)

구분	3개월 이상 일한 경험	일과 생활 병행의 어려움이 일 종료에 미친 영향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52.8	33.2	26.2	31.1	9.6	(4,490)	100.0
성별							
남성	57.0	40.4	28.1	25.4	6.0	(1,651)	100.0
여성	50.4	28.4	24.9	34.8	11.9	(2,838)	100.0
연령							
만19~29세	56.6	32.1	26.8	34.0	7.1	(1,413)	100.0
만30~39세	54.9	30.7	26.0	28.0	15.3	(700)	100.0
만40~49세	48.9	30.6	26.1	30.6	12.7	(1,014)	100.0
만50~59세	50.7	37.6	25.7	29.7	7.0	(1,363)	100.0
거주지 1							
수도권	52.0	29.4	25.6	34.3	10.6	(2,185)	100.0
비수도권	53.5	36.6	26.7	28.0	8.6	(2,305)	100.0
거주지 2							
동부	52.6	32.7	26.4	31.1	9.8	(3,940)	100.0
읍면부	54.4	36.5	24.8	31.0	7.7	(549)	100.0
학력							
고졸 이하	50.7	36.1	25.8	27.2	10.9	(1,001)	100.0
대졸	52.8	32.2	26.1	32.9	8.9	(3,238)	100.0
대학원졸	61.5	34.9	28.8	23.3	13.1	(251)	100.0
혼인상태							
미혼	55.7	34.9	28.4	30.2	6.5	(2,115)	100.0
기혼	50.3	31.5	24.1	31.9	12.6	(2,375)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4.7	33.2	28.7	30.6	7.5	(1,802)	100.0
자녀 있음	48.3	31.0	21.5	34.1	13.5	(1,96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0.5	29.8	28.4	30.9	10.9	(1,031)	100.0
300~500만 원 미만	50.9	31.4	25.8	32.4	10.4	(1,294)	100.0
500~700만 원 미만	54.5	36.9	23.6	28.8	10.8	(1,149)	100.0
700만 원 이상	57.0	34.8	26.1	33.1	5.9	(771)	100.0
무응답	51.6	32.2	32.6	28.8	6.4	(245)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4〉 배우자 경제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일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	일하지 않았음	전체	
전체	73.5	4.5	22.0	(11,949)	100.0
성별					
남성	59.5	5.8	34.7	(6,003)	100.0
여성	87.7	3.1	9.2	(5,946)	100.0
연령					
만19~29세	77.9	11.7	10.4	(355)	100.0
만30~39세	74.9	8.9	16.2	(2,277)	100.0
만40~49세	75.4	4.0	20.6	(4,246)	100.0
만50~59세	71.0	2.4	26.6	(5,071)	100.0
거주지 1					
수도권	73.9	4.7	21.5	(6,150)	100.0
비수도권	73.1	4.3	22.6	(5,799)	100.0
거주지 2					
동부	73.4	4.5	22.2	(10,506)	100.0
읍면부	74.6	4.5	20.8	(1,443)	100.0
학력					
고졸 이하	74.4	4.8	20.9	(1,782)	100.0
대졸	74.1	4.3	21.6	(8,642)	100.0
대학원졸	69.3	5.1	25.6	(1,525)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9.1	5.5	15.4	(1,898)	100.0
자녀 있음	72.5	4.2	23.3	(9,84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6.4	5.8	37.8	(748)	100.0
300~500만 원 미만	62.2	6.1	31.7	(2,877)	100.0
500~700만 원 미만	75.1	4.7	20.2	(4,058)	100.0
700만 원 이상	83.2	2.9	13.9	(4,069)	100.0
무응답	71.3	3.7	25.0	(19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5〉 배우자 일자리 개수(취업 배우자)

(단위: %, 명)

구분	1개	2개	3개 이상	전체	
전체	95.9	3.9	0.2	(9,320)	100.0
성별					
남성	96.6	3.4	0.0	(3,920)	100.0
여성	95.3	4.2	0.4	(5,400)	100.0
연령					
만19~29세	93.7	6.1	0.2	(318)	100.0
만30~39세	95.9	3.9	0.2	(1,908)	100.0
만40~49세	96.0	3.8	0.2	(3,369)	100.0
만50~59세	96.0	3.8	0.3	(3,724)	100.0
거주지 1					
수도권	96.0	3.7	0.2	(4,831)	100.0
비수도권	95.7	4.0	0.3	(4,489)	100.0
거주지 2					
동부	95.9	3.9	0.2	(8,177)	100.0
읍면부	96.1	3.4	0.5	(1,142)	100.0
학력					
고졸 이하	95.8	4.1	0.1	(1,410)	100.0
대졸	95.8	3.9	0.3	(6,774)	100.0
대학원졸	96.3	3.5	0.2	(1,135)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95.7	4.0	0.3	(1,606)	100.0
자녀 있음	96.1	3.7	0.2	(7,54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95.5	4.5	0.0	(465)	100.0
300~500만 원 미만	95.4	4.3	0.3	(1,965)	100.0
500~700만 원 미만	96.1	3.7	0.2	(3,238)	100.0
700만 원 이상	95.9	3.8	0.3	(3,504)	100.0
무응답	98.3	1.7	0.0	(148)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6〉 배우자가 2개 이상의 일자리(직업)를 가지게 된 주된 이유(취업 배우자)

(단위: %, 명)

구분	생활비 마련	추가 수입	즐거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경험 쌓기	기타	전체	
전체	41.0	41.0	14.7	2.6	0.6	(384)	100.0
성별							
남성	36.3	39.9	20.8	2.9	0.0	(133)	100.0
여성	43.5	41.5	11.5	2.5	1.0	(252)	100.0
연령							
만19~29세	23.6	40.0	30.4	6.1	0.0	(20)	100.0
만30~39세	39.6	46.9	9.4	4.0	0.0	(78)	100.0
만40~49세	45.7	39.1	11.8	2.8	0.6	(136)	100.0
만50~59세	39.9	39.7	18.0	1.3	1.1	(150)	100.0
거주지 1							
수도권	37.8	41.9	17.6	1.8	0.9	(191)	100.0
비수도권	44.2	40.1	11.9	3.5	0.4	(193)	100.0
거주지 2							
동부	40.8	40.8	15.4	2.5	0.5	(339)	100.0
읍면부	42.7	42.4	9.3	3.8	1.8	(45)	100.0
학력							
고졸 이하	65.6	20.9	11.0	1.1	1.3	(59)	100.0
대졸	35.9	46.6	14.2	3.4	0.0	(283)	100.0
대학원졸	41.2	31.4	23.5	0.0	4.0	(42)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9.4	48.2	17.3	5.1	0.0	(69)	100.0
자녀 있음	43.1	41.0	12.8	2.3	0.8	(29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5.7	17.4	14.0	2.9	0.0	(21)	100.0
300~500만 원 미만	59.8	22.3	13.0	4.1	0.9	(91)	100.0
500~700만 원 미만	42.9	46.5	8.8	0.5	1.3	(127)	100.0
700만 원 이상	24.5	51.6	20.3	3.6	0.0	(143)	100.0
무응답	0.0	36.0	64.0	0.0	0.0	(3)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7> 배우자의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취업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사업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전체	
전체	71.7	8.3	3.8	5.8	8.9	1.4	(9,320)	100.0
성별								
남성	67.8	14.4	4.3	3.6	7.5	2.4	(3,920)	100.0
여성	74.6	3.9	3.4	7.4	10.0	0.7	(5,400)	100.0
연령								
만19~29세	78.5	8.3	4.6	3.6	4.7	0.4	(318)	100.0
만30~39세	82.5	4.8	3.1	3.6	5.2	0.8	(1,908)	100.0
만40~49세	73.9	8.3	2.8	5.2	8.9	1.0	(3,369)	100.0
만50~59세	63.8	10.1	5.0	7.8	11.3	2.1	(3,724)	100.0
거주지 1								
수도권	73.4	7.8	3.3	5.8	8.4	1.2	(4,831)	100.0
비수도권	69.9	8.8	4.3	5.9	9.5	1.6	(4,489)	100.0
거주지 2								
동부	72.2	8.3	3.8	5.8	8.6	1.3	(8,177)	100.0
읍면부	68.4	8.6	3.8	6.2	11.1	1.9	(1,142)	100.0
학력								
고졸 이하	62.6	8.4	6.3	8.3	12.5	1.9	(1,410)	100.0
대졸	73.2	8.3	3.5	5.5	8.2	1.3	(6,774)	100.0
대학원졸	74.2	8.3	2.6	4.6	8.9	1.5	(1,135)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6.1	7.3	4.0	4.5	7.1	1.0	(1,606)	100.0
자녀 있음	71.1	8.4	3.7	6.0	9.4	1.5	(7,54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5.3	13.5	9.3	6.3	10.9	4.8	(465)	100.0
300~500만 원 미만	63.9	11.3	6.1	4.9	11.5	2.3	(1,965)	100.0
500~700만 원 미만	73.0	7.9	3.3	5.8	8.8	1.3	(3,238)	100.0
700만 원 이상	77.4	6.4	2.1	6.2	7.3	0.6	(3,504)	100.0
무응답	67.8	6.0	7.4	7.9	10.2	0.7	(148)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8〉 배우자의 정규직 여부(상용근로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	92.7	7.3	(6,686)	100.0
성별				
남성	89.5	10.5	(2,656)	100.0
여성	94.7	5.3	(4,030)	100.0
연령				
만19~29세	91.1	8.9	(250)	100.0
만30~39세	94.2	5.8	(1,574)	100.0
만40~49세	93.8	6.2	(2,488)	100.0
만50~59세	90.7	9.3	(2,374)	100.0
거주지 1				
수도권	93.5	6.5	(3,547)	100.0
비수도권	91.8	8.2	(3,139)	100.0
거주지 2				
동부	92.8	7.2	(5,905)	100.0
읍면부	92.0	8.0	(782)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91.4	8.6	(1,222)	100.0
자녀 있음	93.0	7.0	(5,36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88.5	11.5	(257)	100.0
300~500만 원 미만	89.4	10.6	(1,256)	100.0
500~700만 원 미만	92.8	7.2	(2,363)	100.0
700만 원 이상	94.6	5.4	(2,711)	100.0
무응답	88.4	11.6	(100)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9〉 배우자의 시간제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전체	
전체	17.2	82.8	(7,814)	100.0
성별				
남성	27.5	72.5	(3,389)	100.0
여성	9.2	90.8	(4,425)	100.0
연령				
만19~29세	15.6	84.4	(291)	100.0
만30~39세	15.3	84.7	(1,725)	100.0
만40~49세	16.1	83.9	(2,863)	100.0
만50~59세	19.5	80.5	(2,935)	100.0
거주지 1				
수도권	15.8	84.2	(4,087)	100.0
비수도권	18.6	81.4	(3,727)	100.0
거주지 2				
동부	17.3	82.7	(6,890)	100.0
읍면부	16.2	83.8	(92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5.7	84.3	(1,403)	100.0
자녀 있음	17.2	82.8	(6,276)	100.0
배우자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9.2	90.8	(6,686)	100.0
임시·일용근로자	64.4	35.6	(1,12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0.0	70.0	(363)	100.0
300~500만 원 미만	24.3	75.7	(1,596)	100.0
500~700만 원 미만	15.4	84.6	(2,726)	100.0
700만 원 이상	13.3	86.7	(3,009)	100.0
무응답	19.4	80.6	(120)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0〉 시간제 근무 배우자의 주당 근로시간 형태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체	
전체	43.0	57.0	(1,341)	100.0
성별				
남성	46.4	53.6	(932)	100.0
여성	35.2	64.8	(409)	100.0
연령				
만19~29세	21.9	78.1	(45)	100.0
만30~39세	37.5	62.5	(264)	100.0
만40~49세	42.9	57.1	(460)	100.0
만50~59세	47.2	52.8	(572)	100.0
거주지 1				
수도권	44.1	55.9	(646)	100.0
비수도권	41.9	58.1	(694)	100.0
거주지 2				
동부	42.8	57.2	(1,191)	100.0
읍면부	44.5	55.5	(149)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1.8	68.2	(221)	100.0
자녀 있음	44.3	55.7	(1,079)	100.0
배우자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9.9	70.1	(615)	100.0
임시·일용근로자	54.1	45.9	(72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9.9	40.1	(109)	100.0
300~500만 원 미만	48.7	51.3	(388)	100.0
500~700만 원 미만	37.2	62.8	(419)	100.0
700만 원 이상	38.4	61.6	(401)	100.0
무응답	50.6	49.4	(23)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1〉 배우자의 교대제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교대제	교대제 아님	전체	
전체	11.4	88.6	(7,814)	100.0
성별				
남성	10.4	89.6	(3,389)	100.0
여성	12.2	87.8	(4,425)	100.0
연령				
만19~29세	17.0	83.0	(291)	100.0
만30~39세	10.9	89.1	(1,725)	100.0
만40~49세	10.5	89.5	(2,863)	100.0
만50~59세	12.1	87.9	(2,935)	100.0
거주지 1				
수도권	9.4	90.6	(4,087)	100.0
비수도권	13.7	86.3	(3,727)	100.0
거주지 2				
동부	11.4	88.6	(6,890)	100.0
읍면부	11.4	88.6	(92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1.7	88.3	(1,403)	100.0
자녀 있음	11.1	88.9	(6,276)	100.0
배우자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0.8	89.2	(6,686)	100.0
임시·일용근로자	15.1	84.9	(1,12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0.5	79.5	(363)	100.0
300~500만 원 미만	14.2	85.8	(1,596)	100.0
500~700만 원 미만	11.9	88.1	(2,726)	100.0
700만 원 이상	8.1	91.9	(3,009)	100.0
무응답	21.1	78.9	(120)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2〉 배우자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	전체	
전체	5.8	94.2	(7,814)	100.0
성별				
남성	7.8	92.2	(3,389)	100.0
여성	4.3	95.7	(4,425)	100.0
연령				
만19~29세	7.6	92.4	(291)	100.0
만30~39세	5.2	94.8	(1,725)	100.0
만40~49세	5.2	94.8	(2,863)	100.0
만50~59세	6.5	93.5	(2,935)	100.0
거주지 1				
수도권	5.9	94.1	(4,087)	100.0
비수도권	5.7	94.3	(3,727)	100.0
거주지 2				
동부	5.6	94.4	(6,890)	100.0
읍면부	7.0	93.0	(92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6.4	93.6	(1,403)	100.0
자녀 있음	5.4	94.6	(6,27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8.3	91.7	(363)	100.0
300~500만 원 미만	8.0	92.0	(1,596)	100.0
500~700만 원 미만	4.9	95.1	(2,726)	100.0
700만 원 이상	4.9	95.1	(3,009)	100.0
무응답	11.9	88.1	(120)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3〉 배우자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아님	전체	
전체	28.8	71.2	(834)	100.0
성별				
남성	26.4	73.6	(295)	100.0
여성	30.0	70.0	(538)	100.0
연령				
만19~29세	51.5	48.5	(15)	100.0
만30~39세	29.5	70.5	(100)	100.0
만40~49세	25.8	74.2	(298)	100.0
만50~59세	29.9	70.1	(421)	100.0
거주지 1				
수도권	30.9	69.1	(407)	100.0
비수도권	26.7	73.3	(426)	100.0
거주지 2				
동부	29.0	71.0	(707)	100.0
읍면부	27.5	72.5	(127)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6.1	73.9	(115)	100.0
자녀 있음	29.4	70.6	(70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3.5	76.5	(51)	100.0
300~500만 원 미만	27.7	72.3	(227)	100.0
500~700만 원 미만	28.3	71.7	(284)	100.0
700만 원 이상	30.7	69.3	(257)	100.0
무응답	37.1	62.9	(15)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4〉 배우자의 플랫폼 종사자 여부(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	플랫폼 종사자 아님	전체	
전체	2.0	98.0	(7,814)	100.0
성별				
남성	2.8	97.2	(3,389)	100.0
여성	1.5	98.5	(4,425)	100.0
연령				
만19~29세	4.0	96.0	(291)	100.0
만30~39세	2.2	97.8	(1,725)	100.0
만40~49세	1.7	98.3	(2,863)	100.0
만50~59세	2.1	97.9	(2,935)	100.0
거주지 1				
수도권	2.1	97.9	(4,087)	100.0
비수도권	2.0	98.0	(3,727)	100.0
거주지 2				
동부	2.0	98.0	(6,890)	100.0
읍면부	2.3	97.7	(92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2	97.8	(1,403)	100.0
자녀 있음	1.9	98.1	(6,27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7	96.3	(363)	100.0
300~500만 원 미만	3.3	96.7	(1,596)	100.0
500~700만 원 미만	1.4	98.6	(2,726)	100.0
700만 원 이상	1.7	98.3	(3,009)	100.0
무응답	4.4	95.6	(120)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5〉 배우자의 플랫폼 종사자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플랫폼 종사자로 일함	플랫폼 종사자 아님	전체	
전체	6.8	93.2	(834)	100.0
성별				
남성	6.6	93.4	(295)	100.0
여성	6.9	93.1	(538)	100.0
연령				
만19~29세	17.7	82.3	(15)	100.0
만30~39세	7.3	92.7	(100)	100.0
만40~49세	6.0	94.0	(298)	100.0
만50~59세	6.9	93.1	(421)	100.0
거주지 1				
수도권	6.3	93.7	(407)	100.0
비수도권	7.3	92.7	(426)	100.0
거주지 2				
동부	6.1	93.9	(707)	100.0
읍면부	10.9	89.1	(127)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8	92.2	(115)	100.0
자녀 있음	6.6	93.4	(70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7.4	82.6	(51)	100.0
300~500만 원 미만	6.3	93.7	(227)	100.0
500~700만 원 미만	4.6	95.4	(284)	100.0
700만 원 이상	7.4	92.6	(257)	100.0
무응답	9.5	90.5	(15)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6〉 배우자의 자유 활동가(프리랜서) 여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자유 활동가 (프리랜서)로 일함	자유 활동가 (프리랜서)로 일하지 않음	전체	
전체	55.9	44.1	(834)	100.0
성별				
남성	60.2	39.8	(295)	100.0
여성	53.5	46.5	(538)	100.0
연령				
만19~29세	50.8	49.2	(15)	100.0
만30~39세	56.2	43.8	(100)	100.0
만40~49세	53.8	46.2	(298)	100.0
만50~59세	57.4	42.6	(421)	100.0
거주지 1				
수도권	57.9	42.1	(407)	100.0
비수도권	54.0	46.0	(426)	100.0
거주지 2				
동부	57.0	43.0	(707)	100.0
읍면부	49.6	50.4	(127)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9.6	50.4	(115)	100.0
자녀 있음	56.7	43.3	(70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1.4	48.6	(51)	100.0
300~500만 원 미만	53.8	46.2	(227)	100.0
500~700만 원 미만	56.3	43.7	(284)	100.0
700만 원 이상	57.9	42.1	(257)	100.0
무응답	59.9	40.1	(15)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7〉 배우자 일자의 산업(취업 배우자/주된 일자리)

구분	(단위: %,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전체			
전체	1.1	0.0	17.0	2.1	0.7	6.9	9.4	4.5	3.5	4.4	4.1	1.4	6.7	2.6	9.0	12.8	8.6	2.2	3.1	(9,320)	100.0	
성별																						
남성	0.6	0.0	10.6	0.8	0.3	2.4	9.7	1.2	5.3	3.0	5.2	1.4	4.9	1.9	8.7	22.9	15.5	2.7	2.7	(3,920)	100.0	
여성	1.4	0.1	21.7	3.0	0.9	10.1	9.2	6.9	2.2	5.5	3.2	1.4	7.9	3.1	9.3	5.4	3.5	1.9	3.4	(5,400)	100.0	
연령																						
만19~29세	0.4	0.2	13.1	2.7	1.0	7.6	9.1	5.7	5.5	6.8	3.1	1.1	9.5	1.0	10.4	7.2	9.8	3.3	2.5	(318)	100.0	
만30~39세	0.8	0.0	19.5	2.1	0.9	5.6	8.4	2.9	3.1	6.5	4.4	0.9	7.2	2.5	9.7	12.2	8.8	2.2	2.4	(1,908)	100.0	
만40~49세	0.9	0.0	18.6	2.2	0.5	6.3	9.6	4.0	3.1	5.0	4.1	1.2	7.5	2.2	9.4	12.8	7.3	2.3	3.0	(3,369)	100.0	
만50~59세	1.4	0.1	14.6	1.8	0.6	7.9	9.8	5.6	3.9	2.7	4.0	1.8	5.4	3.2	8.3	13.6	9.5	2.1	3.5	(3,724)	100.0	
거주지 1																						
수도권	0.4	0.0	15.1	2.0	0.6	7.1	10.7	4.6	3.3	6.6	4.6	1.6	8.3	2.7	7.3	12.0	7.5	2.6	3.0	(4,831)	100.0	
비수도권	1.7	0.1	19.1	2.2	0.7	6.7	8.0	4.3	3.7	2.1	3.5	1.2	4.9	2.5	11.0	13.6	9.7	1.9	3.1	(4,489)	100.0	
거주지 2																						
동부	0.8	0.0	16.6	1.8	0.6	7.0	9.6	4.6	3.5	4.7	4.3	1.5	6.9	2.6	8.8	12.9	8.6	2.2	3.1	(8,177)	100.0	
중부	3.1	0.2	20.3	3.6	0.9	6.3	8.2	3.7	3.6	2.5	2.3	0.8	5.2	2.7	11.1	11.7	8.3	2.3	3.1	(1,142)	100.0	
서부	0.7	0.0	16.9	2.3	0.6	6.1	9.7	4.5	3.8	6.3	3.8	1.9	6.9	2.4	8.7	12.0	8.0	3.0	2.6	(1,606)	100.0	
지역 있음	1.1	0.0	17.1	2.0	0.7	6.9	9.4	4.5	3.4	4.1	4.1	1.3	6.7	2.7	9.1	12.9	8.7	2.1	3.1	(7,549)	100.0	
월평균 가누소득																						
300만 원 미만	2.9	0.1	15.1	2.0	0.6	7.9	14.1	5.2	5.7	3.0	4.6	1.4	3.1	2.0	7.3	9.2	9.0	2.4	4.3	(465)	100.0	
300~500만 원 미만	1.5	0.1	19.0	1.6	1.1	6.0	10.5	5.7	5.6	3.5	2.8	1.9	5.1	3.0	7.1	11.9	6.9	2.5	4.2	(1,965)	100.0	
500~700만 원 미만	1.0	0.0	18.6	2.3	0.7	7.0	9.6	4.3	3.5	4.3	3.6	1.5	6.1	2.8	9.5	11.3	8.8	2.3	2.9	(3,238)	100.0	
700만 원 이상	0.5	0.0	14.8	1.9	0.4	7.1	8.1	3.8	1.9	5.3	5.3	1.1	8.4	2.3	10.0	15.3	9.3	2.1	2.2	(3,504)	100.0	
무응답	2.6	0.0	14.8	5.3	1.7	8.3	7.1	5.4	5.5	1.1	1.5	1.1	8.3	2.9	7.0	9.5	8.6	1.9	7.6	(148)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기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⑥ 건설업
-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 및 창고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정보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⑬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⑭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8〉 배우자 현재 일자리의 직종(취업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전체	16.2	14.3	29.7	13.9	6.4	0.5	7.0	3.2	8.8	(9,320) 100.0
성별										
남성	9.0	14.6	35.8	21.0	6.9	0.2	2.6	0.5	9.4	(3,920) 100.0
여성	21.5	14.0	25.3	8.7	6.0	0.7	10.1	5.2	8.4	(5,400) 100.0
연령										
만19~29세	10.5	16.8	31.6	15.3	6.3	0.0	6.2	3.6	9.7	(318) 100.0
만30~39세	12.1	16.4	39.2	11.6	5.0	0.5	5.6	3.5	6.1	(1,908) 100.0
만40~49세	16.7	14.4	31.6	13.2	5.8	0.4	7.4	3.2	7.3	(3,369) 100.0
만50~59세	18.4	12.8	23.0	15.6	7.6	0.6	7.3	3.1	11.6	(3,724) 100.0
거주지 1										
수도권	17.3	15.6	32.3	13.0	6.5	0.1	5.7	1.9	7.5	(4,831) 100.0
비수도권	15.1	12.8	27.0	14.9	6.2	0.9	8.3	4.7	10.2	(4,489) 100.0
거주지 2										
동부	16.3	14.5	30.4	13.8	6.5	0.3	6.7	3.0	8.5	(8,177) 100.0
읍면부	15.8	12.8	24.5	14.5	5.6	1.8	8.6	5.2	11.2	(1,142)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3.8	15.3	35.4	12.4	5.4	0.2	6.8	3.1	7.7	(1,606) 100.0
자녀 있음	16.9	13.9	28.7	14.2	6.6	0.5	7.0	3.3	9.0	(7,54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7.8	10.3	20.1	17.3	7.4	1.6	7.4	5.0	23.0	(465) 100.0
300~500만 원 미만	12.1	10.7	25.8	16.2	7.3	0.7	8.8	4.2	14.1	(1,965) 100.0
500~700만 원 미만	15.8	12.6	29.8	14.5	6.7	0.6	7.8	3.6	8.6	(3,238) 100.0
700만 원 이상	20.1	18.3	33.5	11.5	5.3	0.1	5.0	2.1	4.1	(3,504) 100.0
무응답	17.0	14.0	20.5	17.9	7.8	1.2	8.5	2.7	10.3	(148)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기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숙련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39〉 배우자 현재 회사/조직(사업 또는 농어업 활동 포함)의 속성
(취업 배우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민간회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공공 협력조직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관	기타	전체	
전체	78.1	16.8	3.1	1.9	0.1	(9,320)	100.0
성별							
남성	72.5	21.5	3.5	2.5	0.1	(3,920)	100.0
여성	82.1	13.4	2.8	1.5	0.1	(5,400)	100.0
연령							
만19~29세	78.9	15.2	4.1	1.9	0.0	(318)	100.0
만30~39세	75.7	19.6	2.7	2.0	0.0	(1,908)	100.0
만40~49세	78.9	16.4	2.7	1.9	0.1	(3,369)	100.0
만50~59세	78.5	15.9	3.6	1.9	0.1	(3,724)	100.0
거주지 1							
수도권	82.1	13.5	2.6	1.8	0.1	(4,831)	100.0
비수도권	73.8	20.4	3.6	2.1	0.1	(4,489)	100.0
거주지 2							
동부	78.5	16.5	3.0	1.9	0.1	(8,177)	100.0
읍면부	74.6	19.1	4.1	2.1	0.0	(1,142)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9.6	15.4	2.5	2.5	0.0	(1,606)	100.0
자녀 있음	77.7	17.2	3.2	1.8	0.1	(7,54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82.3	10.9	2.2	4.6	0.0	(465)	100.0
300~500만 원 미만	81.7	12.4	3.1	2.7	0.2	(1,965)	100.0
500~700만 원 미만	78.7	16.4	3.3	1.6	0.0	(3,238)	100.0
700만 원 이상	75.0	20.6	3.0	1.4	0.1	(3,504)	100.0
무응답	77.0	14.7	5.8	2.5	0.0	(148)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민간회사와 기타만 응답 가능.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0〉 배우자의 현재 주된 역할 또는 일(상태)(비취업 배우자)

(단위: %, 명)

구분	가사 일 및 돌봄	학업 또는 교육 수강	군인 또는 군입대 대기	무직	기타	전체	
전체	77.3	11.8	-	10.8	0.1	(2,630)	100.0
성별							
남성	95.3	1.6	-	3.0	0.0	(2,083)	100.0
여성	8.5	50.5	-	40.5	0.5	(546)	100.0
연령							
만19~29세	51.9	33.0	-	15.1	0.0	(37)	100.0
만30~39세	86.4	8.3	-	5.3	0.0	(369)	100.0
만40~49세	86.5	9.0	-	4.5	0.0	(877)	100.0
만50~59세	69.5	14.0	-	16.3	0.2	(1,347)	100.0
거주지 1							
수도권	78.2	11.1	-	10.7	0.0	(1,319)	100.0
비수도권	76.3	12.5	-	11.0	0.2	(1,310)	100.0
거주지 2							
동부	77.4	11.5	-	11.0	0.1	(2,329)	100.0
읍면부	76.4	14.3	-	9.4	0.0	(3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65.7	20.8	-	13.2	0.3	(292)	100.0
자녀 있음	78.9	10.7	-	10.3	0.1	(2,29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2.3	15.3	-	21.9	0.6	(283)	100.0
300~500만 원 미만	79.5	10.9	-	9.6	0.0	(913)	100.0
500~700만 원 미만	78.3	12.3	-	9.2	0.1	(820)	100.0
700만 원 이상	81.4	10.1	-	8.5	0.0	(565)	100.0
무응답	58.1	18.7	-	23.2	0.0	(49)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44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부표 41〉 배우자의 최근 3년 이내 수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경험 및 일과 생활 병행의 어려움과 일 종료의 관련성(비취업 배우자)

(단위: %, 명)

구분	3개월 이상 일한 경험	일과 생활 병행의 어려움이 일 종료에 미친 영향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32.9	39.2	23.6	25.2	12.1	(2,630) 100.0
성별						
남성	24.5	23.0	25.4	34.2	17.4	(2,083) 100.0
여성	65.0	62.4	20.9	12.3	4.4	(546) 100.0
연령						
만19~29세	66.5	29.3	30.8	29.3	10.5	(37) 100.0
만30~39세	39.3	22.0	17.7	29.7	30.5	(369) 100.0
만40~49세	28.6	33.0	22.8	31.1	13.1	(877) 100.0
만50~59세	33.0	48.8	25.5	20.1	5.6	(1,347) 100.0
거주지 1						
수도권	31.7	35.3	26.4	25.6	12.6	(1,319) 100.0
비수도권	34.1	42.8	20.9	24.7	11.6	(1,310) 100.0
거주지 2						
동부	32.8	38.7	24.2	24.7	12.4	(2,329) 100.0
읍면부	33.3	42.5	18.7	29.0	9.8	(3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0.2	52.0	23.9	16.4	7.7	(292) 100.0
자녀 있음	30.9	36.7	23.2	26.9	13.2	(2,29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8.5	44.3	32.7	15.8	7.2	(283) 100.0
300~500만 원 미만	32.6	31.6	19.4	28.1	20.9	(913) 100.0
500~700만 원 미만	33.4	43.1	24.1	23.9	8.9	(820) 100.0
700만 원 이상	29.3	40.9	26.6	26.8	5.7	(565) 100.0
무응답	40.7	55.7	3.4	37.4	3.5	(49)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2〉 휴(무)일 현황(취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토·일	평일 (월~금)	휴(무)일 있지만 불규칙 (자유로움)	없음	전체	
전체	82.2	1.5	14.7	1.6	(17,510)	100.0
성별						
남성	81.1	1.4	15.6	1.9	(9,636)	100.0
여성	83.7	1.6	13.5	1.2	(7,874)	100.0
연령						
만19~29세	75.7	3.8	18.9	1.6	(3,656)	100.0
만30~39세	84.7	1.2	12.9	1.1	(4,103)	100.0
만40~49세	85.0	0.9	12.9	1.3	(4,863)	100.0
만50~59세	82.3	0.7	14.7	2.3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83.7	1.3	13.6	1.4	(9,435)	100.0
비수도권	80.6	1.7	15.9	1.8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82.4	1.6	14.5	1.5	(15,518)	100.0
읍면부	80.9	1.2	16.0	2.0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76.9	1.6	19.1	2.4	(2,367)	100.0
대졸	82.2	1.6	14.6	1.5	(13,138)	100.0
대학원졸	88.5	0.7	9.8	0.9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78.7	2.5	17.2	1.6	(7,107)	100.0
기혼	84.7	0.8	12.9	1.6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8.9	2.5	16.9	1.6	(5,555)	100.0
자녀 있음	85.6	0.7	12.2	1.6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69.8	5.8	21.3	3.0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82.8	0.9	14.7	1.5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83.1	1.1	14.7	1.1	(3,954)	100.0
400만 원 이상	87.1	0.4	11.2	1.3	(5,593)	100.0
무응답	72.6	3.3	21.8	2.3	(42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75.4	3.0	19.2	2.4	(2,657)	100.0
300~500만 원 미만	80.5	1.8	15.8	1.9	(4,457)	100.0
500~700만 원 미만	83.8	1.2	13.9	1.1	(5,049)	100.0
700만 원 이상	86.6	0.7	11.4	1.3	(4,971)	100.0
무응답	72.9	3.1	21.9	2.2	(37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3> '월' 기준 근로 현황(상용근로자/주된 일자리)

(단위: 일, 명)

구분	평균 근로일수		평일 연장근로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일	N	일	N	일	N	일	N	일	N
전체	21	(13,392)	7	(5,666)	5	(2,232)	2	(2,508)	2	(3,465)
성별										
남성	21	(7,601)	7	(3,648)	6	(1,611)	2	(1,698)	2	(2,280)
여성	21	(5,791)	6	(2,018)	4	(621)	1	(810)	2	(1,184)
연령										
만19~29세	21	(2,510)	7	(1,163)	6	(482)	2	(515)	2	(679)
만30~39세	21	(3,484)	7	(1,662)	5	(566)	2	(611)	2	(902)
만40~49세	21	(3,864)	7	(1,539)	5	(593)	1	(672)	2	(970)
만50~59세	22	(3,534)	7	(1,301)	5	(592)	2	(710)	2	(913)
거주지 1										
수도권	21	(7,318)	7	(3,169)	5	(1,143)	1	(1,225)	2	(1,688)
비수도권	22	(6,074)	7	(2,497)	6	(1,089)	2	(1,282)	2	(1,777)
거주지 2										
동부	21	(11,914)	7	(5,070)	5	(1,982)	2	(2,197)	2	(3,045)
읍면부	22	(1,478)	8	(596)	6	(250)	1	(311)	2	(420)
학력										
고졸 이하	22	(1,556)	7	(563)	7	(314)	2	(369)	2	(480)
대졸	21	(10,180)	7	(4,337)	5	(1,646)	2	(1,853)	2	(2,592)
대학원졸	21	(1,655)	7	(766)	4	(272)	1	(285)	2	(393)
혼인상태										
미혼	21	(5,198)	7	(2,381)	6	(886)	2	(997)	2	(1,342)
기혼	21	(8,193)	7	(3,285)	5	(1,346)	1	(1,510)	2	(2,122)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1	(4,079)	7	(1,799)	5	(631)	2	(743)	2	(1,022)
자녀 있음	21	(6,594)	7	(2,614)	5	(1,084)	1	(1,238)	2	(1,722)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1	(961)	6	(273)	5	(126)	1	(171)	2	(195)
200~300만 원 미만	21	(4,158)	6	(1,534)	6	(556)	2	(681)	2	(1,011)
300~400만 원 미만	22	(3,334)	7	(1,503)	6	(634)	1	(704)	2	(975)
400만 원 이상	21	(4,748)	7	(2,262)	5	(872)	1	(896)	2	(1,222)
무응답	21	(190)	6	(93)	5	(44)	2	(56)	2	(6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1	(1,792)	7	(703)	6	(282)	2	(345)	2	(454)
300~500만 원 미만	22	(3,361)	7	(1,470)	6	(624)	2	(683)	2	(951)
500~700만 원 미만	21	(3,946)	7	(1,622)	5	(611)	1	(731)	2	(1,042)
700만 원 이상	21	(4,097)	7	(1,776)	5	(667)	1	(691)	2	(953)
무응답	21	(195)	6	(95)	5	(48)	2	(58)	2	(64)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각 항목별로 하지 않는 경우(예: 평일 연장근로 하지 않음)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4) '월' 기준 근로 현황(임시근로자/주된 일자리)

(단위: 일, 명)

구분	평균 근로일수		평일 연장근로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일	N	일	N	일	N	일	N	일	N
전체	20	(1,667)	6	(429)	7	(271)	1	(336)	2	(343)
성별										
남성	20	(683)	6	(206)	7	(153)	2	(167)	2	(176)
여성	20	(983)	6	(223)	6	(118)	1	(168)	3	(167)
연령										
만19~29세	19	(669)	5	(167)	7	(129)	1	(159)	3	(146)
만30~39세	21	(224)	7	(78)	7	(42)	2	(43)	2	(52)
만40~49세	20	(352)	6	(87)	7	(42)	1	(61)	2	(64)
만50~59세	21	(422)	5	(97)	5	(59)	2	(74)	2	(81)
거주지 1										
수도권	20	(872)	6	(216)	6	(136)	1	(159)	3	(159)
비수도권	20	(795)	5	(213)	7	(136)	2	(177)	2	(184)
거주지 2										
동부	20	(1,487)	6	(390)	6	(242)	1	(287)	2	(307)
읍면부	21	(180)	6	(39)	7	(29)	2	(48)	3	(37)
학력										
고졸 이하	21	(271)	7	(85)	7	(53)	1	(58)	2	(56)
대졸	20	(1,247)	6	(305)	6	(194)	1	(260)	3	(261)
대학원졸	20	(149)	5	(39)	7	(24)	2	(18)	2	(27)
혼인상태										
미혼	19	(954)	6	(257)	7	(175)	1	(220)	3	(216)
기혼	21	(712)	6	(172)	6	(97)	2	(116)	2	(127)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9	(699)	6	(189)	7	(128)	1	(171)	3	(165)
자녀 있음	21	(581)	6	(129)	5	(71)	2	(91)	2	(92)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19	(772)	5	(147)	6	(103)	1	(154)	3	(128)
200~300만 원 미만	21	(521)	6	(163)	8	(87)	2	(95)	2	(118)
300~400만 원 미만	21	(198)	7	(71)	6	(46)	1	(52)	2	(56)
400만 원 이상	21	(150)	6	(44)	6	(33)	2	(29)	2	(35)
무응답	21	(26)	5	(4)	10	(2)	2	(6)	3	(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9	(439)	5	(122)	6	(66)	1	(84)	2	(90)
300~500만 원 미만	20	(451)	5	(123)	6	(70)	1	(93)	3	(99)
500~700만 원 미만	20	(482)	7	(116)	7	(85)	1	(94)	2	(86)
700만 원 이상	20	(269)	5	(64)	8	(49)	2	(59)	2	(62)
무응답	21	(25)	5	(4)	10	(2)	2	(6)	3	(6)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각 항목별로 하지 않는 경우(예: 평일 연장근로 하지 않음)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5> '월' 기준 근로 현황(일용근로자/주된 일자리)

(단위: 일, 명)

구분	평균 근로일수		평일 연장근로		밤 근무		일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일	N	일	N	일	N	일	N	일	N
전체	18	(804)	6	(241)	6	(164)	2	(180)	2	(191)
성별										
남성	19	(447)	7	(145)	7	(100)	2	(107)	2	(108)
여성	18	(357)	5	(96)	5	(64)	2	(73)	2	(83)
연령										
만19~29세	17	(303)	6	(101)	6	(63)	1	(72)	3	(59)
만30~39세	19	(140)	7	(39)	7	(29)	1	(28)	2	(34)
만40~49세	19	(164)	7	(47)	7	(30)	2	(35)	3	(40)
만50~59세	20	(197)	6	(54)	6	(42)	2	(45)	2	(58)
거주지 1										
수도권	18	(444)	6	(140)	6	(93)	2	(112)	2	(115)
비수도권	19	(360)	7	(101)	6	(71)	2	(69)	2	(76)
거주지 2										
동부	18	(696)	6	(205)	6	(144)	2	(157)	2	(168)
읍면부	19	(108)	7	(36)	6	(20)	2	(24)	2	(22)
학력										
고졸 이하	20	(222)	6	(64)	7	(42)	2	(41)	2	(54)
대졸	18	(544)	7	(168)	6	(113)	2	(130)	2	(131)
대학원졸	18	(37)	4	(9)	10	(9)	2	(9)	3	(6)
혼인상태										
미혼	18	(460)	7	(144)	7	(90)	2	(101)	3	(105)
기혼	19	(344)	6	(97)	5	(74)	1	(80)	2	(8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8	(337)	7	(111)	7	(69)	2	(77)	3	(77)
자녀 있음	19	(242)	5	(62)	5	(47)	1	(51)	2	(58)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16	(363)	5	(90)	5	(61)	2	(70)	2	(65)
200~300만 원 미만	19	(221)	7	(72)	8	(54)	1	(59)	2	(59)
300~400만 원 미만	21	(107)	6	(43)	5	(23)	2	(29)	2	(39)
400만 원 이상	21	(96)	9	(30)	7	(19)	2	(19)	3	(24)
무응답	20	(17)	3	(7)	2	(7)	2	(3)	2	(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7	(228)	6	(57)	9	(40)	2	(49)	2	(47)
300~500만 원 미만	19	(222)	7	(67)	6	(50)	2	(53)	2	(55)
500~700만 원 미만	18	(194)	6	(67)	5	(33)	1	(43)	3	(53)
700만 원 이상	19	(143)	7	(44)	5	(35)	1	(32)	2	(32)
무응답	22	(17)	3	(7)	7	(7)	2	(3)	2	(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각 항목별로 하지 않는 경우(예: 평일 연장근로 하지 않음)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6〉 '월' 기준 근로 현황(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주된 일자리)

(단위: 일, 명)

구분	평균 근로일수	
	일	N
전체	21	(1,648)
성별		
남성	22	(905)
여성	21	(743)
연령		
만19~29세	20	(174)
만30~39세	21	(255)
만40~49세	22	(483)
만50~59세	22	(736)
거주지 1		
수도권	21	(802)
비수도권	22	(846)
거주지 2		
동부	22	(1,422)
읍면부	21	(226)
학력		
고졸 이하	22	(317)
대졸	21	(1,166)
대학원졸	21	(165)
혼인상태		
미혼	21	(495)
기혼	22	(1,153)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1	(439)
자녀 있음	22	(918)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1	(261)
200~300만 원 미만	22	(277)
300~400만 원 미만	22	(316)
400만 원 이상	22	(600)
무응답	21	(19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1	(197)
300~500만 원 미만	22	(424)
500~700만 원 미만	21	(426)
700만 원 이상	21	(461)
무응답	21	(14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7〉 ‘월’ 기준 근로 현황(프리랜서/주된 일자리)

(단위: 일, 명)

구분	평균 근로일수	
	일	N
전체	21	(525)
성별		
남성	21	(294)
여성	20	(230)
연령		
만19~29세	21	(49)
만30~39세	22	(86)
만40~49세	21	(159)
만50~59세	21	(231)
거주지 1		
수도권	20	(273)
비수도권	22	(252)
거주지 2		
동부	21	(452)
읍면부	21	(73)
학력		
고졸 이하	22	(98)
대졸	20	(367)
대학원졸	22	(59)
혼인상태		
미혼	21	(183)
기혼	21	(342)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0	(142)
자녀 있음	21	(267)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1	(125)
200~300만 원 미만	21	(112)
300~400만 원 미만	21	(107)
400만 원 이상	21	(174)
무응답	22	(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1	(106)
300~500만 원 미만	21	(136)
500~700만 원 미만	21	(124)
700만 원 이상	21	(149)
무응답	20	(9)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8) 노동조합 가입 상황(상용·임시·일용 근로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없음	있으나 가입대상 안 됨	있고 가입대상 이나 미가입	가입	노동조합 유무 모름	전체	
전체	57.3	9.2	9.7	12.5	11.2	(15,862)	100.0
성별							
남성	55.5	11.1	10.4	14.1	8.8	(8,731)	100.0
여성	59.5	6.9	8.9	10.6	14.2	(7,131)	100.0
연령							
만19~29세	49.6	7.4	10.8	9.3	22.9	(3,482)	100.0
만30~39세	58.0	8.0	10.0	13.5	10.5	(3,848)	100.0
만40~49세	60.3	9.7	9.2	12.9	7.9	(4,381)	100.0
만50~59세	60.0	11.4	9.1	13.9	5.5	(4,152)	100.0
거주지 1							
수도권	58.9	9.0	9.8	10.2	12.1	(8,633)	100.0
비수도권	55.4	9.5	9.7	15.3	10.1	(7,229)	100.0
거주지 2							
동부	57.2	9.4	9.9	12.4	11.2	(14,097)	100.0
읍면부	58.3	8.3	8.6	13.5	11.3	(1,766)	100.0
학력							
고졸 이하	61.6	5.8	6.6	10.9	15.2	(2,050)	100.0
대졸	58.1	8.9	9.5	12.6	10.8	(11,971)	100.0
대학원졸	47.4	15.3	14.7	13.5	9.1	(1,841)	100.0
혼인상태							
미혼	56.0	7.6	9.3	9.7	17.4	(6,612)	100.0
기혼	58.2	10.4	10.1	14.5	6.7	(9,250)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5.5	8.1	9.4	10.8	16.1	(5,115)	100.0
자녀 있음	58.0	11.0	10.0	14.8	6.2	(7,417)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57.3	7.3	5.4	3.8	26.1	(2,096)	100.0
200~300만 원 미만	62.8	5.9	8.4	9.2	13.8	(4,901)	100.0
300~400만 원 미만	60.3	7.0	10.0	14.9	7.7	(3,639)	100.0
400만 원 이상	49.9	15.0	12.6	17.7	4.8	(4,994)	100.0
무응답	55.1	8.2	12.2	12.9	11.6	(23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0.3	5.2	9.0	7.2	18.3	(2,460)	100.0
300~500만 원 미만	59.2	8.7	8.1	11.9	12.1	(4,033)	100.0
500~700만 원 미만	59.3	8.7	9.1	12.4	10.5	(4,623)	100.0
700만 원 이상	52.3	12.5	12.1	16.0	7.1	(4,509)	100.0
무응답	52.0	9.2	13.7	12.9	12.2	(23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49〉 향후 근로 의향(비취업자)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전체	
전체	88.5	11.5	(4,490)	100.0
성별				
남성	91.5	8.5	(1,651)	100.0
여성	86.8	13.2	(2,838)	100.0
연령				
만19~29세	94.3	5.7	(1,413)	100.0
만30~39세	91.1	8.9	(700)	100.0
만40~49세	88.1	11.9	(1,014)	100.0
만50~59세	81.5	18.5	(1,363)	100.0
거주지 1				
수도권	88.8	11.2	(2,185)	100.0
비수도권	88.3	11.7	(2,305)	100.0
거주지 2				
동부	88.4	11.6	(3,940)	100.0
읍면부	89.4	10.6	(549)	100.0
학력				
고졸 이하	83.2	16.8	(1,001)	100.0
대졸	89.8	10.2	(3,238)	100.0
대학원졸	92.9	7.1	(251)	100.0
혼인상태				
미혼	92.5	7.5	(2,115)	100.0
기혼	85.0	15.0	(2,375)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91.7	8.3	(1,802)	100.0
자녀 있음	84.8	15.2	(1,961)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87.9	12.1	(2,787)	100.0
200~300만 원 미만	91.8	8.2	(624)	100.0
300~400만 원 미만	88.9	11.1	(428)	100.0
400만 원 이상	87.4	12.6	(571)	100.0
무응답	89.5	10.5	(8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87.4	12.6	(1,031)	100.0
300~500만 원 미만	89.9	10.1	(1,294)	100.0
500~700만 원 미만	87.2	12.8	(1,149)	100.0
700만 원 이상	89.3	10.7	(771)	100.0
무응답	89.7	10.3	(245)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0) 일을 한다면, 주된 이유(비취업자)

(단위: %, 명)

구분	돈 벌기	자아실현	소속감	사회활동	기타	전체	
전체	74.9	10.1	2.0	12.7	0.2	(4,490)	100.0
성별							
남성	83.0	8.0	1.5	7.3	0.2	(1,651)	100.0
여성	70.2	11.4	2.3	15.9	0.2	(2,838)	100.0
연령							
만19~29세	84.9	8.2	1.2	5.6	0.1	(1,413)	100.0
만30~39세	80.8	9.1	1.5	8.6	0.0	(700)	100.0
만40~49세	72.0	10.6	1.2	16.2	0.0	(1,014)	100.0
만50~59세	63.7	12.4	3.8	19.7	0.4	(1,363)	100.0
거주지 1							
수도권	73.7	10.9	2.0	13.2	0.3	(2,185)	100.0
비수도권	76.1	9.5	2.0	12.3	0.1	(2,305)	100.0
거주지 2							
동부	74.4	10.5	2.0	12.9	0.1	(3,940)	100.0
읍면부	78.5	7.4	2.0	11.6	0.5	(549)	100.0
학력							
고졸 이하	76.3	8.1	2.3	13.1	0.2	(1,001)	100.0
대졸	75.3	10.0	1.9	12.7	0.1	(3,238)	100.0
대학원졸	64.2	20.0	2.5	12.4	0.8	(251)	100.0
혼인상태							
미혼	85.2	7.7	1.3	5.7	0.0	(2,115)	100.0
기혼	65.8	12.3	2.7	19.0	0.3	(2,375)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82.8	7.8	1.4	7.9	0.1	(1,802)	100.0
자녀 있음	64.1	12.7	2.7	20.1	0.3	(1,961)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75.6	9.7	2.0	12.5	0.2	(2,787)	100.0
200~300만 원 미만	79.4	7.8	1.2	11.4	0.1	(624)	100.0
300~400만 원 미만	74.0	11.3	1.9	12.9	0.0	(428)	100.0
400만 원 이상	67.6	13.0	2.8	16.6	0.0	(571)	100.0
무응답	75.4	16.9	2.9	4.8	0.0	(8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83.8	8.1	1.0	6.8	0.3	(1,031)	100.0
300~500만 원 미만	78.1	8.5	2.3	11.1	0.0	(1,294)	100.0
500~700만 원 미만	70.0	12.0	2.1	15.7	0.2	(1,149)	100.0
700만 원 이상	62.5	13.3	2.5	21.4	0.3	(771)	100.0
무응답	82.7	8.9	2.6	5.8	0.0	(245)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1〉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1순위)

구분	(단위: %,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진체	
전체	53.9	6.2	23.2	5.5	3.8	0.9	0.6	1.3	0.9	1.7	0.7	1.3	(11,165)	100.0
성별														
남성	55.6	5.7	23.6	6.3	2.2	0.4	0.4	1.1	0.8	1.5	0.7	1.6	(5,448)	100.0
여성	52.3	6.7	22.8	4.7	5.4	1.5	0.8	1.4	0.9	1.9	0.6	1.0	(5,717)	100.0
연령														
민19~29세	11.6	12.8	34.7	9.5	0.6	0.5	0.0	6.9	2.8	11.9	3.2	5.5	(1,035)	100.0
민30~39세	60.9	9.0	17.1	4.9	1.3	0.4	0.0	1.3	1.4	1.9	0.6	1.2	(2,232)	100.0
민40~49세	72.5	2.8	14.9	4.4	2.6	0.7	0.0	0.5	0.4	0.4	0.3	0.4	(4,202)	100.0
민50~59세	40.5	6.5	33.1	6.0	7.5	1.7	1.9	0.5	0.5	0.2	0.4	1.1	(3,696)	100.0
거주지 1														
수도권	54.6	5.9	23.6	5.3	3.3	1.0	0.5	1.2	0.8	1.7	0.7	1.3	(5,718)	100.0
비수도권	53.2	6.5	22.8	5.7	4.4	0.9	0.8	1.3	0.9	1.6	0.7	1.2	(5,448)	100.0
거주지 2														
동부	53.8	6.1	23.6	5.5	3.8	0.9	0.6	1.3	0.8	1.7	0.6	1.3	(9,878)	100.0
읍면부	55.3	6.9	20.4	5.7	3.8	1.3	0.7	1.5	1.1	1.3	1.1	1.1	(1,287)	100.0
학력														
고졸 이하	42.4	8.3	27.2	5.8	5.4	1.2	2.1	1.4	1.3	1.8	1.1	2.0	(1,653)	100.0
대졸	55.1	5.9	22.7	5.6	3.6	0.8	0.4	1.3	0.8	1.8	0.7	1.2	(8,194)	100.0
대학원졸	60.8	5.4	21.4	4.2	3.3	1.6	0.4	0.9	0.5	0.5	0.4	0.6	(1,318)	100.0
혼인상태														
미혼	2.0	6.2	52.3	13.8	0.4	0.2	0.1	5.5	3.9	8.0	2.6	5.1	(2,033)	100.0
기혼	65.5	6.2	16.7	3.7	4.6	1.1	0.8	0.3	0.2	0.3	0.3	0.4	(9,132)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자녀 유무													
자녀 없음	0.0	15.9	49.2	13.8	3.0	0.9	0.0	4.5	0.5	7.7	2.1	2.5	(1,950)
자녀 있음	71.8	3.2	14.8	3.1	4.3	1.0	0.7	0.3	0.2	0.1	0.2	0.3	(8,219)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47.5	6.6	23.2	5.2	4.4	1.4	1.2	2.4	1.1	3.4	1.1	2.5	(2,192)
200~300만 원 미만	43.8	9.1	26.5	7.1	3.9	1.3	0.3	1.7	1.3	2.4	0.9	1.6	(2,542)
300~400만 원 미만	55.6	6.2	23.2	5.4	3.0	0.7	0.7	1.3	0.7	1.3	0.8	1.0	(2,320)
400만 원 이상	63.9	3.7	20.9	4.6	3.9	0.6	0.5	0.4	0.4	0.4	0.2	0.4	(3,871)
무응답	43.3	11.2	26.0	6.2	3.4	0.6	0.3	0.9	2.2	3.0	0.8	2.0	(24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1.6	8.0	34.6	8.5	2.2	0.5	0.6	2.5	2.6	3.2	1.4	4.3	(1,301)
300~500만 원 미만	55.6	6.9	21.5	5.4	3.1	0.7	1.1	1.3	0.9	1.4	0.7	1.2	(2,894)
500~700만 원 미만	58.8	6.0	20.5	5.1	4.0	0.7	0.5	1.2	0.5	1.3	0.6	0.8	(3,494)
700만 원 이상	57.5	4.7	22.7	4.6	5.0	1.6	0.3	0.8	0.4	1.5	0.4	0.4	(3,231)
무응답	37.3	10.6	27.8	8.7	2.5	0.5	0.0	1.9	3.0	3.7	1.4	2.7	(245)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기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자녀 ② 배우자(파트너/에인) ③ 본인 어머니 ④ 본인 아버지 ⑤ 배우자(파트너/에인) 어머니 ⑥ 배우자(파트너/에인) 아버지 ⑦ 손자녀 ⑧ 본인 또는 배우자(파트너/에인) 형제, 자매 ⑨ 조카 ⑩ 본인 또는 배우자(파트너/에인) 조부모 ⑪ 친척 ⑫ 친구나 이웃 ⑬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2>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2순위)

구분	(단위: %,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진체	
전체	5.6	27.9	18.0	31.3	7.9	4.2	0.3	1.8	0.7	0.5	0.5	0.4	0.8	(2,863)	100.0
성별															
남성	3.7	23.1	23.3	38.2	5.1	2.9	0.3	1.1	0.1	0.5	0.6	0.5	0.5	(1,259)	100.0
여성	7.1	31.7	13.9	25.8	10.0	5.2	0.3	2.4	1.2	0.6	0.4	0.4	1.0	(1,603)	100.0
연령															
만19~29세	0.3	5.6	12.2	59.2	3.4	3.0	0.7	5.9	1.0	3.1	2.1	1.5	2.0	(233)	100.0
만30~39세	1.7	29.2	16.7	40.3	4.2	3.2	0.0	1.2	1.6	0.8	0.5	0.3	0.2	(420)	100.0
만40~49세	3.6	36.5	19.5	26.6	5.6	3.4	0.3	1.7	0.7	0.3	0.3	0.6	0.9	(1,069)	100.0
만50~59세	10.1	24.0	18.3	26.6	12.2	5.5	0.4	1.3	0.4	0.1	0.4	0.1	0.6	(1,139)	100.0
거주지 1															
수도권	4.8	27.9	18.0	32.4	7.1	3.9	0.4	2.0	0.8	0.8	0.6	0.4	0.8	(1,472)	100.0
비수도권	6.5	27.9	18.1	30.1	8.7	4.5	0.2	1.6	0.7	0.2	0.4	0.5	0.7	(1,390)	100.0
거주지 2															
동부	5.6	27.6	17.5	31.9	7.7	4.3	0.3	1.9	0.8	0.6	0.5	0.4	0.8	(2,522)	100.0
읍면부	5.8	30.6	22.1	26.4	9.2	3.3	0.2	1.1	0.4	0.2	0.4	0.2	0.2	(341)	100.0
학력															
고졸 이하	9.3	29.0	11.5	27.4	11.5	4.9	0.2	2.1	1.0	1.1	0.6	0.7	0.9	(399)	100.0
대졸	5.0	27.9	19.1	31.8	7.4	4.0	0.4	1.8	0.6	0.4	0.5	0.3	0.9	(2,097)	100.0
대학원졸	5.3	26.9	19.1	32.7	6.9	4.3	0.0	1.9	1.2	0.5	0.6	0.6	0.0	(367)	100.0
혼인상태															
미혼	0.0	0.8	15.7	70.4	0.3	1.1	0.3	4.9	2.0	1.2	1.2	0.7	1.5	(552)	100.0
기혼	7.0	34.4	18.6	21.9	9.7	4.9	0.3	1.1	0.4	0.4	0.3	0.4	0.6	(2,311)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자녀 유무														
자녀 없음	0.0	0.0	16.8	63.4	4.7	3.5	0.0	4.6	2.1	1.1	1.0	1.0	1.9	(537)
자녀 있음	7.6	38.4	18.3	18.9	9.6	4.7	0.3	1.0	0.2	0.1	0.2	0.2	0.5	(2,055)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6.6	34.5	14.3	23.1	8.1	6.0	0.1	3.3	0.7	1.1	0.9	0.7	0.6	(583)
200~300만 원 미만	5.7	23.9	16.1	34.1	9.1	3.4	0.4	2.4	1.4	0.8	0.6	1.0	1.2	(646)
300~400만 원 미만	6.8	25.4	18.9	34.1	7.7	3.7	0.0	1.0	0.6	0.3	0.6	0.1	0.9	(591)
400만 원 이상	4.4	28.0	21.3	32.5	7.0	4.0	0.4	1.1	0.4	0.1	0.2	0.1	0.6	(995)
무응답	3.6	32.5	12.3	31.0	9.4	2.8	3.4	1.2	0.0	3.8	0.0	0.0	0.0	(4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0	21.0	16.2	43.3	4.1	3.5	0.0	5.0	1.6	1.0	0.7	1.0	0.7	(299)
300~500만 원 미만	5.0	31.2	18.7	30.8	6.5	3.1	0.5	1.4	0.9	0.1	0.6	0.5	0.8	(767)
500~700만 원 미만	5.5	30.2	18.1	29.6	8.4	3.9	0.1	1.4	0.7	0.6	0.5	0.3	0.7	(862)
700만 원 이상	7.8	25.5	17.8	29.3	9.9	5.8	0.3	1.5	0.4	0.4	0.3	0.2	0.7	(874)
무응답	1.5	23.3	21.6	31.6	7.4	1.1	2.6	1.9	0.0	6.3	1.3	0.0	1.4	(61)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기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자녀
- ② 배우자(파트너/에인)
- ③ 본인 어머니
- ④ 본인 아버지
- ⑤ 배우자(파트너/에인) 어머니
- ⑥ 배우자(파트너/에인) 아버지
- ⑦ 손자녀
- ⑧ 본인 또는 배우자(파트너/에인) 형제, 자매
- ⑨ 조카
- ⑩ 본인 또는 배우자(파트너/에인) 조부모
- ⑪ 친척
- ⑫ 친구나 이웃
- ⑬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3>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3순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단위: %, 명)
	4.4	5.3	17.6	19.5	26.6	13.7	0.2	4.6	3.1	0.6	0.9	1.1	2.4	
전체	4.4	5.3	17.6	19.5	26.6	13.7	0.2	4.6	3.1	0.6	0.9	1.1	2.4	(409)
성별														
남성	5.8	3.1	14.2	24.6	26.5	15.0	0.4	4.1	1.2	0.0	0.8	1.6	2.7	(187)
여성	3.2	7.2	20.5	15.2	26.7	12.5	0.0	5.1	4.7	1.2	1.0	0.6	2.1	(221)
연령														
만19~29세	0.0	3.6	10.2	16.8	10.2	12.2	0.0	30.0	1.9	0.0	0.0	6.8	8.3	(33)
만30~39세	0.0	2.0	7.4	33.3	18.1	15.0	1.1	6.6	9.0	2.5	1.3	1.0	2.7	(65)
만40~49세	4.9	4.0	20.3	20.6	27.7	13.6	0.0	2.7	2.4	0.6	0.8	0.0	2.3	(148)
만50~59세	6.6	8.3	20.7	13.5	32.4	13.5	0.0	0.4	1.5	0.0	0.9	0.9	1.1	(163)
거주지 1														
수도권	4.4	3.7	19.4	19.5	29.4	15.2	0.0	4.2	1.6	0.0	0.0	0.8	1.8	(198)
비수도권	4.4	6.9	15.9	19.5	24.0	12.3	0.3	5.0	4.4	1.2	1.7	1.3	2.9	(211)
거주지 2														
동부	4.4	5.2	18.8	19.2	25.8	14.5	0.2	3.7	3.0	0.7	1.0	1.0	2.5	(364)
읍면부	4.3	6.4	8.3	22.2	33.7	6.8	0.0	12.0	3.5	0.0	0.0	1.4	1.4	(45)
학력														
고졸 이하	6.1	4.8	14.8	15.1	28.8	16.4	0.0	5.9	5.2	0.0	0.0	1.3	1.6	(59)
대졸	4.6	6.0	17.0	19.5	26.8	12.7	0.2	5.2	2.0	0.9	1.2	1.0	2.8	(293)
대학원졸	1.6	2.3	23.5	24.2	23.4	16.2	0.0	0.0	6.4	0.0	0.0	1.2	1.1	(56)
혼인상태														
미혼	1.8	2.2	6.3	14.9	5.2	7.1	1.4	29.3	11.2	4.8	0.0	5.4	10.5	(54)
기혼	4.8	5.8	19.3	20.2	29.9	14.7	0.0	0.9	1.8	0.0	1.0	0.4	1.2	(355)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진체
자녀 유무														
자녀 없음	0.0	0.7	9.4	17.7	21.5	10.0	0.9	19.1	8.5	2.2	1.1	0.8	8.0	(79) 100.0
자녀 있음	4.5	5.3	20.5	20.0	29.9	15.5	0.0	0.6	1.3	0.0	0.9	0.5	1.0	(296)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4.4	0.8	27.9	10.2	24.2	15.3	0.9	10.2	3.8	0.0	0.7	0.0	1.8	(85) 100.0
200~300만 원 미만	5.9	6.9	19.9	13.1	28.8	9.7	0.0	3.6	4.4	1.1	1.1	2.6	2.9	(75) 100.0
300~400만 원 미만	2.0	12.7	9.0	27.5	21.0	16.4	0.0	2.4	2.9	1.0	0.0	0.0	5.1	(83) 100.0
400만 원 이상	5.3	3.4	16.4	21.3	30.9	14.1	0.0	3.1	1.9	0.6	1.4	0.5	1.2	(157) 100.0
무응답	0.0	0.0	0.0	55.7	9.9	0.0	0.0	8.9	7.2	0.0	0.0	18.3	0.0	(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7.5	2.6	31.6	12.0	16.7	8.2	1.8	7.1	8.7	0.0	2.1	1.6	0.0	(39) 100.0
300~500만 원 미만	3.3	8.7	15.6	24.0	28.0	12.7	0.0	1.7	3.4	0.9	0.0	0.0	1.6	(90) 100.0
500~700만 원 미만	4.4	2.5	19.1	14.6	33.0	15.1	0.0	4.2	1.9	0.0	1.1	1.2	2.9	(125) 100.0
700만 원 이상	3.2	6.9	14.7	21.4	24.5	15.8	0.0	5.5	2.1	1.2	0.9	0.5	3.3	(142) 100.0
무응답	16.8	0.0	5.4	39.5	7.2	0.0	0.0	12.7	5.2	0.0	0.0	13.2	0.0	(12)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기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자녀 ② 배우자(파트너/애인) ③ 본인 어머니 ④ 본인 아버지 ⑤ 배우자(파트너/애인) 어머니 ⑥ 배우자(파트너/애인) 아버지 ⑦ 손자녀
 ⑧ 본인 또는 배우자(파트너/애인) 형제, 자매 ⑨ 조카 ⑩ 본인 또는 배우자(파트너/애인) 조부모 ⑪ 친척 ⑫ 친구나 이웃 ⑬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4〉 가장 많이 돌보는 대상의 연령

(단위: 세, 명)

구분	전체	5세 이하	6~11세 이하	12~18세 이하	19세 이상
전체	(11,165)	16.2	18.5	15.4	49.9
성별					
남성	(5,448)	19.2	20.6	14.2	46.0
여성	(5,717)	13.3	16.5	16.6	53.6
연령					
만19~29세	(1,035)	12.3	3.4	0.9	83.4
만30~39세	(2,232)	45.0	16.3	1.6	37.2
만40~49세	(4,202)	14.1	35.2	21.6	29.1
만50~59세	(3,696)	2.2	5.0	20.9	71.8
거주지 1					
수도권	(5,718)	15.6	18.7	16.1	49.5
비수도권	(5,448)	16.8	18.2	14.8	50.3
거주지 2					
동부	(9,878)	15.9	18.2	15.6	50.2
읍면부	(1,287)	18.1	20.3	14.1	47.6
학력					
고졸 이하	(1,653)	11.0	12.8	12.4	63.7
대졸	(8,194)	17.0	19.1	15.8	48.1
대학원졸	(1,318)	17.5	21.9	17.0	43.6
혼인상태					
미혼	(2,033)	3.4	2.3	1.0	93.3
기혼	(9,132)	19.0	22.1	18.7	40.2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950)	0.0	0.0	0.0	100.0
자녀 있음	(8,219)	20.9	24.2	20.4	34.5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192)	13.0	14.8	16.0	56.2
200~300만 원 미만	(2,542)	13.3	13.3	13.1	60.4
300~400만 원 미만	(2,320)	20.2	19.7	12.4	47.7
400만 원 이상	(3,871)	17.7	23.4	18.8	40.2
무응답	(241)	13.9	16.5	12.0	57.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301)	10.8	10.7	9.6	68.8
300~500만 원 미만	(2,894)	20.8	18.6	12.9	47.8
500~700만 원 미만	(3,494)	16.6	20.0	17.9	45.6
700만 원 이상	(3,231)	14.2	20.2	17.8	47.8
무응답	(245)	11.8	13.9	11.2	63.1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5) 가장 많이 돌보는 대상의 장애 또는 질병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전체	
전체	16.5	83.5	(11,165)	100.0
성별				
남성	16.2	83.8	(5,448)	100.0
여성	16.8	83.2	(5,717)	100.0
연령				
만19~29세	21.2	78.8	(1,035)	100.0
만30~39세	9.4	90.6	(2,232)	100.0
만40~49세	10.6	89.4	(4,202)	100.0
만50~59세	26.3	73.7	(3,696)	100.0
거주지 1				
수도권	15.8	84.2	(5,718)	100.0
비수도권	17.3	82.7	(5,448)	100.0
거주지 2				
동부	16.6	83.4	(9,878)	100.0
읍면부	15.6	84.4	(1,287)	100.0
학력				
고졸 이하	20.4	79.6	(1,653)	100.0
대졸	16.2	83.8	(8,194)	100.0
대학원졸	13.5	86.5	(1,318)	100.0
혼인상태				
미혼	29.0	71.0	(2,033)	100.0
기혼	13.7	86.3	(9,132)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9.5	70.5	(1,950)	100.0
자녀 있음	12.7	87.3	(8,219)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18.8	81.2	(2,192)	100.0
200~300만 원 미만	17.9	82.1	(2,542)	100.0
300~400만 원 미만	15.3	84.7	(2,320)	100.0
400만 원 이상	14.7	85.3	(3,871)	100.0
무응답	23.6	76.4	(24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5.8	74.2	(1,301)	100.0
300~500만 원 미만	14.6	85.4	(2,894)	100.0
500~700만 원 미만	14.9	85.1	(3,494)	100.0
700만 원 이상	15.8	84.2	(3,231)	100.0
무응답	23.8	76.2	(245)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6〉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단위: 점, 명)

구분	N	평균
전체	(22,000)	4.44
성별		
남성	(11,287)	4.46
여성	(10,713)	4.42
연령		
만19~29세	(5,069)	4.57
만30~39세	(4,803)	4.39
만40~49세	(5,877)	4.37
만50~59세	(6,251)	4.44
거주지 1		
수도권	(11,620)	4.43
비수도권	(10,380)	4.45
거주지 2		
동부	(19,458)	4.44
읍면부	(2,542)	4.46
학력		
고졸 이하	(3,368)	4.17
대졸	(16,376)	4.45
대학원졸	(2,257)	4.75
혼인상태		
미혼	(9,222)	4.33
기혼	(12,778)	4.52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356)	4.42
자녀 있음	(10,295)	4.51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5,144)	4.34
200~300만 원 미만	(5,802)	4.29
300~400만 원 미만	(4,382)	4.42
400만 원 이상	(6,164)	4.67
무응답	(508)	4.5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688)	4.07
300~500만 원 미만	(5,751)	4.32
500~700만 원 미만	(6,198)	4.50
700만 원 이상	(5,741)	4.74
무응답	(622)	4.32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7) 현재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나쁨	나쁜 편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전체	
전체	2.3	35.2	58.8	3.7	(22,000)	100.0
성별						
남성	2.4	32.6	60.4	4.6	(11,287)	100.0
여성	2.2	38.0	57.0	2.9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2.4	31.4	58.5	7.7	(5,069)	100.0
만30~39세	3.2	35.9	57.3	3.6	(4,803)	100.0
만40~49세	1.8	37.3	58.6	2.3	(5,877)	100.0
만50~59세	2.0	35.8	60.3	2.0	(6,251)	100.0
거주지 1						
수도권	2.3	35.2	58.9	3.6	(11,620)	100.0
비수도권	2.3	35.2	58.6	3.9	(10,380)	100.0
거주지 2						
동부	2.3	35.3	58.7	3.7	(19,458)	100.0
읍면부	2.3	34.7	59.2	3.8	(2,542)	100.0
학력						
고졸 이하	3.7	41.2	52.4	2.7	(3,368)	100.0
대졸	2.1	34.6	59.5	3.9	(16,376)	100.0
대학원졸	1.8	30.9	62.8	4.4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2.9	35.4	56.4	5.3	(9,222)	100.0
기혼	1.8	35.1	60.4	2.6	(12,77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4	34.8	57.8	5.1	(7,356)	100.0
자녀 있음	1.8	35.3	60.6	2.4	(10,29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3.7	37.4	53.8	5.1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2.2	38.9	55.7	3.2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2.0	34.9	59.4	3.6	(4,382)	100.0
400만 원 이상	1.5	30.2	65.3	3.0	(6,164)	100.0
무응답	1.5	33.8	58.9	5.8	(5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4.2	40.7	51.6	3.4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2.7	37.6	56.3	3.5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1.4	34.2	60.5	3.8	(6,198)	100.0
700만 원 이상	1.4	30.4	64.3	3.8	(5,741)	100.0
무응답	4.1	34.9	54.9	6.1	(62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8> 현재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나쁨	나쁜 편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전체	
전체	4.5	30.3	58.7	6.5	(22,000)	100.0
성별						
남성	4.3	29.4	58.8	7.5	(11,287)	100.0
여성	4.7	31.2	58.6	5.4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5.2	30.4	54.5	9.9	(5,069)	100.0
만30~39세	6.7	33.7	54.2	5.4	(4,803)	100.0
만40~49세	4.5	31.8	59.3	4.5	(5,877)	100.0
만50~59세	2.3	26.2	65.1	6.3	(6,251)	100.0
거주지 1						
수도권	4.5	30.7	58.5	6.4	(11,620)	100.0
비수도권	4.5	29.9	59.0	6.6	(10,380)	100.0
거주지 2						
동부	4.5	30.6	58.5	6.4	(19,458)	100.0
읍면부	4.4	28.1	60.2	7.3	(2,542)	100.0
학력						
고졸 이하	4.8	34.6	55.1	5.5	(3,368)	100.0
대졸	4.5	30.1	58.9	6.5	(16,376)	100.0
대학원졸	3.9	25.3	62.8	7.9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5.9	32.7	53.9	7.6	(9,222)	100.0
기혼	3.5	28.5	62.2	5.7	(12,77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9	32.0	55.4	7.7	(7,356)	100.0
자녀 있음	3.4	28.5	62.7	5.4	(10,29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5.8	31.7	54.6	7.9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5.2	33.1	56.2	5.5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4.2	30.6	58.9	6.3	(4,382)	100.0
400만 원 이상	3.1	26.3	64.5	6.1	(6,164)	100.0
무응답	3.3	30.4	58.3	8.1	(5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8	35.7	51.8	5.7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5.3	32.2	56.7	5.8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3.7	29.6	60.2	6.5	(6,198)	100.0
700만 원 이상	2.9	25.6	63.9	7.5	(5,741)	100.0
무응답	6.0	30.6	56.1	7.2	(62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59〉 지난 2주일 동안의 경험: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 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항상	전체	
전체	18.1	56.8	21.1	4.0	(22,000)	100.0
성별						
남성	18.0	56.2	22.0	3.7	(11,287)	100.0
여성	18.2	57.5	20.1	4.3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22.9	49.0	23.2	4.9	(5,069)	100.0
만30~39세	16.1	53.8	24.5	5.6	(4,803)	100.0
만40~49세	15.1	59.7	21.6	3.6	(5,877)	100.0
만50~59세	18.6	62.9	16.1	2.5	(6,251)	100.0
거주지 1						
수도권	17.8	55.9	22.0	4.3	(11,620)	100.0
비수도권	18.4	57.9	20.0	3.7	(10,380)	100.0
거주지 2						
동부	17.8	56.9	21.2	4.1	(19,458)	100.0
읍면부	20.6	56.0	19.9	3.5	(2,542)	100.0
학력						
고졸 이하	17.8	56.1	21.4	4.7	(3,368)	100.0
대졸	18.1	56.9	21.1	3.9	(16,376)	100.0
대학원졸	18.7	57.7	20.2	3.5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18.6	51.9	24.2	5.3	(9,222)	100.0
기혼	17.7	60.4	18.8	3.1	(12,77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9.1	53.5	22.6	4.8	(7,356)	100.0
자녀 있음	17.4	61.2	18.4	3.0	(10,29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1.6	53.3	20.3	4.8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17.0	55.8	22.6	4.6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15.6	58.9	21.5	4.0	(4,382)	100.0
400만 원 이상	17.8	59.5	20.0	2.7	(6,164)	100.0
무응답	19.5	55.8	20.3	4.4	(5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6.4	52.8	24.9	5.8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16.3	56.9	22.1	4.7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18.2	58.1	20.5	3.3	(6,198)	100.0
700만 원 이상	20.9	58.3	18.2	2.6	(5,741)	100.0
무응답	18.7	54.3	20.8	6.2	(62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60> 지난 2주일 동안의 경험: 별일 아닌 것에 대해서도 눈물이 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항상	전체	
전체	41.0	40.9	15.0	3.1	(22,000)	100.0
성별						
남성	46.8	37.1	13.9	2.1	(11,287)	100.0
여성	35.0	44.9	16.1	4.1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46.2	33.1	16.3	4.4	(5,069)	100.0
만30~39세	44.2	35.7	16.1	4.1	(4,803)	100.0
만40~49세	38.4	44.0	15.0	2.6	(5,877)	100.0
만50~59세	36.9	48.3	13.0	1.7	(6,251)	100.0
거주지 1						
수도권	41.1	40.6	15.1	3.2	(11,620)	100.0
비수도권	40.9	41.3	14.8	3.0	(10,380)	100.0
거주지 2						
동부	40.8	41.0	15.2	3.1	(19,458)	100.0
읍면부	43.1	40.4	13.5	3.0	(2,542)	100.0
학력						
고졸 이하	35.7	44.7	15.8	3.8	(3,368)	100.0
대졸	41.7	40.1	15.1	3.0	(16,376)	100.0
대학원졸	44.2	41.0	12.4	2.4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44.0	36.1	16.1	3.7	(9,222)	100.0
기혼	38.9	44.4	14.2	2.6	(12,77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4.6	36.1	15.4	3.9	(7,356)	100.0
자녀 있음	38.4	45.5	13.6	2.5	(10,29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42.0	38.9	15.0	4.0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38.2	42.2	15.8	3.8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41.5	40.9	14.9	2.7	(4,382)	100.0
400만 원 이상	42.8	41.3	14.1	1.8	(6,164)	100.0
무응답	37.7	41.2	17.4	3.7	(5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7.0	40.2	18.2	4.6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40.2	41.7	15.0	3.1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41.3	41.4	14.5	2.8	(6,198)	100.0
700만 원 이상	44.6	40.0	13.2	2.2	(5,741)	100.0
무응답	37.3	41.5	16.9	4.3	(62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61) 지난 2주일 동안의 경험: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항상	전체	
전체	25.1	49.4	20.7	4.9	(22,000)	100.0
성별						
남성	28.8	47.0	19.8	4.4	(11,287)	100.0
여성	21.2	51.8	21.6	5.4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27.1	40.9	24.9	7.1	(5,069)	100.0
만30~39세	24.4	45.8	23.0	6.8	(4,803)	100.0
만40~49세	23.3	52.6	20.2	3.9	(5,877)	100.0
만50~59세	25.6	55.9	15.9	2.6	(6,251)	100.0
거주지 1						
수도권	24.3	49.4	21.1	5.2	(11,620)	100.0
비수도권	25.9	49.3	20.3	4.5	(10,380)	100.0
거주지 2						
동부	24.8	49.3	20.9	5.0	(19,458)	100.0
읍면부	26.9	49.7	19.1	4.2	(2,542)	100.0
학력						
고졸 이하	23.9	49.5	21.3	5.3	(3,368)	100.0
대졸	24.9	49.0	21.1	5.0	(16,376)	100.0
대학원졸	28.4	51.4	16.9	3.3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24.5	44.8	24.0	6.7	(9,222)	100.0
기혼	25.5	52.6	18.3	3.5	(12,77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5.1	46.0	22.6	6.3	(7,356)	100.0
자녀 있음	25.4	53.6	17.6	3.4	(10,29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4.5	47.8	21.3	6.4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22.4	49.2	22.7	5.7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24.9	50.1	20.6	4.5	(4,382)	100.0
400만 원 이상	28.1	50.7	18.0	3.1	(6,164)	100.0
무응답	26.0	43.7	25.1	5.2	(5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0.5	47.4	25.2	6.8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24.4	48.4	21.8	5.3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26.0	49.7	20.0	4.3	(6,198)	100.0
700만 원 이상	28.0	51.5	17.0	3.6	(5,741)	100.0
무응답	22.8	45.9	24.8	6.4	(62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62> 지난 2주일 동안의 경험: 과수면 또는 불면증에 시달린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항상	전체	
전체	37.6	37.7	19.0	5.7	(22,000)	100.0
성별						
남성	39.2	36.8	18.9	5.0	(11,287)	100.0
여성	35.8	38.7	19.1	6.4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41.7	30.6	20.5	7.3	(5,069)	100.0
만30~39세	36.6	35.1	21.3	7.0	(4,803)	100.0
만40~49세	35.6	40.5	19.2	4.7	(5,877)	100.0
만50~59세	36.9	43.0	15.8	4.3	(6,251)	100.0
거주지 1						
수도권	36.8	38.1	19.2	5.9	(11,620)	100.0
비수도권	38.4	37.3	18.7	5.5	(10,380)	100.0
거주지 2						
동부	37.2	38.0	19.1	5.7	(19,458)	100.0
읍면부	40.3	36.1	18.0	5.6	(2,542)	100.0
학력						
고졸 이하	33.3	38.4	20.7	7.6	(3,368)	100.0
대졸	38.3	37.4	18.9	5.5	(16,376)	100.0
대학원졸	38.8	39.4	17.4	4.5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37.0	34.6	21.1	7.3	(9,222)	100.0
기혼	38.0	40.0	17.5	4.5	(12,77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9.6	34.0	19.7	6.7	(7,356)	100.0
자녀 있음	38.1	40.6	17.0	4.3	(10,29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37.5	35.7	19.7	7.0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35.9	37.8	19.5	6.7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37.3	38.3	18.8	5.5	(4,382)	100.0
400만 원 이상	39.2	39.2	17.9	3.7	(6,164)	100.0
무응답	39.0	34.8	20.2	6.1	(5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1.6	37.4	23.0	8.0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36.1	39.0	18.9	6.1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38.9	37.9	17.9	5.3	(6,198)	100.0
700만 원 이상	41.6	36.8	17.5	4.1	(5,741)	100.0
무응답	35.6	36.1	21.4	6.9	(62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63) 지난 2주일 동안의 경험: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항상	전체	
전체	67.5	22.9	7.5	2.2	(22,000)	100.0
성별						
남성	66.2	22.6	9.0	2.2	(11,287)	100.0
여성	68.8	23.3	5.8	2.2	(10,713)	100.0
연령						
만19~29세	63.6	22.8	10.6	3.0	(5,069)	100.0
만30~39세	63.7	24.7	8.6	2.9	(4,803)	100.0
만40~49세	67.6	23.5	7.2	1.8	(5,877)	100.0
만50~59세	73.3	21.0	4.3	1.4	(6,251)	100.0
거주지 1						
수도권	67.2	23.2	7.4	2.2	(11,620)	100.0
비수도권	67.7	22.6	7.6	2.1	(10,380)	100.0
거주지 2						
동부	67.5	22.8	7.5	2.2	(19,458)	100.0
읍면부	67.2	23.7	6.9	2.2	(2,542)	100.0
학력						
고졸 이하	63.0	26.3	7.6	3.0	(3,368)	100.0
대졸	67.7	22.6	7.6	2.1	(16,376)	100.0
대학원졸	72.4	19.9	6.0	1.7	(2,257)	100.0
혼인상태						
미혼	63.1	24.5	9.4	3.0	(9,222)	100.0
기혼	70.6	21.8	6.1	1.6	(12,778)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65.5	24.0	7.9	2.7	(7,356)	100.0
자녀 있음	71.7	21.0	5.7	1.6	(10,29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66.6	23.5	6.9	2.9	(5,144)	100.0
200~300만 원 미만	65.3	24.7	7.7	2.4	(5,802)	100.0
300~400만 원 미만	67.5	23.1	7.4	2.0	(4,382)	100.0
400만 원 이상	70.6	20.5	7.4	1.5	(6,164)	100.0
무응답	61.8	24.1	11.4	2.8	(5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9.3	27.8	9.7	3.3	(3,688)	100.0
300~500만 원 미만	65.6	24.2	7.6	2.7	(5,751)	100.0
500~700만 원 미만	69.4	21.7	7.0	1.9	(6,198)	100.0
700만 원 이상	73.2	19.7	6.0	1.1	(5,741)	100.0
무응답	60.7	24.5	11.3	3.5	(622)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70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부표 64) 일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취업자/주된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전체	
	긍정적	부정적	미치지 않음	긍정적	부정적	미치지 않음		
전체	39.6	38.2	22.2	37.0	41.6	21.5	(17,510)	100.0
성별								
남성	39.9	36.8	23.3	37.0	40.6	22.4	(9,636)	100.0
여성	39.3	39.9	20.8	36.9	42.8	20.3	(7,874)	100.0
연령								
만19~29세	33.3	43.8	22.8	30.2	45.9	23.9	(3,656)	100.0
만30~39세	33.7	45.5	20.8	30.3	50.4	19.3	(4,103)	100.0
만40~49세	40.6	37.7	21.7	37.8	42.2	20.0	(4,863)	100.0
만50~59세	48.4	28.3	23.3	46.9	30.3	22.8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38.8	38.5	22.8	36.0	42.6	21.5	(9,435)	100.0
비수도권	40.6	37.9	21.5	38.2	40.4	21.4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39.4	38.6	22.0	36.6	42.2	21.2	(15,518)	100.0
읍면부	41.8	34.7	23.5	39.7	36.6	23.7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38.1	36.9	25.0	34.6	38.9	26.5	(2,367)	100.0
대졸	39.3	38.7	22.1	36.5	42.4	21.1	(13,138)	100.0
대학원졸	43.9	36.4	19.7	43.0	39.0	17.9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32.8	44.3	22.9	29.5	47.5	22.9	(7,107)	100.0
기혼	44.3	34.0	21.7	42.1	37.5	20.4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3.3	42.9	23.8	30.8	46.4	22.9	(5,555)	100.0
자녀 있음	45.9	32.8	21.3	43.6	36.1	20.3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39.4	35.5	25.1	38.5	34.3	27.2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34.5	42.6	22.9	32.0	45.8	22.2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40.3	38.9	20.8	35.4	43.8	20.8	(3,954)	100.0
400만 원 이상	43.5	35.0	21.5	41.5	39.5	19.1	(5,593)	100.0
무응답	46.8	34.3	18.9	44.9	36.9	18.2	(42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1.8	45.0	23.2	29.8	47.5	22.8	(2,657)	100.0
300~500만 원 미만	38.5	40.2	21.3	34.9	42.9	22.2	(4,457)	100.0
500~700만 원 미만	41.7	35.9	22.4	38.8	39.7	21.5	(5,049)	100.0
700만 원 이상	42.2	35.3	22.5	40.3	39.4	20.2	(4,971)	100.0
무응답	45.3	35.0	19.6	44.0	36.9	19.1	(37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65〉 지난 1년 동안 쉬어야 할 정도로 아픔에도 일한 경험(취업자)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해당없음 (아프지 않음)	전체	
전체	28.7	47.1	24.3	(17,510)	100.0
성별					
남성	25.6	49.2	25.2	(9,636)	100.0
여성	32.5	44.5	23.1	(7,874)	100.0
연령					
만19~29세	25.9	40.2	33.8	(3,656)	100.0
만30~39세	29.5	44.4	26.1	(4,103)	100.0
만40~49세	30.6	48.5	20.9	(4,863)	100.0
만50~59세	28.1	53.0	18.9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29.1	46.8	24.1	(9,435)	100.0
비수도권	28.2	47.3	24.5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28.7	47.0	24.3	(15,518)	100.0
읍면부	28.6	47.5	23.9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32.9	45.6	21.5	(2,367)	100.0
대졸	28.1	47.1	24.8	(13,138)	100.0
대학원졸	27.5	48.8	23.7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28.1	42.1	29.7	(7,107)	100.0
기혼	29.0	50.4	20.5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8.4	43.3	28.3	(5,555)	100.0
자녀 있음	29.0	51.0	19.9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5.6	45.8	28.6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30.7	43.7	25.6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30.5	46.6	22.9	(3,954)	100.0
400만 원 이상	26.6	51.1	22.3	(5,593)	100.0
무응답	31.6	46.2	22.3	(42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0.9	42.0	27.1	(2,657)	100.0
300~500만 원 미만	29.9	46.1	24.1	(4,457)	100.0
500~700만 원 미만	27.7	48.5	23.8	(5,049)	100.0
700만 원 이상	27.0	49.4	23.6	(4,971)	100.0
무응답	34.0	44.8	21.2	(377)	10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7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부표 66〉 지난 1년 동안 쉬어야 할 정도로 아픈에도 일한 주된 이유(취업자) (단위: %, 명)

구분	일함	주된 이유				전체	
		①	②	③	④		
전체	28.7	40.7	42.1	15.6	1.7	(17,510)	100.0
성별							
남성	25.6	47.0	41.0	11.3	0.8	(9,636)	100.0
여성	32.5	34.5	43.1	19.7	2.6	(7,874)	100.0
연령							
만19~29세	25.9	40.1	37.3	20.4	2.3	(3,656)	100.0
만30~39세	29.5	37.0	45.6	15.8	1.6	(4,103)	100.0
만40~49세	30.6	39.2	43.9	15.2	1.7	(4,863)	100.0
만50~59세	28.1	45.9	40.3	12.4	1.4	(4,888)	100.0
거주지 1							
수도권	29.1	41.2	42.5	14.5	1.9	(9,435)	100.0
비수도권	28.2	40.0	41.5	17.0	1.5	(8,075)	100.0
거주지 2							
동부	28.7	40.7	42.0	15.5	1.8	(15,518)	100.0
읍면부	28.6	40.6	42.5	15.9	1.0	(1,992)	100.0
학력							
고졸 이하	32.9	55.3	30.4	12.5	1.8	(2,367)	100.0
대졸	28.1	39.1	42.4	16.8	1.7	(13,138)	100.0
대학원졸	27.5	30.0	56.6	11.6	1.9	(2,006)	100.0
혼인상태							
미혼	28.1	39.5	41.1	17.3	2.0	(7,107)	100.0
기혼	29.0	41.4	42.7	14.4	1.5	(10,4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8.4	35.4	42.3	19.7	2.6	(5,555)	100.0
자녀 있음	29.0	43.3	41.6	13.9	1.2	(8,335)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25.6	55.3	26.5	15.8	2.5	(2,357)	100.0
200~300만 원 미만	30.7	40.0	38.3	18.8	3.0	(5,178)	100.0
300~400만 원 미만	30.5	38.0	45.1	15.9	1.0	(3,954)	100.0
400만 원 이상	26.6	36.9	50.0	12.4	0.7	(5,593)	100.0
무응답	31.6	47.8	42.2	9.6	0.4	(42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0.9	49.6	34.4	14.7	1.3	(2,657)	100.0
300~500만 원 미만	29.9	44.6	39.6	14.4	1.4	(4,457)	100.0
500~700만 원 미만	27.7	40.7	39.8	17.7	1.8	(5,049)	100.0
700만 원 이상	27.0	30.5	51.6	15.7	2.2	(4,971)	100.0
무응답	34.0	47.9	42.3	9.4	0.4	(377)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기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 ① 돈을 벌어야 해서 ② 회사나 사업장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③ 휴가나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눈치보느라 ④ 기타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67〉 임신·출산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임신부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구분	임산부 시간외 근로 금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임신 중 근로 전환		임산부 위험·유해직종 근무 금지		수유시간 허용		전체							
	전혀 모를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전혀 모를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전혀 모를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전혀 모를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전혀 모를 적 있음	잘 알고 있음								
전체	51.9	35.3	12.9	51.7	33.4	14.8	56.1	32.2	11.7	54.7	32.3	12.9	58.1	30.6	11.3	(15,862)	100.0	
성별																		
남성	50.0	37.4	12.5	50.1	35.2	14.8	54.8	32.9	12.3	52.5	34.0	13.5	54.9	32.8	12.3	(8,731)	100.0	
여성	54.1	32.6	13.3	53.8	31.3	14.9	57.6	31.4	11.0	57.5	30.3	12.2	61.9	27.9	10.1	(7,131)	100.0	
연령																		
만19~29세	61.5	29.4	9.2	60.1	28.0	11.9	62.0	28.0	10.0	60.3	28.5	11.2	68.8	22.6	8.6	(3,482)	100.0	
만30~39세	54.4	32.0	13.6	53.5	30.8	15.6	60.0	28.5	11.5	59.1	27.3	13.6	67.6	23.2	9.2	(3,848)	100.0	
만40~49세	50.1	36.6	13.2	50.8	34.7	14.5	54.9	33.6	11.5	54.2	34.3	11.5	56.6	32.5	10.9	(4,381)	100.0	
만50~59세	43.3	41.7	14.9	44.0	39.1	16.8	48.7	37.7	13.6	46.5	38.2	15.3	41.7	42.1	16.1	(4,152)	100.0	
거주지 1																		
수도권	53.2	33.9	12.8	52.9	32.4	14.7	58.5	30.6	10.9	57.0	30.7	12.4	60.6	28.6	10.8	(8,633)	100.0	
비수도권	50.2	36.9	12.9	50.4	34.6	15.0	53.1	34.1	12.8	52.0	34.3	13.6	55.0	33.0	12.0	(7,229)	100.0	
거주지 2																		
동부	52.1	34.9	13.0	51.9	33.2	14.9	56.4	31.9	11.7	54.9	32.2	12.9	58.2	30.4	11.4	(14,097)	100.0	
음면부	49.7	38.4	11.9	50.6	35.3	14.1	53.3	34.4	12.3	53.5	33.3	13.1	56.9	32.1	11.0	(1,766)	100.0	
출입상태																		
미혼	60.9	30.0	9.0	60.2	28.8	11.1	63.6	27.5	8.9	62.5	27.3	10.2	68.8	23.3	7.8	(6,612)	100.0	
기혼	45.4	39.0	15.6	45.7	36.8	17.5	50.7	35.5	13.7	49.2	35.9	14.9	50.4	35.8	13.8	(9,250)	100.0	
앞말이 여부																		
맞말이	44.8	39.4	15.8	45.2	37.3	17.5	49.9	36.6	13.5	49.0	36.3	14.7	50.6	36.1	13.3	(6,751)	100.0	
비맞말이	45.6	38.8	15.6	45.9	35.9	18.3	51.7	33.2	15.0	48.5	35.4	16.1	49.2	34.5	16.3	(1,925)	100.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7.4	32.5	10.2	56.7	31.5	11.8	61.2	29.5	9.4	60.5	28.9	10.6	66.2	25.2	8.6	(5,115)	100.0	
자녀 있음	43.9	39.9	16.2	44.5	37.3	18.3	49.1	36.3	14.6	47.5	36.8	15.6	48.0	37.1	14.9	(7,417)	100.0	

(단위: %, 명)

구분	임신부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부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임신 중 근로 전환		임신부 위험 유해직종 근무 금지		수유시간 허용		전체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종사자/의 상용근로자	50.7	35.4	13.9	50.8	33.4	15.8	55.6	32.1	12.3	57.5	30.6	11.9	(13,392)	100.0
임시·일용근로자	58.2	34.4	7.5	56.8	33.5	9.7	58.8	32.7	8.5	61.1	30.4	8.5	(2,471)	100.0
직종														
관리자·전문가	48.7	37.1	14.2	48.4	35.1	16.5	52.8	33.6	13.7	53.2	33.0	13.8	(4,117)	100.0
사무종사자	50.8	35.0	14.1	50.8	33.5	15.7	57.0	31.5	11.5	59.3	30.0	10.8	(6,794)	100.0
판매·서비스종사자	54.0	34.8	11.2	54.5	31.9	13.5	55.7	32.8	11.4	60.0	29.2	10.7	(2,652)	100.0
기타	58.0	33.2	8.8	57.3	32.0	10.7	59.7	31.0	9.3	60.9	29.8	9.3	(2,299)	100.0
산업														
제조업	52.5	35.5	12.0	53.0	33.2	13.9	57.8	31.4	10.9	56.2	31.7	12.1	(3,166)	100.0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54.7	35.0	10.3	55.0	32.1	12.9	58.7	30.6	10.6	57.8	30.4	11.8	(2,397)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50.2	35.1	14.7	49.4	34.3	16.2	53.4	33.8	12.8	52.0	34.1	13.9	(3,630)	100.0
그 외 서비스업	54.4	34.5	11.1	54.5	32.6	12.9	56.3	32.6	11.1	55.7	32.9	11.4	(2,315)	100.0
기타	49.8	35.7	14.4	49.5	34.1	16.4	55.5	32.1	12.4	55.3	31.8	12.8	(4,354)	100.0
조직 규모														
5인 미만	59.9	32.4	7.7	59.8	31.0	9.2	59.3	32.6	8.1	58.9	32.2	8.9	(2,052)	100.0
5~30인 미만	57.0	33.1	9.9	56.2	32.3	11.6	59.2	30.9	9.9	59.1	30.3	10.6	(5,105)	100.0
30~100인 미만	51.6	34.5	13.8	51.9	33.4	14.7	56.6	31.8	11.6	54.9	32.2	12.9	(3,435)	100.0
100~300인 미만	49.0	37.0	14.0	50.0	33.0	17.0	54.2	32.5	13.3	51.3	33.7	15.0	(2,050)	100.0
300인 이상	40.7	40.2	19.1	40.5	37.2	22.3	49.8	34.2	16.0	47.1	35.0	18.0	(3,220)	100.0
조직 영역														
민간 및 기타	54.2	34.0	11.8	54.2	32.2	13.6	58.0	31.2	10.8	57.2	30.9	11.9	(12,388)	100.0
정부·공공기관 및 협력	43.6	39.6	16.9	42.9	37.8	19.2	49.3	35.8	14.9	46.1	37.3	16.6	(3,474)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49.8	35.9	14.3	49.9	33.8	16.3	55.0	32.3	12.6	53.6	32.5	13.9	(12,053)	100.0
비정규직	58.8	31.3	9.9	58.8	30.0	11.1	60.3	30.4	9.3	59.8	29.8	10.4	(1,339)	100.0

구분	임신부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부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임신 중 근로 전환		임신부 위험 유해직종 근무 금지		수유시간 허용		전체						
	전혀 들어본 적이 있음	잘 알고 있음	전혀 들어본 적이 있음	잘 알고 있음	전혀 들어본 적이 있음	잘 알고 있음	전혀 들어본 적이 있음	잘 알고 있음	전혀 들어본 적이 있음	잘 알고 있음							
시간제 여부																	
시간제 근무	54.3	36.8	8.8	54.0	35.9	10.2	54.9	34.8	10.2	53.6	36.0	10.4	57.4	32.7	9.9	(2,902)	100.0
전일제 근무	51.3	34.9	13.8	51.2	32.9	15.9	56.3	31.6	12.1	55.0	31.5	13.5	58.2	30.1	11.6	(12,961)	100.0
교대제 여부																	
교대제 근무	47.0	39.7	13.3	45.0	37.2	17.8	47.6	37.9	14.6	46.2	37.6	16.2	52.8	34.7	12.5	(1,955)	100.0
교대제 이념	52.6	34.6	12.8	52.7	32.9	14.4	57.3	31.4	11.3	55.9	31.6	12.5	58.8	30.0	11.2	(13,907)	100.0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 미만	61.7	31.2	7.1	60.4	30.7	8.9	61.5	30.7	7.8	60.4	30.0	9.6	64.7	26.9	8.4	(2,096)	100.0
200~300만 원 미만	58.2	31.1	10.7	57.8	30.2	12.0	60.7	29.5	9.9	60.1	29.0	10.9	64.6	26.5	8.8	(4,901)	100.0
300~400만 원 미만	52.1	35.1	12.7	52.0	33.0	15.0	56.2	32.7	11.1	55.3	32.6	12.1	59.1	30.8	10.1	(3,639)	100.0
400만 원 이상	41.4	41.0	17.6	42.0	38.1	20.0	49.4	35.0	15.6	46.8	36.3	16.9	48.2	35.9	15.9	(4,994)	100.0
무응답	50.4	37.4	12.1	49.7	35.2	15.1	51.2	34.2	14.7	49.1	36.1	14.8	55.7	32.4	11.8	(233)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우연근무제도 사용 경험은 우연근무제도 사용 경험 질문에서 어떤 제도도 사용한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없음', 한 가지라도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있음'에 해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